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좌동훈

공동연구원 이민영

N

Y

P

I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 책임연구원 : 좌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 교수)
- ▶ 위촉연구원 : 지소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 ■ ■

한국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남·북한 간에 극한 군사적 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은 서로의 화합의 길을 방해하며 남과 북의 사회·문화, 정치·경제 등 모든 생활전반에 걸쳐 큰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한의 격차는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3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체제와 삶의 방식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생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민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로가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 화합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한 국민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과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이들과 함께 하기보다 남한 사회의 지원을 통해 빨리 남한 사람으로 편입시키려는 면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남북이 서로 같은 대등한 존재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보다 어느 한쪽은 항상 부족한 대상으로 인식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함께할 대상으로서 남북한 주민 모두가 각자의 잠재성과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와 각 대상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특히, 탈북 청소년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대상으로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알아보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에 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탈북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능동적인 주체로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탈북 청소년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각종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첫째, 탈북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파악, 둘째, 탈북 청소년 대상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 분석, 셋째, 아동·청소년 지원관련 해외 사례 고찰, 넷째, 탈북 청소년의 역량 파악을 위한 면접과 FGI 및 설문 분석, 다섯째, 탈북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도출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및 행정자료를 분석하고, 탈북 청소년의 욕구 파악을 위한 2차 자료 분석과 탈북 청소년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외사례로서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법률, 제도, 예산, 기관, 프로그램 등이 청소년 관련 전반에 걸쳐 체계를 정비하였다. 미국은 난민 청소년을 위해 대상자의 강점과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탈북 청소년의 면접과 설문 조사에서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남북한 청소년 역량에 상반되거나 큰 차이를 보이기보다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은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시선 등으로 인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표현 또는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탈북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입국 초기 정확한 사정, 심리 지원 체계, 가족 지원 등의 강화와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에 동기부여를 하고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북청소년 지원체계화를 위하여 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 탈북 청소년, 역량, 지원제도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탈북 청소년에게 잠재되거나 표출되어지는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절차와 체계를 검토해보고자 함. 이는 탈북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있어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남·북 청소년이 동등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탈북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파악
- 탈북 청소년 대상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 조사
- 아동·청소년 지원관련 국외 사례 고찰
- 탈북 청소년의 역량 파악을 위한 면접과 FGI 및 역량설문 분석
- 탈북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도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탈북청소년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탈북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탈북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부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과 관련 법률, 행정자료 등을 조사함.

- 2차 자료분석: 2016년도 여성가족부와 한국DMZ학회에서 공동으로 조사·연구한 “탈북 청소년 욕구조사”에서 수집되어 활용된 자료를 기초로 탈북청소년의 욕구를 분석함.
- 질적(개별면접)조사: 탈북청소년의 역량, 강점과 지원 체계 중 도움이 된 것들에 관해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함.
- 전문가 의견조사: 탈북청소년의 역량과 관련하여 탈북청소년의 긍정적인 면을 파악하고 기존 역량 측정도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및 학계전문가, 정책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총 2회에 걸쳐 추진하여 분석함.
- 초점집단인터뷰(FGI): FGI는 2집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집단과 탈북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집단으로 주로 탈북청소년들의 지원사업 및 지원체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분석함.
- 양적조사와 결과 FGI: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역량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기존 탈북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이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려고 함.
- 전문가 자문: 연구 설계 및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안 검토 등을 목적으로 연구의 각 단계별로 현장, 학계, 정책담당자의 자문을 받고 이를 반영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각 정부부처를 통한 관련 자료를 받아 관련된 내용을 반영함.

4. 주요결과

- 문헌조사와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남·북한 체제의 차이와 경제적 수준 격차로 인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기존 연구를 통한 탈북 청소년이 각종 지원에 대한 욕구는 주로 학업, 진로, 진학 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우선적 필요하다고 고려하고 있음.
 - 각 부처별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을 통해 지원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사안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각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이에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탈북 청소년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개발과 관련된 지원 욕구가 높음. 그러나 탈북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외상에 대한 지원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함.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 개입이 가능하나,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담감과 어릴 적 외상이 서로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며, 개별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독일의 통일과정에서의 통합 지원내용과 미국에서의 난민에 대한 지원 절차와 내용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음.

- 독일에서는 통일에 맞춰 동독과 서독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어떻게 정비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이에 아동·청소년지원법 정비를 통해 예방지향적 관점으로 전환하였고, 매년 연구를 통한 동독 청소년의 통합 정책 로드맵을 구성. 연방·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효율적 업무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기관 기반 마련, 재정확보와 지원 과정 마련, 청소년 역량과 능력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동독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관련 단체 확대, 동독 상황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민주주의 청소년교육 지원, 폭력과 범죄 예방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함.
- 미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것에 따라 난민 정책을 살펴보면, 난민 청소년이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래를 담당할 것이라는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함에 따른 미국 사회에 통합되는데 초점을 둬.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관련기관 간의 연계 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청소년들이 가진 강점과 욕구,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구성함.

○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지원에 관한 개별 면접을 통해 파악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강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남한사회의 낯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준비하고자 애쓰고 있음. 탈북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관점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신뢰로서 탈북 청소년이 가진 강점은 그들의 역량의 단초로서 각 역량의 영역들을 모두 채워주는 접근보다는 청소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잘 키워주는 접근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역량의 공간(capacity space)안에서 탈북청소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 수 있도록

록 각 개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되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임.

-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지원에 관한 전문가의견조사, FGI, 역량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남한 생활 초기에 보여진 역량으로는 지적인 호기심, 위기대처관리, 도전정신, 의리, 규범을 준수하는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음. 남한 생활 과정 중에 보여진 역량으로는 변화수용력, 위기대처관리, 여가태도, 공감 및 배려, 권위에 대한 동경을 보여줌. 지원 체계에서는 심리적 지원 체계의 강화 필요, 입국 초기 개별 사정, 소통 창구의 마련,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부모-자녀 관계개선 지원, 탈북 배경에 대한 인식 개선, 지원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 관계, 초기 적응 기간의 충분성 확보 등의 지원을 원함.
 - FGI 내용으로는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는 대상 유형의 변화에 따른 지원 체계의 변화의 필요성 강조, 생활 과정에서의 불안함, 위축, 정체성 혼란을 경험을 극복이 필요성, 동기부여와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와 지원의 체계화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탈북 대학생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남한 생활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의견을 언급함.
 - 역량설문조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파악해본 결과로는 각 역량의 높은 순으로 알아보면,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능력, 사고력, 학습적응성, 생활관리역량은 상황대처, 건강관리, 과제관리,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에서는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은 관계형성, 협동, 리더십, 사회참여역량은 공동체시민성, 개인 시민성, 세계시민성순인 것으로 나타남.

5. 정책제언

-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국정과제에 따른 탈북청소년 지원체계화를 위하여 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4가지 정책 과제를 선정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 내용을 선정하여 총 12가지를 제안함.

- 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에서는 탈북 청소년 관련 전담조직 마련 및 역할분담,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간 순환교육, 보호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 3가지를 제안함.
-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개별 지원과 가족 지원의 병행 지원체계, 초기적응과정 강화, 탈북 청소년 역량진단도구 개발, 이중구조 지원체계 마련 4가지를 제안함.
-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정서, 자기주장, 진로관련 지원 강화, 또래 멘토링 지원 강화, 가족 지원 강화 3가지를 제안함.
-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강화와 긍정적 인식 개선, 차별과 편견 철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가지를 제안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7
4. 연구추진체계	1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5
1. 청소년역량 개념과 구성요소	17
2. 탈북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욕구	23
3. 탈북 청소년 정책 및 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	36
4. 요약 및 소결	56
III. 독일과 미국의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사례	59
1. 독일 통일 전후 청소년 통합정책 고찰	61
2. 미국의 이민자·난민에 대한 청소년 지원방안	87
IV. 탈북 청소년 역량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면접	103
1. 탈북 청소년 면접조사 개요	105
2. 탈북 청소년 면접 결과 분석	111
3. 요약 및 소결	162
V. 탈북 청소년의 역량 및 지원에 관한 전문가의견, FGI와 설문	167
1. 탈북 청소년 전문가의견 조사	169
2. 탈북 청소년 실무자, 탈북대학생 FGI	179
3. 탈북 청소년 역량설문조사	198
4. 요약 및 소결	257

VI. 탈북 청소년 지원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261
1. 요약	263
2. 정책제언	266
참고문헌	287
부 록	299

표 목차

〈표 I-1〉 청소년 면접조사 개요	9
〈표 I-2〉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0
〈표 I-3〉 초점집단면접조사 개요	11
〈표 I-4〉 탈북 청소년 역량 및 지원체계 양적조사 개요	12
〈표 I-5〉 정책실무협의회 개요	12
〈표 II-1〉 청소년 역량 핵심 구성요소	18
〈표 II-2〉 청소년의 5가지 역량군 개념과 하위영역	22
〈표 II-3〉 배경변인 현황 1	31
〈표 II-4〉 배경변인 현황 2	31
〈표 II-5〉 지원 항목	32
〈표 II-6〉 배경 변인에 따른 생애학습역량 관련 지원 욕구 차이	33
〈표 II-7〉 배경 변인에 따른 생활관리역량 관련 지원 욕구 차이	34
〈표 II-8〉 배경 변인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관련 지원 욕구 차이	35
〈표 II-9〉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39
〈표 II-10〉 탈북학생 재학생, 재학학교 수	42
〈표 II-11〉 정착지별(입국초기) 교육지원 현황	43
〈표 II-12〉 정착지별(전환기) 교육지원 현황	44
〈표 II-13〉 정착지별(정착기) 교육지원 현황	46
〈표 II-14〉 남북하나재단 지원사업 현황	47
〈표 II-1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	49
〈표 II-16〉 무지개청소년센터 지원사업	50
〈표 II-17〉 민간교육시설 지원 사업	51
〈표 II-18〉 2015년 탈북 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실적	52
〈표 II-19〉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내용	53
〈표 III-1〉 구동독지역 청소년 사업분야 예산	80
〈표 III-2〉 구동독지역 자발적 사회봉사 · 환경활동예산	81

〈표 III-3〉 구동독지역 AgAG 프로그램 예산	82
〈표 III-4〉 국제청소년복지(Internatioanle Jugendarbeit)	83
〈표 III-5〉 난민/이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Toolkit	98
〈표 III-6〉 난민 청소년을 위한 Mentoring Program의 예	100
〈표 III-7〉 난민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예시	101
〈표 IV-1〉 탈북 청소년 면접사례조사 선정기준	107
〈표 IV-2〉 연구참여자의 특성	107
〈표 IV-3〉 인터뷰 가이드	108
〈표 IV-4〉 연구참여자의 특성 요약	111
〈표 IV-5〉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에 관한 생애학습영역 주제분석 결과 ·	134
〈표 IV-6〉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에 관한 생활관리영역 주제분석 결과 ·	135
〈표 IV-7〉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에 관한 진로개발영역 주제분석 결과 ·	135
〈표 IV-8〉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에 관한 대인관계영역 주제분석 결과 ·	136
〈표 IV-9〉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에 관한 사회참여영역 주제분석 결과 ·	137
〈표 V-1〉 면접 일정 및 내용	169
〈표 V-2〉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 대상자 개요	170
〈표 V-3〉 생애학습역량 -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종합	171
〈표 V-4〉 생활관리역량 -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종합	172
〈표 V-5〉 진로개발역량 -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종합	174
〈표 V-6〉 대인관계역량 -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종합	175
〈표 V-7〉 사회참여역량 -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176
〈표 V-8〉 개별 · 가정 · 학교 지원 관련 개선점	177
〈표 V-9〉 민 · 관 지원체계 관련 개선점	178
〈표 V-10〉 중앙 · 지방 지원체계 관련 개선점	178
〈표 V-11〉 FGI 대상 및 논의 내용	179
〈표 V-12〉 FGI 참여 한 탈북 청소년 실무자, 탈북대학생 개요	180

〈표 V-13〉 탈북 청소년 실무자, 탈북대학생 FGI 내용 분석	181
〈표 V-14〉 탈북대학생 FGI 내용 분석	193
〈표 V-15〉 탈북 청소년 대상 역량설문조사 개요 및 탈북 청소년 설문결과 의견조사	199
〈표 V-16〉 탈북 청소년 배경문항	199
〈표 V-17〉 탈북 청소년 대상 설문 문항 I	200
〈표 V-18〉 탈북 청소년 대상 설문 문항 II	201
〈표 V-19〉 탈북 청소년의 일반 배경 I	202
〈표 V-20〉 탈북 청소년의 일반 배경 II	203
〈표 V-21〉 생애학습역량 항목 평균	204
〈표 V-22〉 생애학습역량 관련 설문결과에 따른 의견	207
〈표 V-23〉 사고력	209
〈표 V-24〉 지적도구활용능력	210
〈표 V-25〉 학습적응성	211
〈표 V-26〉 생활관리역량 항목 평균	213
〈표 V-27〉 생활관리역량 관련 설문결과에 따른 의견	215
〈표 V-28〉 건강관리	216
〈표 V-29〉 과제관리	217
〈표 V-30〉 상황대처	218
〈표 V-31〉 정서조절	219
〈표 V-32〉 진로개발역량 항목 평균	220
〈표 V-33〉 진로개발역량 관련 설문결과에 따른 의견	224
〈표 V-34〉 진로설계	225
〈표 V-35〉 여가활용	226
〈표 V-36〉 개척정신	227
〈표 V-37〉 대인관계역량 항목 평균	228

〈표 V-38〉 대인관계역량 관련 설문결과에 따른 의견	232
〈표 V-39〉 관계형성	234
〈표 V-40〉 리더십	235
〈표 V-41〉 협동	236
〈표 V-42〉 사회참여역량 항목 평균	237
〈표 V-43〉 사회참여역량 관련 설문결과에 따른 의견	240
〈표 V-44〉 개인시민성	241
〈표 V-45〉 공동체시민성	242
〈표 V-46〉 세계시민성	243
〈표 V-47〉 전문가의견 조사를 통해 제시된 기타 역량	244
〈표 V-48〉 전문가의견 조사를 통해 제시된 기타 역량에 따른 의견	246
〈표 V-49〉 자아정체감	247
〈표 V-50〉 자아탄력성	248
〈표 V-51〉 자아효능감	249
〈표 V-52〉 자기표현력	250
〈표 V-53〉 가족원 문제해결능력	251
〈표 V-54〉 또래애착	252
〈표 V-55〉 장유성(어른에 대한 공경)	253
〈표 V-56〉 준법성	254
〈표 V-57〉 지역사회 유대감	255
〈표 V-58〉 국가정체의식	256
〈표 VI-1〉 정책 과제	266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13
【그림 I-2】 연구추진절차	14
【그림 II-1】 북한의 학제	27
【그림 II-2】 탈북 청소년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체계	37
【그림 II-3】 정착단계별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개요	40
【그림 II-4】 정규학교 재학생 수 현황	42
【그림 III-1】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구성	66
【그림 III-2】 독일 청소년통합정책의 제도적 구조	67
【그림 III-3】 독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71
【그림 III-4】 지난 10년 (2006~2016년) 간 미국 난민 수	88
【그림 III-5】 2016년 9월 30일 기준 미국 난민 출신 국	88
【그림 III-6】 미국 주요 난민관련 입법화 과정	89
【그림 III-7】 미국의 난민 정착 절차	91
【그림 III-8】 난민 정책 및 프로그램 전달체계	94
【그림 III-9】 난민 정착 사무소 2016년 예산현황	95
【그림 III-10】 난민 정착 프로그램 실행의 원리	96
【그림 V-1】 생애학습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206
【그림 V-2】 생애학습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207
【그림 V-3】 생활관리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214
【그림 V-4】 생활관리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215
【그림 V-5】 진로개발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222
【그림 V-6】 진로개발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223
【그림 V-7】 대인관계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230
【그림 V-8】 대인관계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231
【그림 V-9】 사회참여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238
【그림 V-10】 사회참여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239

【그림 V-11】 2016년과 기존 연구와의 경향 비교	245
【그림 VI-1】 탈북 청소년 관련 기관 역할분담	269
【그림 VI-2】 탈북청소년지원센터(가칭) 설립·운영	270
【그림 VI-3】 탈북 청소년의 적응 향상을 위한 순환교육	271
【그림 VI-4】 초기적응 강화를 위한 완충지대 구축	277
【그림 VI-5】 이중구조 지원체계	279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체계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9,830명(2016. 9월말 기준)으로 그중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4,700명이다.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약 15.8%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홈페이지, 인출일: 2016. 11. 28). 현재 탈북 청소년의 수는 남한 전체 아동·청소년 수에 비해 적지만 추후 북한이탈주민과 탈북 청소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계속된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통일 이후 청소년 지원 정책까지 고려한다면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식과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탈북 청소년은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제대로 된 영양공급 등이 이뤄지지 않고, 가족 해체, 중국 등 제3국을 거치면서 불안한 삶의 과정, 심리적 외상 등을 경험하면서 신체적, 심리·정서적 힘들 겪었다(이소희, 이선희, 2013: p.125). 남한에서의 적응 과정 또한 불안, 열등감, 정체감 혼란,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으며(김린, 박세훈, 박경자, 2014: p.56) 탈북 청소년이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2015년은 2.2%(교육부, 2015)로 같은 해 남한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인 0.8%에 비해 높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8. 27 일자 보도자료).

이에 정부부처인 통일부에서는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초기 적응 및 정착 지원 안에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탈북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보장과 사회정착 지원을 돕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을 통해 탈북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한국 사회를 위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방과후 공부방, 그룹홈, 장학재단, 복지관 등을 통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을 위한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북한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이며 학습, 직업 등 본인 자신의 자유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국가체제에서 성장하다가 남한에서의 모든 행동, 활동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만 하는 방식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또한, 남한 사회에서 북한과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는 점은 탈북 청소년을 힘들게 한다. 북한 정부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인해 북한 사회 전체가 믿지 못할 집단으로 매도되거나 반대로 북한 주민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등의 열악한 생활고를 겪는 모습을 봐온 남한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 청소년을 도움을 주어야 하는 온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탈주민과 탈북 청소년은 북한 출신이라는 점으로 인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고자 자신의 출신 배경을 숨기기도 한다(맹영임, 길은배, 2013: p.18; 강구섭, 2014: p.175). 이런 모습은 탈북 청소년 자신을 당당하지 못하게 해 항상 위축된 모습과 자신의 삶에 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되어 탈북 청소년이 가진 잠재력들을 펼쳐보기도 전에 먼저 심리적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이 심리적 좌절을 겪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진 잠재력, 역량 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청소년 역량과 관련해 주목하며, 이 주요한 이슈로서 청소년이 성장하여 미래 사회에 긍정적인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청소년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발전시킬수록 정책 또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6가지를 제시하였고(교육부, 2015. 9. 23 일자 보도자료),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표방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탈북 청소년도 국가 및 교육 시스템과 성장 환경이 다르더라도 탈북 청소년의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탈북 청소년에게 지원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에서 성장한 청소년들과 탈북한 청소년들 간에는 각각의 역량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들이 탈북 청소년 간의 차이와 다름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들도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있는가에 관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진단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탈북 청소년의 특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기보다 하루빨리 남한의 사회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동화주의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김선

화, 2009: p.52). 그러다 보니 탈북 청소년이 북한의 생활 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고 이주,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잊고 한국 생활에 빠르게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나머지 탈북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연구 주제로서 대부분 적응 또는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김윤나, 2008; 김명선, 2014; 조정아, 홍민, 이향규, 이희영, 조영주, 2014).

탈북 청소년이 한국의 제도, 생활방식 등 다양한 내용을 습득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적응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으며 가진 역량 중 강화할 점과 지원이 필요한 점을 파악하여 개별 또는 전체로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을 극복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남한 국민은 단순히 북한이 한국보다 발전이 덜 했다는 이유로 탈북 청소년의 역량 또한 낮을 것이라는 착오는 없어야 하며, 탈북 청소년도 기존에 자신의 능력, 역량을 무시하고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진 역량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이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들이 역량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북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탈북 청소년들의 생활 방식 및 생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에게 잠재되거나 표출되어지는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절차와 체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는 탈북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있어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남북 청소년이 동등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탈북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파악

탈북 청소년이 북한에서의 생활에서의 행동 양상 및 생활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에 따른 행동 양식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의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지원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2차 차료를 활용하여 성별, 나이, 북한에서의 학력, 제3국 체류기간, 남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탈북 청소년과 그의 가족의 욕구 내용을 파악하였다.

2) 탈북 청소년 대상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 조사

탈북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 관련 정부 정책과 그에 따른 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원사업과 역량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의 각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및 수혜 정도를 파악하여 정부의 지원 사업 전달과정에서의 개선점과 지원사업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는 것에는 기존의 시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지원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아동·청소년 지원관련 국외 사례 고찰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간의 서로 다른 아동·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며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체제가 다른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각기 다른 국가체제에서 생활하던 국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동·서독 아동·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난민·이민자의 아동·청소년 정책 중 각각의 출신국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지원방안을 파악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난민 정책을 검토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능력 향상과 역량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탈북 청소년의 역량 파악을 위한 면접과 FGI 및 설문 분석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탈북 청소년, 탈북 청소년 관련 현장 실무자와 탈북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면접과 FGI를 실시하여 탈북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현장 실무자와 탈북 대학생들이 언급한 역량과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역량척도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였다.

5) 탈북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도출

탈북 청소년들의 영역별 생활실태 및 역량, 삶의 질에 따른 지원정책 방안과 탈북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도출한다. 더 나아가 일반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 간 인식의 차이를 좁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질적 조사(개별면접, FGI, 전문가의견조사), 양적조사, 전문가자문, 기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헌연구와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기존에 연구에서 다뤄졌던 내용에 관해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탈북 청소년과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에 관한 욕구는 2016년 초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근거로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질적조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는데 개별면접을 통한 탈북 청소년의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원받았던 내용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의견조사와 FGI는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와 탈북 대학생을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지원 내용과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양적조사를 통해서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대학생까지의 전반적인 역량 정도를 알아보고, 기존 남한 청소년의 역량과 비교해보기 위해 설문을 통한 자기기입방식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과 기타 연구방법으로 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연구의 추진 방향과 진행, 정책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문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1)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탈북 청소년의 특성 등에 관해 파악하고, 정부부처와 민간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법률, 부처별 정책 사업 현황,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차 자료로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2016년도 여성가족부와 한국DMZ학회에서 공동으로 조사·연구한 “탈북 청소년 욕구조사”에서 수집되어 활용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욕구조사에 있어 탈북 청소년과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문항을 청소년 역량별로 구분한 후 배경변인으로 성별, 나이, 북한 최종학력, 제3국 체류기간,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탈북 청소년의 욕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해외 사례를 파악하여 기존 탈북 청소년 지원 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2) 질적 조사

(1) 탈북 청소년 면접조사

탈북 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는 개별면접이 원칙이긴 하나, 탈북 청소년이 처음 대면한 대상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판단 하에 1명 또는 2~3명으로 구성하여 면접을 시행하였다.

표 | -1 청소년 면접조사 개요

주요 요소	면접조사
섭외과정	▶ 연구진 섭외
참여자 수	▶ 10명
특성 / 개요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9세~24세로 한정함.
운영방식	▶ 반구조화 개별/집단인터뷰(개별 인터뷰가 원칙이나 탈북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2~3명 집단형식 활용)
시간 및 횟수	▶ 1시간 30분 내외, 각 1회 이상
기록 및 녹취 여부	▶ 기록 및 녹취
면담 및 진행	▶ 연구진
추진시기	▶ 5월~8월
주요내용	▶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남한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 남한사회의 지원이 역량에 미치는 영향

탈북 청소년이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해석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개인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면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인 전문가를 동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탈북 청소년이 자신의 갖고 있는 강점이나 역량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모델을 기반으로 54개의 개념들을 나타내도록 구성된 소질카드를 활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탈북 청소년 면접은 1시간 30분 내외로 이루어졌으며, 각 회마다 탈북 청소년의 동의를 얻고 전 과정을 녹취하고 이를 전사하였다. 면접 내용으로는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북한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남한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등을 파악하고 남한사회의 지원이 자신의 강점이나 역량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전문가 의견조사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긍정적인 면을 파악하고 기존 역량 측정도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및 학계전문가, 정책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총 2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표 I -2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섭외과정	▶ 정책담당자 추천 및 연구진 섭외
참여자 수	▶ 20명
특성 / 개요	▶ 탈북 청소년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중 선별
운영방식	▶ 서면자문 방식
시간 및 횟수	▶ 1차, 2차 총 2회 실시
추진시기	▶ 4월~5월
주요내용	▶ 탈북 청소년 역량, 지원개선방안

1차 전문가의견 조사는 2016년 4월 15일 ~ 4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된 조사 내용은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지원체계에 관해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2차 전문가의견 조사는 2016년 5월 12일 ~ 5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차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기존 청소년역량 척도내용과 비교하며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고, 기존 척도와 다른 의미나 내용을 가진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으로 작성하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들이 탈북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로서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한 값의 평균치를 통해 측정도구로서의 적절성을 알아보았으며,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파악하였다.

(3)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

초점집단면접조사는 2집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각 집단별로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지원체계에 관한 내용과 탈북 청소년을 중심으로 역량 설문 결과를 논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1집단의 경우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며, 나머지 2집단의 경우는 탈북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 초점집단면접조사 개요

주요 요소	FGI
섭외과정	▶ 정책담당자와 현장 실무자 추천 및 연구진 섭외 ▶ 각 탈북 청소년 교육 및 지원 기관 등을 통해 탈북대학생 섭외
참여자 수	▶ 각 집단은 4명 내외로 구성
특성 / 개요	▶ 1집단: 1차 - 학계 및 현장 실무자 중심 2차 - 탈북 청소년 설문결과에 관한 의견조사 ▶ 2집단: 1차 - 탈북대학생 집단 4명을 중심으로 집단면접조사 실시 2차 - 탈북 청소년 설문결과에 관한 의견조사 차원에서 실시 ※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연구대상을 탈북대학생으로 선정함. 이는 다양한 역량 및 지원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 주 대상인 중·고등학생인 것과는 차이가 있음.
운영방식	▶ 반구조화 집단인터뷰
시간 및 횟수	▶ 2시간 내외, 각 1회 이상
기록 및 녹취 여부	▶ 기록 및 녹취
면담 및 진행	▶ 연구진
추진시기	▶ 1차 - 5월~7월 ▶ 2차 - 10월(탈북 청소년 설문결과 의견조사)
주요영역	▶ 1차 - 탈북 청소년 역량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 2차 - 탈북 청소년 설문결과 의견조사

3) 양적 조사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역량과 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이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대상에 포함되는 탈북 청소년은 북한에서 출생한 후 탈북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대상을 중심으로 하였다. 기존 청소년 역량척도를 활용하면서 탈북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역량을 파악하였다. 기존 청소년 역량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에서 개발하여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활용된 척도에 비해 2016년 단축형 설문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단축형 역량 척도는 기존 척도를

개발하고 조사 중인 연구진들에 의해 타당도와 신뢰성을 확보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탈북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탈북 청소년 및 현장 실무자 FGI를 통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표 I-4 탈북 청소년 역량 및 지원체계 양적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모집단	▶ 남한 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
표집틀	▶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시설(드림학교, 여명학교, 한꿈학교 등),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중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무지개청소년센터, 서울·인천지역 대학 등
표본수	▶ 200명 : 1차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에 의거하였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안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우선 대상으로 함.
표집방법	▶ 의도적 표집방법
조사시기	▶ 2016년 7월 ~ 9월

4) 전문가 자문

연구계획 및 정책개발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현장 및 학계전문가와 부처 담당자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수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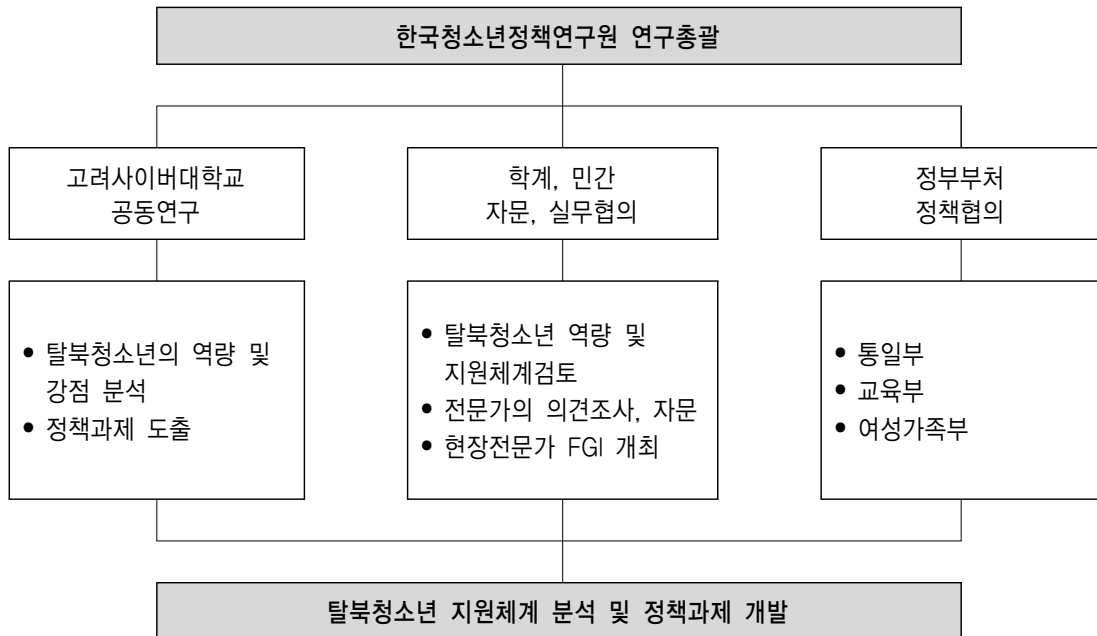
5) 기타 연구방법

표 I-5 정책실무협의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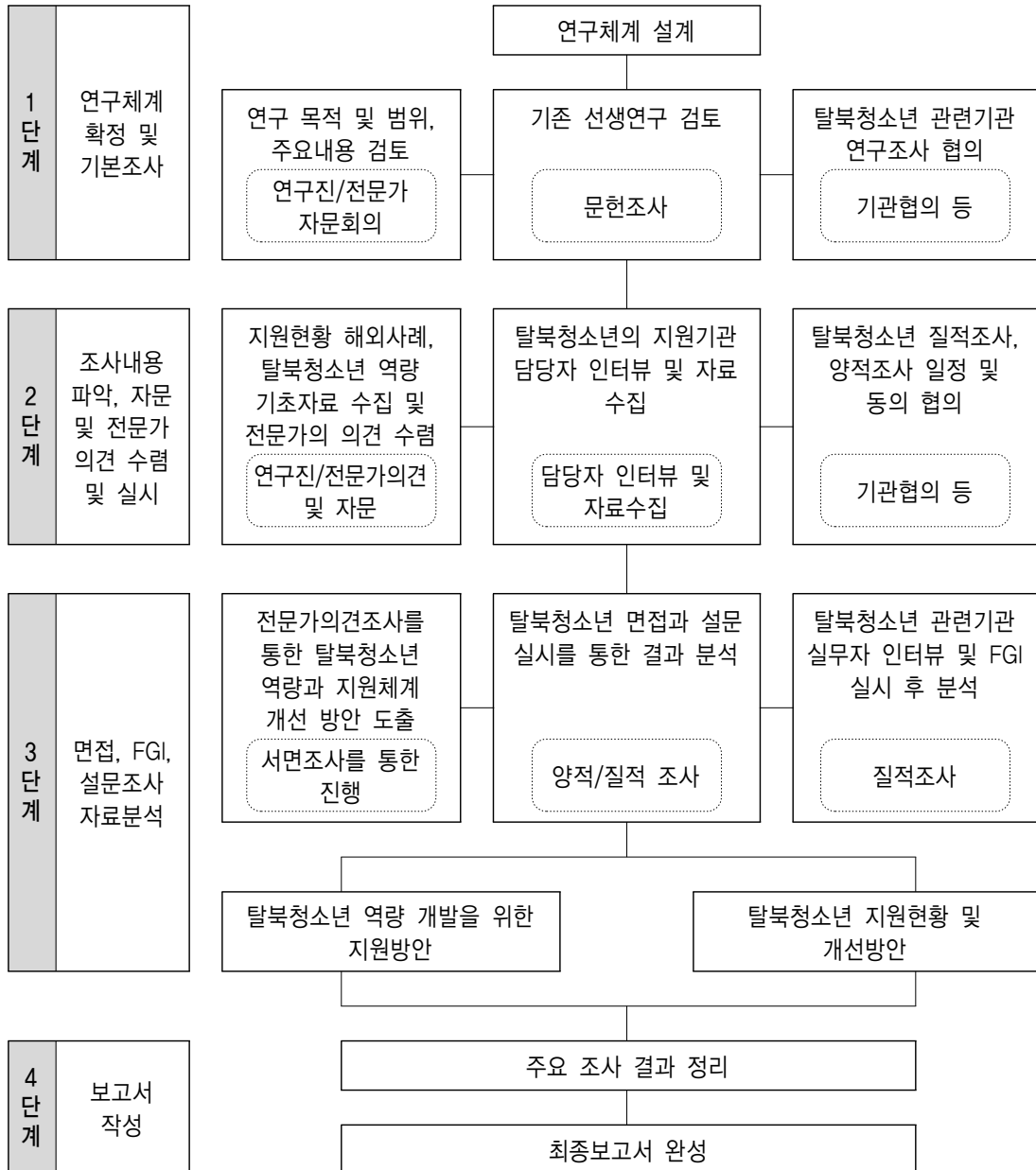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비고
1차	연구 방향 및 내용 협의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 통일부(정착지원과)	4~5월	
2차	지원체계 개선 정책과제 의견수렴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10월	

4.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체 연구를 총괄하며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학계 전문가의 자문과 현장 실무자와의 협의, 관계부처 담당자와의 정책협의를 주요 추진체계로 활용하였다. 【그림 I -1】 ~ 【그림 I -2】는 전체 연구의 추진체계와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그림 I -1】 연구추진체계



【그림 1-2】 연구추진절차

제 II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역량 개념과 구성요소
2. 탈북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욕구
3. 탈북 청소년 정책 및 지원 사업
현황과 문제점
4. 요약 및 소결

제 II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역량 개념과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세대로 불린다. 이런 무한한 잠재력은 어떤 지지나 지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6가지의 역량으로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김경자 외 2015: p.52).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라는 영역을 통해 첫 번째,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두 번째,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세 번째,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등(관계부처 합동, 2012: p.33)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OECD에서도 DeSeCo 프로젝트(OECD, 2005)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도 국가 교육과정을 역량중심 학습체계(competence-based learning system)로 바꾸려고 하며, UNESCO에서도 2015년부터 Learning Matrix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p.3. 재인용)

최근에는 청소년 교육에 대해 역량(Competence) 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하고 있으며, 역량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생활하고자 하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주목받고 있다(McClelland, 1973; 윤정일 외, 2007: p.234 재인용). White(1959)는 역량을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개념화하였다(White, 1959: p.297; 윤정일 외, 2007: p.236 재인용). 이런 역량의 개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사회적 환경, 즉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국가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각 시대에 따라 요구하는

역량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파악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이 나고 성장한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그 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White(1959)가 정의한 개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량은 '타고난(innate)' 능력이기보다 길러지고 학습될 수 있는 특성에 가깝다. 역량이 발휘되는 양상은 인간의 내적 특성이나 구조가 어떻게 특정 맥락의 요구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재구조화되느냐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wood & power, 1987; 윤정일 외, 2007: p.243 재인용).

탈북 청소년의 역량에 관해 조사하기에 앞서 관련 연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 또는 북한청소년의 역량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역량과 관련된 조사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존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청소년 역량관련 내용 및 척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II-1>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부터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조사했던 측정영역과 하위 요인이다.

표 II-1 청소년 역량 핵심 구성요소

	영역	하위요인
한국교육개발원- 생애능력 (2002)	기초문해력	읽기 / 쓰기 / 셈하기
	핵심능력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자기 주도적 학습
	시민의식	국가정체성 / 신뢰 및 가치공유 / 권리·책임의식 / 참여의식
	직업특수능력	특정직업이나 직종에서 요구되는 특수 직무능력
노동부-기초직업 능력 (2006)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 문서작성능력 / 경청능력 / 의사표현능력 / 기초 외국어능력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 기초통계능력 / 도표분석능력 / 도표작성능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 문제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 자기관리능력 / 경력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시간자원 관리능력 / 예산자원 관리능력 / 물적자원 관리능력 / 인적자원 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 능력 / 리더십 능력 / 갈등관리 능력 / 협상 능력 / 고객 서비스 능력
	정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 정보처리능력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 기술선택능력 / 기술적용능력

	영역	하위요인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 조직체제 이해능력 / 경험이해능력 / 업무이해능력
	직업윤리	근로윤리 / 공동체윤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대학생직업기초능력 (2009)	의사소통	듣기 / 토론과 조정 / 읽기 / 쓰기 / 말하기
	자원, 정보, 기술의 활용	시간, 예산, 인적, 물적 자원 / 문자, 숫자, 그림 정보 / 정보통신, 과학기술, 기기작동 기술
	종합적 사고력	평가적 사고력 / 대안적 사고력 / 추론적 사고력 / 분석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대인관계 및 협력	정서적 유대 / 협력 / 중재 / 리더십 / 조직에 대한 이해
	자기관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 목표 지향적 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 / 정서적 자기조절 / 직업 의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생애핵심역량 (2010)	지적도구 활용영역	언어, 상징문자 / 지식, 정보 /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 사회적 협력 / 갈등관리
	자율적 행동	거지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인지적 차원) / 비판적 사고성향(정의적 차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직업기초능력 (2012)	창의력	창의적 사고 기능 / 창의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문제인식 / 해결방안의 탐색 / 해결방안의 실행과 평가 / 논리적 사고력 /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말하기 / 듣기 / 쓰기
	정보처리능력	정보수집 / 정보분석 / 정보활용 / 매체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 협동 / 갈등관리 / 관계형성 / 리더십
	자기관리능력	자아정체성확립 / 여가선용 / 건강관리 / 합리적 경제생활 / 기본 생활습관 /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기초학습능력	기초적 읽기 / 기초적 쓰기 / 수리력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 준법정신 / 환경의식 / 윤리의식 / 봉사정신
	국제사회문화이해	우리 문화 이해 / 다문화 이해 / 문화 향유능력 / 국제사회 이해 / 외국어 소양
	진로개발능력	진로인식 / 진로탐색 / 진로탐색
한국교육개발원-학생능력 (2013)	신체역량	체력 / 체격 / 영양
	정신역량	정신건강역량(우울감, 불안감, 공격성, 학업스트레스 관리 수준) / 자율역량(자기주도성, 자기통제 수준) / 긍정적 자아역량(행복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수준)

	영역	하위요인
	지적역량	창조적 역량(문제해결능력, 창의력) / 정보역량(정보활용능력) / 학습역량(학습기초 수준)
	진로역량	자기이해역량(자기이해수준) / 진로탐색역량(진로계획역량, 진로선택역량) / 진로준비행동역량(진로준비행동역량)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역량(공감능력 및 수용성, 관계역량, 의사도통역량) / 협동력(사회적 협력 수준) / 갈등해결역량(갈등해결역량 수준)
	시민역량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역량(공동체성 수준, 다문화 수용성 수준) / 사회참여역량(사회참여 수준/ 학교참여 수준) / 규칙준수역량(규칙준수 수준)
교육부 -인성역량 (2013)	도덕성	정직/정의 / 책임 / 윤리
	사회성	배려/봉사 / 공감
	감성	긍정적 자기이해, 자기조절
교육부 (2015)	자기관리역량	자아정체성 / 자기통제(절제) / 여가 선용 / 건강관리 / 기초학습능력 / 자기주도학습능력 / 합리적 경제생활 / 기본생활습관 / 진로개발능력 등
	지식정보처리역량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 정보수집, 분석,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 해결 방안의 실행, 평가 / 매체 활용 능력 등
	창의적사고역량	창의적 사고기능(인지 능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 / 창의적 사고성향(정의 특성: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등)
	심미적감성역량	문화적 감수성 / 다원적 가치 존중 / 공감 / 상상력 등
	의사소통역량	말하기 / 듣기(경험) / 쓰기 / 읽기 / 텍스트 이해 / 타인 이해 및 존중 / 배려 등
	공동체역량	시민 의식 / 준법정신 / 환경의식 / 윤리의식 / 봉사정신 / 규범 및 질서의식 / 협동 / 갈등 관리 / 리더십 등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청소년역량지수 (2014)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 지적도구활용 / 학습적응성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 과제관리 / 상황대처 /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 여가활용 /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 리더십 / 협동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 공동체 시민성 / 세계 시민성

* 출처: 김경자 외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p66,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연구보고 13-R50). pp.18~30. 재구성

<표 II-1>에서 제시된 역량 중 2014년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척도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 청소년 역량 지수를 개발에 착수하면서 청소년 역량에 관해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는데 첫째, 청소년 핵심 역량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모든 연령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역량이어야 하며, 둘째, 역량 개발의 대상인 청소년의 개인차원적 역량과 더불어 집단, 사회, 국가 차원의 역량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현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갖기 위한 역량과 미래 사회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pp.51~5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구성된 청소년 역량을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전 청소년 나이에 걸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역량을 파악하였다(<표 II-2>).

이는 정부의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역량개발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 중심에서 개발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p.12) 탈북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도 탈북 청소년의 복지 대상자, 정책 수혜자로서의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자신의 역량을 기초로 발전 가능한 존재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청소년 역량이라는 개념은 시대의 변화나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 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는데 객관성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과거의 책임감, 협동성, 성실성 등이 그 시대 상황에서는 핵심 역량이었지만 현재의 변화하는 미래사회로서의 지식기반사회, 창조사회 등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과 한 개인의 능력을 통한 지식 창조가 아닌 집단지성을 통한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 등이 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p.5). 탈북 청소년의 경우 남북한의 경제적 상황 등을 비교해볼 때 남한으로의 이주는 순간이동과 같은 경험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청소년 역량 척도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요구되어지는 역량이기는 하지만 탈북 청소년에게 적용시키는 데는 조심스러워야 하고 역량 수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표 II-2 청소년의 5가지 역량군 개념과 하위영역

구분	개념	하위영역	
생애 학습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 활용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 능력
		학습적응성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생활 관리	자신의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건강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	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진로 개발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여가활용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경험)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대인 관계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사회 참여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공동체 시민성	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세계시민성	성인지, 이민자에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

* 출처: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 p54/ 장근영 외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IEA ICCS 2016(연구보고 15-R18). pp.38~39. 재구성

2. 탈북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욕구

탈북 청소년은 상당 기간 북한에서 유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고 가족과의 관계, 또래 관계, 학교생활 등을 경험하면서 사회화된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성장한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북한의 사회문화적 배경 중 정치·권력 구조, 경제 체제·정책, 교육과 문화정책, 사회와 주민생활에 관하여 대략 살펴보았다. 이는 탈북 청소년이 성장하며, 역량을 발전하고 개발하는 과정 중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탈북 청소년이 경험한 북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탈북 청소년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1) 북한 사회¹⁾와 북한청소년 특징

(1)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

북한의 정치 체제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로서 ‘일당 지배체제’를 갖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성격과 최고지도자로서의 1인 절대 지배체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선군사상을 핵심으로 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통치 이념으로 제시하고 2009년, 2010년 헌법과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통치이념으로 선군사상을 공식화하였다. 군의 역할을 강조한 선군정치는 교육,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선군정치가 나타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당보다 군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군 조직을 통해 사회통제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체제위기 극복과 북한 내부의 결속을 목적으로 내세웠던 ‘강성대국론’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려고 했지만 실상 북한 주민의 내부적 결속과 통합을 유도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북한 청소년에게 내면화된 김일성의 가치규범은 사회화 과정에서 심리적 동일시로 이어진다.

1) 이 부분은 통일부 통일교육원(2015). 2016 북한이해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발췌한 내용을 기본으로 함.

이 심리적 동일시는 충성심을 바탕으로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다짐한다든지, 생일날 꽃을 초상화 앞에 바치면서 충성심을 보이는 행위로 나타난다(이용을, 2015: p.114).

북한 정부는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 다양한 기치를 통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복종과 교사의 무조건적 집행 등 지도자의 권위강조는 물론 매주 반복되는 생활총화와 연구실 방문학습, 수요강연회, 아침 독보회 등을 통한 조직 생활을 지속하여 사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돌려 부모에 대한 효를 바탕으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전통 문화의 가치까지도 활용하면서 이념을 유지하려고 한다(이온죽 외, 2010: p.164). 이 점은 북한 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철저한 상하관계와 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적 권위주의로 표현된다(이용을, 2015: p.113).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졌으며, 집단주의를 기본으로 한 공산주의적인 가치관을 장시간 내면화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청소년들은 어린 세대에 비해 다양한 정보나 외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북한 당국에서 요구하는 공식적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자율적이며 비공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북한 당국에서 요구하는 희망과는 정반대의 인성 및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이온죽 외, 2010: p.270).

북한 당국에서도 청소년들이 공식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사고 및 시장 지향적 특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검열하기 위해 제도적,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통제력이 약화된 실정이다. 혁명 사상과 경제 중심적 사고를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체제와 최고지도자, 국가에 대한 뚜렷한 자신의 생각을 갖기보다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과 서로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갖기도 한다. 이렇듯 교육기능의 약화와 국가체제의 통제력 약화, 외부 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해 최고지도자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조정아 외, 2013: pp.232~234).

(2)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계획경제 기능의 마비로 경제 현실에서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었지만 일부 개선조치에 그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배급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사고팔기 시작하였다.

시장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구조화 현상은 북한의 계획 기능의 분권화와 시장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발표하면서 계획경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시장기능을 부분 활용하면서 결국에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정상화 하려고 했으나 7·1 조치는 사금융, 노동, 생산, 유통, 주택 등 부문별 양적 성장 및 심화로 시장화 현상 확대를 초래했다. 이후 북한의 계획경제는 점차 시장경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양극화와 부패경제 양상이 나타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이란 비공식 경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2009년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갑작스런 화폐 개혁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였고 북한 통화의 가치 하락, 극심한 인플레이션, 장마당 경제의 침체, 계획경제 부문 등의 산업 및 시장에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며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했다. 그러자 북한 정권은 또 다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을 재시도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화폐개혁은 청소년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소(小)자본을 통해 시장 활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던 주민들의 경우 시장의 마비는 곧 생계가 불가능함을 의미했다. 청소년들 중에도 화폐개혁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기울면서 빈곤과 삶의 불안정성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은 청소년에게 고난의 행군보다 화폐개혁 조치가 더 큰 경험이고, 경험의 폭도 다양해지면서 청소년은 기존 어른에 비해 시장 경제적 태도를 많이 보이게 되었다(조정아 외, 2013: p.114).

화폐교환 조치를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청소년들이 생계를 맡아 꾸려나가는 역할이 높아져 경제적인 의식이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생겼다. 또한,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의 청소년들이 국가의 보호나 시혜 없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난 이후 배급과 공식 직장에 의존하였던 과거의 생존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조정아 외, 2013: p.43).

(3) 교육과 문화정책

북한의 교육제도는 몇 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쳐 왔는데, 해방 이후부터 1953년까지의 ‘사회주의 적 학제 개혁과 초등의무교육 준비’ 시기와 1953년부터 1959년까지의 ‘전후 인민 경제의 복구와 초등의무교육 실시’ 시기, 1959년부터 1967년까지의 ‘산업화와 기술의무교육 도입’시기, 1967년부

터 1972년간은 ‘산업화 진전과 9년제 기술의무교육 실시’ 시기이며, 1972년부터 2012년까지는 ‘유일사상 확립과 11년 의무교육제 도입’ 시기이다(체제통합연구회편, 2009: pp.319~337). 그리고 2014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12년제 의무교육제’실시에 따른 학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림 II-1】은 2002년 이후 북한체제의 교육체계로서 의무교육이 6세에서부터 16세까지로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구성되었다. 17세부터는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남한에서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임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의 교육 연수가 10년으로 남한의 교육 기간보다 2년 정도가 짧다.

북한의 보통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지식을 학습하는 교육으로 취학전, 초등, 중등 3단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서의 보통교육은 인간 발달의 전면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들을 교육과 생산노동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각종 노력동원 활동에 동원하고 있는데, 소학교에서는 학교 노동과 농장에서 일손 돕기에 참여하며, 일반중학교에서도 농사지원이나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무상교육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운영 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하며, 경제난 이후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더욱 소외되었다. 이 때문에 학생 결석률이 증가하고 취학을 감소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낮아졌다.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 2014: p.40)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학교 재학 경험이 없다고 한 청소년이 43.7%에 이른다.

연령	북한의 학제				
26	박사원·연구원 (2~3년)			고 등 교육	
25					
24					
23					
22	대학 (4~6년)				
21					
20					
19					
18		단과대학 (3~4년)	고등전문학교 (2~3년)		
17					
16	중학교(6년) 교육과정-정치사상교육, 사회주의 도덕, 수학, 한문, 외국어, 력사, 체육, 음악, 국어·미술(1~3학년), 지리(1~5학년), 물리·생물(2~6학년), 화학(3~6학년), 제도(4~5학년), 문학·컴퓨터(4~6학년)			의 무 교육	중 등 교육
15					
14					
13					
12					
11					
10	소학교(4년) 교육과정-정치사상교육, 사회주의 도덕, 수학, 국어, 자연, 음악, 체육, 도화공작, 영어·컴퓨터(3~4학년) / 위생(4학년)			초 등 교육	
9					
8					
7					
6	유치원 높은반(1년)				
5	낮은반(1년)			학교전교육	
4	탁아소				

*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2). 2012 북한 이해. pp.183~195.

주) 본 북한의 학제는 1972년~2012년 교육제도를 제시함. 본 연구 대상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과 탈북 청소년은 대부분 1972년부터 2012년 시기에 학교 교육을 받았던 대상임을 고려함.

【그림 II -1】 북한의 학제

반면, 1990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경제난 등을 겪으면서 북한은 실리 중심의 교육과 수재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

의 설치 및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출신성분 때문에 대학 진학 및 지위 상승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은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순응하거나 소극적 또는 적극적 형태로 저항한다(신효숙, 2009: p.32).

북한의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규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북한에서 학교 규칙을 어긴다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초인 집단주의 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집단생활에 빠진다는 것 자체로 문제로 인식한다. 북한의 학교는 집단주의 정신에 따라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통제하는데 개인이 규율을 위반했을 때도 학급 전체에 집단 벌칙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의 통제 방식 하에서 스스로 수업 규율을 잘 키질 수 있도록 상호 통제한다. 수업 규율 통제 방식은 사회주의 교육의 특성인 집단주의의 일면을 보여준다(이온죽 외, 2010: pp.229~230). 이런 집단 활동의 결과는 청소년을 판단하는 중요한 평가 자료이며, 그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도 활용된다(안권순, 2010: p.33).

북한의 문예정책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보다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문예이론 중 군중예술론은 창작의 주체가 군중이나 집단임을 강조하면서 대중의 참여를 선동하는 이론으로서 문학예술 작품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문화정책을 교육정책과 연결지어 봉건적인 질서나 자본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을 재교육, 재조직화하는데 교육과 문화를 활용한다. 그리고 대상자에 따른 차별적인 문화정책은 북한 주민의 교육 수준이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당 간부는 주민을 교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 간부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낮은 수준의 문화를 제공한다(이온죽 외, 2010: p.139).

(4) 사회와 주민생활

북한 사회의 계층구조는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계층이 결정되어 계층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성별 불평등도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북한에서의 여성은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도 가정에서의 가사노동도 담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통적 가부장제가 아직도 존재하여 남편에게 복종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 가정생활의 특징은 유교적 가치관에 의한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청소년들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 가장 중시하는 덕목은 ‘효’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북한의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함을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 모시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이온죽 외, 2010: p.216).

북한 주민은 전체주의 체제 안에서 평등, 집단, 획일, 수령중심주의의 가치관을 발달 시켜왔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외부적으로 당국에서 지향하는 가치관을 수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이해에 맞는 가치관을 발달시켰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보이기도 한다. 북한 사회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데 출생 초기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 주민은 누구나 1~2개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규범에 따라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을 제외하고 하루 2~3시간씩 1주일에 4~5일은 조직생활에 참여한다(박성희, 1995: p.107). 이런 조직생활에 참여하는 북한의 문화는 모든 일이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본인이 모르는 것에 관해 다른 이에게 배우고, 남들이 모르는 것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하며, 모든 일에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여긴다(이용을, 2015: p.121).

여가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북한 주민도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영화/연극 감상을 하고 최근에는 TV시청을 가장 빈번하게 하면서 남한 TV 프로그램을 몰래 시청하기도 한다. 음주가무는 오랫동안 북한 주민에게서 해온 활동이며, 놀이와 축구, 배구 등 스포츠도 자주 즐기는 편이다.

2) 탈북 청소년의 욕구

(1) 탈북 청소년 욕구조사 개요

탈북 청소년의 욕구를 청소년 역량 5가지 역량군인 생애학습, 생활관리, 진로개발, 대인관계, 사회참여 역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탈북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6년 초에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한국DMZ학회에서 조사한 ‘북한이탈청소년 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라 욕구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북한이탈청소년 욕구조사(2016)는 2016년 2월~3월 2달간 시행하였으며, 탈북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교육 등에 관한 현황과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은 정규학교,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소속이 없는 학교 밖 탈북 청소년 186명이다(여성가족부, 한국DMZ학회, 2016: p.1).

북한이탈청소년 욕구조사(2016)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단 과정, 학업 중단 이후 생활 실태 및 정책지원 욕구 등을 파악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욕구조사 설문 중 정책지원 욕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탈북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2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필요정도를 알아보았다. 총 22가지 지원 항목은 1) 정규학교, 대안학교 등 편입, 복교, 전학방법 안내, 2)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3) 입시 및 진학 정보 제공, 4)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 지원, 5)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 6) 직업교육 훈련, 7) 아르바이트 알선, 8) 근로 중 피해(언어폭력, 임금체불 등)에 대한 보호, 9) 자산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10) 건강검진 제공, 11)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12) 성교육, 13)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14)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 교육 등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제공, 15) 인터넷 중독 치료, 16)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 17) 체육 활동 지원, 18) 문화예술 활동(그림, 사진, 악기 등) 지원, 19) 학업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20) 봉사활동 기회 제공, 21) 탈북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22) 탈북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 또는 앱 제공으로 구성되었다.

탈북 청소년의 6가지 배경변수인 성별, 북한최종학력과 남한생활수준(<표 II-3>), 나이, 제3국 체류기간, 남한 거주기간(<표 II-4>) 중 남한생활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를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2가지의 조사항목의 필요 정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 ‘매우 필요하다(4점)’ 인 4점 척도로 구성하고 평균값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항목에 대한 필요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22가지 조사항목은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으로 구분한 후 배경 변인에 따라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II-3>에서 조사 대상은 총 18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상의 성별은 ‘여성’이 57.1%, ‘남성’이 42.9%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탈북 청소년의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을 보면, 소학교졸업(중퇴 포함)이 45.6%로 가장 높고, ‘무학/모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8.8%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이 22.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탈북 청소년의 북한에서도 학령기 나이임을 고려할 때 ‘무학 또는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은 북한에서의 의무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 수준은 ‘상’의 경우 1.6%, ‘중상’은 22.8%, ‘중하’ 48.9%, ‘하’는 26.6%로 중하와 하의 경우가 전체 중 7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가정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3 배경변인 현황 1

변수	속성	빈도(%)	변수	속성	빈도(%)
성별	여성	105(57.1)	북한 최종 학력	무학/모름	53(28.8)
	남성	79(42.9)		소(초등)학교 중퇴	19(10.3)
남한생활 수준	상	3(1.6)		소(초등)학교 졸업	65(35.3)
	중상	42(22.8)		(고등)중학교 졸업(중퇴)	41(22.2)
	중하	90(48.9)		고등전문학교 졸업(중퇴)	4(2.1)
	하	49(26.6)		기타	2(1.1)

<표 II-4>에서 탈북 청소년이 나이 평균은 18.5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3국 총 체류기간은 평균적으로 22.3개월이었다. 또한 남한 입국 후 거주기간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는 51개월(약 4년) 정도였다. 제3국 체류기간과 한국 거주기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평균값과 중위수간에 차이가 많아 어느 시기에 집중됐다고 보기보다 매우 다양한 시기에 넓게 분포되고 있다.

표 II-4 배경변인 현황 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나이 ¹⁾ (만 나이)	18.5	3.4	18.0
제3국 체류 기간 (단위: 개월수)	22.3	34.2	7.0
한국 거주 기간 (단위: 개월수)	51.0	34.6	39.0

주 1) 나이는 19세 기준으로 함. 나이평균 18세와 남한에서의 성년 기준인 19세임을 고려하여 분석에 활용

(2) 탈북 청소년 욕구조사 분석

북한이탈청소년 욕구조사(2016)에 제시된 22가지의 지원항목의 평균을 구해 정리한 전체 순위는 <표 II-5>와 같다. 1순위 '학습 또는 진로 멘토', 2순위 '진로탐색 체험', 3순위 '입시 및 진학 정보', 4순위 '직업교육 훈련', 5순위 '봉사활동 기회제공'이 전체 5순위에 해당되었다. 조사 대상의 평균 나이가 18.5세임을 감안할 때, 학업 및 진로에 대해 가장 고민한 시기임을 반영하듯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서도 학업과 진로에 대한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5 지원 항목

역량군	평균	지원 항목	평균	전체순위	역량별순위
생애학습역량	2.88	편입, 복교, 전학방법안내	2.48	㉑	⑥
		학습 또는 진로 멘토	3.18	①	①
		입시 및 진학 정보	3.15	③	②
		검정고시 준비	2.67	⑱	⑤
		학업공간 제공	2.99	⑦	③
		탈북 청소년 활용 인터넷 및 앱 정보 제공	2.79	⑭	④
생활관리역량	2.72	건강검진	3.08	⑥	①
		각종질병치료	2.92	⑩	②
		성교육	2.66	⑲	④
		고민상담	2.80	⑬	③
		인터넷 중독치료	2.14	㉒	⑤
진로개발역량	2.88	진로탐색체험	3.16	②	①
		직업교육훈련	3.10	④	②
		아르바이트알선	2.72	⑰	⑦
		근로 중 피해보호	2.55	㉐	⑧
		자산관리 정보	2.75	⑮	⑥
		동아리활동 지원	2.91	⑫	⑤
		체육활동 지원	2.93	⑨	③
		문화예술활동 지원	2.92	⑩	④
대인관계역량	2.73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2.73	⑰	①
사회참여역량	2.76	봉사활동 기회제공	3.09	⑤	①
		탈북 청소년 인식개선	2.99	⑦	②

① 생애학습역량

생애학습역량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사고력과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3가지를 하위영역으로 보고 있다(장근영 외, 2015: p.16).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한국DMZ학회(2016)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내용 중 ‘편입, 복교, 전학방법 안내’, ‘학습 또는 진로 멘토’, ‘입시 및 진학 정보’,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업공간 제공’, ‘탈북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인터넷 또는 앱)’ 항목을 생애학습역량으로 구분하였다.

<표 II-6>은 성별, 나이, 북한 최종학력, 제3국 체류기간,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생애학습역량 관련 지원 욕구에 관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나이에 따라 ‘입시 및 진학 정보’에 대한 욕구($t=-3.13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편입, 복교, 전학방법 안내’, ‘학습 또는 진로 멘토’,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업공간 제공’, ‘탈북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인터넷 또는 앱)’에서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제3국 체류기간에 따라 ‘학업 공간 제공’에 대한 욕구($t=5.420,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편입, 복교, 전학방법 안내’, ‘학습 또는 진로 멘토’, ‘입시 및 진학 정보’, ‘검정고시 준비 지원’, ‘탈북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인터넷 또는 앱)’에서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이에 따라 입시 및 진학 정보 욕구를 평균 비교하면, 20세 이상의 경우가 19세 이하의 경우보다 욕구가 높았고, 제3국 체류기간에 따라 학업 공간 제공 욕구를 평균 비교하면,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가장 높고 6개월 이하의 경우에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6 배경 변인에 따른 생애학습역량 관련 지원 욕구 차이

구분	배경변인	N	평균	표준편차	t/F
입시 및 진학 정보	나이	19세 이하	123	3.02	0.90
		20세 이상	61	3.41	0.56
학업공간 제공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1	2.82	0.80
		6개월 초과 2년 이하	48	3.29	0.74
		2년 초과	44	2.98	0.85

*** $p<0.01$, ** $p<0.05$

그 외 성별, 북한 최종학력,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편입, 복교, 전학방법 안내’, ‘학습 또는 진로 멘토’, ‘입시 및 진학 정보’,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업공간 제공’, ‘탈북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인터넷 또는 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생활관리역량

생활관리역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4가지 하위영역으로 보고 있다(장근영 외, 2015: pp.16~17).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한국DMZ학회(2016)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내용 중 ‘건강검진’, ‘각종 질병치료’, ‘성교육’, ‘고민상담’, ‘인터넷 중독치료’ 항목을 생활관리역량으로 구분하였다.

<표 II-7>은 성별, 나이, 북한 최종학력, 제3국 체류기간,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생활관리역량 관련 지원 욕구에 관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 건강검진($t=-2.971$, $p<0.01$)과 각종 질병치료($t=-2.429$, $p<0.05$)에 대한 욕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성교육’, ‘고민상담’, ‘인터넷 중독치료’에서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건강검진과 각종 질병 치료 욕구를 평균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지원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나이, 북한 최종학력, 제3국 체류기간,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건강검진’, ‘각종 질병치료’, ‘성교육’, ‘고민상담’, ‘인터넷 중독치료’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 배경 변인에 따른 생활관리역량 관련 지원 욕구 차이

구분	배경변인	N	평균	표준편차	t
건강검진	성별 — 여성	105	3.23	0.75	2.971***
	남성	79	2.87	0.87	
각종 질병치료	성별 — 여성	105	3.06	0.90	2.429**
	남성	79	2.73	0.89	

*** $p<0.01$, ** $p<0.05$

③ 진로개발역량

진로개발역량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으로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3가지 하위영역이다(장근영 외, 2015: p.17).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한국DMZ학회(2016)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내용 중 ‘진로탐색체험’, ‘직업교육훈련’, ‘아르바이트알선’, ‘근로 중 피해보호’, ‘자산관리 정보’, ‘동아리활동 지원’, ‘체육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항목을 진로개발역량으로 구분하였다.

<표 II-8>은 성별, 나이, 북한 최종학력, 제3국 체류기간,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진로개발역량 관련 지원 욕구에 관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3국 체류기간에 따라 동아리 지원($t=-3.298, p<0.05$)에 대한 욕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진로탐색체험’, ‘직업교육훈련’, ‘아르바이트알선’, ‘근로 중 피해보호’, ‘자산관리 정보’, ‘체육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3국 체류기간에 따라 동아리지원 욕구를 평균 비교하면, 6개월 초과 2년 이하에서 지원 욕구가 가장 높고, 2년 초과인 경우 욕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 성별, 나이, 북한 최종학력,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진로탐색체험’, ‘직업교육훈련’, ‘아르바이트알선’, ‘근로 중 피해보호’, ‘자산관리 정보’, ‘동아리활동 지원’, ‘체육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 배경 변인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관련 지원 욕구 차이

구분	배경변인	N	평균	표준편차	F
동아리 지원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1	2.87	0.81	3.298**
	6개월 초과 2년 이하	48	3.15	0.85	
	2년 초과	44	2.70	0.90	

*** $p<0.01$, ** $p<0.05$

④ 대인관계역량

대인관계역량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으로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장근영 외, 2015: p.17).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한국DMZ학회(2016)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내용 중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항목을 대인관계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성별, 나이, 북한 최종학력, 제3국 체류기간,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대인관계역량 관련 지원

육구에 관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⑤ 사회참여역량

사회참여역량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으로서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며(장근영 외, 2015: p.17),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한국DMZ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내용 중 ‘봉사활동 기회제공’, ‘탈북 청소년 인식개선’ 항목을 사회참여역량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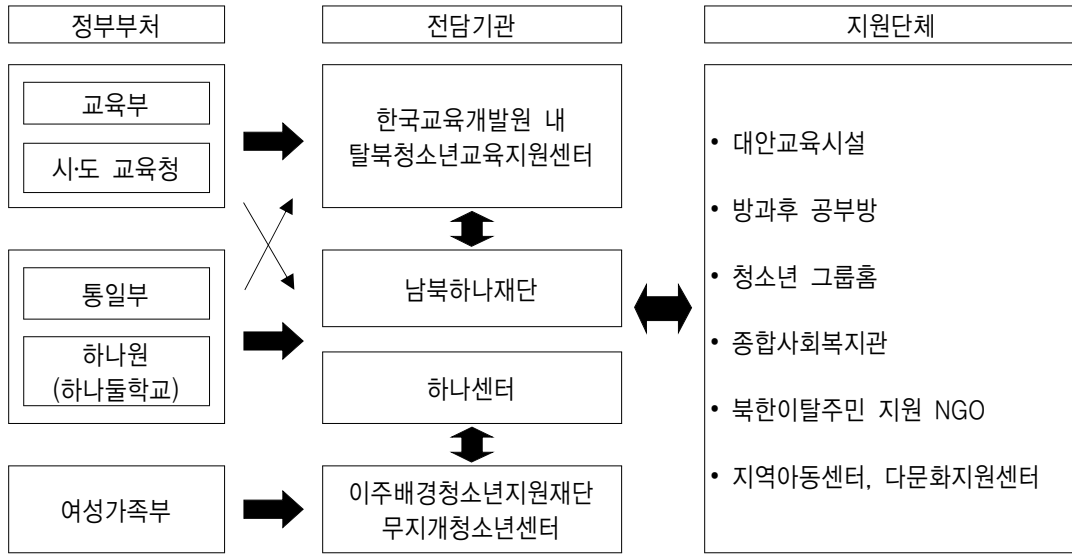
성별, 나이, 북한 최종학력, 제3국 체류기간,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사회참여역량 관련 지원 육구에 관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탈북 청소년 정책 및 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

탈북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을 기초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정부부처에 따라 설립된 산하 기관과 민간 기관이 함께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전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일부분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배정된 정부의 총 예산액은 2016년 190억원이다. 탈북 청소년의 학력 보충 및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29억→37억원)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상담, 사회적응교육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은 강화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6: p.189).

정부에서는 통일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탈북 청소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그림 II-2】).



* 출처: 이기영, 김민경, 조재희, 최지원 (2014). 탈북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정책 분석 및 효과적지원방안 모색. p.78. 재인용

【그림 II-2】 탈북 청소년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체계

교육부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교육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일부에서는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한국 입국 초기 적응을 돕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인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해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지원기관은 하나센터 31개 기관, 남북하나재단 지원 청소년교육·생활시설 42개 기관(대안교육시설 6개 기관, 방과 후 공부방 22개 기관, 그룹홈 14개 기관), 무지개청소년센터 위탁 레인보우스쿨 13개 기관,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5개가 있다.

다음은 정착단계별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탈북 청소년이 남한으로 입국한 후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를 단계별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단계별 지원이 탈북 청소년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면 탈북 청소년이 남한 사회 적응 시기가 뒤로 늦춰질 것이며, 정부의 지원 예산 또한 비효과,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예산의 낭비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의 정착 단계별 지원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착단계별 지원정책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입국 초기에 모두 하나원에서 3개월간 생활하면서 남한 생활에 관해 알아야 할 것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남한 적응을 위한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은 12주간 392시간 동안 운영된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일부분으로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은 정서 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동기부여를 교육목표로 두고 있으며, 정규프로그램과 보충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통일부, 2016: p.166).

사회적응교육 정규 프로그램은 크게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 ‘초기 정착지원’으로 4구분할 수 있다. 4구분을 청소년 역량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정서안정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생활관리역량 또는 대인관계역량,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은 진로개발역량,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의 경우에는 사회참여역량, 자율참여형 보충과정은 생애학습역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역량별로 구분한 교육 시간을 보면, 자율참여형 보충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고, 사회참여역량과 진로개발역량, 생활관리역량 또는 대인관계역량 순으로 시간이 배정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원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시수가 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초기 정착지원에 관한 교육 시수는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교육 시수는 2012년 196시간에서 2016년 144시간으로 약 50시간이 줄어들었고,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 교육시수는 2012년 124시간에서 2016년 150시간으로 늘어났다.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시간이 줄어든 대신,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 관련 시간은 확대되었다.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 교육 시수는 2012년과 2016년에는 대략 430시간 운영되었고, 2013년~2015년에는 250~280시간 정도로 2012년과 2016년에 비해 1.5배 정도 적은 시간으로 운영되었다(<표 II-9>).

지원 프로그램별 각 시수가 년도에 따라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생활관리역량 또는 대인관계역량에 속할 수 있는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배정 시간은 꾸준하지만 다른 시간에 비해 낮은 시수임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탈출, 제3국 체류 등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과 남한 적응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 등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단시간적

접근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진로개발역량은 시수는 줄어드는 반면, 직업이나 진로를 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학습 지원은 줄어다가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참여역량을 높이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에 있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역사, 문화 등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표 II-9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단위: 시간)

		2012	2013	2014	2015	2016
정규 프로그램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49	49	46	46	50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196	197	174	157	144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	124	123	121	138	150
	초기 정착지원	51	51	51	51	48
	총 기본 시간	420(12주)			392(12주)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		438	257	257	284	431

* 출처: 통일부(2012; 2013; 2014; 2015; 2016). 통일백서. p.190; p.169; p.168; p.164; p.166.

주: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심리검사상담, 건강검진, 진로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적성검사, 진로지도, 기초직업적응훈련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역사문화·생활법률, 현장체험(시장구매, 역사체험, 도시체험)

초기 정착지원-정착지원제도 안내, 정착의지 함양교육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일과 전후 과정(우리말 교실, 영어회화, 컴퓨터 교육, 운전이론, 회계 기초), 주말과정(사이버교육, 요양보호사, 정착사례 특강, 체육·문화활동 등)

탈북 청소년은 일반 북한이탈주민과 달리 학령기에 해당되며 기초학습 등의 교육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은 정착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 입국초기 교육, 2단계 전환기 교육, 3단계 정착기 교육으로 구분된다(【그림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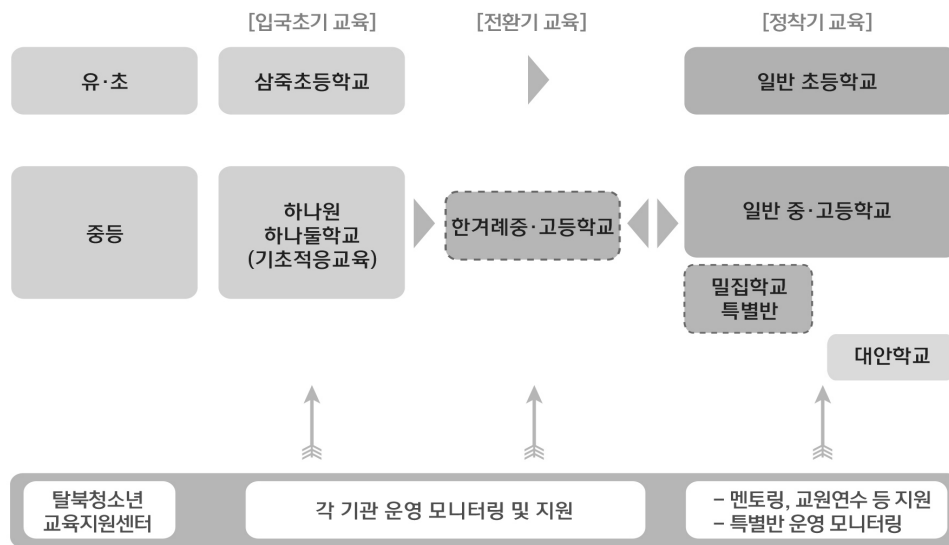
1단계인 입국초기 교육²⁾은 탈북 청소년의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3개월 동안의 기초학습 지도와

2) 하나원 아동·청소년교육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유치반	69	42	37	28	28
초등반	179	124	98	87	49
청소년반	198	113	106	90	68
계	446	279	241	205	145

* 출처: 통일부(2016). 통일백서. p.169.

심리적응 치료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에서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유치반 1개, 초등반 2개, 청소년반 3개를 운영하고 있다. 유치반과 초등반 학생들은 하나원 인근 삼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위탁하여 일반학생들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는 하나둘학교에서 기초학습,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공동체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반 학생들은 하나둘학교에서 전일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12명의 교사와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교육부, 2016. 2. 19 일자 보도자료).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a). 탈북 청소년 교육백서. p.62, 재인용

【그림 II-3】 정착단계별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개요

청소년기 특성에 맞춰 기초교과학습과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의 경제교육, 잡월드 진로체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소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통일부, 2016: pp.168~169). 하나원 퇴소 전 초등학교에서는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경기도 교육청³⁾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인

3) 2010년부터 하나원 퇴소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성시-경기도교육청 관할지역)이 일괄하여 학력심의를 실시함.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 기준과 절차는 일반 원칙과 동일하지만 하나원에서 예비학교 기본교육과정(3개월)을 학력인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수함. 즉 하나원 예비학교에서 3개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의 초등학교 졸업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함. 이는 한국 입국 전에 장기간 교육공백으로 인해 초등학교 4년 이하의 수학 연한을 가진 10대 중후반 청소년이 중학교 편입 혹은 고입 검정고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한국교육개발원, 2015a: p.30).

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6. 2. 19 일자 보도자료).

1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적 지원은 학령기라는 특성상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입국초기 교육은 대부분은 하나원을 통해 12주, 즉, 3개월 동안까지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습 지도보다는 탈북 청소년들이 거주지로 이동 후 (대안)학교로 입학했을 때, 청소년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교사 또는 전문가들이 개별적 접근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2단계인 전환기 교육은 일반학교에서 바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는 6개월 또는 1년간 학업보충과 사회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전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성화중·고등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통일부, 교육부에서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관리를 받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a: p.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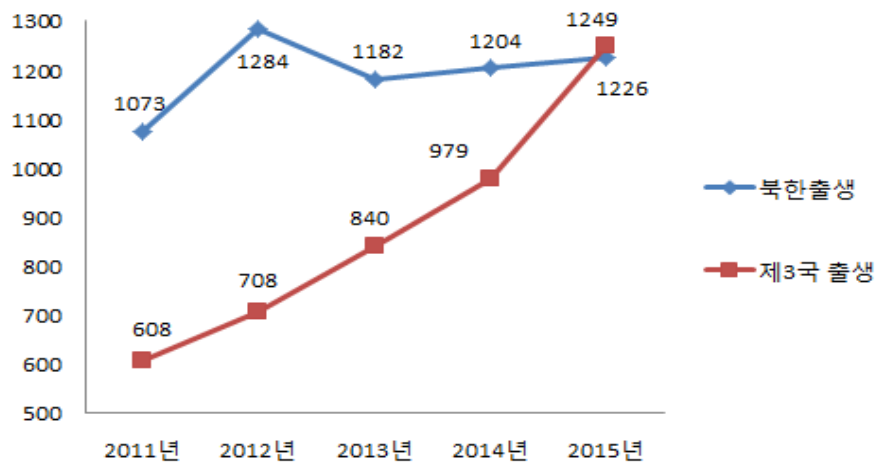
3단계인 정착기 교육은 탈북학생이 다수 다니고 있는 학교(밀집학교)에 특별반을 설치하여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고, 학령기 나이를 초과한 대상이나 학교 부적응을 보이는 탈북학생을 위한 별도의 대안학교로 여명학교, 하늘꿈학교가 있다. 또한 비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은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a: pp.61~62).

2단계와 3단계 교육인 전환기, 정착기 교육은 2개의 단계는 매우 탄력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환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체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로 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학하기 때문에 전환기 교육을 받는 동안 외부 학교와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과정 속에서 3단계의 대안학교, 정규학교로의 생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교류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착기 교육 단계에 해당하는 탈북학생은 남한에서 정규학교에 2,475명, 대안교육시설은 242명이 재학 중으로 총 2,717명이다(2015년 기준)(<표 II-32>).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경우는 북한출생과 제3국 출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는 북한출생 학생이 많은 수였지만 2015년부터는 제3국 출생 학생이 많아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출생 학생들이 증가폭이 매우 작은 반면 제3국 출생 학생들은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그림 II-4】). 대안교육시설의 인원 현황은 소폭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학생이 재학 학교 수는 2011년 579개교에서 2015년에는 1,026개교로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표 II-10>). 실제 탈북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91.1%가 탈북학생이 5명 미만이다 (한국교육개발원, 2015a: p.10).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함께 모여 거주하던 모습에서 각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처럼 탈북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밀집학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학생 특별 교육정책에서 일반교육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II-4】 정규학교 재학생 수 현황

표 II-10 탈북학생 재학생, 재학학교 수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정규학교	1,681	1,992	2,022	2,183	2,475
(북한출생)	(1,073)	(1,284)	(1,182)	(1,204)	(1,226)
(제3국 출생 ¹⁾)	(608)	(708)	(840)	(979)	(1,249)
대안교육시설 ²⁾	186	210	232	283	242
전체학교(교)	579	704	767	871	1,026

* 출처: 교육부 탈북학생 주요통계(2012; 2013; 2014; 2015)(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2016.1.28.인출)와 교육부. 2016. 2. 19 일자 보도자료 재구성

주: 1) 제3국 출생-중국을 포함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2) 대안교육시설-전일제 시설 인원에 해당

앞에서 언급했던 탈북 청소년의 정착단계별 교육지원체계를 토대로 하여 각 정착지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 <표 II-11>, <표 II-12>, <표 II-13>와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15a: pp.62~83).

표 II-11 정착지별(입국초기) 교육지원 현황

구분	지원내용	역량분류
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진단 및 학년배치 	생애학습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학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체험학습(진로, 여가, 환경, 경제, 전통 등) - 통합 어울림 활동(남북어울림 체험학습장 조성, 학부모 참여 운동회, 학예회 등) - 관계형성 프로그램(학급별 또래 관계개선, 만남 프로그램) 	생애학습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학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과 프로그램(기초 국어·수학과 예체능 교육 강화) - 적응교육: 12주간 일 4시간 - 탈북학생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수준별 12주 학습프로그램) - 체험학습 프로그램 - 중국어교실 - 협력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 -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 학부모 교육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지 학교와의 연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학생 교육 이력 시스템 운영·활용 - 정착지 학교 탈북학생 지도 교원 연수 지원 - 정착지 학교 방문 프로그램(학기당 1회) 	생애학습역량 대인관계역량
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교과교육 	생애학습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생활관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진학 교육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체험 프로그램 	대인관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심의 	생애학습역량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a), 탈북 청소년 교육백서, pp.62~83, 재구성, 삼죽초등학교(2015), 만남·소통·성장의 어울림 활동을 통한 탈북학생의 학교적응능력 향상: 경기도교육지정 탈북학생교육 정책연구학교 최종보고서, 경기:삼죽초등학교, pp.12~53, 재구성

<표 II-11>은 정착지별 교육지원 중 입국초기에 이뤄지는 내용으로는 초등학교에서는 학력 진단을 통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학습지도를 위한 학년 배치와 통합학급 프로그램으로 진로, 연가, 환경, 경제, 전통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탈북학생들이 남한에서의 교육을 적절히 받게 하기 위해 통합교과 개선·운영에 기초 국어, 수학 등과 예체능 교육을 강화, 탈북학생 맞춤 통합교과는 기초 국어, 수학과 예체능 교육을 강화와 남한 적응 교육이 12주간 일 4시간씩 이뤄지고 있다(삼죽초등학교, 2015: pp.13~14). 또한 탈북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 외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과 부모님의 경우 남한 사회에서의 적절한 자녀 양육 방법 등에 관해서도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남북이 하나되는 장을 조성,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 독려, 남북한 아동들이 또래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는 초등과 비슷한 지원으로 학력 수준을 심의하여 적절한 교육 수준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초 교과 교육지도와 심리 상담과 더불어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비교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신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급격한 삶의 방식의 변화를 비교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표 II-12 정착지별(전환기) 교육지원 현황

구분	지원내용	역량 분류
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교과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생애학습역량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 보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기적성(스크린, 배드민턴, 탁구, 예쁜 손글씨, 피아노, 난타, 프라천국, 바스킷볼, 워드 등) 	생애학습역량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진학 상담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국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지원 	생애학습역량
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 청소년 초기 적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 치유 특성화 교육과정 기초탐구교과 중심의 맞춤형 수업 체험활동과 교실수업 연계통합교육 프로그램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기본학력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 특별보충수업(국·영·수) 	생애학습역량

구분	지원내용	역량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과정 - 교내 직업교육반 - 개인별 진로상담 	진로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실제 운영 	생활관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공감학교 운영(자치공동체) 	사회참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어울림 통일축제 	사회참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교육 	사회참여역량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a). 탈북 청소년 교육백서. pp.62~83. 재구성

<표 II-12>는 전하기 교육지원 현황으로 하나원에서 나와 일반학교에 바로 적응하기에 힘든 경우에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는 6개월 또는 1년간 학생들의 학업과 적응을 지원한다. 중·고등 공통으로 기본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그 외로 다양한 특기적성 발달을 위해 특별보충교육 실시와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수업 제공 등이 있다. 진로·진학을 위해서는 중학교에서는 상담을 위주로 시행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실제적인 진로직업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자치활동, 통일 축제 및 교육 등을 각각 시행하며 정착지에서의 생활 적응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13>는 정착기 교육지원 현황이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한 후 가장 짧게는 3개월(하나원 3개월)에서 최대 15개월(하나원 3개월 + 한겨레중·고 최대 1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는 남한 국민과 함께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다. 정착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의 밀집학교를 다닌다거나 또는 밀집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니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의 밀집학교에서는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를 두어 탈북 학생에 대한 접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일반 학교에서도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여 초기생활 지원에 관련된 지원으로 멘토 교사 지정, 기초생활지도 등과 학습지원으로는 교과학습 보충, 특별학급 지원, 방과 후 학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뿐만 아니라 전문 심리상담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로지원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1:1의 멘토를 활용하여 잠재적 역량을 발굴 지원하는 HOP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특성화고교의 특별입학 전형과 직업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진로 및 진학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표 II-13 정착지별(정착기) 교육지원 현황

구분	지원내용	역량 분류
정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진단 및 배정 멘토교사 배정 기초생활지도 	생애학습역량 대인관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멘토링을 통한 교과학습 보충 특별학급 운영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토요거점 방과후 학교 운영 한국어지원 	생애학습역량 대인관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정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심리상담 지원 학생동아리 지원 	생활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역량개발지원(HOPE) 고등학교 직업관련 학과 탈북학생 특별입학 전형 확대 및 직업교육 기회 확대 진로 캠프 및 진로 상담 탈북학부모 동아리 지원 	진로개발역량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a). 탈북 청소년 교육백서. pp.61~83. 재구성

정착지별 교육지원 현황으로는 우선적으로 아동·청소년기가 학령기 연령대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대부분 학습지원과 관련한 생애학습역량에 초점이 비교적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입국초기 생애학습역량과 더불어 학령기 연령대에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생활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에 관련한 지원이 좀 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진로개발역량과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지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 구분은 단순히 지원 명칭에 따른 구분이므로, 세부 내용까지 살핀다면 특정 역량에 치우친 지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특정 역량만을 향상시키기보다는 프로그램과 지원 상에서 만나는 관련된 사람들과 또래 등과의 모든 상황이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정부부처 산하 지원기관 지원사업 내용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부 부처의 지원은 대부분은 산하 지원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 교육부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여성가족부는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각 지원기관의 지원사업 현황은 다음 <표 II-14>에서 <표 II-16>과 같다.

<표 II-14>은 남북하나재단 지원사업으로 전체 사업 중 특히 교육개발 및 지원의 경우에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대부분 속하는 내용이다. 교육개발 및 지원 부문은 통일미래 인재 육성과 청소년 교육 및 적응지원, 정착지원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3가지 영역을 다시 분류되어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학습)지원, 진로진학지원, 교육시설 지원, 생활거주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서도 탈북 청소년만을 위한 지원은 아니지만 탈북 청소년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지원은 탈북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청소년들이 역량을 높이고 잠재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표 II-14 남북하나재단 지원사업 현황

구분		추진 내용
지역사회통합 지원	정착도우미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병인수 및 가정방문 지원 • 정착도우미 운영기관 지원 •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전문상담사 관리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1:1 밀착 상담 서비스 제공 • 전문상담사의 업무 역량 강화 • 상담지원센터 등 운영지원 • 전문상담사 역량 강화 등 활동지원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사업 지원 및 운영 평가 • 종합상담센터(24시간 콜센터 포함) 운영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 • 초기전입 시 필수 가전제품 지원 •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상담 및 알선 • 구인구직자 지원사업 • 취업자 사후관리사업 • 지역 취업지원 사업 운영 • 취업전문 인력 양성

구분		추진 내용
자립·자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 일자리창출
	직업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종 특화사업 • 청년세대 취업지원 바우처 • 청년 취업아카데미 • 온라인 배움터 자격취득 교육 사업
	자립촉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정착지원 • 창업지원
교육개발 및 지원	통일미래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학교 재학 탈북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 탈북대학생 대상 한·미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지원 • 대학입시 박람회, 진로탐색프로그램 등을 통한 진로진학지원 • 예비대학 운영(방송통신대와 협업) • 평화·통일경진대회 개최 • 통일 미래리더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교육 및 적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 무연고청소년 등 그룹홈 지원 • 청소년 학습지원 •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 정보화 교육
	정착지원 전문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컨텐츠 및 과정 개발 • 교육실시(통일부 하나원과 협업을 통한 교육 실시) • 자격인증제 추진
주민통합 및 상호 인식 제고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매체 기획 및 운영 • 착한 콘텐츠 발굴 및 확산 •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언론관계자 인식개선) • 주민통합 이벤트 개최(어울림한마당 개최)
	대회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분야 • 국내협력분야

* 출처: 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 편람. 서울: 통일부 정착지원과 pp.88~93. 재구성

<표 II -15>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사회정착을 지원을 담당하는데 탈북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 접근, 교육적 접근, 진로지도 접근 등의 방식과 교재 개발, 교육 우수사례 확산, 교사 연수 등을 통한 지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주로 학교에 재학중인 탈북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밖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 -1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

구분	추진 내용
우수탈북학생 전문가결연 지원	• 탈북학생의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시
찾아가는 심리·정서 치료 체계적 지원	•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연결
탈북학생 멘토교사 연수	• 지역별 탈북학생 멘토링을 담당 교사 대상 연수 실시
정착지 학교 진로·직업교육 강화	• 지방거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제공, 탈북학생에게 맞춤형 진로상담 기회를 지역 내에서 상시 제공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탈북학생 대안교육시설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탈북학생의 성장·자립 역량 제고를 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필요와 교육 프로그램 내 직업교육 프로그램 강화 유도
표준(보충)교재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학생의 학습을 위한 남북한 교과 진도와 교과 용어 차이를 고려한 표준교재 • 탈북학생의 학습공백을 고려한 기초학력 향상 보충교재 필요 • 탈북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충교재 필요
탈북학생 교육 역량 제고	•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학생 배경과 특성을 이해를 기반으로 한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필요성 인식 및 지도능력 제고
우수 사례발굴·보급	•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학교·교원의 교육역량 제고 및 교육기반 확충
NK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 탈북학생 증가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탈북학생 및 탈북학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인력과 북한 출신 전문인력(교사)을 발굴하고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탈북학생 지원 인력으로서의 양성 필요
관계기관 협의체, 포럼운영	• 탈북학생 교육관계기관, 연구자, 교사, 활동가들과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 협력을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정보교류를 통한 연구 및 사업의 공론화 기여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b),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6차년도 사업결과 보고서(기술보고 TR 2015-37), pp.35~116

<표 II -16>은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지원사업이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을 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반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을 중점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탈북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는 하나원의 하나둘학교와 연계하여 비교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지원 하에 사회입문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축제, 교육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 자체가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 지원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나 최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많이 입국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필요하다. 현재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어디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 -16 무지개청소년센터 지원사업

구분	추진 내용
비교문화체험학습 (레인보우체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 하나둘학교 탈북 청소년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실생활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생활정보, 대중교통, 경제생활 등) - 문화체험(여가활동) - 심리상담(심리상담, 교육상담)
탈북 청소년 사회입문프로그램 (레인보우체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 하나둘학교 졸업생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 활동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한 동기 모임 운영
공동체리더십 장학금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탁월한 학업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소지자로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결연대학교의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2015 문화예술체육 축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을 주제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통일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 제고와 이주배경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 함양
탈북 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 청소년의 영어기초학력 향상과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탈북 청소년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재구성

3) 민간 지원사업 현황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정부부처나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단체의 시작은 2003년에 ‘하늘꿈학교’가 문을 열면서 시작하기 했다. 이후 민간단체가 주도적이며, 자발적으로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으로 발전하다가 2005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일부가 이들을 지원하고 2011년부터는 통일부가 지원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5a: p.170).

교육부 지원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 사업은 제도권 밖인 학교 밖에 존재하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도록 민간교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표 II-17>과 같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전일제 대안교육시설과 아동생활 시설인 그룹홈, 방과후 교육시설이 있으며, 통일부에서 사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

표 II-17 민간교육시설 지원 사업

	대안교육시설(전일제)	그룹홈(생활공동체)	방과후 교육시설
교육부-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12년)	6개 기관	6개 기관	10개 기관
통일부-남북하나재단	7개 기관	13개 기관 ¹⁾	20개 기관 ²⁾

* 출처: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업실명제 인출일(2016. 5. 19), 한국교육개발원(2015a), 탈북 청소년 교육백서, pp.173~180

주: 1) 사업지원: 10개 기관, 운영지원: 3개 기관(1개 기관 2015. 06 종결)

2) 사업지원: 13개 기관, 운영지원: 7개 기관

4) 정부 부처별 탈북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 내용

탈북 청소년 지원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따른 2015년도 시행계획”에 기재된 정책사업을 ‘탈북, 북한, 통일’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는 <표 II-18>과 같다. 분석 결과 여성가족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에서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된 활동 지원이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비교문화체험학습 실시로 2015년 총 72명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탈북 청소년 등을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하는 청소년위원으로 포함하여 다양한 인적 구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부에서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탈북학생 및 학부모 상담, 영어, 학습지 지원, 예비대학을 운영하여 대학체험, 대학 진학을 위한 특별전형 정보제공, 장학금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통일미래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한미취업연구프로그램, 대학생 CEO 멘토링, 남북통합프로젝트 경진대회 등을 시행하였다. 탈북 청소년 교육생활시설 운영지원에는 특성화 학교, 대안학교, 방과후 공부방, 그룹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외교부에서는 청소년 재외동포 이해연구에 소외계층 청소년인 북한이탈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I-18 2015년 탈북 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실적

정부부처	지원내용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청소년의 남북문화차이 이해증진 및 일상생활 적응력 강화를 위한 비교문화 체험학습(총 7회, 1일) 실시: 총 72명 지원 2015년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참여 확대, 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추진기구 개편 등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참가 청소년위원의 수가 전년 대비 31.7% 증가하였으며, 근로·북한이탈·한부모 가정·다문화 등 소수 청소년이 다양하게 참여함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 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사업 내실화를 통해 탈북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 지원(573명) 1:1 화상영어(월평균110명), 방문학습지(월평균750명) 지원 온·오프라인 예비대학*을 통해 대학생활을 사전 체험, 탈북학생용 대학입시자료집 발간(800부)하여 특별전형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예비대학('15.11.30~'16.1.15, 50명), 오프라인 캠프('15.2.2~2.6, 서울대, 70명) 탈북 청소년 장학금 지원(394명 5.2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 145명, 검정고시 14명, 대학 224명, 대학원 11명 지원 통일미래 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취업연수프로그램(WEST)을 통해 '15년 7명 선발·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ST는 최장18개월(현지 어학연수4~5개월+인턴6~12개월+여행1개월) 대학생CEO멘토링 등 메르켈프로젝트를 통해 '15년 탈북 청소년 350여명 양성 남북통합프로젝트 경진대회 참여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통해 '15년 88명(대학생 52명, 고등 36명) 양성 탈북 청소년 교육생활시설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학교(1개, 159명), 대안학교(8개, 382명), 방과후공부방(20개, 411명), 그룹홈 지원(13개, 70명)

정부부처	지원내용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 및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발굴,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23개 지역문화재단 및 컨소시엄기관 선정, 지원, 세부 프로그램 진행 일반청소년(지역 내 선주민)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지역 내 이주민)의 문화 간 상호 교류 및 문화감수성 증진 사업 전개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이해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상·하반기 중 <9박11일>(국내 훈련기간 포함) / 2회 지역 : 미주 1회, 미주 외 지역 1회 연수대상 : 만13세~23세 청소년 24명 내외 소외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북한 이탈자 등), 일반 청소년('15년 재외동포청소년문화상 수상자) 등 총 24명

* 출처: 여성가족부(2015).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재구성. 미발간자료

2016년 교육부에서는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강화,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를 위해 총 예산 3,955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표 II-19>)(교육부, 2016. 2. 19 일자 보도자료).

표 II-19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내용

추진 방향	주요 사업 내용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예산: 2,47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죽초 심리상담사 배치(1명) 및 특별학급 운영(4학급) 한겨레중·고 협력학교 운영(3교) 및 이중언어 강사 배치(2명) 정착기 학교 맞춤형 멘토링 확대(2,500여명) 등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예산: 30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원 학부모대상 진로교육 강화(월 2회, 연중) 한겨레중·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6개 과정)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진로·직업캠프(17개 시·도) 및 교육위탁(4개 시·도) 운영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예산: 1,17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원 학력심의 지원 및 하나둘학교 교사 파견(8명) 한겨레중·고 협의체 운영 지원(분기별) 교원의 탈북학생 교육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연수(5,600여명), 정책연구학교(12교), 수업연구회(8개) 탈북학생 교육자료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보충)교재 보급(32종), 문해력 증진교재 개발·보급(3종) 관계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

* 출처: 교육부, 2016. 2. 19 일자 보도자료 재인용

첫째, 탈북학생을 위해 맞춤형 교육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생들 각자의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결연하여 1:1 맞춤형 멘토링 확대를 위해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을 2015년 2,200명에서 2016년 2,500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 학생을 위해서 삼죽초등학교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전환기 교육기관인 한겨레 고등학교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하였다.

둘째,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입국 초기인 하나원에 생활하는 과정 중 탈북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월 2회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하나원에서 퇴소 후 정착기 학교 선택 정보와 학교적응을 지원한다. 하나원 생활과정에서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지원은 외부와 소통이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은 피상적인 접근이거나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환기 교육을 맡고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직업캠프 확대와 직업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특별입학전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셋째,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방안으로는 하나원 내 하나돌학교에 중등교사 파견을 통한 학습지도, 진로·진학 상담 등을 지원하고, 탈북학생 지도교원의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그리고 탈북학생들이 남북한 어휘나 음운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남한 주민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면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해력 증진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발표는 전반적으로 학업 지원 및 진로, 직업과 관련한 내용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리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 전문가를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리·정서적 지원에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중요성과 더불어 청소년기의 심리적 동요가 가장 많은 시기에 탈북, 제3국 체류 등의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전환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입국 초기, 전환기 시기, 정착지 시기에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탈북 청소년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탈북 청소년의 정책 및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살펴보기 위해 공공부문 지원정책(길은

배, 2015), 민간교육시설에 관한 개선점(곽재석, 2012)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정책에 기초한 남한의 사회통합 모형은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교육을 지원을 위주로 한 정책은 동화주의, 두 번째는 공교육 이외에 심리상담, 정착도우미, 사회적응 프로그램, 전담코디네이터 지원은 다문화주의, 세 번째로는 탈북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에는 차별배제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길은배, 2015).

탈북 청소년을 두고 각 모형에 따라 지원 방향이 제각기 이뤄지고 있어 대상자들은 더욱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언급하였다. 첫 번째로는 공공과 민간에서 동반자 관계를 갖고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교육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시민교육 차원에서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한국으로 바로 입국하는 경우보다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자식을 낳고 입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할만한 근거가 빈약하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정책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고 있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탈북 청소년 지원정책이 다부처, 다기관으로 나뉘져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책을 조정·협력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이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한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필요에 따른 국가 자격증이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길은배, 2015: pp.232~234).

민간교육시설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개선활동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적절성과 체계성, 프로그램의 질적 확보를 언급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특화성 부족과 우수 프로그램 보급 및 내실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가족중심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기관운영 현황에 관해서는 교사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곽재석, 2012).

민간교육시설의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하여 관련된 제언은 첫 번째,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역량개발을 위한 인적투자 개념에 기초하여 탈북 청소년의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지원 기관 선정과 지원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차를 고려한다든지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별 민간교육기관이나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 시행 등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등과 함께 요구하고 있다. 네 번째, 민간교육기관이 열악한 인적구성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컨설팅 프로그램이 재정지원 사업에서의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에 치우쳐져 있어 전문경영,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된 컨설팅 지원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이 잠재된 탈북 청소년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방안이기에 이를 적극 홍보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곽재석, 2012: pp.22~24).

탈북 청소년의 정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는 기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연구 내용을 살펴보았다. 공공부문에서는 통일부의 남북하나재단, 교육부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여성가족부의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부처 산하기관들이 서로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줄여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사각지대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기구를 통한 각각의 사업 및 지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민간기관과의 역할 협력과 기존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식 및 형태를 유지하면서 민간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기관과의 협력 및 강화에 있어서는 민간기관의 기관, 청소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탈북 청소년의 경우는 북한에서의 생활 및 제3국 경험 등으로 외상 수준, 학습 수준 등 매우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여 집단별 접근보다 개별적 접근 시도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져야 한다.

4. 요약 및 소결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는 중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북한에서의 생활 방식 및 습관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독재체제는 남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와는 삶 자체가 매우 상이하며, 남한 경제수준에 비해 북한 경제수준은 3~40년 정도의 뒤쳐진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격차를 단시간에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환경 속에서 탈북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지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파악된 탈북 청소년의 각종 지원 욕구에 관해서는 주로 학업, 진로, 진학 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일부와 탈북 청소년이 대부분 학령기임에 따라 교육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도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일부와 교육부에 비해 역할이 매우 빈약하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에서 각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을 통한 기관간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민간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 지원은 정착 단계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연령이나 상황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일반 정규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과의 접촉이 활발하고 학생 신상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개입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하는 많은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탈북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탈북 청소년과 후기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연계가 필요하며, 이는 탈북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 III 장

독일과 미국의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사례

1. 독일 통일 전후 청소년 통합정책
고찰
2. 미국의 이민자·난민에 대한 청소년
지원방안

제 III 장 독일과 미국의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사례

분단국가에서 통합의 과정을 거쳤던 독일의 아동·청소년 사례 등 국외의 유사한 사례를 파악해 봄으로써,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초점을 수동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고 서로 다른 체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기초로 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정책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Korean Human Rights Act)’(2004) 제정으로 통해 탈북자들이 미국 망명이 허용되자 국외로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난민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다(조정아 외 2014: p.211). 이에 미국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어떤 관점과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남한에서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 참고할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독일 통일 전후 청소년 통합정책 고찰⁴⁾

이 장에서는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탈북 청소년 정책접근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이후 연방정부의 구동독지역 청소년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독일 통일 전후 청소년 통합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법과 전달체계, 예산, 그리고 통합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1) 통일전후 동독청소년

먼저 통일 전후 청소년통합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단계로 통일 전후 사회적 배경과 동독 청소년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독청소년에게 통일은 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listische

4) 이 절은 홍문기 박사(더드림복지연구소 소장)가 집필함.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의 사회주의 가치관인 명령사회(Kommandogesellschaft)와 명령교육(Kommandopaedagogik), 그리고 공동체 삶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수용해야 함을 의미했다. 통일은 동독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삶의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도리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모험적인 삶이기도 하였다. 이는 자아정체성 혼란과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상호작용 단절을 야기했으며, 자본주의 다변화사회에서 새로운 교육 및 직업시스템에 새로운 통합을 의미하였다(BMFSFJ, 1994: p.19). 동독청소년의 제 2막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국가의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선포를 기점으로 그들의 선택과 자유, 권리가 새롭게 인정되었다.

1993년 2월과 3월에 14~27세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험연구(IPOS:Institut fuer praxisorientierte Sozial forschung)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동독 청소년은 통일이후에 그들의 삶을 우울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도리어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었다. 동독 사회체제 변화로 혼란을 겪었음에도 71%의 동독청소년이 서독의 민주주의 통합결정과정에서 옳았다고 인식하였다(BMFSFJ, 1994: p.31). 1993년 10월부터 12월까지 15~30세 대상으로 행해진 경험연구에서는 58%의 동독청소년이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인식하였고 '그저 그렇다'는 33%로 나타났다. 또한 46%의 청소년은 통일이후 삶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인식하였으며, '같다' 39%, '나빠졌다' 14%로 나타나 대부분의 동독청소년이 인식하는 독일통일과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으로 분석되었다(BMFSFJ, 1994: p.95). 이러한 이유는 사회적 과도기 변화 속에서 동독청소년은 서독과의 다양한 교류, 혹은 매체를 통한 정보교환이 진행되면서 서독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독청소년의 사회체제 변화로 가치관 혼란과 진로·학업 문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1) 동독청소년의 가치관문제

통일 전에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동독 내 사회체제에서 성장해 온 동독시민들과 청소년들은 서독의 자본주의 통일 앞에 혼란이 있었음은 자명하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아래 사회주의적 의식형성을 해온 동독청소년들은 공동체적 가치관, 사회적 평등과 집단적 문화를 중심으로 의식구조를 형성하였지만, 통일 이후 개인주의와 다양성,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개인적 선택과 원하는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여행, 주거 등- 과 노동시장의 무한경쟁, 실업의 두려움, 동독학업증 혹은 기술자격의 서독지역에서의 인정여부(이영란, 2004: p.173) 등의 사이에서 새롭게 펼쳐진 동독청소년의 인생방향에 대한 도전과 적응은 연방정부의 동·서독 청소년

통합정책이 핵심과제로 떠오르는 동기가 되었다.

특히 동독청소년에게는 다른 계층보다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더 크게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통일 이후 몇 년 동안 과도기적 사회기에 동독지역 청소년 범죄의 상승 및 극우주의의 증가,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시스템 변화,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주의, 경쟁, 자유로운 직업선택과 앞으로의 인생문제 등이 동독 청소년에게 기회와 동시에 혼란으로 작용하였다.

2001년과 2004년에 베를린과 드레스덴에서 29세 미만의 ‘동독지역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를 중심으로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한 이영란(2004)의 연구를 살펴보면, 동독청소년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공동체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고 보고한다. 동독의 경제변화 및 화폐정책으로 가족의 실업이 나타났으며, 동독청소년에게 진로문제와 소득관에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독일 시민이지만 구동독시민이라는 이중적 울타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구동독의 사회주의와 통일 자본주의 사이에서 개인주의, 선택과 자유 등에 대한 가치관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연방정부로 하여금 동독청소년에 대한 민주주의 가치관과 자본주의 세계관의 통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하였다.

(2) 동독청소년의 교육문제

동독 학제의 목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적 인간을 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어릴 적부터 철저한 사회주의적 교육을 진행하는데 의무교육의 시작은 6세부터 16세까지이다. 이중 10%정도는 도제생활을 위해 직업학교로 진학하며, 나머지는 연장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연장고등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준비를 하는 곳이며, 선발기준은 사회주의 사상적 이념과 사회적 위치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동독의 대학생살을 살펴보면, 대학 학생수는 국가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정해지며, 대학마다 20~25명의 세미나 그룹이 편성되어 공산당 청소년단체(FDJ)에서 사회주의를 지도받게 된다(송광성, 1994: pp.41-44).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가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되었기에, 동독의 교육제도도 서독식⁵⁾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기존에 받아왔던 군사교육이나 공민교육, 또는 사회주의

5) 서독의 교육이념은 특정한 이념이나 민족주의 사상교육을 철저히 배제한다. 과거 전체주의 관념에 입각한 세계전쟁에 종주국 상처가 있는 독일로써 민족주의를 강조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의 조항처럼 연방에서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정하는 것이 아닌 각 주의 고유권한으로 헌법에서 지정하여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피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합리적 사고발달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흥미나 참여를 통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송광성, 1994: p.55)

이념교육에서 새롭게 개편된 동독학제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자본주의의 체제를 교육하면서 동독청소년에게 혼란이 발생하였다. 그간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설명 듣고, 평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각해온 사회주의 교육방식에 가치관의 혼란은 분명하였다. 이는 동독청소년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새로운 교육체제의 적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나타났다. 특히 통일 이후 서독의 학제에 통합된 동독의 청소년은 서독의 기준으로 학력을 평가하였으며, 수준이 낮아 대학진학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독일연방정부는 의과대학에 동독대학생의 진학을 제한하기도 하였다(송광성, 1994: pp.56-57).

(3) 동독청소년의 진로문제

통일 이후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용해야 했던 동독지역은 일약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동독지역의 경제적 붕괴는 인프라 구조, 공업부분, 환경부분, 다양한 상품 등이 국제사회에서 경쟁이 뒤처지게 되고, 10년 동안 투자는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 붕괴를 경험해야 했다. 동독청소년에게 직업노동환경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직업을 구할 수 없는 2차적 붕괴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기존의 직업학교와 연결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으며, 부모와 이웃이 일자리를 잃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퇴직하는 모습을 본 동독청소년의 심리적 부담감은 적지 않았다(BMFSFJ, 1994: p.96).

콘라드 아데나워 연구소가 1992년 15-25세 독일 청소년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험연구에서 26%의 서독청소년응답에 비해 57% 동독청소년이 실업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위협적 실업, 사회 불평등과 불확실성,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경쟁 등을 서독청소년에 비해 동독청소년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공식적 실업자의 기록을 살펴보면 1990년에 24만명에서 1996년에 126만명으로 상승하여 전체인원 대비 17.9%의 동독시민이 (여성의 2/3가 실업) 일자리를 갖지 못하였다. 노동자는 1990년 9천 5백만에서 1994년 6백만으로 전체인원 2/5가 노동자였다. 특히 15-25세 사이 청소년은 26만 5천명이 실업자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 서독과 비교해보면 1994년 18세에서 27세까지 서독실업률이 3.3%인 것에 비해, 동독은 19%에 육박하였다(BMFSFJ, 1994: p.98; 송광성, 1994: p.107).

(4) 동독청소년의 통합문제

통일 후에 동독청소년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는 새로운 체제적응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이었다. 특히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여가생활이 부족하였는데 1991년 서독의 청소년기관과 종사자가 13,443개, 기관 35,000명의 청소년종사자가 서독청소년을 지원한 것에 비해, 구 동독지역은 489개의 청소년기관과 2,987명의 청소년종사자가 활동하였다. 특히 구동독지역 청소년종사자는 서독수준의 새로운 자격검증과 체제교육 변화가 요구되었으므로 청소년종사자가 사실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하여 통일이후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에 전달체계와 다양한 민간단체의 설립과 종사자의 교육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이것에 더하여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자아정체성과 소속감의 상실, 더욱 깊어지는 세대간 갈등,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동독청소년의 어려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청소년 안전문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무기력과 희망상실, 정신건강의 문제, 자아정체성 상실, 마약이나 알코올 경향, 공격성과 폭력성 급증으로 나타났다(Kress, 1997: p.136). 더불어 통일이후 새롭게 구성된 연방정부 아래 구동독지역의 기존 제도와 법제를 단지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논의없이 파기하여 동서독 청소년간 문화심리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다(채해웅, 2013: p.15).

이로써 독일연방정부는 동독청소년이 가지는 가치관 혼란, 진로 및 교육문제, 폭력문제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이는 청소년통합정책과 여성정책, 진로정책, 가족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동독청소년을 새로운 체계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목표를 가졌다.

2) 독일 통일 후 청소년 통합정책

(1) 청소년통합정책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 통합지원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통일이전 서독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을 실행해온 여성청소년부(Bundes ministerium fuer Frauen und Jugend)는 통일이후 동독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이라는 목표아래 연방청소년계획(Bundes jugendplan)을 수립하고 청소년통합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연방청소년계획은 연방차원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청소년종사자의 지속교육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근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통일 전인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정부에서 1950년에 전쟁고아와 망명자 청소년을 지원하는 수혜적 구제성격을 가진 연방 청소년계획에서 통일전후인 1990년 사이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으로

재정적 확대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인 정치교육, 여가활동 등에 다양한 영역을 청소년계획에 포함하게 되었다. 연방청소년계획을 토대로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에 신속히 청소년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정부 혹은 지자체단위에서는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동독지역에 구축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a: p.22).

통일 이후 동독 청소년의 지원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을 1990년 5월 11일에 연방상원에서 가결하고, 1990년 10월 3일에 동독권 지역에, 1991년 1월 1일부터 서독 지역에 효력이 발생하였다(홍문기, 2016: p.123). 개정 내용에는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기존 사후개입적 관점을 고수하였다면, 국가 공공기관인 청소년청을 예방지향적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지원법 내용(Leistungen, § § 11-41 KJHG) :

§ § 11-15 청소년사업(Jugendarbeit) 청소년사회복지 (Jugendsozialarbeit) 아동청소년보호 (erzieherischer Kinder-und Jugendschutz)	§ § 16-21 가족교육지원 (Förderung der Erziehung in der Familie)	§ § 22-26 아동보호시설, 이용시설 지원 (Förderung von Kinder in Tageseinrichtungen und Tagespflege)	§ § 27-41 장애아 통합교육지원 (Hilfen zur Erziehung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청소년사업 (Internationale Jugendarbeit) • 청소년단체 지원 (Förderung der Jugendverbän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교육 (Familienbildung) • 가족상담 (Familienberatung) • 가족휴양 (Familienerholung) • 이혼, 별거상담 (Trennungs-und Scheidungsberatu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아소(Krippe) • 유치원(Kindergarten) • 보호소(Horte) • 자조그룹 (selbstorganisierte Grup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통합교육지원 (Ambulante Erziehungshilfen) • 위탁(Pflegefamilie) • 시설교육 (Heimerziehung)

그 외 내용(Andere Aufgaben, § § 42-60 KJH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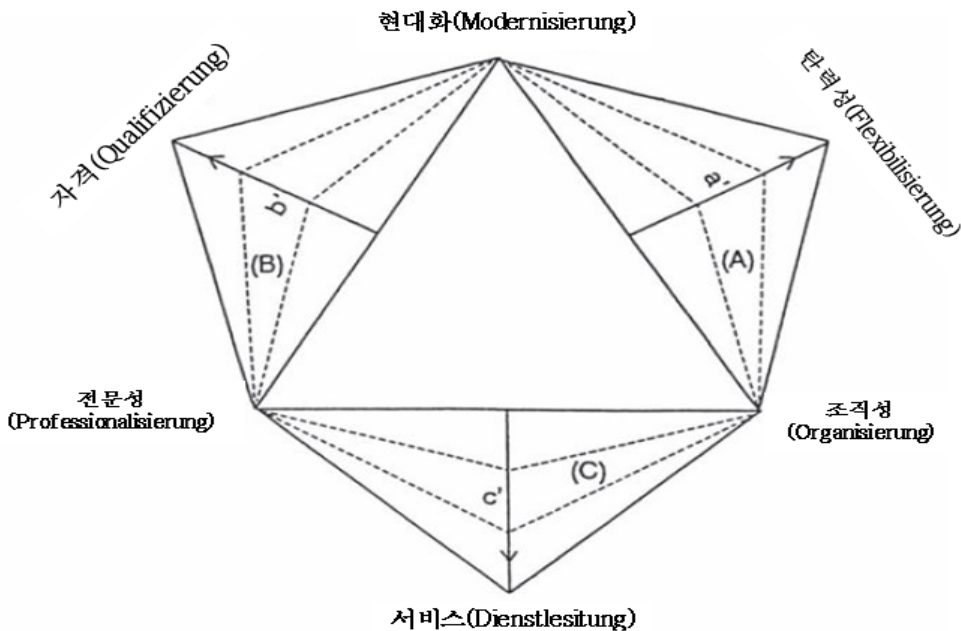
일시보호(Inobhutnahme), 후견인(Mitwirkung vor Vormundschafts),
가정법원(Familien-und Jugendgerichten)

* 출처. www.kinder-jugendhilfe.info. 인출일: 2016. 9. 30

【그림 III -1】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구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1조-21조 가족지원서비스로 양육상담 및 지원, 주거와 긴급보호 등의 업무를 규정한다. § 22조-26조는 보충적서비스로 주간보호시설 지원사항과 § 27조-32조는 외부 교육지원과 도우미 등과 관련된다. § 33조-35조는 대체적서비스로 외부시설에서 단기간 혹은 장기간 아동을 보호하거나 위탁과 관련된다(【그림 III-1】). 특히 청소년통합정책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기능과 보호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의 환경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Fieseler, G., et al., 2010; p.171; Hong, 2016: p.155; 홍문기, 2015: p.104).

구동독지역의 청소년통합정책은 독일청소년복지에 있어 새로운 통합정책조건, 유연적·수평적 민관단체의 협력, 청소년복지서비스의 다양화, 이론적 배경과 현장중심의 실무능력을 가능케 하는 청소년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을 요구하였다. 특히 청소년통합정책에 있어 조직적·전문적·청소년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역량의 균형적인 동등함을 통합정책의 목표로 하였다(Kress, 1997: pp.229~230).



* 영역: A=조직화과정(Organisationsentwicklung), B=역량과정(Kompetenzentwicklung), C=지원프로세스과정(Angebotsentwicklung)

** 방향: a=합리성(Rationalität), b=재귀성(Reflexivität), c=반응성(Responsivität)

* 출처: BMFSFJ (1994), Neunter Jugendbericht, Bonn, S. p.585. 재인용

【그림 III-2】 독일 청소년통합정책의 제도적 구조

구체적으로 【그림 III-2】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A영역은 조직체계영역으로 볼 수 있다. 구동독지역 청소년의 특별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통합지원체계는 탄력성에 맞춰, 유연성에 맞춰, 청소년역량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지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이때에 탈관료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구동독지역의 청소년지원이라는 목표에 기반하여 지역성을 고려한 합리적 탄력성으로 관련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하였다. 구동독지역 청소년통합에 맞춘 조직체계 전략을 살펴보면, 1. 지자체와 주정부의 담당기구 간 명료한 관계구성, 2. 공공기구와 민간단체 간 이익상충 해결, 3. 효율성과 청소년육구 기준을 고려한 청소년관련단체의 공동 청소년통합계획, 4. 청소년통합정책 결정을 위한 주정부·지자체 청소년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5. 2년~3년 주기의 청소년단체 예산수립 6.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교육영역 전문가 확보, 7. 청소년통합정책과 관련된 지자체의회, 노동청, 환경청, 문화청 등의 연계, 8. 단계별 사회공간적-연계적인 청소년통합정책의 참여,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1) 문제발견 및 문제구조 (2) 발전가능성 진단 (3) 수요조사 (4) 우선순위 정책 결정 (5) 단계별에 따라 프로그램 실행 (6) 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8) 언론과 협력체계(학교, 청소년단체)에 대한 홍보업무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B영역을 살펴보면, 청소년통합정책의 자격기준인 전문성과 관련된다. 특히 청소년행정과 청소년단체 영역에서의 종사자역량과 관련된다. 특히 자격화과정에 있어서 방향을 재귀성(Reflexivitaet)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련종사자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현장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고찰하여 청소년통합정책에 재적용 및 변화를 창출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청소년통합정책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1. 적합한 교육기관의 자격기준(청소년관련 학·교육학 등의 전공), 2. 지속적 청소년통합정책의 보수교육 참여(기관차원, 지역차원, 주정부차원), 3. 센터·지자체·주정부 차원에서 담당자의 공동협력 및 청소년통합정책의 지원체계 발전 4. 개인 혹은 청소년복지팀에 대한 수퍼비전 5. 담당자의 능력에 따른 업무고려 등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C영역을 살펴보면, 청소년통합 서비스영역에 대한 책임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 서비스영역인 청소년통합복지는 현장에서의 반응성 정도에 따라 서비스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1. 청소년문화 활동과 관련된 청소년요구를 수용, 2. 청소년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한 청소년지원체계와 프로그램 운영, 진로활동 등에 전문가 자문수용, 3. 청소년안전과 관련된 청소년관련 체계 개입(홍보, 정책개입, 프로그램 운영 등), 4.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예방 및 개입적 청소년통합 프로그램(약물 등), 5. 학교와 연합하여 구동독지역에 청소년 문화공간 구성 및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등이다.

독일 청소년통합정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축인 전문성·조직성·현장중심의 청소년서비스와 관련되어 사회정책적·전문적인 개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구동독지역 청소년 통합정책은 예방적 영역에서의 청소년 안전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청소년육구에 기초한 청소년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영역과 민간단체의 관련종사자, 정책과 정치적 결정을 관장하는 담당자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문성을 요구하였다(Kress, 1997: pp.229~230; BMFSFJ, 1994: p.585).

이러한 법적·제도적 상황을 배경으로 통일이후 구 동독지역에 여성청소년부는 1991년부터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문화청소년교육(Kulturelle Jugendbildung), 국제청소년복지(Internationale Jugendarbeit), 스포츠청소년교육(sportliche Jugendbildung), 연방중앙청소년협회업무(Bundeszentrale Jugendverbandsarbeit),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과 복지업무(Erziehungshilfen und die Hilfen für Kinder), 그리고 동독청소년과 관련된 가족지원정책, 여성청소년지원정책, 청소년진로정책을 추진하였다(Kress, 1997: p.126; BMAS, 1993: p.95).

(2) 청소년통합정책 전달체계

청소년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정책과 복지정책에 있어서 연방정부차원, 주정부차원, 지자체 차원에서 구성되었으며, 이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에 근거하여 각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정책의 지원과 활동을 관할한다. 연방청소년위원회(Bundesjugendkuratorium)는 아동청소년지원법 8조에 따라 학계와 현장의 청소년전문가 15인 이하로 구성되어 연방청소년정책을 자문한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매해 4년마다 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und Jugendbericht)를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관련 부처, 각 주정부, 민간단체 네트워크 등과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이익을 위하여 진로, 여가, 교육, 건강 등에서 지원활동, 다양한 청소년 연구과제 장려, 청소년현황과악, 국제청소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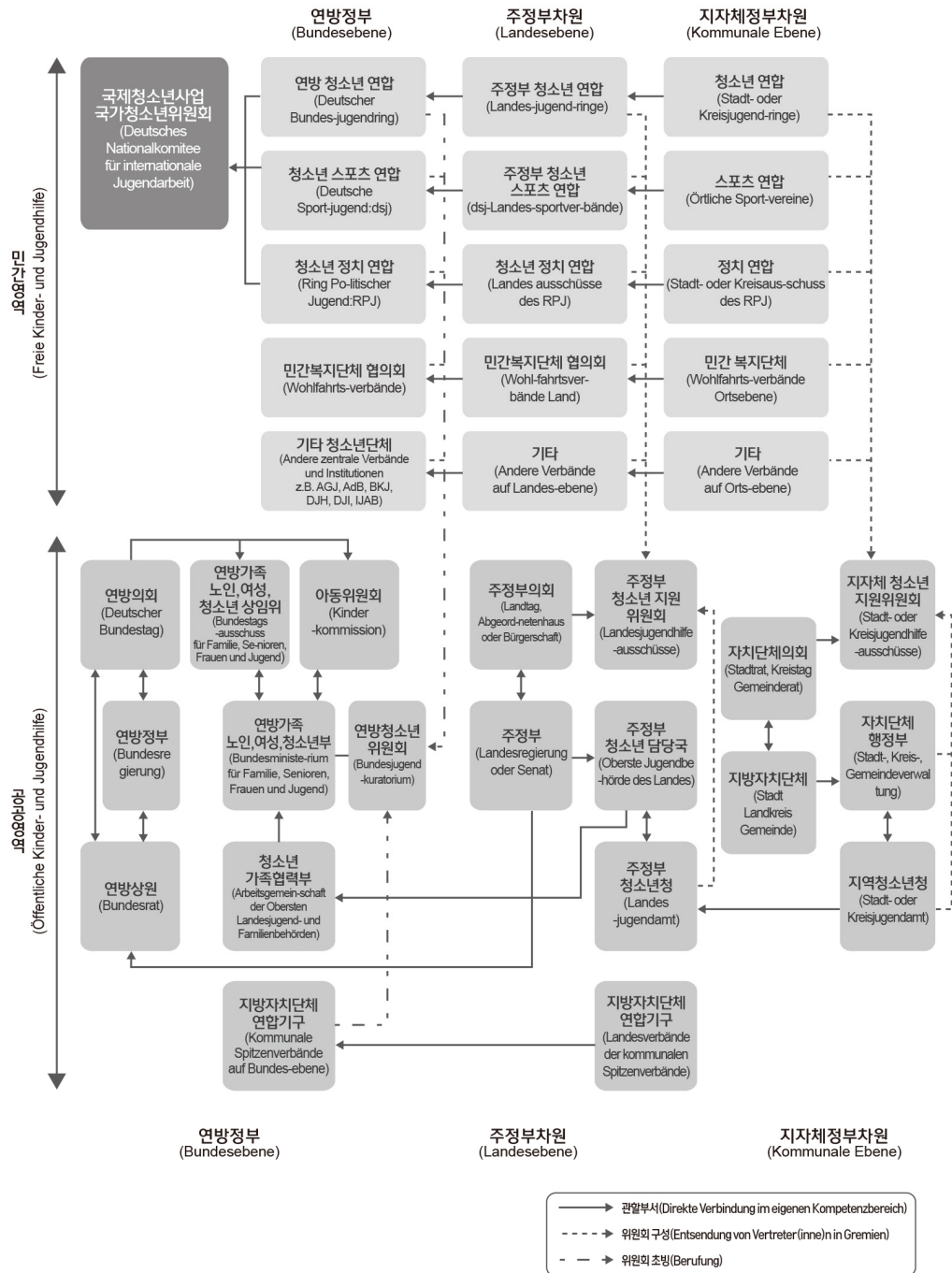
주정부나 지자체정부차원에서는 청소년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장려하고, 청소년단체 종사자의 지속교육 및 상담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독일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구조는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 상세한 규정들은 각 주의 조례에 의해 다뤄지게 된다. 주목할 것은 지역단위의 청소년청을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의해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자치적인 청소년정책과 활동, 시행 및 예산 등을 총괄하는 총책임의

역할을 청소년청으로 규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 청소년전달체계를 신속히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민간단체체계를 살펴보면, 공공영역과 마찬가지로 연방차원과 주차원, 자치단체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청소년단체는 청소년연합회, 정치위원회, 스포츠, 사회복지단체연합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통합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지자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주정부와 연방정부차원까지 연계되어 정책적·행정적 지원 및 감독, 비판적 견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이들이 속해있는 주단위 혹은 자치단체단위의 청소년위원회에 각 대표들이 위원회로 소속되어 공공청소년체계와 지역 청소년정책 및 협의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에 자문 및 조언, 비판 및 감독역할, 청소년 사업제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구동독지역의 청소년통합정책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청소년계획을 만들어 방향설정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지만, 실제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실행은 지자체의 청소년청과 지역청소년 민간단체가 함께 추진하였다. 이는 지역성을 고려하여 유연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청소년통합정책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a: p.22; 최순종, 2015: p.13)

주목할 것은, 공공과 민간의 수평적인 구조를 볼 수 있다. 청소년청은 공식적으로 지역협회 혹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및 논의과정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원체계(보조금 등)역시 공식적으로 청소년 민간단체협의회와 논의하여 집행되었다. 이는 개별민간단체가 보조금 형식으로 공공단체와 협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모든 형태의 지원금은 민간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차원 등과 협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배분하는 방식을 가진다. 이렇기에 공공영역의 책임성·재정성·감독권의 법적인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는 수평적 교섭단체로써 독립적·재정적인 안정성을 꾀할 수 있었다. 특히, 중앙정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토대로 공급자-수급자 관계에서 행할 수 있는 불합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차성환, 김덕환, 2007: p.110)(【그림 III-3】).



* 출처: www.kinder-jugendhilfe.info, 인출일: 2016.09.30

【그림 III-3】 독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3) 청소년통합정책 프로그램

구동독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청소년계획을 수립하고, 구동독지역에 다양한 청소년통합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 청소년복지 전문가 자격지원 프로그램 (Qualifizierungsprogramm Jugendhilfe)

동독청소년 통합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1990년 10월 15일 지역 청소년 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정보·상담·보수교육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단체(Informations-, Beratungs-, Fortbildungsdienst Jugendhilfe: IBFJ)를 설립하고 연방재정으로 지원하였다. 이 단체는 동독 청소년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독과 같은 수준의 청소년복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과 민간단체에 근무하는 청소년관련 종사자에게 통일이후부터 1994년까지 청소년지원 46개 사업영역에 440회 세미나와 약 6800명의 종사자를 교육하였다(Pitschas, 1992: p.87; BMAS, 1993: p.96; 맹영임 외, 2013: p.79). 하지만 이 사업은 종종 참여당사자인 동독청소년 관련종사자에게 기존 동독의 교육과 직업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아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Kress, 1997: p.126).

나. 아동청소년 민간단체 설립 및 증축을 위한 청소년정책 프로그램

(AFT: Jugend politisches Programm des Bundes zum Auf- und Ausbau Freier Traeger der Kinder- und Jugendhilfe)

1992년 여성청소년부는 동독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민간단체의 부족과 지원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하여 기존 동독지역에 아동·청소년 민간단체 설립 및 확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으로 동독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132개의 청소년 공간 및 지역상담소(Kontaktstellen), 민간단체 구축·지원을 위한 71개 기관설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12,000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진행하였다(BMFSFJ, 1994: p.332). 특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으로 자조집단과 동아리활동 (Selbsthilfe gruppen und Initiativen), 청소년관련단체(Jugendverbaende), 복지단체(Wohlfahrtsver baende), 교회 및 종교단체(Kirchen und Religionsgemeinschaften) 등이 포함되었다.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는 청소년진로, 청소년사회복지, 아동청소년보호, 가족교육지원, 주간보호 시설지원, 교육지원 및 상담, 일시보호, 법원절차와의 협력, 가정위탁의 상담 및 지원, 통합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Kress, 1997: p.126).

AFT 프로그램은 3개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며, 총 5천만 마르크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AFT 1은 지역범위의 청소년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한다. AFT 2는 민간단체가 청소년단체를 구축하거나 확대하기를 원하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FT 3는 청소년관련 단체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의 보수교육 및 세미나를 지원하여 업무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하였다(BMFSFJ, 1994: p.332).

다. 폭력과 공격성에 대한 예방활동 프로그램

(Aktionsprogramm gegen Aggression und Gewalt: AgAG)

동독지역에 청소년들의 비행과 폭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활동프로그램(Aktionsprogramm gegen Aggression und Gewalt: AgAG)이다.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폭력 증가원인을 동독청소년의 새로운 사회체제의 부적응, 동서독간 경제적 격차, 실업률, 미래에 대한 불안, 교육 및 가치관의 혼란, 정치적 소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영란, 2007: p.6). 1991년에 청소년청, 동독 내부무와 범죄청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동독 30개 지역에서 총 150개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BMAS, 1993: p.96).

본 프로그램은 폭력을 가하는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의 청소년지원체제와 연결하여 지원 및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독청소년 예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역단위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여성청소년부는 약 2천만 마르크를 매해 각 동독의 주정부로 지원하였으며,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1996년부터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에는 지역 청소년폭력대처를 위한 프로젝트, 관공서나 관련 기관의 상담지원, 정보나 교육·자격 등의 지원과 평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Hoyerswerda 지역에 청소년클럽을 AgAG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이 클럽은 주택단지 근처에 놓여있으며, 주민인원 약 6만명 중에 25세 미만이 2만명이었다. 청소년클럽 사회복지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공간(청소년카페 'Kreativcafe')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극우성향의 청소년 약 30여명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후 1994년 프로젝트 평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폭력은 감소하였다(Kress, 1997: p.128). 더불어 청소년폭력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여가센터 설립, 청소년보호안내소, 사법기관의 지원, 소년법정의 초기관여, 처벌유예,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을 함께 교육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송광성 1994: p.139).

라. 아동 주간보호시설 (Tageseinrichtungen fuer Kinder)

‘동독지역 아동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지원(Erhalt und Weiterentwicklung von Tageseinrichtungen fuer Kinder in den neuen Laendern)’이란 사업명으로, 친화적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 아동·청소년폭력과 관련된 예방적 조치, 환경개선 등에 집중되었다. 먼저 청소년을 만나는 청소년지도사의 교육이 필요하여 ‘아동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전문교육프로그램(Multiplikotorenfortbildung Tageseinrichtungen fuer Kinder)’을 만들고 관련종사자에게 전문 교육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였다(BMAS, 1993: p.95). 1991년 6월 30일까지 연방정부는 백만 마르크를 주간보호시설에 지원하여, 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속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Kress, 1997: p.126).

마. 여름만남 프로그램 (Sommer der Begegnung)

여름만남 프로그램은 동·서독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젝트이다. 여성청소년부는 1991년에 약 1100회의 활동을 진행하여 약 85,000명의 동·서독 청소년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1992년에는 통일이후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적 이데올로기 혹은 교육의 변화로 혼란스러운 동독청소년에게 활동이 지원되었다(BMAS, 1993: p.96).

바. 국제 청소년복지 (Internationale Jugendarbeit)

국제청소년사회복지는 연방으로부터 민간 및 공공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교육을 위하여 지원되었다. 연방청소년계획의 지침에 따라 정치, 문화, 스포츠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사회복지(약물, 실업, 범죄의 예방적 조치)를 지원하였다. 국제교류활동으로 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 청소년교류 및 공동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는 과거 나치시대에 압박을 받았던 폴란드나 프랑스를 끌어안고 화합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독일과 폴란드간 국제교류는 매년 2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었다(강이화, 2007: p.106). 국제사회복지를 위한 연방지원 금액은 1993년도에 3천 1백만 마르크가 소요되었다(BMAS, 1993: p.96; Kress, 1997: p.129).

사. 문화청소년교육

동독청소년의 문화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청소년부는 문화활동을 청소년

문화복지기관과 관련전문기관에 지원하였다. 주안점은 ‘문화청소년교육’으로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업은 ‘청소년콩쿨(Jugend musiziert)’이었다(BMAS, 1993: p.95). 추가적으로 112개의 음악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극장·영화관·도서관에 청소년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청소년 방문자에 대해 문화교육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였다. 극장, 영화관, 박물관 등에 청소년클럽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문화교육기관인 에어푸르트 영화학교(die Filmschulen in Erfurt), 린데나우 예술 스튜디오(das Studio feur Bilidende Kunst am Lindenau Museum Altenburg), 국민예술학교(die Volkskunstschule Oederan), 아동청소년갤러리(Kindergalerie Sonnensegel in Brandenburg)등을 운영하였다(BMFSFJ, 1994: p.456).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여가센터나 문화센터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였는데 예를 들면 아보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여가센터(Kinder- und Jugend freizeitzentrum der AWO)는 1990부터 1994년까지 메크렌베크포어포머른(Mecklenburg- Vorpommern)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총 4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였으며, 그림그리기, 체험활동, 음식, 재봉틀, 밴드그룹, 스포츠, 여성청소년활동, 여행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Kress, 1997: p.212).

아. 정치청소년교육 (Ausserschulische politische Jugendbildung)

동독청소년의 정치 혹은 이데올로기적 사상은 서독의 자본주의 물결을 차단하고 ‘사회주의를 제국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급적 투쟁교육이었다. 통일 이후 연방정부는 동독청소년의 이데올로기 변화를 위해 청소년정치교육(Ausserschulische politische Jugendbildung)을 실시하였다. 정치교육은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처한 사회적·정치적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등의 민주시민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독청소년들의 사상에 남아있는 전체주의 이념의 잔재를 제거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정치화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사상을 탈정치화되도록 교육하며, 위로부터 수동적 지시로 결정되던 생활양식 등의 국가의 의존자세를 낮추려고 시도하였다(신두철, 2014: p.33).

이 정책은 연방정부의 기본 교육정책인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진행되기보다는 지역을 넘어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치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동서독청소년의 통합, 외국인 혐오·폭력행동에 대한 탈선과 문제, 유럽에 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범위, 중유럽과 동유럽국가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가 제시되었다. 중앙청소년학생협회(zentrale Jugend- und Studenten verbaende)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였다. 이러한 민주시민교

육은 동독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써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BMAS, 1993: p.95).

자. 기타 프로그램

독일통일이후 청소년종파(Jugendsekten), 신흥종교단체(Scientology Kirche Deutschland e.V.), 통일교(Vereinigungskirche, Moon-Sekte)등의 다양한 단체가 구동독지역에 넓게 확장되어 활동하였다. 여기에 속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1992년 여성청소년부의 관할아래 각 부처간 연방-주-읍무팀(Bund-Laender-Arbeitsgruppe)이 구성되어, 구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종파나 청소년분파에 개입하였다(BMAS, 1993: p.96). 이외에도 1996년 1월 1일부터 모든 3세 아이에게 임신부법과 가족지원법(Schwangeren- und Familienhilfegesetze)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의 1인 1자리 확보를 법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재정적 독립자금 확보, 긴급가족 지원대책, 모든 사회계층 교육상담, 문화활동과 청소년 여가활동 사업 확대, 새로운 청소년사업구축, 동독지역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또래청소년 지원 등 동독의 청소년통합을 위한 정책들을 진행하였다(BMAS, 1993: p.96; 맹영임 외, 2013: p.79).

차. 청소년 가족정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통합정책과 더불어 가족지원정책도 함께 추진되었다. 청소년의 통합문제는 가족과 부모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지원정책이 중요하였다. 특히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에 가족과 부모의 지원을 통해 가족 안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연방정부는 가정정책의 하나로 아동비과세(Kinderfreibetragen), 아동수당(Kindergeld), 아동추가수당(Kindergeldzuschlag)을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정책을 단행하였다⁶⁾. 동독 부모에게 증가하는 실업 문제와 경제적 부담에서 세제감세와 수당제도를 통해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동독청소년과 그의 부모에게 기본적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6) 1990년 5월 29일과 6월 12일에 가족에 대한 세금결정과 함께 독일헌법재판소는 아동을 위한 세금면세와 아동수당을 현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에 최저생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으로 아동의 최저생계비 금액을 면세 해주도록 하였다. 아동비과세의 인상은 3,024마르크에서 4,104마르크로 1992년부터 실행하고, 1992년부터 아동수당을 첫 번째 아동에게 70마르크를, 아동추가수당을 48마르크에서 65마르크로 지원하였다(BMAS, 1993: p.89)

데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부모가족지원, 부모교육 지원 및 상담, 여가생활 지원, 태아보호조치 등을 추진하였다(BMAS, 1993: pp.88~89).

1990년 이후 다음의 조치를 통해 동독과 서독의 가족정책을 추진하였다.

- 임신여성을 위한 복지재단기구(Einrichtung des Hilfsfonds)는 통일조약 제 31조 4항에 근거하여 1990년 10월부터 1992년까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독에 1억 3천만 마르크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목적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경제적 지원으로 총 2만 9천명, 태아의 양육검진과 양육지원으로 2만 3천명, 1만명의 여성은 집 보수를 지원받았다. ‘어머니와 자녀’ 연방정부재단은(Mutter und Kinder) 태아의 보호를 위해 1985년 6천만 마르크에서 1993년까지 1억 8천만 마르크를 단계별로 지원하였다.
- 연방아동수당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두 번째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을 매월 100마르크에서 130마르크로 확대·적용하였으며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15마르크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원하였다. 추가로 아동장애인 경우, 일괄공제, 최저생계비 동독지역 및 한부모가정 적용, 기존 6살까지 적용되던 것을 12살까지 확대·적용하였다.
- 연방교육제정법(Bundeserziehungsgeldgesetz)은 1986년 1월부터 적용된 법으로 1992년 개정되었으며, 아동교육수당과 육아휴직을 규정하였다. 1992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동에게 부모는 36개월의 육아휴직과 24개월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였다. 1992년 1월부터 입양된 아동들에게 7년의 양육수당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자녀가 아플 경우, 질병에 따라 질병수당이 12살까지 지원되었다. 아동 당 최대 부모에게 각각 10일간의 업무휴가, 한부모에게는 20일간의 업무휴가, 최대 50일까지 휴가가 지급되었다.
- 구동독지역에 가족 휴가장소(gemeinnuetziger Familienferienstaetten)에서 장애아가족, 한부모가족, 빈곤가족 등을 위해 공공 휴가장소를 낮은 가격으로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위하여 연방정부는 14개의 가족휴가기관에 2천백만 마르크 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소를 개선하였다.
- 가족노인부(Das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und Senioren)는 가족협회와 함께 1992년에서 1993년까지 동서독 가족만남 프로그램(Ost-West-Familien begegnungs programm)을 진행하였다. 사회복지사의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공동의 휴가장소에서 교류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연방정부는 가족교육, 가족교류 등을 위하여 가족협회에 지원하였다(BMAS, 1993: p.90).

카. 여성청소년정책

구동독에 여성을 위한 여성정책, 여성을 위한 기관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동독사회에서 미리 정한 여성의 역할과 직업을 가져야했으며, 여성의 일은 보통 국가정당으로부터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된 일을 부여받아 노동력으로 사용되었다. 구동독에서 법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들의 가사 업무를 분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과 자녀양육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었다. 연방정부는 통일이후 여성정책을 여성과 남성의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여성청소년의 욕구와 진로계획에 따라 특별 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성청소년 정책에 기본 원칙이 되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을 위하여 가족과 직업 또는 가족과 교육의 조합을 추구하였다. 특히 통일조약 31조에 따라 국가는 여성평등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이에 여성정책은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되었는데 1992년에 4억 마르크 이상이 여성지원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구동독지역에는 새로운 경제와 구조변화로 인하여 동독여성들의 2/3가 실업자였기 때문에 실업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BMFSFJ, 1994: p.459).

1989년 “새로운 직업을 위한 상담지원과 상담센터(Beratungsangebote und beratungseinrichtungen fuer Berufsrueckkehrerinnen)”가 설치되었다. 목적은 여성이 직업을 찾거나 다른 진로영역에서 직업을 구하도록 교육하였다. 1991년부터 동독지역에 여성을 위한 상담소를 추가·설치되었다. 노동과 관련된 정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여성들이 회사 내 높은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였다(Praxisnahe Qualifizierung von Frauen zu Fuehrungspositionen)(BMAS, 1993: p.94).

타. 청소년진로정책

서독 교육제도의 통합은 기존 동독 교육체제에서 성장해온 동독청소년에게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음은 자명해 보인다. 급증하는 동독의 실업률과 교육체제의 변화로 인하여 연방정부는 진로정책과 관련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특히 청소년실업자와 실업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경제, 노동시장, 교육정책적 조치(Wirtschafts-, arbeitsmarkt-, bildungspolitischen Massnahmen)등을 결합한 통합정책(Verbundmodell)을 만들어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 있는 청소년에게 직업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동독의 청소년에게 노동시장의 접근을 쉽게 하고 이들에게 사회복지영역의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지원을 단행하기 위하여 각 부처간 청소년복지

팀(Arbeitsweltbezogene Jugendsozialarbeit)를 만들어 청소년진로와 일자리를 지원하였다(BMAS, 1993: p.95). 또한 노동지원법(Arbeitsfoerderung gesetz: AFG)에 따라 동독 노동청 지역사무소와 직업훈련센터를 통하여 직업추가교육(Fortbildungs massnahmen)과 자격제도(Qualifikationsmassnahmen)를 지원하였다. 기존의 동독 졸업증을 수여한 동독청소년에게는 서독과 같은 학력조건을 갖추면 서독에서도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4) 예산

독일 통일비용의 조달은 통일기금과 채무청산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의 절감 및 지출계획 조정, 조세수입 및 인상, 국유자산 매각과 시장에서의 자본획득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투자와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구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였다. 주목할 점은 통일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균형적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주정부간 재정조정법(Laenderfinanzausgleichgesetz)을 통해 추진되었다(통일부, 2009: p.239).

여성청소년부(BMFJ)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83조에 따라 연방청소년계획 범위 내에서 청소년 통합정책에 관련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에 기존 서독과 같은 경제·사회·교육·문화적 수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대규모 경제적 지원정책을 단행하였다. 특히 구동독지역 청소년단체의 설립 및 확장, 청소년복지의 서비스 및 인력확대, 효율적인 청소년단체 구조변화, 청소년 서비스 질적 향상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따라서 통일조약(Einigungs vertrag) 제 32조에 의거하여 동독 내 청소년지원 민간단체를 대규모로 구축 및 확대지원하고, 청소년통합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풀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연방정부는 동독구축투자지원법(Investitionsfoerderung gesetz Ausbau Ost)에 따라 동독지역에 1995년부터 10년동안 매년 66억 마르크(한화 약 4조 2천억원)를 구동독의 주정부와 자치단체를 지원하였다(BMFSFJ, 1994: p.626). 재정지원은 독일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동독부흥공동사업(Gemeinschafts werk Aufschwung Ost), 자치단체투자총액(Kommunale Investitions pauschale) 등의 기금을 사용하였으며, 연방의 각 주는 추가적으로 동독지원금을 확보하여 사회·문화·운동·여가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였다(BMFSFJ, 1994: p.553).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83조에 따라 여성청소년부는 청소년민간단체 협회 등과 함께 청소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연방청소년계획에 따라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보호, 청소년사회복지, 가족교육지원, 청소년교육, 청소년보호시설 및 이용시설, 청소년종사자 자격 및 교육지원, 정치·문화·스포츠·사회교육 지원, 국제청소년사업, 장애청소년, 여성청소년사업, 특별프로그램 AFT 프로그램, AgAG 폭력예방프로그램, 가족 및 청소년상담 등을 지원하였다(<표 III-1>).

표 III-1 구동독지역 청소년 사업분야 예산

(연도: 1993년, 단위: DM)

정책	예산
정치교육 (Politische Bildung ausserhalb der Jugendverbaende)	22,642,000
청소년문화교육(Kulturelle Jugendbildung)	12,958,000
청소년스포츠교육 (Sportliche Jugendbildung)	400,000
사회교육 (Soziale Bildung)	18,470,000
자발적 사회봉사제도 (Freiwilliges soziales Jahr)	14,200,000
자발적 환경활동제도(Freiwilliges oekologisches Jahr)	3,020,000
사회참여 (soziales Engagement)	1,250,000
장애청소년 (Jugendarbeit mit Behinderten)	3,190,000
모델사업과 활동분석 (Modellversuche und Wirkungsanalysen)	1,586,000
청소년복지방법 (Neue Wege der Jugendhilfe)	1,264,000
청소년과 기술 (Jugend und Technik)	322,000
청소년보호 (Jugendschutz)	737,000
특별프로그램 AFT (Aufbau freier Traeger)	27,372,000
여자청소년 (Maedchenarbeit)	5,070,000
AgAG 폭력예방프로그램 (AgAG Programm)	20,000,000

* 출처: BMFSFJ (1994). Neunter Jugendbericht, p.626

구동독지역 주정부차원에서도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교육, 청소년복지 서비스, 국제청소년사업, 아동청소년여가, 청소년협회, 아동청소년보호 및 여자청소년복지를 추진하였다(BMFSFJ, 1994: p.553). 1993년에 전체 청소년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살펴보면, 225,327,000DM(한화 약 1조 4천 6백억원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지원기간은 3-5년 정도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구동독지역 특별프로그램인 민간단체 확장 및 지원(AFT:Aufbau freier Traeger)정책을 연방청소년계획에

포함하여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예산은 순수 프로젝트 사업비(인건비는 포함 안됨)와 교육 및 세미나, 활동에 지원되었다. 여자청소년(Maedchenarbeit)복지사업은 시범사례로 운영되어 지원되었는데, 프로젝트의 절반은 구동독지역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다. 특히 청소년 진로정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사업은 지원하지 않았다(BMFSFJ, 1994: p.626)(<표 III-1>).

표 III-2 구동독지역 자발적 사회봉사·환경활동예산

(연도: 1993-1994년, 단위: DM)

구동독지역(Land)	연방정부 (Bundesmittel)	재단 (Stiftung)	주정부예산 (Landesmittel)
Berlin	141,100 DM	261,900 DM	-
Brandenburg	238,000 DM	264,900 DM	150,000
Mecklenburg-Vorpommern	188,000 DM	276,000 DM	403,000
Sachsen	649,000 DM	265,300 DM	908,000
Sachsen-Anhalt	135,200 DM	276,000 DM	333,000
Thuringen	115,700 DM	265,600 DM	200,000
합계	1,467,000 DM	1,609,700 DM	1,994,000

* 출처: BMFSFJ (1994). Neunter Jugendbericht, p.627

자발적 사회봉사제도(Freiwilliges soziales Jahr)와 자발적 환경활동제도(Freiwilliges oekologisches Jahr)는 자발적 사회봉사지원법(Gesetz zur Foerderung eines freiwilligen sozialen Jahres)과 자발적 환경활동지원법(Gesetz zur Foerderung eines freiwilligen oekologisches Jahres)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사회관련 활동을 지원하였다. 자발적 사회봉사제도는 청소년에게 1년 동안(매해 9월부터 8월까지) 아동·청소년보호시설, 의료관련 시설 등에서 교육 혹은 돌봄과 관련되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자발적 환경활동제도는 인증된 환경단체에서 환경교육, 환경보호 및 상담 등에서 활동하였다. 활동하는 청소년에게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관련교육, 지속적인 세미나, 활동안전보험 등을 제공하였으며, 체류비나 식사비, 재료비 등의 활동비도 추가로 제공하였다. 자발적 환경활동제도를 위하여 독일환경연방재단(Deutsche Bundesstiftung Umwelt: DBU)은 관련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1993년과 1994년에 예산현황이다(BMFSFJ, 1994: p.627)(<표 III-2>).

통일이후인 1991년에 동독지역의 청소년통합정책을 위해 연방청소년계획(Bundesjugend plan)에 따라 기존 1990년도 1억 3천 2백만 마르크(DM)수준에서 1991년 1억 8천만 마르크(DM)로 36%(4천 8백만 마르크(DM))수준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er Frauen und Jugend)는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정보·상담·교육지원(Informations-, Beratungs-, FortbildungsdienstJugendhilfe (IBFJ), 아동청소년 민간단체 설립 및 증축 프로그램(Programm des Bundes zum Auf- und Ausbau Freier Traeger der Kinder- und Jugendhilfe(AFT), 여성청소년부의 폭력과 공격성에 대한 활동프로그램(Aktionsprogramm des Bundesministeriums fuer Frauen und Jugend gegen Aggression und Gewalt(AgAG) 등이다(BMAS, 1993: p.95)(<표 III-3>).

표 III-3 구동독지역 AgAG 프로그램 예산

(연도: 매해, 단위: DM)

구동독지역 (Land)	프로젝트 지역	매해예산 (Landesmittel)
Mecklenburg-Vorpommern	Schwerin, Rostock, Greifswald, Neubrandenburg, Neustrelitz	2,460,000
Brandenburg	Schwedt, Eberswalde, Oranienburg, Cottbus, Fuerstenwalde	2,810,000
Berlin	Marzahn, Hellersdorf, Lichtenberg, Hohenschoenhausen	1,200,000
Sachsen-Anhalt	Magdeburg, Halle, Dessau, Halberstadt, Stendal	3,060,000
Thueringen	Erfurt/ Arnstadt, Weimar, Jena, Nordhausen, Eisenach	2,760,000
Sachsen	Dresden, Leipzig, Chemnitz, Plauen/Zwickau, Goerlitz/Zittau, Hoyerswerda	4,610,000

* 출처: BMFSFJ (1994). Neunter Jugendbericht. p.627

1992년부터 시작된 AFT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동독지역 청소년 민간단체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서비스 체계를 확장하고, 관련기관 종사자를 교육하는 사업이었다. 특히 1993년에 2천 5백만 마르크(한화 약 1천 6백억)를 사용하였다. AFT1 프로그램은 1992년에 다양한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였다. AFT2 프로그램은 구동독지역 청소년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을 위한 예산, 계획, 조직, 프로젝트 등을 상담하고 지원하였으며, 구동독지역에 총 9,985,000마르크(한화 약 64억원)이 사용되었다. AFT3 프로그램은 1993년에 약 7,720,000마르크

(한화 약 50억원)를 사용하여 청소년관련 종사자 세미나 및 보수교육을 지원하였다.

구동독지역에 극우주의 청소년, 폭력청소년, 외국인의 적대적인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 AgAG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매해 1천 6백만 마르크를 구동독 지역 청소년프로젝트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1백만 5천 마르크를 종사자 교육과 백만마르크를 관련운영비(책자 및 홍보등)으로 사용하였다(<표 III-3>).

표 III-4 국제청소년복지(Internatioanle Jugendarbeit)

(연도: 1993년, 단위: DM)

정책	예산
국제청소년업무 (Internationale Jugendarbeit)	31,012,000
중앙청소년협회 (Zentrale Jugendverbaende)	7,660,000
주정부교류사업 (Laenderverfahren)	1,500,000
청소년지도사(공동체) (Jugendgemeinschaftsdienste)	3,050,000
(Bilaterale Programme)	6,010,000
(Multilaterale Programme)	650,000
유럽청소년주간 (Europaeische Jugendwochen)	1,100,000
개발도상국 청소년정치협력 (Jugendpolitischen Zusammenarbeit mit Entwicklungslaendern)	1,100,000
비영리 청소년지도사(체험,여행등) 교육 (Weiterbildung der Mitarbeiter gemeinnuetziger Jugendreisedienste)	1,000,000
국제행사 (Internationale Sonderveranstaltung)	910,200
독일-미국학생 교환 프로그램 (Sonderprogramm deutsch-amerikanischer Jugendaustausche(USA))	2,100,000
프로젝트 사무소 (IJAB(Geschaefsstelle))	2,781,800
유럽청소년 (IJAB(Jugend fuer Europa))	350,000
국제 음악 청소년교류 (Internationaler musicalischer Jugendaustausch)	1,100,000
독립국과의 교류(Austausche mit den neuen unbahaengigen Staaten)	1,700,000
청소년관련단체 종사자 국제교류 (Internationaler Austausch von Fachkraeften der Jugendhilfe)	433,000
독일-미국 진로활동분야 청소년교류 (Deutsch-amerikanischer Jugendaustausche fuer jungen Berufstaetige)	800,000

* 출처: BMFSFJ (1994), Neunter Jugendbericht, p.628

국제청소년복지(Internationle Jugendarbeit)사업을 살펴보면, 주정부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연방청소년계획에 따라 중앙청소년협회에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청소년교류 사업을 위해 민간단체 연합회에 5백만마르크를 지원하였다(<표 III-4>).

이외에 연방청소년계획(Bundes jugendplan)에 따라 청소년연구를 활성화시켰는데, 1993년에는 청소년연구중앙기구(bundeszen trale Einrichtungen der Jugendforschung), 연방중앙교육기관 등의 연구활동 지원과 유스호스텔 등에 청소년여가 및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민자청소년 등을 위한 통합정책도 총 6억 7천 7백만 마르크(DM)를 지원하였다(BMAS, 1993: p.95).

3) 시사점

첫 번째로,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을 정비하였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기점으로 동독지역에 발효되었다. 시점을 보면 통일과 연관되어 추진된 법안으로 볼 수 있지만, 서독에서는 기존 청소년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미 십 여년동안의 정치가·행정가·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논의와 발의를 이미 진행하였고, 통일과 맞물리면서 동독 청소년통합정책에 커다란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 법의 특징은 기존 사후개입적인 관점에서 아동·청소년발달을 위한 예방지향적 관점으로의 전환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 개입적 역할을 수행해 온 청소년청은 예방적·지원적 정책의 형태로 순회하였다. 특히 국가개입적 차원의 공권력은 가정법원(Familiengericht)과 함께 개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청의 개입을 약화하였다. 반면 예방적 서비스는 강화하였는데, 청소년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추진하고자 청소년과 가족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⁷⁾. 독일의 서비스 형태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양육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모에게 헌법 제 6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양육권자로서 법적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 통일시점과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개정이 맞물리면서 연방정부는 동독청소년에게 다양한 가족정책을 통한 경제적 지원, 프로젝트를 통한 적응 지원, 사회이념 진로정책 및 민주주의 정책을 통한 통합지원을 추진하였다. 이 때에 주목할 만한 점은 동독의 청소년과 그의 가족에게도 서독과 같은 경제적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추가수당을 지원한 것이다.

7)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는 아동과 청소년의 유익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원적·보충적·대체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서비스는 양육 및 교육관련 상담, 부모의 이혼 및 별거상담, 주거 및 긴급보호 지원 등으로,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외부도우미나 교육관련지원, 외부 이용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체적 서비스는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하여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때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 11조-35조).

두 번째로, 통일 전과 후에 서독 사회단체와 연구기관 등이 동독청소년의 욕구와 희망사항, 삶의 상황과 교육적 상황, 만족도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방정부의 통합정책은 매년 동독청소년의 욕구와 동독지역의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온 다양한 연구에 기반하여 동독청소년 통합정책 로드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세 번째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협력체계이다. 동독청소년의 통합정책 지원에 있어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2조에 따라 민간단체와 공공단체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개입이나 공권력이 필요한 보호문제나 친권개입문제 등은 국가의 업무로 규정하였지만, 그 외에 청소년관련 서비스는 민간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3조와 4조, 8a조에서는 민간단체와 공공단체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규정하였는데, 청소년관련 업무를 민관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며, 서로 지시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홍문기, 2015: p.109).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를 위해 민간단체는 서비스 실행을, 청소년청은 보호문제를, 가정법원은 친권의 문제를 공동으로 다룰 수 있지만 서로에 대한 지시나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보호문제에 있어 연방아동보호법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는 공동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실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아동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구동독지역에 민간단체와의 명확한 역할구분, 협력적 관계는 동독청소년의 통합정책을 위해 효율적으로 업무가 배분 및 추진되었다. 특히 청소년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연관된 가족정책, 진로정책, 폭력정책 등을 위하여 다부서간 공동협력체계를 만들었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접근이었다. 독일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에 다양한 지원체계의 우선권은 부여하였지만,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지원의 총 책임의 역할로써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79조에 따라 청소년청을 규정하였다. 청소년청은 연방청소년계획에 따라 동독 청소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관여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섯 번째, 연방정부의 연방청소년계획에 따른 재정부보 및 지원 프로세서이다. 여성청소년부의 연방청소년계획에 따라 연방정부는 동독청소년의 통합을 위한 재정을 큰 폭 성장시켜 지출하였다. 특히 통일 직후인 1991년에 전년보다 36%를 확대편성하고, 3-5년까지 동독청소년의 통합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동독청소년의 친화적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단체, 상담소, 전문인력 등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의 부모에게 다양한 수당과 지원정책,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머무는 공간을 친화적으로 재편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여섯 번째, 연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역량과 능력에 맞춰 동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는 지역문화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개별화 특성에 맞춰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동독청소년의 새로운 사회체제의 적응과 다양성을 확립하고자 연방정부가 시행했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양한 참여공간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지원과 함께 많은 수의 프로젝트를 지역사회에 조직한다는 것이다. 동독청소년은 자신의 욕구에 맞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토론문화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소통하며 활동한다. 이는 청소년의 역량을 기반으로 프로그램·기관중심의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놓여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연방정부는 동독청소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합정책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청소년관련 단체를 만들고 확대하였다. 특히 AFT 프로그램은 구동독지역에 청소년 민간단체 설립과 확대프로그램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친화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인프라 재건사업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132개의 청소년친화공간 및 청소년 상담소, 71개의 청소년관련 민간단체, 12,000명의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며 활동을 지원하였다.

여덟 번째, 동독의 상황에 맞게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청소년관련 사회복지사에게 재고용을 원할 경우 신청을 받아 검토하여 재고용하였다. 구동독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청소년관련 종사자를 재고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서독 사회적 이념과 교육체제에 맞는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조언·추가교육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단체(Informations-, Beratungs-, Fortbildungsdienst Jugendhilfe: IBFJ)를 설립하고, 구동독지역의 청소년복지 관련종사자들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1994년까지 440회의 세미나와 종사자 약 6,800명을 교육하였다.

아홉번째, 민주주의 청소년교육을 지원하였다. 동독청소년에게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크게 발생하였다. 통일 이후 몇 년 동안 과도기적 사회기에 동독지역 청소년 범죄의 상승 및 극우주의의 증가,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시스템 변화,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주의, 경쟁, 자유로운 직업선택과 앞으로의 인생문제 등이 동독 청소년에게 기회와 동시에 혼란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과도기적 사회혼란을 막고 동·서독 청소년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독일연방정부는 민주주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적 이념과 자본주의 문화 등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적응교육을 추진하였다.

열 번째,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독청소년을 지원하였다. 연방정부는 동독청소년의 폭력을 대처하기 위하여 통일 직후 동독청소년을 대상으로 150여개의 폭력예방활동 프로젝트를 지역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지역청소년 폭력대처를 위한 프로젝트, 상담지원, 정보나 교육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2. 미국의 이민자·난민에 대한 청소년 지원방안⁸⁾

본 절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역량(competency or empowerment)을 기반으로 한 지원 체계의 개발을 위해 미국의 난민(refugee) 정책과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성은 정책대상의 정의와 특성,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난민 청소년의 역량강화에 근거한 사업과 프로그램 사례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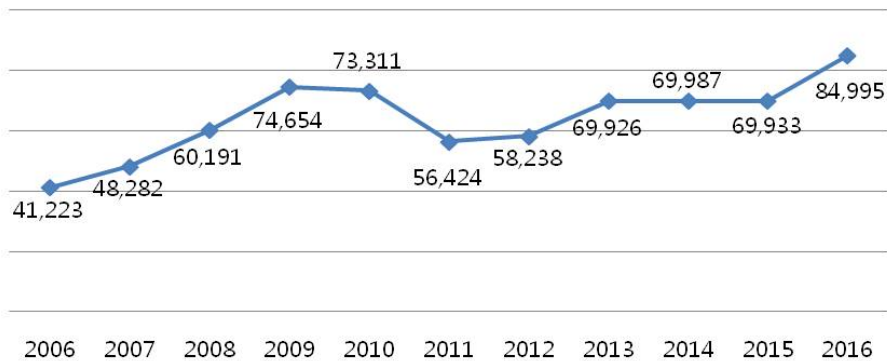
1) 정책 대상의 정의와 특성

미국은 유엔(United Nation)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통해 제시한 정의를 기반으로 자국 내의 난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난민(refugee)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성향,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소속(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으로 인해 박해(persecution)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well-defined fear)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home country) 밖에 있는 자이다”. 매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난민 최대 수(ceiling)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Congress)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다. 아래 【그림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미국 내에 입국하는 난민 숫자는 2006년에는 41,223명이었고, 2009년에는 74,65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56,424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그 수가 증가하여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84,995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난민들의 출신 국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28개국), 동아시아 (10개국), 유럽 (16개국), 남아메리카/캐리비안 (6개국), 중동 국가 (19개국)이며, 2016년 중동국가 출신은 35,555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III-5】). 또한, 전체 난민 수의

8) 이 절은 이은레 박사(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박사후과정)가 집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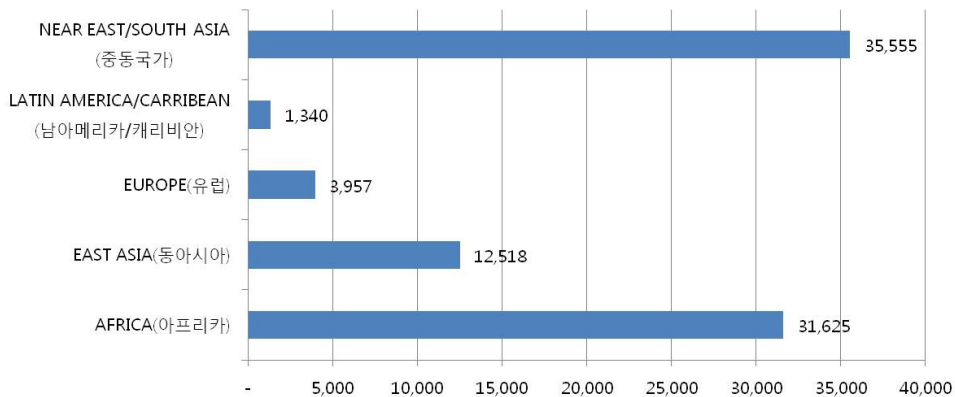
약 35-40%가 아동/청소년 (18세 미만)이다. 난민 아동/청소년의 대부분 (95%)은 부모와 함께 미국 내에 입국하지만, 5%는 Unaccompanied Refugee Minor Program을 통하여 친척이나 위탁보호(foster care) 가정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otal Admitted Refugees to the U.S.



* 출처: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2016a), Admissions reports–admissions comparison graph.
<http://www.wrapsnet.org/Reports/AdmissionsArrivals/tabid/211/language/en-US/Default.aspx>
 (인출일: 2016년 8월 29일).

【그림 III-4】 지난 10년 (2006~2016년) 간 미국 난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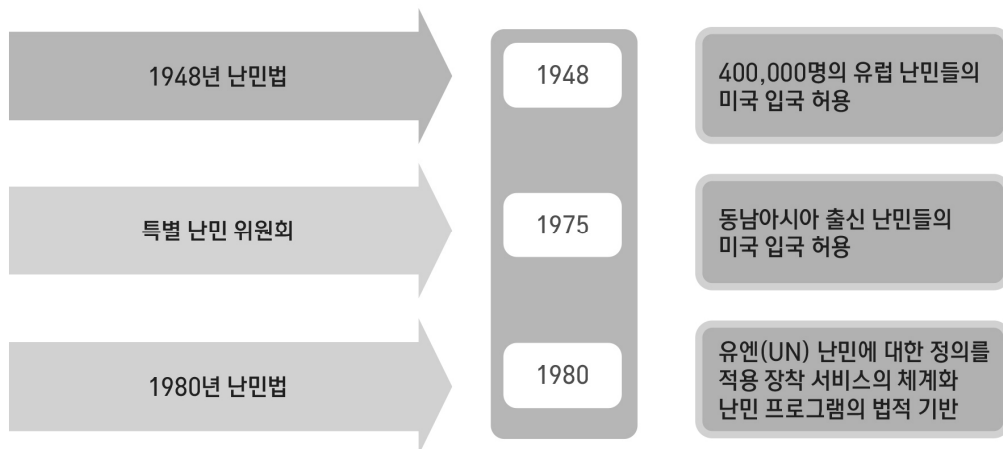
* 출처: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2016b), Refugee Admission Report 2016. 9. 30.
<http://www.wrapsnet.org/Reports/AdmissionsArrivals/tabid/211/language/en-US/Default.aspx>
 (인출일: 2016년 8월 29일).

【그림 III-5】 2016년 9월 30일 기준 미국 난민 출신 국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1) 미국 주요 난민 관련법의 발달 과정

미국의 난민 정책은 세계 2차 전쟁 이후 자신의 국가로 부터 추방된 250,000명의 유럽인들의 미국 내 입국을 허가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1948년 미국의회에 의해 통과된 난민관련 법(Displaced Persons Act of 1948)에 의해 400,000명의 유럽 난민들이 추가로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 쿠바, 헝가리, 한국, 폴란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등 공산국가 출신의 난민들의 입국으로 이어졌다(【그림 III-6】). 1975년에는 수많은 동남아시아 출신의 난민들이 Ad Hoc Refugee Task Force에서 제공한 임시 재정(temporary funding)에 의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는 미국 의회의 1980년 난민법(the Refugee Act of 1980)을 입법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유엔의 난민에 대한 정의를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에 대해 적용하게 되었고, 난민들에 대한 정착 서비스가 체계화됨으로써 오늘날 미국의 난민 관련 프로그램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출처: Refugee Council USA (2016). History of the U. S.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http://www.rcusa.org/history>
(인출일: 2016년 8월 29일)

【그림 III-6】 미국 주요 난민관련 입법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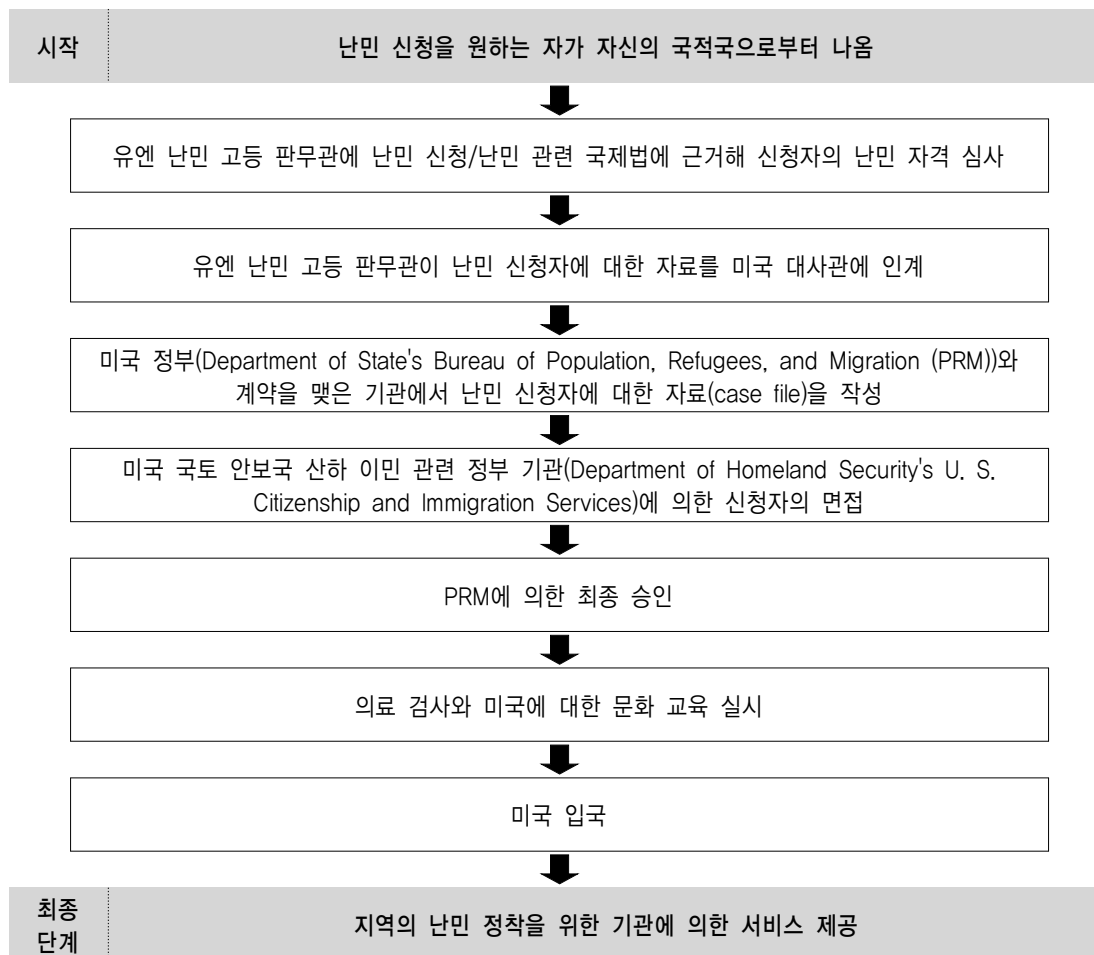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콩고(Democratic Republic of Congo), 태국, 수단과 같은 국가들 내의 사회적 취약(vulnerable)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난민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었고, 최근에는 수단 공화국,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국가들 내에 집단 학살(genocide)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난민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그림 III-6】).

(2) 미국 난민 정착 과정

【그림 I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난민의 입국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난민 신청을 원하는 자가 자신의 국적 국으로부터 나와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 관련 국제법에 근거해 신청자의 난민 자격을 서류와 면접을 통해 심사한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UNHCR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자료를 미국 대사관에 보내면, 미국 정부(Department of State's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PRM)와 계약을 맺은 기관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자료(case file)를 준비하고, 미국 국토 안보국 산하 이민 관련 정부 기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U. 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신청자에 대한 심도 있는 면접을 통해 신청자가 미국 법상 난민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자료는 최종 승인을 위해 PRM에 보내지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의료 검사(Medical examination)와 미국에 대한 문화 교육(cultural orientation to the U. S.)을 받는다.

미국 정부에 의해 난민 신청에 대한 승인(approval)이 이루어지고, 신청자의 미국 내 정착 지역이 정해지게 되면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입국 후에는 지역의 난민 정착을 위한 기관(Local refugee resettlement agency)에 연계가 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출처: Bridging Refugee Youth Children's Services (2016). Refugee 101: How do refugees get to the United States?
<http://www.brycs.org/aboutRefugees/refugee101.cfm> (인출일: 2016년 8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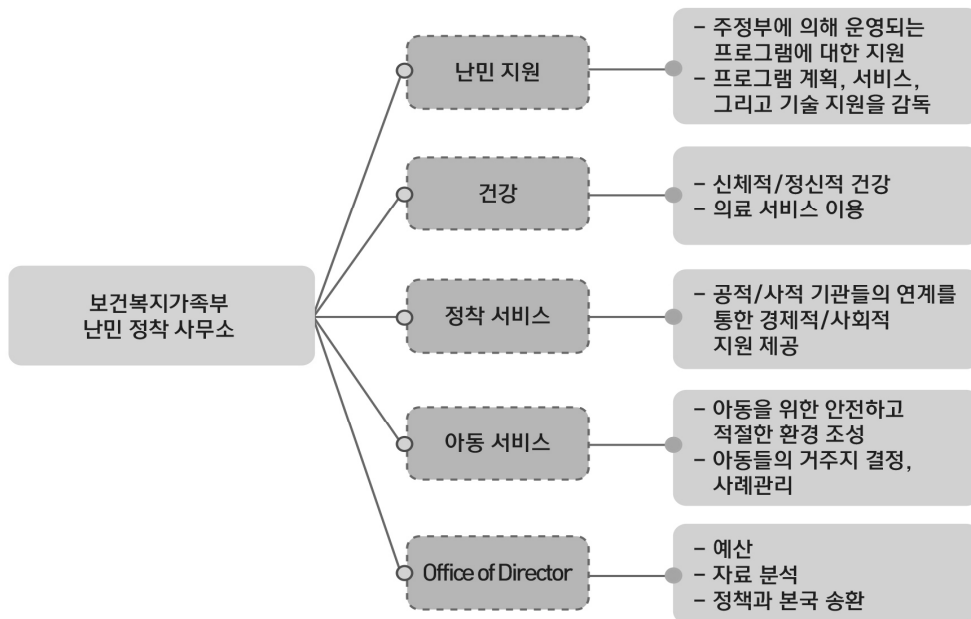
【그림 III-7】 미국의 난민 정착 절차

(3) 난민에 대한 서비스

난민의 입국 후 정착을 위한 각종 서비스는 미국 보건복지가족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산하 난민 정착 사무소(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래 【그림 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민 사무소는 5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Refugee Assistance: 주요 목적은 주 정부에 의해 실행되는 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연방정부의 규정에 부합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특별히 이 부서에서 관할 것은 주로 현금지원(cash assistance)와 건강 지원 프로그램(medical assistance)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과 같다.
 - ① Cash and medical assistance program: 미국 정부가 주에게 할당하는 난민을 위한 현금지원과 의료 검사를 위한 재정 지원
 - ②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 주정부가 지역의 난민 기관과 연계하여 난민에 대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총 5개의 주(Maryland, Minnesota, Oklahoma, Oregon, 그리고 Texas)가 참여하고 있음
 - ③ Wilson/Fish alternative program: 기존 난민에 대한 현금과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으로서 난민의 취업과 이를 통한 자급(self-sufficiency)을 권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연계(partnership)을 촉진하고, 난민 프로그램들이 미국 내에 난민들이 거주하는 모든 주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
 - ④ Refugee social services program: 난민의 사회 적응, 통역, 시민권 관련, 그리고 아동 케어(child care)을 위한 프로그램
 - ⑤ Targeted assistance program: 장기 현금지원을 받아 온 난민의 취업과 자급을 위한 프로그램
 - ⑥ Cuban Haitian program: 증가 추세에 있는 쿠바와 아이티 출신의 난민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 ⑦ Refugee school impact program: 난민 아동/청소년들의 사회 통합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5세부터 18세의 아동/청소년의 영어 교육, 방과 후 활동, 고등학교 졸업, 여름 특별 활동 참여, 통역 서비스, 부모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
 - ⑧ Services to older refugees program: 60세 이상의 난민들의 필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 정부와 지역 사회 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60세 이상의 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⑨ Targeted assistance discretionary program: 앞에서 언급한 social services program과 targeted assistance program을 제공 받을 수 없는 난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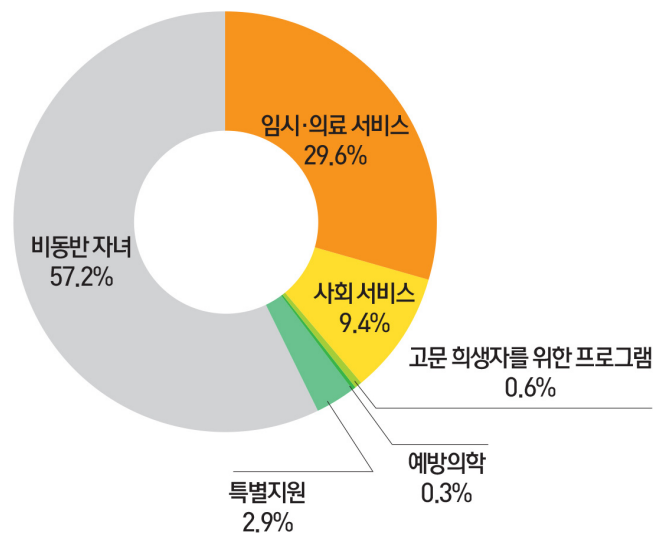
- Refugee Health: 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건강체계(healthcare)에 대한 접근(access)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관할한다.
- Resettlement Services: 난민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관할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① Voluntary agencies matching grant program: 난민을 위한 현금 지원(public cash assistance)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120~180일 내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례관리, 취업 서비스 등을 제공함
 - ② Preferred communities: 미국 정부가 지정한 9개의 기관들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preferred communities에 들어 있는 기관은 새로 입국한 난민들에 대한 특별 사례관리와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③ Refugee agriculture partnership: 난민들이 농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농산물 판매를 통하여 소득을 올리고, 또 지역사회에 건강한 농축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돕는 역할을 함
 - ④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매칭(matching) 저축 계좌(matched saving account) 프로그램으로 저축한 금액은 소규모 사업, 교육, 주거 구입, 그리고 사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⑤ Microenterprise Development: 난민들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 (마케팅, 운영, 계획)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
 - ⑥ Microenterprise development-Home-based child care: 난민 여성들이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
 - ⑦ Ethnic community self-help program: 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새로 정착하는 난민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함
- Children's Services: 이 부서는 난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관장하며 특별히, 부모와 함께 미국 내에 들어오지 않은 아동/청소년(Unaccompanied children)의 안전과 필요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실행함
- Office of the Director: 이 부서는 난민 정착 사무소의 재정,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정책과 본국 송환(repatriation)을 관할한다.



* 출처: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2016a). What we do. <http://www.acf.hhs.gov/orr/about/what-we-do>
(인출일: 2016년 8월 15일)

【그림 III-8】 난민 정책 및 프로그램 전달체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난민 정착 사무소(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는 난민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난민 정착 사무소의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총 1,674,691 만 달러가 미국 정부로부터 할당이 되었고, 아래 【그림 I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57.2%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쓰여 지고 있다. 의료와 관련한 부분에는(Transitional and medical services/Preventive health), 대략 30%의 재정이 분배가 되었고, 이외에 9.4%가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s) 부분에 그리고 2.9%가 특별 원조(targeted assistance)에 쓰여 지고 있다.



* 출처: U. 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 Budget (2016).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Operating Plan for FY 2016.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olab/fy_2016_acf_operating_plan.pdf (인출일: 2016년 10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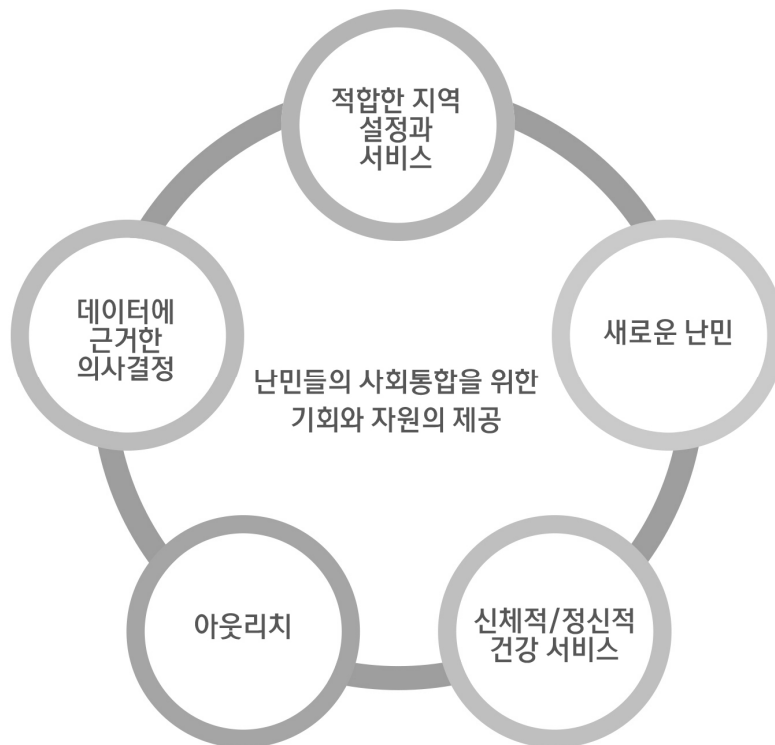
주: 1) 단위: Million (\$) 2) 전체 예산 (\$1,674,691 million) 중 the budget for Anti-trafficking in persons programs (18,755 million)은 제외 됨.

【그림 Ⅲ-9】 난민 정착 사무소 2016년 예산현황

난민 정착 사무소는 2010년 효율적인 난민 정책과 서비스를 위해서 6가지 실행의 원리를 정하였다. 【그림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가지의 실행의 원리는 적합한 지역 설정과 서비스 (appropriate placement and services), 대상자 중심의 사례관리(client-centered case management), 새로운 난민에 대한 강조(new arriving refugees), 신체적/정신적 건강 서비스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아웃리치(outreach),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 결정(data informed decision-making)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적합한 지역 설정과 서비스: 적합한 지역 설정과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난민들의 성공적인 미국 내 정착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interagency coordination)를 통해 초기 정착과 서비스가 잘 제공되도록 함
- 대상자 중심의 사례관리: 난민에 대한 서비스는 대상자 중심(client-centered)이 되어야 하며, 각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여야 함. 특별히, 각 개인이 가진 강점(strength), 욕구 (need), 그리고 목표(goal)를 사례관리를 통하여 평가해야 함

- 새로운 난민: 취업과 자금을 장려함으로써 새로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의 역량 (empowerment)을 강화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 하도록 함
- 신체적/정신적 건강 서비스: 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그들의 정착에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 새로 입국하는 난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건강 서비스가 제공됨을 알림
- 아웃리치: 정부, 사적/공적 기관, 비영리 기관, 지역사회 기관들의 원조가 중요함
-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출처: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2016b). Six guiding principles. <http://www.acf.hhs.gov/orr/about/what-we-do> (인출일: 2016년 8월 15일)

【그림 III -10】 난민 정착 프로그램 실행의 원리

3) 난민 청소년의 역량강화 사업 및 프로그램 사례

(1) 이론적 배경

과거에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 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containment)하고 치료(rehabilitation)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adolescent healthy development)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역량강화(empowerment 또는 competency)가 청소년 복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Jennings, Parra-Medina, Hilfinger-Messias, & McLoughlin, 2006; UNDP, 2014).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청소년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Pearrow, 2008: p. 512), 또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들이 가진 강점(strength)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Morton and Montgomery, 2013). 이와 함께, 역량 강화는 개인적인 차원의 개념이라기보다 개인, 가족,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시 되어 진다(Jennings, Parra-Medina, Hilfinger-Messias, & McLoughlin, 2006).

(2) 미국 난민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 및 프로그램 사례

① 난민/이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Toolkit(A Positive Youth Development Toolkit for Working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난민/이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Toolkit은 난민 정착 사무소(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의 지원을 받아 난민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Toolkit의 기본 전제는 강점(strength) 관점이며, 구체적으로 1) 난민/이민 청소년들이 가진 강점과 잠재력(potential)을 키우고, 2) 기존 난민/이민 그룹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3) 그들이 가진 자원/assets)을 잘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Toolkit은 난민/이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과 관련하여 복지기관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7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에 대한 배경적 지식
- 자원과 욕구 평가(Assets and needs assessment)
- 프로그램 계획(Program planning)
- 프로그램 디자인(Program design)
- 재정 확보(Fundraising)
- 프로그램 실행(Program implementation)
-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

Toolkit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중요 요소들이 서로 통합된 과정(integrated processes)을 통해 반복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평가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제시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평가에 근거하여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의 계획과 그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III-5 난민/이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Toolkit

Toolbox	내용
청소년 발달에 대한 배경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점과 자원에 강조를 두기 • 지역 사회내의 어른들과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강점과 자원을 개발하기 • 지역 내의 여러 기관(학교, 회사, 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청소년이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자원과 욕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이민 청소년들이 가진 특별한 자원 • 가치: 가족에 대한 가치, 집합적인 욕구의 강조 • 이중 언어 구사 • 이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함으로써 성숙해짐 • 다문화에 노출됨으로써 강해짐 • 종교적인 유산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이민 그룹의 리더, 가족, 그리고 청소년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 기관내의 직원 채용 시 다문화/이중 언어 구사자를 채용 • 가족에 대한 후원 • 난민/이민 청소년의 사회화와 안정을 도모 • 교육적인 후원 • Role model
프로그램 개발 시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 이중 언어 구사 직원/문서

Toolbox	내용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참여(retention) • 효과적인 아웃리치 • 목표 그룹(target population)

* 출처: Schmidt, S., Morland, L., & Rose, J. (2009). Growing up in a new country: A positive youth development toolkit for working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인출일: 2016년 10월 22일).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청소년이 가진 강점과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이고 또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Toolkit에서는 난민 청소년들이 가진 강점은 그들의 가치, 언어 능력, 성숙함, 그리고 종교적인 유산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난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로는 난민/이민 그룹의 리더를 mentoring program등에 포함시키고, 가족에 대해 후원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은 난민 청소년들의 언어를 구사하거나 그 문화를 이해하는 직원을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난민/이민 청소년들이 교육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난민/이민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차량지원, 이중 언어 구사 직원과 문서, 아웃리치의 어려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난민/이민 청소년 중 어느 그룹(예를 들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target population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다.

(2) 난민 청소년 Mentoring 프로그램

난민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은 난민 청소년들이 사회와 지역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영향력이 있는 어른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은 학교,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다른 지역 사회 기관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고, 형태는 일대일 관계, 소그룹, 가족 mentoring, 또래(peer) mentoring, 그리고 세대(intergenerational) 간 mentoring 등 다양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mentoring program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강조하거나, 리더십과 같은 특별한 기술을 획득하여 난민 청소년이 사회 내에 잘 통합되고 성공적으로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데에 있다.

표 Ⅲ-6 난민 청소년을 위한 Mentoring Program의 예

프로그램	내용
The Go-Betweener Mentoring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조지아주 아틀란타 지역에서 시작. • 7세에서 17세 아동/청소년을 인종/언어가 같은 지역 내의 어른과 연결시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난민 청소년이 문화적으로 잘 적응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미국 문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Los Angeles Team Mentoring(LAT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 주내의 14개의 학구(school district)에서 실시되는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 • 지역 내의 어른들이 팀을 구성하여 난민 어린이/청소년들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 • 프로그램은 리더십 개발, 팀 형성, 지역사회 봉사, 갈등해결,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것들임. • 멘토 그룹에 속한 어른들은 학교 교사, 대학생, 그리고 지역 자원봉사자이며, 이들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그룹을 대표

* 출처: Bridging Refugee Youth & Children's Services, (2010). New directions in mentoring refugee youth. (인출일: 2016년 10월 22일).

(3) 난민 청소년을 위한 강점 중심(Strength-based)의 방과 후 프로그램

난민/이민 청소년들은 빈곤, 가족의 갈등, 제한된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등 여러 가지 잠재력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난민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s)으로는 가족 간의 친밀함과 안정, 사회적 기술, 그리고 어른 또는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교육적 성취, 종교의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Bridging Refugee Youth & Children's Services, 2009: pp.2-3). 난민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은 이러한 보호 요인을 강화하여 난민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표 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과 후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나 지역 사회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고,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며, 개인 및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지역 사회의 자원 (자원 봉사자, 대학 등)을 개발하여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프로그램 성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표 III-7 난민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예시

프로그램명	내용
Somali Women and Children Alliance(SWCA), Columbus, Ohio (방과 후 프로그램)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 총 128명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 곳에서 국어, 수학 등을 학습. 그 지역 내의 대학생들이 자원 봉사자로 일하고, 대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진행 고등학생 대상. 한 달에 두 번씩 총 4개월 간 진행되는 프로그램. 멘토, 대학생,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들을 통해 리더십 훈련
Minnesota African Women's Association(MAWA), St. Paul and Minneapolis, Minnesota (여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 교육 목표의 확립 등에 대한 소그룹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번 약 2시간 동안 진행. 지역의 같은 인종 출신의 대학생들이 자원 봉사자로서 소그룹을 운영.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진행
Sauti Yetu Center for African Women, Bronx, NY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리더십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강화(leadership and identity development)와 coaching (tutoring and mentoring)의 두 요소를 결합한 프로그램. 지역의 Theater Arts Consultation과 연계하여 연극을 통해 언어 구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정된 mentor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서비스 받음. 모든 활동은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며, 프로그램은 9주 동안 진행

* 출처: Bridging Refugee Youth & Children's Services. (2009). Strengths-based programming: The example of Somali refugee youth. (인출일: 2016년 10월 22일).

4) 결론

본 절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난민을 위한 정책과 난민/이민 청소년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고찰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업 및 프로그램들은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게 개발된 것이므로 한국의 탈북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탈북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개발함에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대상의 정의와 특성에 있어서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의 사회적 인식은 이들이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그룹이고 특별히, 난민 청소년들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 할 것이라는 것이다(Schmidt, Morland, & Rose, 2006). 이러한 인식은 실제적으로 지난 10년간의 난민 수의 증가하고 또한 이들 난민 세 명 중 한 명이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난민 청소년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난민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관련기관 간의 연계체계이다. 먼저, 난민 판정과 입국은 미국의 Department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PRM)과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 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공조하여 결정을 내리고, 입국 후의 모든 서비스는 미국 보건복지가족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산하 난민 정착 사무소(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에 의해 이루어진다. 난민 정착 사무소는 다시 효과적인 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 여러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예를 들어,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State, 그리고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상호협력 단체(Mutual Assistance Association), State Partners, 자원봉사 기관들, 그리고 훈련/기술 협력 단체들과 연계되어 있다.

셋째, 난민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난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가진 강점(strength)과 욕구,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 존재하는 자원(assets and resources)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assessment)를 무엇 보다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지역의 기관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은 평가를 통하여 그 효과성을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조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IV 장

탈북 청소년 역량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면접

1. 탈북 청소년 면접조사 개요
2. 탈북 청소년 면접 결과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 IV 장

탈북 청소년 역량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면접

1. 탈북 청소년 면접조사 개요

1) 질적 사례연구 방법의 활용

본 조사는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을 통해 남한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들 중에서 연구참여자가 연구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연구 현상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함께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질적사례연구방법(Creswell, 2006)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해석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연구참여자의 경험 속에서 구성된 사회적 맥락(박성원, 2015: p.28)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일상의 언어를 재구성하여 실재(reality)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방법이다.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는 모호하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장에서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현재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문제를 확인하거나 해결책을 찾아보는데 유용하다. 연구의 분석단위를 하나의 사례로 보고, 경계를 가지는 체계로써 사례는 개인, 과정, 조직,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관, 사건들이 될 수 있다. 사례연구는 '모범적인 사례의 힘'을 통해, 그동안 이론이 밝히지 못했던 맥락의존적인 사회적 실재의 인과적 기제를 드러내는데 탁월한 방법(이영철, 2009: p.201)으로 보기도 한다.

연구의 과정은 우선 쟁점과 개념을 통해 문제를 분명히 확인하고, 사례에 대한 다원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가 전체적인 맥락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떤 과정에 따라 작용하게 되는지 규명하게 된다(이선옥, 1994: p.33). 사례의 성격에 따라, 그 자체로 독특하고 흥미를 가진 내재적 가치의 사례를 다룰 수도 있으며, 어떤 쟁점에 통찰력을 제공하거나 일반화에

도움이 되는 수단적인 가치의 사례를 다룰 수도 있다. 목적에 따라, 사례 자체를 통해 다른 것을 이해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는 도구적 사례연구라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 여러 사례를 통해 중요한 공통점을 찾고자 할 때는 집합적 사례연구라고 한다(박성원, 2015: p.29).

이에 본 조사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에 대한 경험을 하나의 사례로 정의하고, 그 사례가 가지는 맥락적 실재와 인과적인 요인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경험은 개인별의 특수성보다 일반성을 드러내는 사례들로 수집되어 주요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드러내는데 분석의 목적을 둔 집합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2) 연구참여자의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조사는 탈북 청소년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들을 면대면 심층 면접을 통해서 수집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집, 동아리 공간, 카페, 연구자의 연구실, 집 등 가장 편안한 공간을 정하게 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사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탈북 청소년의 북한거주기간, 학업 유무(북한 또는 제3국 생활시), 제3국 거주 기간, 발달단계(중·후기 청소년), 가족사항(가족동반, 무연고 청소년)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였다. 본 조사의 면접사례선정 기준은 다음 <표 IV-1>과 같다.

또한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학생들을 고루 포함하고자 하였다. 성별의 비율도 적절히 맞추고자 하였으며, 탈북 후 남한 입국까지의 시간은 가능한 짧은 사례를 수집하여 북한과 남한의 청소년 생활을 생생하게 비교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표집과정은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성별, 제3국 거주생활의 특수성이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의 자문위원을 통해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 참여자들을 추천받았으며, 조사의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추천을 받는 눈덩이표집 방법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10명이었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대입준비생 3명, 대학생 4명이었다. 연령은 13세부터 23세까지 분포하였으며, 10대 3명, 20대 7명이었다. 성별비율은 남녀 각각 5명씩이었다. 북한에서 거주 지역은 평안도 3명, 함경도 5명, 양강도 2명이었으며, 탈북 시기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로 최근 북한에서의 학교생활을 하였고 남한으로 입국한 청소년을 조사하였다.

표 IV-1 탈북 청소년 면접사례조사 선정기준

주요 요소	내 용
섭외과정	- 탈북민, 탈북 청소년 유관 기관과 개별적으로 대상자 섭외
참여자 수	- 10명 내외 개별 - 청소년이 표현 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1~2명 내외로 인터뷰 실시 - 청소년기본법에 근거 9세~24세 청소년 중 초·중·고·대학생을 고르게 적용
연구내용	- 북한경험과 탈북과정 또는 제3국 생활경험을 고려한 탈북 청소년의 강점, 역량은 어떠한가? - 탈북 청소년에 관한 정부 및 민간 지원 사업이 탈북 청소년 강점 및 능력에 향상에 도움이 되었나?
운영방식	- 반구조화 개별면담
시간 및 횟수	- 1시간 30분 내외, 1회 내외
기록 및 녹취	- 개별 면접 전 사전 동의를 구한 후 기록 및 녹취
면담자	- 연구자, 탈북민 자문위원

북한에서의 학력은 초등학교재학/졸업 2명, 중학교재학/졸업 4명, 대학교재학/졸업 4명이었다. 제3국 거주기간은 10일부터 2년까지 분포하였으나, 과반수가 넘는 7명이 1년 이내 탈북하여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남한에서 무연고는 남학생 2명이었으며, 나머지 8명은 한명이상의 친족과 거주하고 있었다. 북한에 직계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는 7명이었다(<표 IV-2>).

표 IV-2 연구참여자의 특성

번호	이름	성별	나이	고행	학력(남한)	입국/탈북시기	가족유무(남한)
1	가	여	17	평남평성	고1	2015/	유
2	나	남	13	평남평성	초6	2015/	유
3	다	여	23	함북무산	대학 2년	2008/	유
4	라	여	22	함북온성	대입준비	2013/	유
5	마	남	22	양강해산	대학 2년	2012/	유
6	바	남	22	양강해산	대학 1년	2012/	유
7	사	남	22	함북회령	대학 1년	2014/	무
8	아	여	15	함북온성	중3	2009/2010	유
9	자	여	23	함북청진	대입준비	2014/2015	유
10	차	남	23	평양	대입준비	2013/2015	무

본 조사의 면접 시기는 2016년 5월~7월까지 3개월간이었으며, 연구자와 면대면 인터뷰 방법으로 자료 수집하였다. 아래 <표 IV-3> 인터뷰 가이드에 따라 일대일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2~3명이 함께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표 IV-3 인터뷰 가이드

구분	내용
1. 북한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북한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 남한청소년과 비교하여 느껴지는 역량과 강점
2. 남한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남한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 북한청소년과 비교하여 느껴지는 역량과 강점
3.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서 나의 역량과 강점 - 남한에서 나의 역량과 강점 - 탈북과정에서 나의 역량과 강점에 미친 영향 - 남한사회에서 받은 지원들이 나의 역량과 강점에 미친 영향
4. 통일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전환기에 필요한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특히 본 조사의 면접에서는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량과 강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54장의 개념 카드⁹⁾를 인터뷰 매개체로 활용하였다. (자세한 활용 결과는 부록 2 참고) 이 카드들은 인터뷰의 중간 혹은 마무리 시점에 30분 이내로 간단한 게임처럼 활용하였다. 이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량 개념들이 있는지 보다 선명하게 경험적 사례를 찾아보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인터뷰 도구로써 이용하였으며,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카드를 활용할 때 질문은 ‘북한청소년이 잘하는 것은? 남한 청소년들이 잘하는 것은? 각 남한과 북한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잘 하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은? 탈북 청소년으로 본인이 잘하는 것은?’ 등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관련된 표현이 들어있는 카드를 고르고 설명을 덧붙였다¹⁰⁾. 관련된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

9) 본 조사에서 활용한 본하트 소질카드는 청소년의 흥미와 기질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속한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54개 역량 개념이 적혀있는 카드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tcu_attic&logNo=220608110463 (인출일: 2016년9월30일))

10) 실제 raw data 수집 및 분석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 인터뷰 과정에서 자기관리에 관한 주제에 대해 탈북청소년, 북한청소년의 강점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개념 카드들 중에서 체력 관리하기, 신체 움직이기라는 카드를 고르고 운동을 통한 자기관리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일례로 [아]의 인터뷰 중에서 “체력관리는 원래 뛰어난 거고, 이거는 (신체 움직

였다. 이러한 도구의 활용은 성인에 비해 자기표현이 어려운 청소년 인터뷰 과정에서 그들의 역량과 강점에 관한 보다 풍부한 경험들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3) 자료 분석

본 조사의 분석방법은 원칙적으로 주제중심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질적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개념들을 명료하게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면서 간명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사례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비슷하거나 어울리는 내용을 지닌 단위들을 범주화하고, 범주에 대한 의미 해석을 통해서 범주간의 관계를 찾고자 하였다(Stake, 2000, Creswell, 2006: p.189). 또한 본 조사에서는 사례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이슈를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균형잡힌 주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하였다. 첫째, 사례별 분석의 한 측면으로 각 연구 참여자의 역량과 강점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사례 소개를 하였다. 분석과정은 개별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결과를 녹취하여 집중적으로 여러 번 읽으면서 사례의 역량과 강점을 끌어내는 중심의미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표현, 자신의 좌우명이나 힘들 때 자신을 세우는 말 등이 주제로 드러났다. 둘째, 사례간 분석의 방법은 수집된 인터뷰 자료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사례간에 관통하는 주제들을 탐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귀납적으로 분석된 주제와 범주들을 정리하였다.

이후 분석결과의 기술 단계에서는 첫째, 사례별 분석 결과 중 탈북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의 역량과 강점의 의미를 드러내는 삶의 원칙과 희망을 주제로 기술하였다. 둘째, 사례간 분석 결과는 본 연구 보고서 전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주제들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역량지수(성은모 외, 2015)의 개념들에 따라 재구성하여 기술하였다.

이기?) 진짜 많이 하는 거 엄청 움직이는 것도 많이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거.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교 갈 때 길도 많이 가고.” (아, p41)의 내용은 초기 분석 과정에서 ‘자기관리→체력→운동’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었다가, 본 최종 보고서에서는 ‘생활관리→건강관리’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4) 질적사례연구의 엄격성 점검

조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가 가져야 하는 개념적 구조, 다양한 맥락, 연구자의 관점, 개인적 의도의 검토, 관찰과 해석의 다원을 주요하게 점검하였다(Stake, 2000; Creswell, 2006. pp.257~258). 신뢰성, 진실성, 비판성, 통합성의 기준을 점검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였는지의 질문을 통해 신뢰성을 점검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경험들을 세심하게 잘 묘사하였는지의 질문을 통해 진실성을 점검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의 다원화’ - 심층면접, 관찰, 보호자와 대화, 카드의 활용 등 -를 통해서 의심스럽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진술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과 개인적 의도를 검토하였는데 연구자의 ‘성찰(reflexivity)’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남한 사회복지 연구자로서 북한이탈주민 경험을 이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일방적인 시선’이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선이해나 선입견을 연구과정에서 적절히 다루고자 노력하였다(Pillow, 2003). 구체적으로 본 연구자는 연구일지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탈북 청소년들을 다룬 영상 및 문서자료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성인 연구자가 청소년 연구 참여자의 표현이나 생각을 여과없이 수용할 수 있는 민감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과정을 책임있게 따르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는지 통합성을 지키고자 하였다(Whittemore et al., 2001). 인터뷰 과정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전문위원을 동석시켜 자료수집 과정에서 부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이후 회의를 통해서 모호하고 편견적인 설명들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비판적으로 점검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책임연구자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아 연구방향과 내용,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점검을 받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의 원칙을 존중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함께 구하였다. 보호자와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사례들은 [가]~[차]로 기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2. 탈북 청소년 면접 결과 분석

1) 탈북 청소년 연구참여자 사례 소개

표 IV-4 연구참여자의 특성 요약

번호	이름	남한학력(북한학력)	남한거주기간	꿈/장래희망
1	가	고1(북: 고급2년)	1년 이하	교사(중학수학)
2	나	초6(북: 초급4년)	1년 이하	교사(초등), 미술
3	다	대학 2년(재활복지)(북: 중급5년)	8년 이하	외교관, 국회의원
4	라	대입준비(호텔경영)(북: 예술대학3년)	3년 이하	호텔경영인
5	마	대학 2년(경영)(북: 중급6년)	4년 이하	공무원
6	바	대학 1년(컴퓨터공)(북: 군악대 중급5년)	4년 이하	음악가, 해커
7	사	대학 1년(컴퓨터)(북: 전문대1년)	2년 이하	통일 후 가족과 여행
8	아	중3(북: 초급1년)	6년 이하	가수
9	자	대입준비(실용음악)(북: 음악전문대 졸)	1년 이하	가수
10	차	대입준비(산업공)(북: 공업종합대 4년)	1년 이하	인문학 교수

가 -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한 시민이 되고 싶다. (가, p40)”

북에서 남으로 온지 1년도 안되었다. 남한으로 오기위해 5년 동안 준비하면서 너무 잦은 이사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책 한번 펼치지 못한 것이 너무 속상하였다’(가, p40). 남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학력이 D등급이었는데, 6개월 만에 A등급으로 향상하였다. 학교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하며 자연스럽게 출신을 알렸는데 ‘친구들이 한국 토박이 같다’고 하였다(가, p32). 장래희망은 중학교 수학교사이다.

나 -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해결하라. (나, p27)”

엄마와 누나와 함께 북에서 남한으로 온지 1년이 안되었다. 북한에서는 소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왔고 여기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비행전, 식물전쟁 등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고(나, p21) 남한에서도 새로운 게임들에 열중하고 있다. 멀미도 심하고 한국음식이

입에 잘 안 맞다. 북한에서 먹던 미역밥이 그림다(나, p45). 엄마는 공부를 잘하라고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장래희망은 소학교선생님이다.

다 - “안되면 되게 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라. (다, p48)”

16세에 혼자 탈북하였고 탈북과정에서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심하게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남한에 와서 돈 버는 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서(다, p10) 한**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서 재활복지를 전공하고 있다. 부모님이 모두 없고 후에 탈북한 오빠 1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살림을 꽤 잘한다(다, p2). 리더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이다. 장래에 외교관도 되고 싶고 국회의원도 되고 싶다.

라 - “나쁘다는 것이 0.001%라도 머리에 꽂히면 절대 안한다. (라, p21)”

5세부터 아코디언을 배웠다. 가족들을 위해 돈을 구하러 중국으로 갔다가 남한으로 오게 되었다. 남한에 와서도 아르바이트부터 하며 돈을 벌어야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욕할 수 없다(라, p20). 워낙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을 좋아해서 (라, p5) 호텔리어가 되려고 대학진학 공부 중 이다. 늘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이 보고 눈도 뜨는 세계 일주를 꿈꾼다(라, p4). 장래희망은 호텔경영인이 되고 싶다.

마 -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마, p14)”

북에서 국군포로가정에서 태어나 군대나 대학도 못가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남한에 먼저 온 할아버지의 인도로 탈북하게 되었지만(마, p9) 남한에 와서 1년 동안 방황을 하였다. 교회의 도움으로 신학교를 다니다가(마, p12) 지금은 일반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다. 장래희망은 공무원이다.

바 - “모든 걸 체계화시킬 때 하나를 꼭 지켜라. (바, p25)”

북에서 아코디언을 전공하여 꽤 촉망받는 학생이었다. 엄마가 말도 없이 먼저 탈북하여 방황을 하다가 딱히 살 곳이 없어서 남한으로 오게 되었다(바, p7-8). 북에서도 컴퓨터를 접했고 개인레슨도 받았지만(바, p5), 인터넷은 없었다. 남한에 와서 대학에 진학하여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다. 장래희망은 음악가가 되거나 나만의 앱(App)을 개발하는 선한 해커가 되고 싶다.

사 - “나의 장점은 살아있는 거 자체이다. (사, p14)”

북에서도 몰래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북한체제에서 벗어나 살아왔다. 새로운 곳에서 살고자 하는 충동의 무게(사, p6)에 못 이겨 탈북하였다.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 p 14)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탈북 장학생 모임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동등하게 배워가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낀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다. 장래희망은 통일 후에 가족들과 여행을 하는 것이다.

아 - “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아, p20)”

북한에서는 먼저 탈북한 엄마의 얼굴도 모르는 채 할머니와 살았다. 할머니가 없을 때 (도둑이 들까봐) 집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다(아, p2). 소학교 1학년 다니다가 할머니와 함께 탈북하였다. 소심한 성격이라 한국에서 학교적응이 처음엔 어려웠다(아, p12). 손재주가 좋아 제빵사 등을 배워보라고 주변에서 권하지만 장래희망은 백지영 같은 발라드 가수가 되는 것이다.

자 - “여기 애들보다 못한 게 없다. 다만 이 사회에 대해 잘 모를 뿐이다. (자, p11)”

북에서 부유하게 살았고 예술대학을 다녔다. 죽을 고비를 넘어 탈북하는 과정은 너무 힘이 들었지만 태어나서 제일 잘 한 일이라 생각한다(자, p12). 북한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한국 노래, 소설, 드라마를 친구들과 공유하며 자주 접했다(자, p6). 대학에서 실용음악과를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남한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 장래희망은 가수이다.

차 - “항상 배워야 된다. 누구한테나 배울 건 있다 (차, p17)”

평양에서 거주하였고 학업이 우수하여 최고의 공업대학에 다녔다. 북에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웠던 것은 없었다(차, p9). 중국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너무 놀랐다(차, p3). 그곳에서 남한에 대해 인터넷 신문이나 기사로 접해 실제 남한에 와서는 크게 놀란 것 없었다(차, p13). 남한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산업공학과에 가고자 대학입시 준비 중이다. 장래희망은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이다.

2)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1) 생애학습영역¹¹⁾

① 사고력: 하나에 몰두하고 남북사회에 대해 민감하며 차별성이 있음

탈북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사고력과 관련한 역량에서 집중력, 체계화, 비판력, 차별성과 관련한 강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집중력은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한곳에 몰두하면 열심히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수업내용을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등 집중하려고 노력하였다.

장점이라면 사람이 하나에 집중한다는 거죠. 집중력이 좋아야죠. 진짜 그래야 복잡하지 않죠. (다, p46)

수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수업을 완벽하게 통째로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 쓰면서 외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차, p6)

저의 장점은 일단 음악을 잘하는 것 같고, 또 뭔가 한곳에 몰두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바, p13)

둘째, 체계화는 북한사회에서 강조했던 ‘체계화할 때 하나를 지켜라’는 말처럼 수업 안에서 메모와 수업내용의 가지들을 기억하며 체계를 갖추어 학습하였다.

모든 걸 체계화시킬 때 하나를 꼭 지켜라~ (바, p24)

혁명서 같은 과목 그런 과목도 암송 범위가 많긴 한데 들으면서 선생님 설명에까지 없는 설명까지도 다 들으면서 그걸 다 메모하면서 어 체계를 다 잡아 놓는 거죠. (차, p6)

셋째, 비판력은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과 남한 사회를 모두 경험하며 갖게 된 두 사회에 대한

11) 생애학습역량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말한다 (성은모 외, 2015 : p.xxviii-ix).

민감성을 말하였다. 사회주의체계에 대한 이해력이 있으며, 남한 사회에 살면서 비교적 관점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사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자~ 특히, 그 사회주의랑 자본주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 가지고 ... 경영학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마, p2)

일단은 북한이라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60년간 발달해왔고 또 지금 현재 한국사회에는 2년이 안됐구요.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의 대립이나 갈등 같은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원인이 뭔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 p6)

넷째, 도전하고 성공한 탈북의 경험이 가져온 차별성이 감성적인 역량을 높인다고 하였다. 살아있는 거 자체가 강점이며, 탈북의 과정이 고난이었으나 그 경험 속에서 차별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자신의 강점으로 활용하였다.

장점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거 자체가 장점인 것 같아요. (사, p14)

잊지 못할 추억. 오토바이도 타고 고생도 하고. (나, p45)

그래도 그게 엄청 도움이 돼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말할 때 난 중국도 갔다 오고 그때 추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말하는 거 (가, p45)

② 지적도구활용: 예술적이고 섬세하며 계산을 잘함

지적도구활용과 관련한 탈북 청소년들의 역량은 섬세한 작업을 잘하고, 예술에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계산하는 것도 잘하는 점이라고 하였다.

첫째, 섬세한 작업들에 대한 장점이 강조되었는데, 고치기를 잘하고 손으로 하는 일들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하였다. 기술에 대해 북한사회에서 강조하는 것의 영향이 있다고 보았다.

고치기는 원래 북한에서 좀 많이 하는 거여서 어른도 애들도 잘해요. (아, p41)

어릴 때부터 만드는 것도 되게 잘하고 일단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해요. 눈썰미가 좀 다르고 ... 가르쳐주면 재까닥 받아먹는 학생이 잘하는 거잖아요. 저는 비록 여가 애들보다 못할지라도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 p16)

섬세한 게 필요한? 되게 섬세한 작업들. 뭐 모형을 만든다던지. 복잡한 미니블럭 같은 그런 것 되게 좋아하거든요. (북한사회가) 기술 쪽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

요. (차, p21)

둘째,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과 비교해볼 때 그림그리거나 악기 연주하기는 장점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특히 남학생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였고, 북한에서는 아코디언을 비롯한 악기를 칠 줄 알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림이라는 게 북한이 더 많이 (잘해요) 여기 사람들이 그림 진짜 못 그리더라 구요. 북한 애들이 잘 해요. (사, p20)

연주하기는 북한에서 애들한테 엄청. 애들이 보통적으로 기타는 다 칠 줄 알고 아코디언도 다 칠 줄 알아요. (가, p3)

그림 그리는 거 잘해요. 북한에 남자애들이 특별히 그림을 더 잘 그리는데... (나, p2, p24)

셋째, 북한사회에서나 남한 사회에서도 계산을 잘 하는 것을 요구받았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장사를 해보면서 계산하기 역량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사회도 요구하죠. 사회가 기대하는 거. 북한 애들이 계산을 잘하지 않습니까? 북한 애들이 쪼끔 더 잘합니다. (다, p44)

저는 계산 잘 하거든요. 남한 애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는 잘 했지만. 네 저는 (계산하기) 잘했어요. 없는데도. (자, p1, p4)

③ 학습적응성: 눈치안보고 매일 노력하며 배움의 욕구를 차이를 극복하려 공부함

학습적응성과 관련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은 북한에서부터 얻은 특성인 매일 노력하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기, 그리고 학습 수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부역량이 있고 배움의 욕구도 강하다고 하였다. 빠른 적응을 위해 남한의 새로운 것들을 부딪히면서 공부하며 성장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북한에서부터 학습을 위한 습관과 노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매일 1시간씩 어학 공부하여 성공했던 경험은 현재의 공부 방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아버님께서 제가 러시아어를 배웠는데 아침에 5시부터 6시까지 꼭 한 시간씩 읽으라

고 했었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진짜 중학교 1학년 때는 공부하기 싫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쫓 해서 중학교 6년을 읽고 대학교 2·3학년 때까지도 읽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읽다 보니까 러시아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차, p7)

둘째, 남한에서 학교를 다녀보니 질문하기가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 남한 청소년들은 눈치를 보거나 귀찮아서 질문을 잘 안하는 반면, 탈북 청소년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모르는 건 무조건 물어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북한아이들이 질문 잘해요?)네 잘하죠. 근데 거기서는 남의 시선을 좀 안 봐가지고 잘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하려면 남의 시선부터 눈치보고... (바, p21)
(여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질문 잘 안 해요. 북한에서 요구하던데, 북한에서는 모르는 것은 무조건 물어봐야 된다. (남한의) 학교는 되게 눈치 많이 줘요. 조용해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학교도 안 나가. (다, p43)

셋째, 남한과 북한의 공부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남한의 공부수준이 높지만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 보았다. 어리면 학교공부를 통해서 나이가 있는 학생들은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극복가능하다고 하였다.

한국 애들은 저렇게 수준이 그런 것도 좀 있고 북한에는 떨어지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국 애들보다 잘하자라는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p32)
여기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다 보면 극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좀 어리면 그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남한 학생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남북한의 차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차, p24)

넷째, 무엇보다 북한사회와 달리 남한사회에서 접하는 것들을 배우려는 욕구가 강하여 남북한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누구한테나 배울 건 있다고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북한에서와 달리 성장해나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금방금방 배우고 그런 틀에서 벗어나니까. 간혀 났던 사람도 열어 놓으니까 원래 사람보다 더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니까 빨리 가서 또 배우려고 하니까 여기나 저기나 그런 건 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자, p10)
(북한)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는 공부에 계속 취미 같은걸 느끼지 못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좀.. 제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단계를 좀 경험하게 되고
있어요. (마, 2)

다섯째,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부딪히고 경험해가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빨리 적당히 경험해야 돼요. 적응하기 위해선 배워야 된
다고 생각해요. (라, p46)

(경제적 지원 외) 나머지는 자기가 그냥 한국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뭔가 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 p36)

(2) 생활관리영역¹²⁾

① 건강관리: 갖추은 체력으로 남한의 방식을 배우며 자신만의 관리방법을 찾음
건강관리와 관련한 탈북 청소년들의 강점은 북한에서부터 갖추은 체력과 남한사회의 체력관리
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며, 스트레스관리를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북한에서 체력관리에 대한 경험이 다양하게 드러났다. 북한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거나, 학교를 걸어 다니고 노동에 참가하면서 체력이 어쩔 수 없이 좋아지는
환경이라고도 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체력이 좋고 달리기나 윗몸일으키기 등 운동을
잘한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농구, 수영 제일 많이 했고 대학 다닐 때는 축구도 많이 했고. (차, p1)

(북에서부터) 탁구를 잘해요. (가, p2)

(여기 온 탈북 애들이) 운동할 때 보면 한국 애들보다 달리기도 빠르고 이렇게 윗
몸 일으키기 하는 개수도 엄청 많이 하고. (아, p18) 체력관리는 원래 뛰어난 거고.
이거는 (신체 움직이기?) 진짜 많이 하는 거 엄청 움직이는 것도 많이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거.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교 갈 때 길도 많이 가고. (아, p41)

12) 생활관리역량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성은모 외, 2015 : p.xxviii-ix).

둘째, 남한에서 체력관리는 북한과 의미가 좀 다른 것으로 보았다. 남학생의 경우는 멋있어 보이려는 등 체력관리에 집착하는 면이 있고 여학생의 경우는 몸매 관리 차원에서 요가 등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남한 애들 헬스) 그거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남자애들이 그런 뭔가 운동에 대한 집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 p20)

남한 사회에서 체력 관리하라고 요구 안 해. 일부러 자기들이(자기들이 멋있어 보이려고?) 여친 사귀려고~ (마, p23)

운동은 축구나 이런 것들은 관심 없는데 요가나 이런 운동을 되게 몸 관리를 좀 많이 하는 거. (라, p4)

셋째, 탈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북한에서 배웠던 악기를 연주하거나, 돌아다니며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치유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냥 노래를 듣고 해요. 노래를 듣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요. 집에. (아, p21)

아코디언을 공부를 했어요. 북에 있을 때 5살 때부터 아코디언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스트레스도 거기서 배운 음악으로 해소하고 음악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많습니다. (라, p4)

아직도 많이 힘들 때 그럴 때 교회를 가면 교회 목사님이 반겨 주시는데 설교도 듣고 그러면 좀 영적으로 많이 치유도 되고 그러면서 좋은 분들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마, p12)

② 과제관리: 부지런히 정리정돈 잘하고 남한에서 시간과 돈 관리를 철저히 함
과제관리와 관련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은 북한에서 철저하게 부지런히 과제를 해온 경험, 정리정돈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 장점, 그리고 남한에서 정보와 시간관리, 무엇보다 경제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면이라고 보았다.

첫째,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초상화나 충성을 표현하는 인사, 노래를 잘 지키도록 훈련받았다. 매일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확인을 받는 일도 철저하게 부지런히 해왔다. 주어진 과제를

무조건 해내었던 경험이 있다.

태양상 청소를 무조건 해야 되고. 태양상이라는 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이만하게 그걸 붙여놔는데 그걸 다 청소하는 거... 할아버지 하나 좀 계속 적어서 학교에 또 넘겨 (통계해?)주거든요. 여기는 엄청 적게 하는데 북한은 엄청 많이 해요. 모든 애들이. 매일 가서 하나까. (가, p14-5)

김일성 거기에도 막 이렇게 잘 지키라 그러고 저는 1학년 때 반도 못 다녀서. 근데 거기서 김일성 이렇게 초상화 웃고 교실에 그래서 인사하고 노래 부르고 그런 거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하라 그러고. (아, p41)

둘째, 북한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인지, 청소도 잘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장점이 있다. 남한에 와서 살림 잘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며, 깔끔히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진로도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애들이 보통 부모들이 장시간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니까 애들이 청소를 해 놓고 밥까지 해놓고 집에서 기다리는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니까 보통적으로 애들이 청소를 다 꼼꼼하게 해놓고. (가, p13)

청소 솔직히 북측이 잘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깔끔해요. (사, p23)

제가 잘하는 게 이제 손으로 막 꾸미는 거랑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스타일이에요. 모든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도 좋아하고. (라, p5)

셋째, 남한에 와서 가장 노력하는 부분은 정보관리와 시간관리, 그리고 돈 관리로 나타났다. 정보 수집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며,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자제를 하면서 생활을 관리하고 있었다.

노력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정보를 수집하기. 그리고 음. 우선 시간관리, 엄청 노력했죠. 정보도 정보지만... (다, p49)

시간관리, 북한은 사실은 시간 여기처럼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데 여기 오니까 더 철저하더라고요. (자, p2)

거기서는 먹고 살 걱정은 안하고 살았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돈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하죠. 사실은 여기 와서 저는 내가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옷도 사 입고 싶은데 돈이 아까워서 안 사 입고 식당에도 안가요. 일단 내

가 가장이다 보니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자제를 하고 그런 걸 많이 통제하면서 살거든요. (자, p21)

③ 상황대처: 자제력을 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다잡고 살아감

상황대처와 관련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은 호기심을 감추는 자제력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다잡고 살아감으로 나타났다.

첫째, 북한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주요한 역량은 정신 일깨우기라고 하였다. 남한에서도 자기개발을 위해 정신력을 강조하지만, 북한은 정치적인 순종과 통제를 통한 강한 정신력을 강조해왔다. 이는 남한에 와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도 자제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강한 정신력, 순종과 통제를 강조하는 북한. (가, p4; 다, p31)

다른 드라마도 저도 보고 하긴 했지만. 많이는 못 봤지만. 뭐 매체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죠. 스스로를 자제하면서. 그렇게 보는 편이었고. (차, p13)

북한은 보다 좀 정치적으로 항상 시험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많은 것 같고요. 남한에서는 좀 자기개발적인 측면에서? 항상 자기를 계발하라는 그런 이야기. (차, p20)

둘째, 북한에서와 달리 남한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퇴폐적인 일에 빠져들기 쉽다고 하였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유혹이 많아서 스스로 강하게 다잡고 자기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였다.

어떤 친구는 제가 만났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나랑 같이 가자 한 시간만 가서 노래 부르면 돈 준다고 얼마를 준다고 개가 여름에 저희 집에 이틀을 잤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중학교 때부터 와서 그걸 했더라구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다, p19)

(남한) 퇴폐적인 너무 나쁜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뭐 아가씨 몸 팔고 이런 건 사회적으로 공부해서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북한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걸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고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하고 진짜 강하게 제 자체가 그런 딱 잣대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별로 안 하고 진짜 안하고 살아요. (라, p20)

④ 정서조절: 시원시원하게 민감하게 대처하며 부자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음

정서조절과 관련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눈치가 빨라 판단력이 좋으며 남한사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였다.

첫째, 북한 청소년들의 성격이 시원시원하다고 하였다. 자신이 잘났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실제 남한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도 북한 사람들과 비교하며 '부자'라고 생각을 바꾼다고 하였다.

일단은 북한아이들은 좀 성격이 시원시원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건 아닌데 시원시원한 걸로 해야 되나? 이게 좀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 잘났다. (아, p42)

학교에 나가면 내가 학교에서 제일 잘 살았고 진짜 부러운 게 없이 자랐는데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버리고 여기 온 게 너무 잘 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아무리 못사는 친구로 살아가도. 북한사람에 비해 보면 나는 너무 부자인거예요. 북한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걸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자, p21)

둘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잘하는 일에 대해선 포기하지 않고 무한한 노력을 하되 안 되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도 갖고 있다.

이렇게 눈치도 빠르는데. 좀 모르겠어요. 그냥 저절로 돼요. 원래 북한에서 오면 좀 여기 친구랑 친해지기 힘들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p16-7)

저는 포기를 하지 않고 제가 잘하는 일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싶고 그걸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할 것이며 진짜 해도 안 된다면 그걸 인정을 하고 다른 걸 또 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다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p16)

(3) 진로개발영역¹³⁾

① 진로설계: 잘하던 것과 돈 벌어야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선택함

진로설계와 관련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은 원래 북한에서 잘하던 것을 발전시키거나, 남한과 차별화된 북한의 방식을 통해 진로를 찾았다. 자신이 잘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돈벌기’부터 하게 되는 현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첫째, 진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원래 북한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잘하던 공부나 분야를 연결하여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한과 다른 북한식의 방법이 차별성있는 강점으로 받아들여져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네. 제가 북한에서 컴퓨터를 많이 접했죠. 집에 컴퓨터도 사고, 개인레슨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많이 받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관심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이제 대학교에 갔습니다. (바, p2, p5)

북한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입학한 거예요. 그 학교에. 그 당시에 면접 볼 때 굉장히 특이하다면서 발성법도 특이하고 모든 게 특이한데 잘 붙여주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서 집에 가서 결과 기다리라고 했는데 합격이 됐더라고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자, p15)

둘째, 여느 청소년들과 다름없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탈북 청소년들도 흥미가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를 때,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 선택의 고민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림을 잘 그리지만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노래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고, 가수를 하다가 교수까지 해보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냥 이제 미술 그리는 거나 만드는 것들은 이렇게 좀 생활에 좀 이렇게 많이 도움되지 않으니까. 가수는 제가 하고 싶고, 성공하면 좋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화가는 그림 그리거나 만든 것들은 돈도 많이 못 벌고 일단 제가 이렇게 잘하지만 흥미는 없어요. (아, p19)

13) 진로개발역량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히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을 말한다(성은모 외, 2015 : p.xxviii-ix).

교수를 해도 되잖아요. 딱 가수를 해야 한다는 법도 없어요. 가수 좀 하다가 가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박사까지 하고 교수까지 해볼 생각이 있어요. (자, p16)

셋째, 북한에서는 직업이 없어 살아야했기에 탈북하였다. 남한사회에서는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돈을 벌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준다고 기대하였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지만 막상 당장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버는데 집중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는 직업이 없습니다. 정말. 그니까 여기는 알바라도 있어가지고 돈 벌게 되는 데 북한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내가 살아야했는데 한국 가면 어차피 공부하든 일하든 일해서 돈을 벌 일자리가 있을 거니까. 전 그게 필수예요. (가, p42-3)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알바는 거의 제가 다 했던 것 같으니까 엄청 많구요. 옛날에 찻집에서 일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가족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가족 빨리 데려오고 싶어서 이제 돈을 진짜 열심히 모았어요. 첫날 다음날부터 제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데리고 왔죠. (라, p7)

② 여가활용: 자유 속에서 취미를 찾고 어려움도 나누며 사람들과 활동함

여가활용과 관련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은 학교나 단체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자유를 느끼며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꿈꾸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첫째, 학교생활에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다양한 역할을 맡아보기도 하였고, 정기적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갖고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대외활동이나 활동을 진짜 많이 해서 사람들이 언니 진짜 말 잘한다. 좀 이렇게 학교에서 축제도 제가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많이 띄었었어요. (다, p17)

그때는 그냥 단지 장학금을 주려고 달마다 6개월 동안 한 학기를 장학금을 주려고 실은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가 지금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 격주마다 뭐 어려운 것, 생활의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임. (사, p11)

둘째, 북한에서는 꿈꾸지 못했던 자유를 느끼며 여행도 맘껏 다니고 종교관련 책도 수집하며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다고 하였다.

여행을.. 이제 세계일주를 하는 게 꿈인데요. 6개국을 갔다 왔어요. 이탈리아도 갔다가 독일, 프랑스 (다: 북한도 갔다 왔잖아~)간 데가 많네요. (라, p4)

여행을 못 가요. 세계는 꿈도 못 꾸고요. 외국은 꿈도 못 꾸고 내가 사는 땅 안에서 여행도 다니기 어려워요. 저는 청진시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함경북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는 저 부산에도 엄청 많이 갔다 왔거든요. 해운대도 갔다 오고 대구도 갔다 오고 안 가본데 없거든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여가생활 즐길 수 있고 내가 돈만 있으면 세계도 다 나갈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 p22)

책이 좀 많아요.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처음에 왔을 때 교회에서 기독교에 관한 책들을 줘가지고 그것들이 제 방을 차지해가지고 짐이 좁아요. (마, p10)

③ 개척정신: 두려움 없이 다 제쳐놓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음

개척정신과 관련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은 두려움이 없이 시작하는 용기와 모든 것을 제쳐놓고 탈북 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였다.

첫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성을 갖고 개척하는 남한 청소년들의 역량과 달리, 용기있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북한의 정신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 한 이후로도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하는 강점이 발휘된다고 하였다.

북한 애들은 여기서 엄청 생소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무거나 시작은 다 잘하지. (가, 16)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분야를 스스로 과정을 헤쳐 나가는 그런 면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더 끈기가 있고, 더 남한 학생들이 (더 잘해요). 그런데 일단 뭔가를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계획이나 그런 것 없이도 되게 용기 있게 시작은 (북한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차, 22)

개척하기는 누구나 다 실험 실행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게 하는 거 북한의 정신이고. (가, 17)

둘째, 탈북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를 높이 평가하였다. 가족의 고통, 다시 잡혀서 처할 어려움 등 다 고민하고 올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도전하고 성공했던 경험은 남한사회에서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 (예, 공부)을 이겨내는 정신력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내가 한국에 옴으로서의 그런 가족들이 겪는 아픔이라든지 고통 또 그리고 오면서 내가 잡혔을 때 그 뭔가 차려지는 대가, 뭐 또 잡혀서 돌아갔을 때의 걱정, 뭐 가다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그런 과정을 고민 못할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올 수 있는 용기. 네. 그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사, 7)

좀 위험한 것들? 그니까 좀 용기를 내야 되는 것들은 저희 북한에서 온 애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14)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애들은 못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애네 들은 자기가 가지고 난 자유와 사회가 너무 당연하게 내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걸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런 사회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잘 하고 싶는데 여기 애들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 같은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공부로서는 좀 딸리더라도. 좀 못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월등한 부분도 있어요. (자, 19)

(4) 대인관계영역¹⁴⁾

① 관계형성: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며 진실하게 말하려고 함

관계형성관련 탈북 청소년의 역량은 남북한의 인맥에 대한 관점이 차이를 이해하고 친하게 지내려 노력함, 탈북자인 것이 티 안남, 그리고 진실하게 말함으로 나타났다.

첫째, 남한이나 북한이나 인맥 만들기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남한에서는 보다 득실을 따지는 것 같고 북한은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면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친해지기 위해 자주연락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였다.

14) 대인관계역량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말한다(성은모 외, 2015: p.xxviii-ix).

인맥 만들기랑 사람이랑 인간관계랑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인맥이 중요한 건 남북한이 똑같더라고요.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것. 남한이 더 절실하긴 한데 북한도 역시 인맥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쪽 사람들 다 필요로 하는 것. (자, p6)

남한은 이제 나한테 득이 되는 면에서 만들려고 하구요 북한은 이제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인맥이 중요한 거죠. 돈보다. (마, p1)

저는 인간관계를 잘 다지려고 노력을 해요. 북한에 있을 때도 제가 장사를 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고 그만큼 크게 할 수 있었고 사람도 알고 있으면서. 그게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남한 사회가 정보 공유. 정보 사회잖아요. 북한은 사실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휴대폰 인터넷도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서도 예를 하나 딱 들면 내가 연락 안하던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늘 좋은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면 이건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p7)

둘째, 남한에서 말투(언어)가 달라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해결되었다고 하였다. 생활을 하다가 탈북민이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친구들이나 주변인들은 말투나 행동에서 잘 느끼지 못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그니까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았는데 이게 언어에서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라, p6)

아예 북한에서 바로 왔으면 몰까. 자본주의를 경험하다가 와서 그런지 되게 뭐 편했어요. 처음에는 말투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어려운 것 빼고는 조금 지나니까 그런 것도 해결되니까 편했어요. 그냥. (차, p13)

언어가 이상한데 애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보더니 그 다음부터 애들이 좀 지나니까 나보고 너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상상이 안 된다고 한국 토박이인 것 같다고. (가, p32)

(남한 친구들의 반응은) 그냥 별로 놀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이러고)네. 사투리도 별로 안 쓰니까 “진짜?”그냥 이러고 끝내요. (아, p24)

셋째, 친구사이에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남한 청소년들이 돌려서 말하는 것과 달리 생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이야기 해주었다. 표현이 서툴지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알면서도 일부러 이제 잘못된 점을 얘기 안 해주죠. 그니까 돌려 말하기 좋아하는 애들? 북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야 너 그건 아니다 하는 게 많아요. 한국은 그게 아니죠. 이곳은 우정을 께 까봐 이제 (말을 아끼는)너무 짜증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 p22)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친하지 않으면 잘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친한 애가 있으면 이렇게 제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한국 애들은 돌려서 말하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p18)

따뜻한 마음. 행복을 주는 사람이죠.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 p14)

② 리더십: 잘 하도록 설득하고 들어주고 공감해 줌

리더십과 관련된 탈북 청소년의 역할은 잘 도와주고 동기부여를 잘해줌, 문제해결을 위해 수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리더십을 도와주는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북한청소년들이 리더십이 많다고 하였다. 반장으로 역할하면서 못하겠다는 친구들을 설득하여 함께 해내었던 경험도 있었고, 남한에 와서도 힘들지만 노력하며 살아가도록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다.

리더십. 그냥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그냥 아무 거리낌없이 도와주는 봉사하는 그런 거. (아, p22)

북한 애들은 되게 리더십이 많다고 생각해요. 잘 도와주죠. (다, p38)

체육이나 뭘 이런 걸 하는데 다른 애들이 아 나는 이거 못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득을 해요.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왜 할 수 밖에 없는지. 잘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주면 제 말에 공감을 하고 안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바뀌어요. (자, p8)

제가 직접 조언을 해요. 이런 거 하지마. 그래도 내 육체가 좀 힘들더라도 일반 일을 찾아서 가자 하지만 그게 안쓰럽죠. 그래도 저처럼 힘들게 노력해서 버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라, p21)

둘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이해해주고 단합시키기도 하였다. 팀을 이끌 때 최대한

동료들이 하고 싶은 것을 듣고 받아들이며 문제 해결하였던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리더로서 책임성이 강해야 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저희 학생들이 되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애들 사이.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 학교 반장이어서 그래서 애들 문제를 찾아서 뭐가 문제지 알아보고 그걸 해결하는데 노력했어요. 많이 해결했어요. 학교. 애들이 막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애들은 다 이해해주고 그리고 애들을 단합시키고. (자, p9)

팀을 이끌 때는 웬만하면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사람은 되게 말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어주고 제가 정말 너가 어떤 걸 하고 싶어하는지를 말해주면 개가 정말 그게 된 거 마냥 받아들여요. (다, p3)

반장으로서는 일단은 성실해야 되구요.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그리고 과제 같은 것도 바로 바로 중요한 거 같아요. 사람들 배려하는 마음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라, p14)

③ 협동: 댓가를 바라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으려 노력함

협동과 관련한 탈북 청소년들의 역량은 마음을 열고 댓가를 바라지 않고 협력하기이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함으로 나타났다.

첫째, 돕는다는 것은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누는 것으로 북한에서 배웠다. 상대적으로 남한의 친구들은 맘의 문을 잘 안 여는 것 같지만, 탈북 청소년들은 마음을 열고 협력을 한다고 하였다.

어떠한 댓가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거. 이걸 북한 사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라고 하는데 없어가지고. (자, p7)

협력도 되게 협력도 중요하지 이게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을 진짜 대놓고 오픈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어떤 조금이라도 닫혀있으면 협력이 안돼서. (다, p49)

북한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남한사람들은 문을.. 마음의 문을 잘 안 열어서. (라, p49)

둘째, 친구관계가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학급 안에서 왕따 문제도 심각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해도 스스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소극적이지만 친구관계에서 ‘희망’을 갖고 미래와 꿈을 생각하며 좌절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저는 그냥 나서지는 못하겠고, 근데 왕따나 왕따 아닌 애들 구분하진 않아요. 근데 왜 나면 왕따인 애도 말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도와주는 건 잘 못하겠어요. (아, p22)
스스로 자신한테, 그냥 내가 힘들었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이렇게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더 잘하자 뭐 이런 거. ‘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솔직히 지금도 막 이렇게 친구관계가 좋은 게 아닌데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친구관계도 생각하기도 하고 제 미래랑 꿈이랑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저도 좌절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할 때면 이말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p13, p20-1)

(5) 사회참여영역¹⁵⁾

① 개인시민성: 탈북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감

개인시민성과 관련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은 실천하는 책임성, 자발성, 탈북민으로서 사명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감으로 나타났다.

첫째, 남한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서 혼자서 노력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책임감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 실천해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본인들의 노력으로 채워가는 부분이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문제는 혼자서 그런 걸 채워갈 수 있을 수준이면 괜찮은데 어떻게든 혼자서 알아서 채워 가는데 그게 또 본인 책임으로 돌아가는 데. (차, p25)
책임감이 오늘 안내면 목사님이 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네 시에 독후감 두 편을 보냈어요. 죄송하다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보냈어요 그 책을 이따 만큼 두꺼운 책을 이제 저녁으로 읽고. (라, p18)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일단은 뭐든 이해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니까. (라, p50)

둘째, 자발성이 강조되었다. 부뚜막에 소금도 놓아야 간이 맞춰져야 하듯이 조건이 좋아도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일을 벌이고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15) 사회참여역량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을 말한다(성은모 외, 2015 : p.xxviii-ix).

내가 자진해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해야지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먼저 알려고 안 해요. 먼저 내가 찾다니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만 뭔가 자기가 기회가 차려지든 내가 부뚜막에 소금도 놓아야 간이 맞춰지잖아요. 아무리 조건을 맞춰줘도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건 자기 노력이잖아요. 아무리 이런 좋은 조건 좋은 사회에 와도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차려지고 다 내가 알아서 찾다니면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내거가 되더라고요. (자, p20)

저는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애들이랑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일 많이 벌리고 사람들이랑 그렇게 해서 좀 안 되는 것보다 되게 하는 방향을 그런 걸 좋아해요. (다, p2)

셋째, 탈북민으로서 사명감을 확인하였다. 탈북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을 뚫고 무사히 오면서 사명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탈북과정을 겪으면서 북한청소년으로서 역량과 정신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떠날 때 이렇게 마음에 위험이 있잖아요. 가다가 잡히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내가 무사히 왔고 또 여기 사명감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마, p13)

우리도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을 좀 살려주고. 오히려 강인함, 정신력 이런 게 있잖아요. 탈북도 했고. 진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니까 시키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자, p22)

내 내면에 뭔가를 쌓아야 (정체성이 확실한)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앞으로 이제 통일에 관해 북한과 남한 사이의 이런 것들 관계정립에 있어서 발전해야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라, p19)

넷째, 그냥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자 하였다. 취약계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안정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저는 한국에 가면 그냥 대한민국 시민증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살 줄 알았는데. (자, p23)

그냥 여기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북한에서 힘들게 왔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겠다. 북한에서 왔다고 이렇게 취약층에서 사는 게 아니라 중산층에서 안정된 생활을 취하는 게. (가, p40)

② 공동체시민성: 북한에 대해 알리고 적극 참여하여 편견 없애기 위해 노력함

공동체시민성과 관련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은 북한에 대해 잘 알리기,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함, 탈북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포함하였다.

첫째,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부분(예, 따뜻한 이웃애)에 대해 잘 알리고 주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북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사람들은 옆집 수저가 몇 개인지 아는데 여기는 모르잖아요. 옆집 친구도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 그런 따뜻한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그게 무식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다, p19)

우리가 북한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 또 저는 또 최근에 왔잖아요. 저는 옛날에 온 사람들이 나는 밥을 못 먹었다. 계속 굶다왔다. 북한이 너무 한심한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데 제가 봤던 사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왔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생생한 현재의 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더 나가고 싶어요. (자, p17)

둘째, 북한사람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친구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고 알려주려고 노력하였다.

북한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약간 편견이 같등이 됐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하는 데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를 따라주고 하여튼간 지금 없어졌어요...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제일 빨리 하는 게 사람들 많이 어울리는 거라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 많이 대하고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라, p6)

극과 극을 달리는 게 되게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또 남한 남자들보다 더 잘하는 남자들도 있거든요. 사고가 열린. 그런 것 보면 별로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통일 이후에 사회 통합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차, p12)

셋째, 탈북민들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선배 탈북민으로서 멘토나 정착지원도우미

로 활동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돕고 있었다. 무엇보다 탈북 청소년들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저는 학생들 멘토예요.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한국사회가 북한사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게 좀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도우미활동하며 보니) 그 사람들은 다 이런 감정을 느꼈다가 사람들을 잡아먹으려는 감정을 느꼈다가도 온화해지시더라구요.. (탈북 청소년들은) 따뜻하게 대해주는 시선이.. 근데 애들이 워낙 걸모습들이 되게 불량해요. 근데 마음은 되게 따뜻해요. (다, p23)

③ 세계시민성: 큰 전망으로 내 미래와 통일을 준비함

세계시민성과 관련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은 통일을 준비하기와 큰 전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북한과 남한사회를 모두 겪은 경험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통일지옥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려고 노력하였다.

통일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사람이 다 통일지옥이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북한사람이 진짜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통일지옥이라고 말할 순 없거든요. (라, p18)

계속 통일 관련 질문, 북한이랑 어떻게 살고. 통일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북한에 그냥 관심을 끊고 살자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통일 교육원 다녀 보니까 내가 뭔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런데 관심을 갖고 배워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차, p9)

둘째,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과 남한에서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것에 대하여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세계를 멀리보고 크게 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크게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나 이쪽에서 보는 거랑 저쪽에서 보는 거랑.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가, p23)

말은 땅에다 붙이되 세계를 보라. 크게 전망을 크게 내다보는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작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크게 보라는.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큰 시야로 보자는 거. 작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북한은 그게 불가능 하긴 한데 말로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사회가. (자, p9)

이상에서 기술된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에 관한 주제 분석 결과를 다음 <표 IV-5>~<표 IV-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V-5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에 관한 생애학습영역 주제분석 결과

구분	하위구분	범주	주제어
생애 학습 역량	사고력	집중력	복잡하지 않게 만들기 한곳에 몰두하기
		체계화	하나를 지키기 체계의 가치를 기억하기
		비판력	남북한의 차이 파고들기 사회주의 경험의 가치:민감성
		차별성	생존이 강점 탈북 성공의 역량: 추억
	지적도구 활용	섬세한 작업 잘함	원래 고치기 잘함 눈썰미가 다르고 센스있음 기술을 강조하는 북한 문화
		그리기와 연주하기 잘함	북한애들이 잘 그림 악기다루기를 요구받았음
		계산은 찌꺼기 더 잘함	계산을 잘하도록 요구받았음 가진게 없어도 장사 잘 했음
	학습적응성	내가 익힌 학습 습관	매일 노력함 학습 성공경험을 기억함
		모르는 건 물어봄	질문할 때 남의 시선을 안봄 모르는 건 무조건 물어봐야함 여기선 귀찮아서 안함
		수준차이는 극복가능	남북한 공부수준 차이남 열심히 하면 극복 가능함
		배움의 욕구 강함	금방금방 배움 누구에게나 배울 건 있음 공부하며 성장을 느낌
		사회를 적극적으로 알아감	적응위해 배워야 함 부딪히며 알아가야 함

표 IV-6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에 관한 생활관리영역 주제분석 결과

구분	하위구분	범주	주제어
생활 관리 역량	건강관리	북한에서부터 운동 잘함	다양한 스포츠 해봄 어쩔 수없이 체력 좋음 남한에서도 운동 잘함
		남북한 체력관리 의미 다름	남한 사람은 운동에 집착하는 것 같음 남한 사람은 타인에게 보여주기인 듯 남한 사람은 몸매 관리함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	음악으로 해소함 교회에 감
	과제관리	충성을 지키도록 훈련받음	태양상 청소 매일함 초상화 앞에서 잘해야 함
		깔끔하게 정리 잘함	북한에서 집 청소 맡음 북측이 깔끔함 정리정돈, 살림잘함
		철저하려고 노력함	정보, 시간관리 엄청 노력함 하고 싶은거 자제하고 삼
	상황대처	정신력을 강조함	과하게 빠지지 않도록 자제함 남북한 정신 일깨우기 다름: 북은 정치, 남은 자기개발
		유혹에서 강하게 다잡음	퇴폐적인 일에 빠지기 쉬움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삼
	정서조절	자신감	시원시원한 성격 상대적으로 생각함: 나는 부자
		적응	눈치 빠름 포기없이 무한 노력

표 IV-7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에 관한 진로개발영역 주제분석 결과

구분	하위구분	범주	주제어
진로 개발 역량	진로설계	잘 아는 전공 선택	북한에서 잘하던 전공 선택 북한만의 차별성 인정받음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음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다름 후회하지 않을 선택 장기적 계획을 세움

구분	하위구분	범주	주제어
	여가활용	남한에선 돈 벌수 있음	북한과 다른 남한의 일자리 돈벌어 가족 데려옴
		다양한 활동 참여	학교 활동에서 눈에 뜨임 지혜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
		개인적인 취미활동 즐김	자유로운 세계 여행 꿈꿈 여가생활 즐김 책 수집
	개척정신	시작은 잘함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 생소하니 일단 시작함 새로운 것에 잘 적응
		용기	다 제쳐놓고 올수 있는 용기 용기 필요한 일 잘함 묵숨걸고 얻어낸 우월감

표 IV-8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에 관한 대인관계영역 주제분석 결과

구분	하위구분	범주	주제어
대인 관계 역량	관계형성	인맥 만들기 노력	인맥은 남북한에서 모두 중요함 언어 문제를 해결함 정보공유로 도움 주며 관계맺음
		언어는 장애가 안됨	언어는 시간 지나니 해결되었음 조금 이상해도 이해받음 친구들이 놀라지 않음
		진정성 보여줌	남한애들과 달리 돌려 말하지 않음 친한애들에겐 직접 말해줌 표현은 다 못하지만 마음은 진심임
	리더쉽	도와주고 설득함	거리낌 없이 도와줌 설득과 조언을 잘함
		배려심으로 문제 해결함	다 이해시켜 문제를 해결함 계속 들어줌 책임감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
	협동	땀가없이 마음 열어 협력	땀가 없이 나눠줌 마음여는 것이 기본임
		더 적극적이지 않음	왕따를 돕지는 못하지만 구분하지 않음친 구관계에서 좌절하지 않기

표 IV-9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에 관한 사회참여영역 주제분석 결과

구분	하위구분	범주	주제어
사회 참여 영역	개인시민성	책임감 실천	노력하고 알아서 책임짐 신뢰성을 지킴 이해하고 실천함
		자발성	자기 걸로 만드는 적극적 태도 사람들과 일 벌임
		사명감	탈북 성공에서 비롯된 사명감 우리 장점을 살리자 통일에 관한 정체성
		당당한 시민	평범한 삶 기대 취약층 아니라 중산층으로 안정
	공동체시민성	북한을 알려주기	북한의 따뜻한 이웃에 알림 최근의 북한사회 알려줌
		편견 없애기 노력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만남 남북한 비슷한점 많음
		탈북민과 적극적 교류	탈북민의 멘토 역할 탈북민을 신뢰하고 도움
	세계시민성	통일 준비함	통일지옥 아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움
		미래 준비	큰 시야로 세계를 보기

3) 탈북 청소년의 어려움

(1) 생애학습영역

① 사고력

탈북 청소년의 사고력관련 어려움은 절대적인 학습기회의 부족과 창의력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첫째,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관련 어려움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여 학습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과정에서 학습단절 등의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많이 부족하였다. 남북한 학교의 교육내용이 차이가 나는데다가 탈북과정에 학습기회와 공부량이 부족하여 남한

교육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해력과 사고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능이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부족한 게 많다는 게 교육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교육.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 애들보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머지 지능이나 이런 데서는 떨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p10)

교육 내용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던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는 되게 장점이 되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질 그런 문제들. 내가 모르는. 여기서 자라왔으면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들이 저는 전혀 모르고. (차, p25)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데 대해서 애길 하는데 남한 학생들은 대화가 되는데 북한 학생들은 그 얘기가 이해가 안돼요. 작문반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학생이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온 학생도 있고 중국에서 온 학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가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차, p24)

북한에서 안정된 생활을 못하니까. 학교 막 몇 년 썩 안 다녀가지고 공부 막 국어 퍼도 모르겠고 해서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가, p41)

둘째, 북한사회에서 요구받는 것과 정반대로 남한에서는 창의력이 요구되는데 자율적인 사고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창발력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과 다른 남한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여기 애들은 더 자유롭고 모든 걸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위주로 하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충성해야 된다, 당과 조국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듣고 자라고, 장군님을 위해서 우리는 돌아간다고.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속에서 이렇게 다. 그런 교육을 너무 듣다보니까 자기 창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 여기서 특히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발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바라는 것 같아요. (자, p9)

거기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솔직히 자기생각이라기 보다는 어딘가 딱 하나의 목표를 하나의 결론을 위해서 짜 맞춰진 말을 하는 그런 것이고. 여기서는 자기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을 하는가. 여기가 더 그런 면에서 강한 것 같아요. 북에서는 생각을 자유롭게 못하거든요. 딱 결론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쪽으로 엮어갈 것인가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되게 다양하게 나만의 생각도 할 수 있

고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사고적인 측면에서 그런 연설하는데 필요한 사고가 여기서 더 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 p20)

② 지적도구활용

지적도구활용과 관련된 어려움은 정보력, 발표력, 문장력, 언어와 과학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첫째, 북한도 핸드폰의 보급으로 정보공유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남한사회의 정보력과 비교할 수 없다. 남한 청소년들은 핸드폰,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잘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과 같은 정보도 얻기가 어려워서 최근에 온 탈북 청소년들은 전혀 지원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기도 한다고 하였다.

2010년부터 휴대폰 나왔거든요. 2010년에 잘 사는 사람들만 썼거든요. 휴대폰을.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은 잘 살았으니까 휴대폰을 썼어요. 제가 다닌 학교가 원래 예술 대학교라 좀 잘 사는 집 애들만 다니거든요. 우리 애들은 많이 휴대폰을 썼는데 그때 당시는 한국 노래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블루투스로. 애들이 학교 나가면 하는 일이 휴대폰 서로 봐서 신곡을 공유해요. 나는 이리이러한 거 있는데 넌 어떤 노래가 있냐. 그런 거를 하는 재미에 휴대폰을 썼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자, p6)
남한 애들... 정보, 그니까 애들은 이렇게 분석 잘하는 건 아닌데 분석 잘한다는. 핸드폰으로 검색 잘해서 정리 잘하고 그런 거 다 이렇게 다 적어놓고 분석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아, p43)

하란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무래도 북한에 비해서는 이게 더 중요시되는 것 같아요. (차, p19)

청소년들은 정보가 좀 빠르거나 한국에 오래된 청소년들은 잘 받아요. 그런 정부 지원정보가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허튼데가서 계속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그 게 어차피 도와 줄 거면 조금 더. (다, p19)

둘째, 발표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사회에서 생활총화와 같이 강제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 이야기를 했었다면, 남한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연설, 강연,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였다. 북한에서 짜맞춰진 것을 발표하는 것에 익숙하여 남한에 와서 발표하는 것이 두렵고 어렵다고 하였다.

내 자신 내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여기서 저는 세미나나 이런 데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강연도 해보고. 혼자서 내가 살아온 과정도 얘기 해 보고. 북한에서는 그런 것 못해봤어요. 북한에서는 오직 생활총화하면 내가 마음에 도 없는 말을 잔뜩 써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했다. 여기서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얘기하거나 나의 의견을. 그게 차이점이 크죠. 여기서 하는 게 진짜 연설하는 거 같고 북한에서 하는 건 생각이 없는,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자, p6)

북한은 발표는요 엄청 떨어져있고 발표를 잘 안 시키니까 애들이 발표하는 걸 두려워하고. (가, p5)

셋째, 글쓰기와 관련하여 북한교육의 영향으로 남한사회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에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체제와 지도자를 옹호하는 글을 무조건 그대로 써야하는 강제를 받았다. 북한에서는 압박감을 느껴 억지로 쓰거나 대충했었다면, 남한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 자세하게 써야하며, 시나 사회적 비평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하였다.

압박감이 있어요. 무조건 써야한다는 그런 강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글 쓰는 데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썼기 때문에 이제는 글 쓴다 하면 안 쓰고 싶거든요. 진짜 쓰기 싫은데 여기 오니까 더 자세하게 써야 되더라고요. 북한에서처럼 대충대충 쓰면 안 되고. 그게 어려워요. (자, p14)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호위하는 뭐 그런 글을 되게 강렬하게 쓰면 글을 잘 쓴 거로 평가하는 그런 게 (가, p4)

그때는 3학년 때니까 그 (쓰는 게) 아니에요. 따라 쓰게 하는 거 있잖아. (나, p5)
글을 써보지는 못했구요. 교과서에 있는 거를 많이 다루죠. 그거를 적용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들이죠. 여기 와서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시를 써 봐도 되고 뭐 작문을 써도 되고 그냥 원고는 이제 3가지로~~ 번갈아가면서 쓰고 하다보니까. (마, p19)

넷째, 탈북 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영어였다. 또한 과학관련 과목들도 북한과 시스템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학교에 한 290명? 그니까 한 학년이...저는 1등도 해봤고..여기오니까 영어가 제일 힘든데 (가, p30)

(북에서) 영어 수업 받는 애들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심심풀이삼아 본 것 외에는 없었고 나름 뭐 자습한다고 대학 때 중학교 3·4학년 교재 놓고 공부했던 것 같기도 하고. 딱히 공들여본 적이 없어요.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혼자 끄적이지 않으면 지나가는 얘기 듣고 그냥 그런가보다 그렇게. 여기 와서는 뭐 새로 시작 하는 거죠. 너무 힘들긴 해요. 진짜로. 단어가 너무 부족하고. 리스닝도 너무 어렵고.(차, p7)

(여기온지) 3년이 안됐죠 그죠? 그 어려운 거는 이제 영어, 호텔을 경영을 꿈꾸는 데 영어가 어려워. 누구나 다 어려운 게 영어인데. 요즘은 단어를 한 200개 하루에 외우고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 p6)

영어가 제일 많이 팔리죠. (자, p18)

네. 엄청 다르죠~ 그때는 북한에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아무튼 여기는 웹개발을 많이 하니까 좀 많이 어렵죠 (바, p5)

제일 힘든 게 지금.. 화학이랑 물리, 그게 제일 힘들습니다. (바, p4)

③ 학습적응성

학습적응성과 관련한 탈북 청소년의 어려움은 학교 문화가 다름, 대안학교에서 공부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음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은어(예, 야자(야간자율학습))를 못 알아듣거나, 학생들이 장난스럽게 교사에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자기주도로 스스로 공부해야하는데 북한의 강제성에 익숙한 탓인지 무소속 상태에서 혼자 공부가 잘 안된다고 하였다.

언어도 다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국 애들이 장난치면 못 알아듣고...이게 음식도 엄청 다르니까 애들이 말해도 뭘 소린지... 저는 야자가 뭘 소린지 몰라서 야자가 뭘지 한참 동안 고민하느라 애들한테 물어볼 수 없고 진짜 머리가... 청 많이 고민해가지고. (가, p31-2)

학교에서 느낀 점이 애들이 엄청 그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왜요가 나와요... 다 듣고서 이제 또 왜요~? (나, p25)

한국 애들은 이해하는 거를 되게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

데 제 친구 이해를 진짜 빨리 해요. 엄청. 전부다 애들이 이해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아, 36)

지금은 스스로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돼요. 혼자 있어서 진짜로. 강제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차, p7)

둘째, 남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에서 경쟁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대안학교에서는 공부보다 캠프나 흥미위주로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여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은 대안학교에서 절대적으로 학습량을 늘리는 것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탈북장학제도를 세운 거보다는 어떤 초딩 중딩들도 사실 거기 가서 교육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런 애들은 조금 더 처음엔 좀 어렵더라구요. 나중에 그걸 생각한다면 일반학교에서 동등하게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원래 고등학교 2-3학년 애들이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마, p27)

대안학교를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가르치는지 서류를 보고 뭐 싸인 해서 예산을 보내는 것보다 좀 실질적으로 정말 통일을 지향하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학생들이 개개인들이 어떻게 사나 이런 것부터 좀 그 현실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대안학교에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후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되게 거슬릴 때가 많거든요. (사, p28)

캠프라든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진짜 많거든요. 그 시간에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만 시키고. 지금까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기사도 쓰고 막 반발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 좀 공부시키고 그런 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학교들도 보면 애들 막 주말까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가는데 이런 프로그램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바, p29)

(2) 생활관리영역

① 건강관리

건강관리와 관련된 탈북 청소년의 어려움은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인 민감성이라고 하였다. 북한에서의 억압적인 생활로 인해서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남한에 와서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꿈을 꾸거나 정신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하였다.

북한사회에서, 북한사회가 모든 일을 정치적으로 결렬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사, p21)

꿈에서 좀 많이 봐요.(질문자: 꿈에서~)네 예전에 많이 꿔어요. 그런 거 많고 이제 잘못하면 감옥에 오래 들어가 사니까. 그런 거에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북한 애들이 민감한 것 같아요. (아, p37)

약간 극단적이고.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극단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시행착오도 겪어왔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하는 소리가. 그런데 또 하나는 굉장히 억압받고 살았던 말이에요.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책 읽어라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죠 사실. 그런 것 말고도 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는지 몰라요. (차, p13)

② 과제관리

탈북 청소년의 과제관리와 관련된 어려움은 공부를 잘 하고 싶어도 학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함과 의지가 부족해지고 마무리가 약함으로 나타났다.

첫째, 남한에 와서 집, 생활비, 필수품 등 지원을 받지만 학교를 다니고 필요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게 되니 성적도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가족들이 아프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집도 받고 대한민국에 집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도 많은데 저희는 집도 받고 진짜 모든 상황이 다... 어려운데 근데도 도움을 많이 받죠. 받는데도 이제 그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돈을 한 달에 48만원이라는 그게 6개월만 주잖아요. 기초수급을 주는데 그 이후부터 나 혼자 살아야 되고 어렵죠. 48만원은 솔직히 작은 돈이에요. (라, p24)

우리가 지금 대학 다니는 기초생활수급비로 50만원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데 그 돈에서 전화비 내고 집세 내고, 뭐 핸드폰 뗄 거 다 떼고 나면 정말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대책을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없는지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할 수밖에 없는 그

런,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안 나오니까 공부가 또 뒷전인 거예요. (사, p31)
 성적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이제 물론 공부 안 해서 낮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공부할 시간에 뭐, 아르바
 이트 한다던가(질문자: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애들도 이제 대다수거든요. 그런
 데 이것도 한번 따져놓고 보면 성적이 낮은 이유부터 알고 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마, p31)

둘째,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남한에서 꿈을 꾸고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노력이 부족한 것 같으며, 책임을 다 한다는
 신용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갖기 위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누구나 그건 진짜 거의 다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무리 되게 잘하라 말하
 고 한국도 (다) 꿈을 꾸면 뭐하겠어요. 꿈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다, 라, p29)
 남한 아이들이 책임감, 마무리하기도 잘해요. 북한 사람들은 마무리가 되게. 책임감
 이 없어요. 한마디로. 여기에 비하면. 신용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좀 그렇고. 제가 많이 잘 늦어요. (차, p21)
 무조건 뭐 제시간에 가야겠다 이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늦으면 늦지
 뭐. (차, p22)

③ 상황대처

탈북 청소년들이 상황대처와 관련된 어려움은 남한사회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적절한
 상황대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이 없던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을 때 정보가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고, 누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없어 국가 사회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하고 고생한다고 하였다.

뭔가 여기서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있는데 우린 거기서 밖에
 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조건에서 흰한테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가, p33)
 이제 청소년들이 정보 있으면 제가 알려주거든요. 근데 하던 애들만 계속해요. 봤
 던 애들만. 그 반면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육받아요. 거기서도 대사관에서 신
 청하는 것도 하는데 모르니까 못 신청하는 거예요. (다, p20)
 (대학가는 것) 그걸 코치 해주는 사람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

야 되는 거. 사회에서는 누구도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p17)

④ 정서조절

정서조절과 관련한 탈북 청소년의 어려움은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 탈북민이라는 것을 숨기게 됨으로 나타났다.

첫째, 탈북 청소년의 정서조절관련 어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없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어떤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움이었다.

뭐 표현이 어렵잖아요. 표현이나 불쑥 뭔가 나의 의사표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 p14)

북한은 뭔가 강제성 그런 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걸 연설하라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연설을 하면 내가 본인 생각이 아니라도 막 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내 생각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기본이고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어떠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는데 북한은 개인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p6)

둘째, 탈북민이라는 것을 숨기게 된다고 하였다. 남한 친구들과 친해지기가 힘들어 믿을만한 친구에게만 알려주었다고 했다. 남한의 청소년들처럼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자신이 탈북했다는 것을 밝히면 혼자될까봐 걱정하며 소극적으로 관계를 맺어갔다. 탈북 청소년들과의 사이에서도 조용히 살기로 결심하였다고 했다.

숨기고 있어요. 친한 애들만 알고 숨기고 있어요. (북한에서 온 거) 그냥 제가 기하고 싶을 때 얘기해요. 그냥. 좀 믿을만하면 얘기하고 믿지 않을 땐 아예 안 얘기하고. (아, p24)

탈북 하던 당시에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오던 당시 아직 가족이 북에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조용히 살아야겠다. 내가 알려지면 가족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용히 살아야겠다. 했고. 두 번째는 제일 좋았던 게 북

에서 그렇게 피해를 본 게 없거든요. 대학까지 다니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온 경우라고 보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서서 이런 뭐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걸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살기로, 두 가지 이유에서 조용히 살자. (차, p9)

(3) 진로개발영역

① 진로설계

진로설계와 관련한 탈북 청소년의 어려움은 북한에서 공부하던 전공이 없어 진로를 바꿔야 함, 남한의 입시정보를 잘 모름으로 나타났다.

첫째, 북한에서 전공이 남한에 없어서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음악을 전공한 탈북 청소년들은 아코디언 전공이 남한 교육과정에는 없어 전공을 바꾸어야 했다. 북한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지만 인터넷이 없는 북한에서의 공부는 웹기반 컴퓨터 교육과정인 남한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희망이라고 하면 제가 일단 여길 와서 아코디언이 여기서 전공이 없더라고요. 그런 학과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일단 좀 더 다른 좋아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구요. (바, p4)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거기서 아코디언을 제가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선 아코디언 그런 게 없고 하니까 그냥 꿈을 바꿨습니다. (라, p9)

둘째,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북한과 다른 남한의 입시체계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남한에서 대안학교나 검정고시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있었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경우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술해야하는지 등 북한과는 전혀 달라서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 금방 오자마자 대학에는 어떻게 가는 지.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고 북한하고 절차가 다 틀리잖아요... 얼마만큼 실력이 있어야 붙을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먼저 간 선배하고 물어보고 했는데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자, p13)

대학준비에 대해 집에서 하는 걸 물어서 대안학교도 많이 알아봤는데 대안학교는 보통 검정고시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많고, 내가 갈 곳은 안 되는 것 같다고.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안 갔어요. (차, p16)

저는 자기소개서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 북한에서는 여기처럼 자세한 걸 안 썼거든요. 여기 애들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알잖아요. 대학교 가려면 그게 필수라는 것도 알고 미리 연습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대학교 갈 때 자기소개서는 썼는데 나는 간단해요. 나는 어느 집에서 몇 째 딸로 태어나서 뭐 원수님의 사랑으로 유치원 다녔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성장을 했다. 그렇게 쪽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 북한은 자기소개서가 학교 붙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p13)

② 개척정신

탈북 청소년들도 보통의 청소년들처럼 진로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다.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달라서 고민을 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많았다. 돈벌이가 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실패해도 후회가 없는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중3이 되니까 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가수가 꿈인데 가수가 미래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런 게 고민이에요. (아, p9)

앞으로 뭐 할지가 좀 희미하니까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한국에 온지가 1년 하나원을 나온 지가 1년이 다 되었거든요. 8월이면 1년인데. 1년 동안 한 게 없으니까 일단은. 무소속으로 쪽 지내다보니까 좀 시간 낭비하는 느낌도 들고 그것 때문에 글썽 올해는 대학에 갈지 잘 모르겠지만. (차, p1-2)

선택이 아무래도 다양하고 많은 이런 상황들 중에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관심 있는 거를 선택해야 하니까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캐치해 준다면 그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 p3)

(4) 대인관계영역

① 관계형성

관계형성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들은 문화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남한 친구사귀기가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첫째, 문화차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은 소수로서 다수문화와 달라 갈등을 겪게 되는데, 고집이 세고 공격성이 높다고 하였다. 말싸움을 잘하고 고집이 세서 무조건 맞을 거라고 밀어붙이는 모습들로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은 좀 이렇게 배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서는 좀 달라요. 이렇게. 막 욕하고 그냥 막말하고 그냥 좀 돈 주고 있는 것도 있고. (아, p27)

어려운 것들은 아마 저는 대인관계가 좀 어려워요. 어찌다 보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문화도 조금씩 달라서 제가 소수이고 그 한국 사람들은 다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때는 그런 거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풀어가야 할지를 몰라서 (다, p3)

가끔씩 선생님한테 욕먹는 사람이 고집 세다고 거의 무조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무조건 맞을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약간 그런 마음이 아무래도 표 안 나도 보이는 것 같아요 (라, p46)

생명의 위기를 맞다 보니까 공격성들도 감출 힘도 흥분하면 제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좀 지금도 가끔은 힘들면 그런 게 나타나고... 어쨌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스물일곱 살 오빠랑 대학교 1학년 때 발차기하고 싸웠어요. (다, p16)

둘째,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북한에서의 친구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남한의 아이들과 교류하기가 쉽지 않아 학교를 옮기는 경우도 보았다. 남한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적고 만난다 하더라도 맘을 열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 여기 왔다가 적응 못해서 다른 학교로 간 애도 있어요. 한 명.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친구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깐. (개인의 어떤 특성인 것 같으나 아니면 북한에서 와서 막 정착하는 단계라서?) 둘 다 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까 그게 쪽 팔려서 그냥 그렇게. 말 안 하게 되는 거. (아, p23)

오히려 북한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남한사람들은 문을..마음의 문을 잘 안 열어서. (라, p49)

팀플 해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남한 학생을 접할 기회라는 게 교회에서 그냥 잠깐 잠깐 보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차, p11)

② 리더십

리더십과 관련해서 탈북 청소년들은 먼저 탈북한 선배들과 갈등이 있다고 하였다. 탈북자형들은 지나친 호기심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신중하지 않게 훈수를 두는 것 같아 불편하였다. 비판적인 문화에서 자라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것도 남한사회에서는 고쳐야 하는 부분이라 여겼다.

하나원에서 형들이 있잖아요. 북에서 오신 형들이 있고 저는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싫었어요. 앞에서 대놓고 까고, 좀 약간 질투하는 말도 막 하고. 남에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고 그런 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차, p11)

남의 잘못을 나의 잘못처럼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비판적인 문화잖아요. 비판적인 문화에서 자란 북한 학생들이 조언하기는 잘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훈수를 잘 두죠. 훈수. 이렇게 하라고? (차, p22)

③ 협력

협력과 관련하여 북한사회의 집단주의 문화로 협력을 잘하지만, 그 이면에 개인주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공정 경쟁하려는 남한 청소년들과 달리 남과 교류하지 않고 싫으면 안 해버리는 북한 청소년의 모습이 협력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북한은 원래 집단주의니까 협력하기를 말할 필요가 없고...북한이 되게 집단주의적이긴 한데 또 개인주의가 심해요. 들어가 보면. 물론 남한도 같겠지만 남 잘되는 것 못 보는. 내가 스스로 누구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고가 좀 더 열려있는 것 같아요 남한 학생들이. 공정한. 공정한 경쟁을 하려는? 아닌가? (차, p23)

(5) 사회참여영역

① 개인시민성

개인의 시민성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들은 처음 남한사회에 왔을 때 그동안 자신이 북한에서 들었던 것과 다른 면에 혼란을 겪었다. 언어도 많이 달랐다. 무엇보다 남한사람들이 본인들을 ‘탈북자’라고 호칭을 따로 붙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놀란 게 아니고 새로운 게 많이 보이니까 놀랐던 것 같아요. 또 자본주의 나쁘다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게 잘 살고 있으니까. 좀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나쁜가? 북한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옳았었나? (자, p14)

북한어/한국어는 억양이 달라. 다른 게 엄청 많아. 케이크가 푹쑹. 아이스크림 같애. 패딩은 북한에서 동복이라고 한다고. (가, p45)

따로 그거는 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저희는 일단 대한민국 사람이예요. 그런데 저희를 왜 따로 호칭을 또 붙이는가 하는 거예요. 왜 탈북자라고 또 따로 붙여요? (자, p23)

② 공동체시민성

공동체 시민성과 관련해서는 남한사회에 만연한 북한에 대한 편견이 심각하다고 하였다. 북한사회를 경험한 특별함이 있고 본인들이 가진 장점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문화 차이가 편견과 거리감을 만들고 있으며 불쌍한 존재로 생색내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남한사회의 태도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언어에서도 되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약간 그 북한에서 왔다는 그 편견, 저는 개성적으로 다 터놓고 말을 했거든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서. 시선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약간 안쓰럽게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무식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거리감이 되게 멀게 느껴졌어요.(다: 적응 못한 사람도 많아요.) 어렵더라고요. (라, p6)

환경 지배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바뀐단 말이에요. 자체로 바뀌고 그리고 내 문화를 살릴 건 살리고 뭔가 우리만의 장점을 나는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특별하게 보는 거 싫거든요. 물론 특별하긴 해요. 북한에서 왔다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TV도 나갈 수 있고 내가 여기 사람들이 못나가는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봐요. (자, p22)

십 만원씩 주면서도 주지 않아도 그런 품위가 있고 그런 그 10만원의 가치보다 더 나가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든지 그리고 또 너무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게 아니고 그 후원이라는 그런 거 하는 거 자체를 뭔가 자기 회사의 이미지나 뭐 그런 후원하는 거의 효과를 바라서 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많거든요. 뭐 주로 사진 찍고 신문에 실리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생색내기도 맞긴 하지만 또 그

런 마음에서 아니 시작됐다고 해도 (그렇게 하죠)그렇게밖에 해야. 별수 없잖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좀 그런걸. 불편해할 때도 있죠. (사, p27)

③ 세계시민성

통일을 준비하고자 하지만, 남한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북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남한 청소년들을 보면서 남북의 청년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에 당황하였다고 하였다. 통일은 탈북 청소년만의 요구는 아닌지 생각이 들었다.

진짜 한국 애들은 통일을 원하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보니까 통일을 안 원하는 애들도 있어요. (가, p43)

나는 내 일개 이해관계를 떠나서 통일에 관련해서는 저는 참여하고 싶고 좀 더 내가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주고 싶고 많은 그런. 저는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건. 전 제 자체가 가족을 두고 왔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요구하지만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은 통일은 너무 당연한 것.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사회가 낳은 거겠죠. 사회가 달라서. 여기는. 그런데 또 북한이 못살아서 통일을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원래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해야 된다. 도 있고, 안해야 된다. 도 있더라고 요. 그것들이 남북한 청년들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자, p18)

4) 탈북 청소년의 역량에 도움이 된 지원 체계

(1) 생애학습영역

① 학습기회제공

학습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탈북 청소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대학특례입학, 공공전담학교 운영이며, 장학금지원도 학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지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안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 함께 다닐 수 있는 제도가 더 필요하며 생계비 부족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탈북학생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탈북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입학정책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중고등학교 학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탈북자 전담학교를 운영한 것,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대입특례입학 기회를 준 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새터민 전형이 있잖아요. 정원 외 전형이라고 하면 여기 애들 인원이 다 차도 저희가 실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혜택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붙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력으로 했으면 많이 달라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때까지 배운 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바, p15)

중고등학교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조금 그니까 엄청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북한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숨기고 싶은 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정부에서 신임해줬겠죠 이 아이들을 통일교육 강사로 쓰자 그것도 전 지원이라고.. 그런 것도 좋았고. (다, p14)

탈북자만을 위한 대안학교보다 남한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공공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둘째,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에 가장 도움이 컸던 것은 장학금 지원이라고 하였다. 장학금으로 인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 장학금 같은 것도 이렇게 주시니까 애들이 허튼 길 안 나가고 부모님들 중학생이지만 고등학생이지만 부모님들이 북한에 계시면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근데 장학금 지원해주실 때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지원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거 아니면 아마 지금 어디 가서 내가 술을 따르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다, p14)

저희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었는데... 다른 데서도 탈북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장학 혜택이 좀 약간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사, p32)

생계비 부족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체계가 더 요구된다고 하였다.

② 학업향상지원

학업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는 민간 비영리기관이 제공하는 탈북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대학입시에서 대학생활에 필요한 종합적 지원, 특히 글쓰기, 발표하기에 대해서는 독후감과 토론을 통해 지원하였다. 영어에 대한 지원은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도움 받았다고 하였다. 그 외 기초과목에 대한 지원도 멘토링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학습지원이 이뤄지는 비영리 민간조직들의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눈높이에 맞는 학습지원을 하였다. 영어, 독후감, 글쓰기, ppt발표 등 탈북 청소년이 대학입시에 필요한 부분뿐 아니라 대학생활에 필요한 부분까지 종합적인 학습역량을 키워주고 있었다.

(**학교) 6개월 다녔죠. 영어랑 글쓰기. 책보고 독후감 쓰고 평가하고 이제처럼 글 쓰기 방이 있고 영어가 있고 기초별로 쪽 있거든요. 레벨 별로. 있고 그리고 대학 준비하는 생들을 자기소개서랑 그거 도와줘요. 쓰는 방법 가르쳐주고. (자, p14)

**학교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전제하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가서 기초적인 걸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약간은 이게 중간 단계에서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채워가 는. (차, p25)

둘째,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탈북자 특례에 맞게 대학입시용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도움이었다. 또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독후감을 작성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대입작문반도 자기소개서라는 개념이 좀 없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비싼 돈 주고 과외하고 학원 간다고 해서 배우는 것도 없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좀 되게 좋아요. (차, p5)

학교에서 하는 우리 동아리 활동도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볼 수 없는 것들이 되게 우리 오기 위해서 계속 일단 공부를 하고 독후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런 채찍질이 많죠. (라, p17)

독서가 기본이더라고요. 독서동아리 활동만 했었는데 제가 읽어보지 않고 다른 학

생들의 얘기를 듣고 책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차, p9)

셋째, 발표와 토론에 관해서는 인문학이나 시사 상식에 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ppt 활용 발표법 등을 배울 수 있어서 남한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최근 이슈라든지 그럼 여기 고등학교처럼 대학가는 학생들이랑 알고 인문학적 지식들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거는 또 그거대로 되게 그런 수업이 없으면 솔직히 뉴스도 잘 안 들어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수도 있고. 뭐 혹은 내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구실로 갖추지 못하고 있던, 공부를 못하던 분야도 또 알게 되고 (차, p9)

대학교가서도 이제 ppt발표 (하는 것들도 배우고)또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활동이나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내통할 수 있는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라, p18)

넷째, 탈북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영어가 가장 어렵다고 하였으며, 실제 영어에 대해서는 종교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원어민 봉사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주어지기도하고, 일대일 멘토링으로 영어공부 도움을 받았다.

영어 써클. 원어민 교사들이 봉사자들이 하루에 2-3시간씩 그렇게 쪼지는 않지만 다른 원어민들과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매일은 아니에요. 월화목 금이에요. (차, p3)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일대일 멘토링 같은 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저는 영어가 제일 부족한데 영어 과외라던가 또 다른 친구들은 뭐 전공분야라든가 이게 아마(바, p30) 일대일 멘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화학, 물리 이런 부족한 학과목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마, p30)

그 외에도 과학과 같은 전공기초 과목에 대해 일대일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③ 학습적응지원

초등학생 탈북 청소년을 위해서는 복지관의 일대일 개별학습 프로그램이 도움이 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만난 탈북 친구들과 친해질 수도 있었다.

그냥 도와주고 계속 공부 멘토링하니까 좀 된 것 같아요. (아의 할머니: 초등학교 때 처음에 와서 너 방과후에 선생이 둘씩 나왔지? 한 선생이 끝나면 다음에 또 선생이 오고 이래서 연결시켜서 공부시켰다만 그러니까 많이 따라가더라고.) (아, 5) 십 분을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만 와서 십분 배워주는데 이게 크게. 효력이 (없어요.) (나, 38)

(나의 어머니) 선생님이 10분 삼만오천원씩 해서 한 10분 더해서 한 7만원 맡아가 지고 재단에서 3만원 주니까 10만을 맞추더라 말입니다. 제(어머니)가 딱 반대했죠. 그거 한대도 영어 단어 한 개도 못 외웠거든요 (나, 38)

일대일 학습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지만, 주 1회 10분씩 공부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고 하였다. 짧은 학습지 지원보다는 효과있는 장기적인 개별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상담이나 직업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변화되고 함께 모여 공부하는 것은 중학교 이후부터는 중단된다고 하였다.

끊긴 것 같아요. 복지관은 원래 6학년까지만 해요. 또래는 이제 6학년부터 복지관은 6학년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오니까 연락은 안 되고 중학생은 좀 이게 중3이 되면 미래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직업체험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5,9)

취업성공패키지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 동안 2가지까지 배울 수 있거든요. 대학 준비생은 그게 해당이 안 되고 취업 준비생만. 내가 컴퓨터를 배워서 취직을 하려고 한다. 컴퓨터 학원 다니겠다. 그러면 그게 적용이 되고 미용사가 되려고 한다. 그런 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성악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대학준비생도 됐으면 좋겠어요. (자, 20)

그 밖에 하나재단과 같은 기관들의 프로그램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취업준비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중고등학생, 대학준비 청소년들의 학습적응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2) 생활관리영역

① 건강관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제3국에서 부터 남한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 받았다는 것과 형사의 정기적인 방문과 상품권과 같은 실용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교회에서도 와서 이렇게 많이. 많은 사람을 또 나눠주셨고 거기에서 지나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도 많은 사회 봉사자들도 만나게 됐고 또 거기 교육하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구요. 그리고 또 한국에 나와서는 대학 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있고 뭐 그 도움을 말로 설명하려면 뭐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죠. (사, p10)

도움이 되는 건...그러니까 뭐 학용품 주고 돈 주고 형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상품권주니까... 급식먹고 나서 애들하고 밖에 가서 뭐 사먹고 (가, p35)

② 과제관리

첫째, 하나센터의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2주간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었고, 집에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필품을 제공해주었다.

하나센터는 어떤 지역적인 것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분리수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되게 좀 실질적이고 좀 국부적인거죠. 차이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되게 그분들도 필요한 것들만 가르쳐줘서 실제로 귀담아 들으면 되게 유용한 강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차, p16)

하나센터에서 초기 지원 같은 것.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것들. 100만원. 그런 건 경제적으로 처음에. 경제적으로는 되게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냉장고 주고 전기밥솥은 하나원에서 가지고 왔고. TV 주고. 가스레인지 주고. 딱히 뭐 살게 없더라고요. (차, p14)

하나센터에서는 나와서 열흘 동안 교육을 2주 동안 받았고 첫날에 나왔을 때는 기초 숙식 그릇이나 쌀 이런 거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끔씩 모임 같은데 오라고 하

고 그런데 저는 바빠서 안가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서로 알고 좋긴 한데 또 바쁘고 그런 놀러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착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자주 해봤자 우리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p19-20)

그러나 초기 교육이외에 하나센터에서 주관하는 모임은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정착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둘째, 생활비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학업과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장 중요한 지원이었다.

경제적 지원이 제일 큰 도움. (가, p36)

그런 생활자체가 어려움에 ○○○○ 걸리고서 부터는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일을 시작 하다 보면 대학은 그 다음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없게 되는 거죠,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에요. (사, p31)

③ 상황대처

남한사회에 와서 접하는 유혹에서 이겨내는데 종교기관으로 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종교활동은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종교적인 면이 강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잣대라는 게 중심을 잡고 거길 더 넘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것도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라, p16)

교회를 가면 회개를 하게 되고 그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아 내가 제발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고 제가 저는 한국 애들에게 제일 부러운 게 부드러운 면이거든요.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걸 배제하고 봤을 땐 부럽잖아요. (다, p16)

저는 한국에 제일 처음 왔을 때 1년동안 방황을 좀 했어요. 영적으로 좀 많이 영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구요.'아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많이 느꼈구요 (마, p12)

④ 정서조절

첫째, 혼자 탈북하여 정착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정착지원도우미의 도움이 크다고 하였다.

특히 탈북자 선배가 도우미가 되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챙겨주는 모습에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다. 도우미가 자신의 관계망을 연결해주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주었다.

도우미 같은 경우는 도움을 주신 분은 봉사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셨어요. 그렇고. 엄청 챙겨주시고. 저 같이 혼자 온 경우에는 위로가 되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차, p14)

진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전공의 그런 선배라 던지. 뭐 그런 데를 연결시켜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사, p30)

정착 도우미 분께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에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사람은 아닌데 정착 도우미 분이 아시는 분 중에 같은 김책공대 다니다가 왔어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니까 너 한번 너 앞으로 대학 갈 때 만약에 관심 있으면 만나보라고. 만났는데 그 분이 **교회에 이런 학교 있는데 대학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다녀보라고 해서 다니게 됐어요. (차, p3)

둘째,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 험한 탈북과정을 겪어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았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받을 때도 사회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심리상담도 많이 오셨어요. (다, p14) 하나원에서 심리 상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정상은 아니었나 봐요. 조금 정서적으로... 부모님 안 계시고 중국에서 좀 너무 어렵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망가져서. (다, p15)

북한에는 상담이란 게 없으니까 스트레스란 말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엄청 상담에 스트레스 그런 말 많이...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스트레스라는 말이 생기니까 약간 신경 쓰란 말인가 막 이렇고. (가, p35)

저는 심리상담 와서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습시다. 해봤는데 그냥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제가 엄청 이렇게 뭐가 그런 걸로 저를 계속 불러서 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가서 별로 도움이 없고 차라리 거기 앉아서 공부하는 게 낫는데. (가, p34)

그러나 욕구에 맞지 않는 상담은 도움이 안 된다고도 하였다.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스트레스라는 말을 알게 되고 오히려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 일과 중에도 필요와 상관없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적인 상담보다는 개별적이면서 적재적소에 맞는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3) 진로개발영역

① 진로설계

진로에 관한 정보제공 보다는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진학을 위해서 대학교를 직접 탐방하여 보고 듣고 하는 체험은 대학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관심분야에 맞는 직업들도 체험활동 하면서 도움을 받았다.

저를 멘토링 해준 분이랑 대학교 캠퍼스 탐방이라 던가 이렇게 탐방이거를 통해서, 직접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제 저의 성격이라던가 관심분야에 해당되는 직업 같은 것도 제가 보고 선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마, p3)

② 여가활용

여가활용을 위한 민간기관들의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동기와 관련 없이 기관의 후원활동에 동원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방학에 캠프가 도움이 되었어요. (가의 어머니: 1월달에 전문대학생들이 모여서 딱 같이 애네하고 어울려서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연락해요. (가, p37-8)
물론 본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해서 뭐 노 래만들고 정말 고아원 봉사단처럼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실은 후원이나 일 돕기를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지 그렇게 공식 활동하면 안 되거든요. 일종의 예산 받기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거죠. (사, 마, p28)

③ 개척정신

복지관을 비롯한 비영리민간기관들은 탈북 청소년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였다. 무한상상 프로그램, 예체능 관련 활동, 여행을 통해 남한의 좋은 곳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활동이외에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특정분야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무한 상상이라는 수업도 있고 진짜 여기서는 불가능한 일도 상상으로는 해볼 수 있다. 저도 수업에 참여해봤거든요. 대학 졸업생들만 하는 건데 참 나중에는 진짜 가기도 하고 3D 기기 있잖아요. 그걸로 막 갑자기 컴퓨터로 조종하니까 인형이 만들어져 나오고 해봤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걸 상상하고 더 발전되고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는 것도 상상해 보는 건 북한에서는 모르고 살았죠 (자, p8)

바이올린도 배우고 제가 체험을 못한 그런 악기들을 해보고 그리고 목공예 같은 그런 것도 다 해서 가져가고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고 이제 노래도 배워보고 그리고 춤도 배워봤어요. 여러 가지 강의를 좀 듣고 그 옛날에 궁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그랬어요. 여기에 적응하는 것도 있고 한국의 좋은 곳도 알아 가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아, p8)

저희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가겠냐고 하던데 해수욕장 놀리잔다 이런 거 조직을 많이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임에 쓰는 돈이며 뭔가 교육비 지원을 해주던가.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학원에 다니는데 사실은 학원비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다녀요. 비싸서. (자, p19)

(4) 대인관계영역

① 관계형성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은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멘토링 활동이었다. 멘토를 잘 만나서 일대일 관계를 맺고 관계를 지속하며 조언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경험은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다른 탈북 청소년을 돕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한명의 멘토가 있는데 그게 평상시에 진행하는 멘토링이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의무사항이었죠~ 멘토, 멘토링 해주면 멘토를 1년동안 잘 도와줘야 된다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지났어요. (마, p3-4)

(탈북 친구들의 어려움 많은데) 슬럼프나 그런걸 겪을 때 그냥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멘토가 그렇게 멘토분들이 많이 이끌어주시니까 멘토가 진짜 많이 도움돼요. 엄청 속상한 거나 그런 거 티놓고 해서 그분들이 많이 조언해주셨어요. (다, p12)

② 협동

탈북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하게 지내며 ‘함께 함’을 경험하고, 반장역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남한사람들과 함께 하는 동아리 모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열심히 새롭게 살아가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대학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야간학교처럼 이렇게 **학교로 세워진 학교인데 거기서 같이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반장을 하고 있어요. (라, p13)

아무래도 남한 친구들보단 편하죠. 상대하기가. 공감대가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라 되게 잘 대해주시고 학생들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처음에 왔을 때는 혼자 밥 먹어야 하는데 저녁에 가서 같이 밥 먹는 게 좋았어요.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저녁 한 끼라도 같이 먹으러 가는 생각도 있고. (차, p5)

(5) 사회참여영역

① 개인시민성

멘토들은 탈북 청소년에게 남한사회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롤모델로 역할을 하였다. 멘토의 모습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닮아가려고 노력하였고 스스로 장래 희망을 세우는데 기준을 삼기도 하였다.

멘토 분이 외교관이셨어요. 어찌다... 그니까 그분이 너무 멋있었고 너무 자부심도 있고 뭔가 열정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시겠지만. 저런 분이 되고 싶다. 지금도 거의 정말 열정으로 많이 버터내는 것 같아요. (다, p3)

이제 멘토링 활동 이상으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가 그 멘토링 활동 받으면서 제일 도움 많이 받았던 게 그분이 어떻게 인생의 멘토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전히 대학교 가서도. (마, p3)

② 공동체시민성

남한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제약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모임이었는데 모임에서 누군지 모르는데도 저한테 다가와서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걸 배우고, 지혜를 줄 수 있는 모임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서 서로가 그 모임은 선생이 따로 없구요. 누군가가 배우려고 오지 가르치려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사, p11)

③ 세계시민성

통일교육원의 교육이 탈북 청소년에게 통일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고 그 의미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외에도 통일을 준비하는 동아리모임에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면서 남한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통일 교육원에서 우리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통일 교육원 다녀 보니까 내가 뭔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통일의 책임을 느꼈다. 통일에 내가 할 바가 있다는 걸 느꼈다. (차, p8)

저희 동아리는요 여러 가지 해요. 자원봉사도 하고 북한 청소년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번에 인권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광화문 가서 노래 고향의 봄 노래 부른다든지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거 해요. 통일이 지금 되려면 이렇게 양성한다고 하잖아요. 리더 양성. (다, p18)

3. 요약 및 소결

본 조사는 탈북 청소년이 가진 다양한 역량과 강점과 어려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체계 경험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여 탈북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원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언을 도출하고자 실시되었다. 2016년 5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 사이의 총 10명의 탈북 청소년을 면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적사례연구방법으로 자료수집 및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역량지수의 영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학습역량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성은모 외, 2015). 탈북 청소년의 경우, 집중력을

가지고 체계화시켜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북한사회에서 학생으로써 생활하였던 점을 성찰하고 남한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적용해보며 원칙을 찾아가고 있었다. 북한청소년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잘하는 지적도구들은 손으로 하는 섬세한 작업, 그리기, 연주하기, 계산하기 등을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좀 더 잘 한다고 여겼다. 또한 남한 학교생활에서 질문하기를 강조함에도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안하는데, 탈북 청소년들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궁금하면 질문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북한과 남한, 그리고 탈북의 과정을 모두 경험하면서 남한청소년들은 알 수 없는 비판적인 사고력도 키우고 있다. 탈북경험에서 얻은 생존력과 추억을 가지고 낯선 남한사회의 방식들에 부딪히며 알아가고 있다. 아직은 청소년 이기에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에 와서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공부를 통해 성장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남한사회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요구받고 있는데, 통제된 북한사회에서 학습된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었다.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글로 쓰는 것을 강조하는 남한문화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배우지 않은 영어는 가장 힘든 과목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잘하는 남한 청소년들은 따라가기가 어렵다. 또한 학교문화가 다르고 은어도 알아듣지 못해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남한사회에서 제공하는 탈북 청소년만을 위한 공교육체계, 대학특례입학제도, 민간기관들의 장학금 제도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업향상을 위해서 대입지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주거나, 초등학생들의 기초학습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었다. 민간 비영리기관들은 야간학교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영어학습, 글쓰기, 발표하기 등 남한의 학업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일대일 개별지도를 통해서 방문서비스도 제공하였으나 단시간에 형식적인 서비스는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안학교나 복지관 프로그램도 탈북 청소년들이 대학을 간 뒤에도 학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질과 양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생활관리역량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한다(성은모 외, 2015). 탈북 청소년들은 체력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드러내었다. 북한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고 일도 많이 해서 체력이 좋다고 하였고, 수영, 축구, 농구, 탁구 등 다양한 운동을 익혔다고 하였다. 남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혹은 몸매를 좋게 하기 위하여 체력관리를 하는 것과 비교하였다. 스트레스관리를 위해서는 음악을 듣거나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과제관리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초상화, 태양상 관리 등을 잘 지키도록 요구받아서 철저하게 부지런하게 과제를 해온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매사에 깔끔하게 청소도 잘하고 살림도 잘한다고 하였다. 남한사회에서 퇴폐적인 유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사회에서 배워온 '정신 일깨우기'를 통한 자제력을 높이고 스스로 다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다. 생소한 남한 문화에서 판단을 잘하기 위해 눈치가 빠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사람들에 비해 부자다'라며 생각을 바꾸었다. 무엇보다 시원시원한 북한사람답게 '나 잘났다'고 여기고 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억압과 통제 사회에서 자라온 탓에 매사에 민감하였다. 남한에 와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면서 공격성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학업에 대한 준비를 어렵게 하였다. 시간 관리를 잘하려고 하지만, 의지가 부족해지고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흰한 남한에 왔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는 게 없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지원을 받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다. 자신의 이야기를 해본 적 없는 북한에서 자란 탓에 자신에 대해 알리고 표현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탈북한 사실을 숨기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남한사회(정부)의 정착 지원 서비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생계비를 비롯한 생활비 지원은 충분하지 않지만 도움이 되며, 제3국에서부터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매주 담당형사의 방문이 도움이 되었다. 하나센터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기본 살림을 꾸릴 수 있었다. 남한사회에서 잘못된 길(퇴폐업)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도록 종교기관의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으며, 심리상담과 선배 탈북자들의 정착지원 도우미활동이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다만 심리상담의 경우는 탈북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에만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진로개발역량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으로 정의한다(성은모 외, 2015). 탈북 청소년의 경우, 진로설계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원래 북한에서 잘하던 것을 발전시키거나, 남한과는 차별화되는 북한방식을 개성으로 삼아 진로를 찾기도 하였다. 여가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 모임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가지지

못했던 ‘자유’를 느끼며 여행, 책읽기 등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개발하였다. 남한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북한정신의 실천이었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올 수 있는 용기와 정신력을 증명하는 개척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북한출신의 진로개발은 쉽지 않았다. 북한에 있는 전공이 남한 학교에는 없어 진로를 바꿔야 했다. 대학입시제도도 달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보가 없어 막연했다. 여느 청소년들과 같이 탈북 청소년도 불확실한 미래에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 지 잘하는 것을 해야 할 지 선택의 고민이 많았다. 게다가 북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하거나 남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면 진로개발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지원 방법은 대학교를 탐방하는 등 직접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이 도움이 되었고 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의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이 상상력을 넓게 하고 실질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다만, 대안학교 등의 비영리민간기관들이 후원을 받기 위해 탈북 청소년을 문화행사(공연)에 지나치게 동원하는 경향도 보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대인관계역량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이라 정의한다(성은모 외, 2015).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인맥은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대화하며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빠른 적응의 한 방법이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곧 해결되었고 남한친구들은 북한에서 온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조언을 해야 할 때는 북한 사람답게 돌려 말하지 않고 진정성을 담아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야간학교에서 반장역할을 하며 의욕 없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잘 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수용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크다고 하였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자라온 탓에 댓가를 바라지 않고 협력하고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문화차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말싸움도 잘하고 고집도 세었다. 부드러워 보이는 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탈북 청소년들은 거칠어보였다. 새로이 맺는 관계들이 잘 안되기도 하고 북한의 친구들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남한에서 친구가 없다고 느꼈다. 권위적인 태도를 가진 탈북 청소년 연장자들과 관계도 어렵고 불편하였다. 협조해야 하는 일에서 개인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싫으면 안 해버리는 무책임함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방법은 지속적인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을 배우고, 탈북 청소년들의 동아리 모임 활동을 통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협력하며 리더쉽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섯째, 사회참여역량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으로 정의한다(성은모 외, 2015). 탈북 청소년의 경우, 시민성은 책임감, 자발성, 사명감의 실천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채워가는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발성을 가지고 자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북민으로서의 사명감과 탈북민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한민국의 당당한 시민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남한사회의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며, 특히 최근의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활동을 하였다. 먼저 온 탈북선배로서 도우미 혹은 멘토 역할을 하며 탈북 청소년들을 도와주었다. 무엇보다 통일의 필요를 알리고 준비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현실에 기반하여 큰 전망을 가지고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 당당하고 건강한 시민이 되기 위해 헤쳐 나가야 할 상황들이 너무 많고 무엇이 정답인지 모호한 경우도 많았다. 그냥 시민이 되고 싶는데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현실이 싫다고 하였다.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편견, 무시, 거리감이 너무 심가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생색내기 후원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통일에 대해서도 남한사람들의 무관심과 원하지 않는다는 거부감에 놀라고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과 시민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 지원방법은 지속적으로 멘토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발전하여 남한사회에서 살아갈 롤(Role)모델로 멘토를 모델링하는 것이었다. 남한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서로 가르치기보다는 배워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통일 교육원과 비영리기관들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스스로 통일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 V 장

탈북 청소년의 역량 및 지원에 관한 전문가의견, FGI와 설문

1. 탈북 청소년 전문가의견 조사
2. 탈북 청소년 실무자, 탈북대학생 FGI
3. 탈북 청소년 역량설문조사
4. 요약 및 소결

제 V 장

탈북 청소년의 역량 및 지원에 관한 전문가의견, FGI와 설문

1. 탈북 청소년 전문가의견 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전문가의견조사는 2차에 걸쳐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지원체계에 관해 알아보았다. 1차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는 주관식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며,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1차 전문가 의견을 유목화하여 기존 청소년역량 척도와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고, 탈북 청소년에게 강하게 보여지는 특성으로 분류되는 내용을 구분하여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하는데 적절한가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표 V-1>).

표 V-1 면접 일정 및 내용

조사시점		내용
1차	2016. 4. 15 ~ 4. 28	- 탈북 청소년의 역량에 관해 적응 초기와 적응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역량에 대해 기존 역량척도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적인 역량 내용 파악 -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점 파악
2차	2016. 5. 13 ~ 5. 23	- 탈북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의견과 그에 따른 적절성 정도 파악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지원체계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구성하였다. 전문가로는 북한 및 탈북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중고등학교와 대학, 대안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종사자와 생활시설 관리자,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종사자, 북한관련 민간기관 종사자로서

탈북 청소년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생활했으며, 연구했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북한(북한이탈주민, 탈북 청소년 포함)관련 경력은 평균 105년 동안 업무를 담당해오던 전문가이며, 성별은 총 22명 중 남성은 10명, 여성은 12명으로 구성되었다(<표 V-2>).

표 V-2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 대상자 개요

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북한관련 경력	성별
1	경서중학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	3년 10개월	여
2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7년 7개월	여
3	공존플랜	소장	14년 6개월	남
4	남북하나재단	연구기획팀장	7년	여
5	나우(NAUH)	사업총괄실장	13년	남
6	대구하나센터	센터장	14년	여
7	드림학교	교감	13년 3개월	여
8	무지개청소년센터	연수개발팀장	8년	여
9	삼정중학교	교사(진로상담부장)	11년 1개월	남
10	서울북부하나센터	사무국장	16년	여
11	서울북부하나센터	사회복지사	8년 3개월	여
12	서울사이버대학교	조교수	16년	여
13	여명학교	생활부장	10년 3개월	남
14	여명학교	교사	2년 2개월	여
15	여명학교	교감	19년 1개월	여
16	인천논현중학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	1년 2개월	남
17	인천동양중학교	교사	4년 2개월	여
18	탈북아동생활공동체 우리집	대표	16년	남
19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연구기획팀 사업총괄	17년	남
20	한겨레고등학교	교감	10년 4개월	남
21	한겨레고등학교	교사(진로연구부장)	12년 2개월	남
22	한겨레중학교	교사(교무부장)	6년 2개월	남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남한생활 초기와 남한 생활 과정 중 탈북 청소년에게서 보여지는 역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한 초기와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역량을 알아본 결과로 다음 <표 V-3>에서

<표 V-7>과 같다. 전문가의견 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을 각 역량군에 해당하는 내용에 우선으로 포함하였고, 그에 속하지 않거나 같이 포함되기에는 어려운 내용은 추가적인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역량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역량에 관해 언급한 전문가 의견은 장단점이 모두 표현하였으나 표에서 제시된 전문가의견은 주로 긍정적인 면을 표현한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였다.

생애학습역량군에 포함된 내용(<표 V-3>) 중 남한생활 초기에 보여진 역량으로는 지적인 호기심, 변화에 대한 수용력, 자기표현, 외국어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남한생활 과정에서 보여진 역량은 비판적인 생각, 수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변화에 대한 수용력, 자기표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중 변화 수용력과 자기표현력은 남한생활 초기, 남한생활 과정 모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표 V-3 생애학습역량 -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종합

	세부항목	전문가의견	평균 (표준편차)	순위
남한 생활 초기	지적호기심	• 체계적인 학습에 대한 선망이 있어 배움에 대한 의지나 교육열이 강함.	4.32 (0.65)	①
	변화수용력	• 다양한 학습적 환경과 여건에 잘 적응하고 노력함.	4.09 (1.02)	②
	자기표현력	• 대화나 일상생활에 감성적 표현이 뛰어남. • 일반청소년들보다 적시적소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인용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됨.	3.77 (0.87)	③
	외국어능력	• 중국어 구사능력이 좋음.	3.48 (1.12)	④
남한 생활 과정	비판적사고력	• 자신의 상황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현실을 배우고 능력을 향상시킴. •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며 문제해결방안을 탐색하는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	3.95 (0.90)	③
	수학능력	• 여러 도표, 자료 등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김.	3.55 (0.91)	⑤
	정보통신 활용능력	• 컴퓨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음.	4.14 (0.71)	①
	변화수용력	•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활용해 과제 수립과 완수를 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함.	4.14 (0.56)	①
	자기표현력	• 가무 등에 참여하는 것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함. •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 중요성을 부여하여 대화를 실시함.	3.82 (1.05)	④

전문가 의견 중 1순위로 선정된 세부항목은 남한생활 초기에는 지적호기심이었고, 남한생활 과정 중에는 변화수용력과 정보통신활용능력으로 나타났다(<표 V-3>).

생활관리역량에 포함된 내용(<표 V-4>) 중 남한생활 초기에 보여진 역량은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 조절실패, 감정실패, 자기효능감, 자아정체성, 위기대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남한생활 과정 중에 보여진 역량은 신체관리, 감정인식, 조절실패, 중독행동, 폭력행동, 목표 및 계획수립,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위기대처관리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신체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조절실패, 위기대처관리는 남한생활 초기, 남한생활 과정 모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전문가 의견 중 1순위로 선정된 세부항목은 남한생활 초기와 남한생활 과정 중 모두에서 위기대처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생활관리역량 -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종합

	세부항목	전문가의견	평균 (표준편차)	순위
남한 생활 초기	위생관리	• 개인적 위생관리와 청결에 대한 의식이 높음.	3.68 (0.89)	⑩
	신체관리	• 식생활, 운동, 의료적 치료 등에 관심이 높고, 참여함.	4.05 (0.58)	③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 자신의 최소한의 안전을 스스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음.	4.05 (1.00)	③
	목표 및 계획수립	• 자신의 실력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겠다고 목표를 세움.	3.73 (1.08)	⑧
	수행 및 평가	•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활용하여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함.	3.95 (0.79)	⑤
	조절실패	• 자기 억제력이 높다는 의견과 자기조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모두 있음.	3.82 (0.96)	⑥
	감정실패	• 인내심과 끈기가 있음.	3.76 (0.94)	⑦
	자기효능감	• 북한에서 배우지 못한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우리사회에 엘리트 계층에 진입하는 강한 의욕을 보임.	4.23 (0.87)	②
	자아정체성	•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되면서 북한이 탈주민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역할 등을 인지하게 됨.	3.73 (0.98)	⑧
	위기대처관리	• 북한, 탈북과정 등 최악의 환경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과정에서 대처 능력이 뛰어남.	4.38 (0.74)	①

	세부항목	전문가의견	평균 (표준편차)	순위
남한 생활 과정	신체관리	• 식단 관리 등에 신경을 쓰면서 생활하려고 함.	3.59 (0.96)	⑨
	감정인식	• 감정 갈등문제 발생 시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 남한 생활을 잘함.	4.14 (0.77)	③
	조절실패	• 타인에 대한 배려, 혹은 눈치를 보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강도로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함.	4.00 (0.87)	⑥
	중독행동	• 주변의 도움으로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함.	3.68 (0.89)	⑧
	폭력행동	• 입국초기 폭력 행동이 나타나는 편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는 있음.	3.95 (0.95)	⑦
	목표 및 계획수립	• 일정기간이 지난 후 목표 및 계획 수립능력이 뛰어남.	4.09 (0.75)	④
	자아효능감	• 처음 하는 활동과 체험에서 스스로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강한 편임.	4.05 (0.65)	⑤
	자아탄력성	•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능력이 뛰어남.	4.32 (0.65)	②
	위기대처관리	• 현실적인 판단이 민첩함. 새로운 환경에 대한 파악이 빠름.	4.36 (0.73)	①

진로개발역량군에 포함된 내용(<표 V-5>) 중 남한생활 초기에 보여진 역량으로는 자기탐색, 직업가치관, 여가유능감, 차별화태도, 도전정신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남한생활 과정에서 보여진 역량은 자기탐색, 진로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여가태도, 차별화태도, 도전정신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자기탐색, 직업가치관, 차별화태도, 도전정신은 남한생활 초기, 남한생활 과정 모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전문가 의견 중 1순위로 선정된 세부항목은 남한생활 초기에는 도전정신이었고, 남한생활 과정 중에는 여가태도로 나타났다.

표 V-5 진로개발역량 -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종합

	세부항목	전문가의견	평균 (표준편차)	순위
남한 생활 초기	자기탐색	•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4.14 (0.89)	②
	직업가치관	• 입국과정의 경험, 자신의 이력, 경험(중국, 북한)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함.	4.05 (1.05)	③
	여가유능감	•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함.	4.05 (0.84)	③
	차별화태도	• 획일화 된 주입식 교육을 받지 않고, 방송에 노출되지 않아 창의적 사고기능 중 독창성과 정교성이 있음.	3.59 (0.96)	⑤
	도전정신	•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 본인들이 국경을 넘었던 각오로 무엇이든 하면 된다고 생각함.	4.23 (0.75)	①
남한 생활 과정	자기탐색	•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여 초기의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여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4.05 (1.00)	①
	진로탐색	• 남한의 일반적인 진로 경로를 통해서는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	3.95 (0.65)	④
	직업탐색	•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지에 대해 고민하게 됨.	3.86 (0.83)	⑤
	직업가치관	•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지에 대해 고민함.	3.82 (0.80)	⑥
	여가태도	• 다양한 경험과 여가활동을 위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자원을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고자 함.	4.05 (0.58)	①
	차별화태도	•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융통성과 독창성이 발달하여 창의적인 사고력이 발달함.	3.64 (0.85)	⑦
	도전정신	• 힘든 부분이 있다 해도 그것을 경험해 보려는 성향이 있음.	4.00 (0.76)	③

대인관계역량군에 포함된 내용(<표 V-6>) 중 남한생활 초기에 보여진 역량으로는 자기개방성, 친화성, 공감과 배려,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공경, 가족애, 의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남한생활 과정에서 보여진 역량은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집단활동관리,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공동체意識, 의리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자기개방성, 친화성, 공감과 배려, 집단활동관리는 남한생활 초기, 남한생활 과정 모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전문가 의견 중 1순위로 선정된 세부항목은 남한생활 초기에는 의리였고, 남한생활 과정 중에는 공감 및 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대인관계역량 -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종합

	세부항목	전문가의견	평균 (표준편차)	순위
남한 생활 초기	자기개방성	• 정착 초기에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어가고자 함.	3.77 (1.02)	⑧
	친화성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타인에 대해서는 깊은 친화성을 보이며, 관계를 호전시키려는 노력이 보임.	4.14 (0.83)	⑤
	공감과 배려	•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남. 다른 사람에 고난을 지나치지 않고 돕고 나누는 사회분위기에서 자란 영향이 큼.	4.23 (0.69)	③
	집단활동관리	• 선생님을 도와 친구들을 이끌어주고 함께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열의가 있음.	4.14 (0.64)	⑤
	추진력	•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임.	4.09 (0.68)	⑦
	공경	• 어른이나 부모, 선생님의 말씀은 잘 듣는 편이며, 존경하는 마음이 큼.	4.32 (0.72)	②
	가족애	•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학생의 신분임에도 많은 노력을 함.	4.23 (0.92)	③
	의리	• 정이 많아 한번 맺은 관계를 지속시키며 쉽게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중요하게 여김.	4.27 (0.70)	①
남한 생활 과정	자기개방성	• 탈북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배경을 밝히지 않거나 자신을 중국인으로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함.	3.82 (1.05)	⑨
	친화성	• 남한에서 맺은 결연(타학교 학생, 외부인사 등)인들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함.	4.05 (0.72)	④
	의사소통	• 논리적인 발표력이 부족하고 정확한 의사전달과 감정표현을 힘들어 함	3.86 (1.08)	⑧
	공감 및 배려	•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있으며, 지식이나 재능 기부는 못하지만 육체적으로라도 봉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봉사하려는 생각함.	4.41 (0.50)	①
	집단활동관리	• 집단 구성원들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발달함.	3.91 (0.81)	⑦
	팔로워십	• 개인적인 일에 앞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임.	4.05 (0.72)	⑤
	갈등문제해결	•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하고 의견을 일치하려함.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하는 ‘협동활동’ 이 다소 미흡함.	4.00 (0.82)	⑥
	공동체의식	• 단체 규칙이나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자주 보임.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줌.	4.32 (0.65)	②
	의리	• 대인관계에 있어 신뢰감이 형성되면 그 이후 상대방에 대한 무한한 신뢰 또는 의리를 가짐.	4.32 (0.65)	②

사회참여역량군에 포함된 내용(<표 V-7>) 중 남한생활 초기에 보여진 역량은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시민활동의 중요성, 사회신뢰, 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정체의식, 규범준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남한생활 과정에서 보여진 역량은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정치적 자아효능감, 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글로벌 의사소통,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의식, 권위에 대한 동경, 규범준수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정체의식, 규범준수는 남한생활 초기, 남한생활 과정 모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전문가 의견 중 1순위로 선정된 세부항목은 남한생활 초기에는 규범준수였고, 남한생활 과정 중에는 권위에 대한 동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사회참여역량 -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세부항목	전문가의견	평균 (표준편차)	순위
남한 생활 초기	권리책임의식	• 남한사회에서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 책임의식을 인지하고 그에 준하여 생활하려고 노력함.	3.86 (0.94)	②
	민주적 절차 및 의식	• 민주적 절차에 대한 새로운 경험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배우려 함.	3.86 (0.89)	②
	시민활동의 중요성	• 사회적 비판의식,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짐.	3.82 (0.85)	④
	사회신뢰	•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짐.	3.59 (0.85)	⑦
	성인지	• 탈북민들은 대체로 성역할, 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선진국가의 일반적인 규범과 다름.	3.77 (0.81)	⑤
	이민자에 대한 태도	•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경험하고자 하며 편견을 가지지 않음.	3.50 (1.01)	⑧
	국가정체의식	•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역사의식이 별로 없음.	3.64 (1.18)	⑥
	규범준수	• 정착초기에는 새롭게 익힌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적극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	3.91 (0.68)	①
남한 생활 과정	권리책임의식	•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병립할 수 있음을 알게 됨.	4.27 (0.63)	②
	민주적 절차 및 의식	•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학생회, 민주 시민교육, 투표 등을 통하여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이 함양됨.	4.27 (0.55)	②
	정치관심	•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하게 됨.	3.77 (0.92)	⑪

	세부항목	전문가의견	평균 (표준편차)	순위
	정치적 자아효능감	• 남한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문화를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	3.86 (0.83)	⑩
	성인지	•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개방적 태도(일반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습득함.	4.00 (0.53)	⑦
	이민자에 대한 태도	•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다원적 가치 존중을 키워감.	3.95 (0.84)	⑧
	글로벌 의사소통	• 자신의 직업이 통일한국 또는 세계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음.	4.18 (0.66)	⑥
	민족정체성	• 한국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분단현실에 대한 고민과 상황을 더 깊이 생각함.	4.27 (0.77)	②
	국가정체의식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애착심을 느끼며 대통령, 국가, 정부에 대한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함.	3.91 (0.92)	⑨
	권위에 대한 동경	• 교사, 경찰, 군인 등 권위를 가진 직업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음.	4.36 (0.79)	①
	규범준수	• 무단횡단, 지각 등과 같은 규칙을 지키려는 연습을 통해 질서 의식이 개발됨.	4.23 (0.61)	⑤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을 탈북 청소년의 능력과 역량을 중심으로 개별·가정·학교 지원관련, 민·관 지원체제 관련, 중앙·지방 지원체제 관련하여 3가지로 구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시행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V-8>~<표 V-10>과 같다.

표 V-8 **개별·가정·학교 지원 관련 개선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자기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체제 강화 필요. • 입국 초기에 개인별 히스토리에 대한 사전 조사 철저, 정확한 진단 후 지역사회에 탈북 청소년 관련 기본정보 제공 필요 •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필요, 부적응 학생 우선지원에서 우수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변화 • 탈북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이나 신변보호 또는 하나센터 담당자가 초기에 전담으로 인해 또래와의 소통 강화(또래학생, 탈북선배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담당교사의 잦은 교체 개선, 탈북 청소년 학생 비율을 고려한 코디네이터 의무제 수행 등 • 남한 문화 습득력 차이로 인한 부모-자녀 갈등과 학습 보충을 위한 지원(학원비 등) 확대 • 학교급별 차별적 지원 필요(중학교-언어기능 능력 습득 및 진로탐색, 결정 지원 / 고등학교-사회적응력 강화 및 집중적 직업교육 실시) • 탈북 배경에 대한 인식개선. 탈북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 탈북 학생들이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자의식 강화 • 학교 밖 탈북 청소년의 경우 검정고시 외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검토

표 V-9 민·관 지원체계 관련 개선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학교(교사와 코디네이터), 하나센터(전문상담사)과 연계하여 지역 탈북 청소년들 사례관리와 지원시스템 수립을 위한 정기적 간담회 또는 위원회 조성 필요 • 남북하나재단·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무지개청소년센터와 민간단체(대안교육시설, 방과후 공부방 등)간의 사업 영역별 협업 필요 • 세계와 한국에 대한 안목 확대를 위한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남한 및 외국문화 체험활동 진행 • 비제도권 학교 소속 학생에 대한 지원 개선(고연령 저학력으로 정규학교 선택 어려움. 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시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받는 교육급여를 전혀 받지 못함) • 진로설정을 위한 다양한 경험 제공(학업 기간 중 기술자격취득 교육기관과 장기 연계)

표 V-10 중앙·지방 지원체계 관련 개선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중앙 지원의 비중이 높게 유지 • 탈북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시혜적 지원 개선. 탈북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지원 정책에서 일반지원 체계로 전환. 중앙 또는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특교금)의 단기성 개선. 특교금이 행사 중심 예산으로 전락 • 탈북학부모님들도 자녀에게 학교교육 외 학원교육을 위한 학원수강비 지원 • 탈북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영역 및 지원 폭 확대. 학습 중심이 아닌 신체적, 심리적, 문화적 역량 강화를 강화. 학교 및 민간단체가 활용가능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예. 'HOPE' 멘토링 프로그램) • 지방 차원에서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지역 참여 활동 등을 조성해야함. 탈북 청소년들의 생활적응도에 대한 조사 및 지원체계를 구축 • 지원체계 수립 시 탈북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 '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역량 육성 • 탈북민 자녀인 제3국 출생자에 대한 지원확대 • 남한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하나원 입소기간 연장 필요성 • 그룹홈 입소 가능 연령을 만 17세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연장. 또는 만 20세가 넘더라도 그룹홈이나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 및 거주 연령 검토 필요

2. 탈북 청소년 실무자, 탈북대학생 FGI

1) 탈북 청소년 실무자, 탈북대학생 FGI 개요

<표 V -11>은 2016년 6월에 탈북 청소년 실무자와 탈북대학생을 위주로 FGI를 실시하였다. 탈북 청소년 실무자 11명은 시간적, 장소적 문제로 인해 한 번에 실시하지 못하고 3회에 걸쳐 FGI 모임이 이뤄졌다. 탈북 청소년 실무자를 대상으로는 탈북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 탈북 청소년 유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현재 탈북 청소년의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탈북대학생에게는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앞으로 갖춰야할 역량, 남한과 북한 생활, 북한에서의 생활경험이 남한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현재 청소년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지원에 대한 생각, 청소년의 갖고 있는 역량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 FGI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외로 이루어졌으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FGI를 하는 동안 사전에 녹음을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 녹취를 했으며, 추후 녹취된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표 V-11 FGI 대상 및 논의 내용

조사시점	대상	내 용
2016. 6	탈북 청소년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 탈북 청소년 유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현재 탈북 청소년의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등
	탈북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앞으로 갖춰야할 역량, 남한과 북한 생활, 북한에서의 생활경험이 남한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현재 청소년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지원에 대한 생각, 청소년의 갖고 있는 역량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것

<표 V -12>는 FGI 참여 한 탈북 청소년 실무자, 탈북대학생 개요에 관한 내용이다. 대부분이 탈북 청소년 실무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기관 중 인가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4인, 전환기 학교에서 근무하는 2인,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1인이고, 민간청소년시설에서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3년간 진행 경험을 가진 실무자 1인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자 성별은 남성은 6명, 여성은 4명이다. 각 직장 내에서 직위도 교감, 부장, 교사, 시설장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탈북대학생은 남학생 1인, 여학생 3인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국 거주기간은 3년~10년이다. FGI에서 대상학생을 대학생으로 구성한 것은 남한에서 거주하는 동안 받은 다양한 지원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에 관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위하여 중·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표 V-12 FGI 참여 한 탈북 청소년 실무자, 탈북대학생 개요

번호	소속기관	성별	비 고
A	교육기관(인가대안학교)	남	8년(탈북관련 경력)
B	교육기관(인가대안학교)	남	10년 4개월(탈북관련 경력)
C	교육기관(인가대안학교)	여	10년(탈북관련 경력)
D	교육기관(인가대안학교)	여	3년(탈북관련 경력)
E	교육기관(전환기학교)	남	10년 4개월(탈북관련 경력)
F	민간청소년시설	남	탈북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진행(3년간)
G	교육기관(전환기학교)	남	12년 2개월(탈북관련 경력)
H	교육기관(미인가대안학교)	여	13년 3개월(탈북관련 경력)
I	교육기관(일반학교)	남	1년 2개월(탈북관련 경력)
J	교육기관(일반학교)	여	3년 10개월(탈북관련 경력)
가	탈북대학생	여	10년 2개월(한국 거주기간)
나	탈북대학생	여	6년 2개월(한국 거주기간)
다	탈북대학생	여	2년 8개월(한국 거주기간)
라	탈북대학생	남	6년(한국 거주기간)

2) 탈북 청소년 실무자, 탈북대학생 FGI 결과

(1) 탈북 청소년 실무자 FGI 결과

탈북 청소년 실무자 FGI에서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대상 유형의 변화, (2)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원, (3) 생활과정에서의 불안함, 위축, 정체성, (4) 동기부여와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지원의 체계화로 구분하였다. 세부 분류로는 총 17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V-13>).

표 V-13 탈북 청소년 실무자, 탈북대학생 FGI 내용 분석

분류	세부 분류
(가) 대상유형의 변화	㉔-1. 1세대와 2세대 ㉔-2. 부적응, 시혜적 대상에서 우수, 맞춤형 대상으로의 변화
(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원	㉕-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증가와 한시성 ㉕-2. 주 보호자 출신지 중심 가족지원 ㉕-3. 청소년의 다양성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다) 생활과정에서의 불안함, 위축, 정체성 혼란	㉖-1. 북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위축과 정체성의 혼란 ㉖-2. 남한 학생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거라는 불안
(라) 동기부여와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㉗-1. 일회성, 유행성, 동원성 지원에서 벗어난 체계적 지원 ㉗-2. 탈북 청소년 특성과 상황에 기반한 지원 ㉗-3. 가족관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㉗-4. 일반학생들과의 어울림 개선을 위한 지원 ㉗-5. 탈북 청소년이 수혜가 아닌 주체될 수 있는 지원
(마) 지원의 체계화	㉘-1.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초기 진단과 정보 공유 ㉘-2. 협력적 체계 안에서의 대상자 중심의 지원 ㉘-3. 남한 사회적응을 위한 초기 사회진입과정 단계의 강화 ㉘-4. 대안교육(학교)의 다양화와 지원 연계방안 구축 ㉘-5. 학교내·외, 대학 등의 탈북 청소년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가) 대상 유형의 변화

㉔-1. 1세대와 2세대

2000년대 초반을 경계로 이전과 이후의 청소년의 모습이 다름을 언급하고 있다. 2000년 이전 1세대라고 칭할 수 있는 세대로 북한에서 배고픔과 체제에서 목표를 가지고 남한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세대가 있으며, 2세대는 부모와 동반 입국을 하거나 남한으로 입국한 부모에 의해 브로커를 통한 입국을 하게 된 세대로 남한으로 오면서 뚜렷한

목적의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다.

예전엔 혼자 배고픔을 못 이겨서 넘어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너무 오랜 세월을 지냈고 힘든 생활을 겪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중략) 2세대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넘어오고 (중략)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서 지내고 있는 다른 가족과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자 A)

(2005년부터 1월부터 일을 했으니까) 초기에 만났던 아이들은 좀 거칠면서 본인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넘어온 아이들이 유형이었다면. (중략) 2011년, 2012년 그 무렵부터인가? 그 어떤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탈북했던 1세대, 그러니까 부모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데려오는 그런 유형이죠. 한국에 오자는 의지도 많이 없었고, 남한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중략) 생동감, 거친 면들은 적은 반면 무기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실무자 G)

엄마가 중국에서 오라 그런다. 브로커가 와서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 가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한국이라는 데로 왔는데 그러해보니까 경쟁이라든가. 학교라는 틀에 넣어서 공부를 하라 그러고. (실무자 H)

㉠-2. 부적응, 시혜적 대상에서 우수, 맞춤형 대상으로의 변화

기존에는 부적응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제도였다면, 탈북 청소년의 유형이 변화에 따라 기존 정책보다 특화된 지원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통일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우수 학생 지원과 더불어 탈북 청소년들이 욕구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부적응 학생에서 우수학생 맞춤 지원으로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고 (중략) 기존에 부적응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힘든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어린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에서 교육을 받은 애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중략) 아이들 중에 우수한 아이들이 있구나. 지금 이런 분위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아이들을 리더로 키워야 하는 부분도 있고. (중략)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개념에서 탈피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 통일한국시대로 가야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잠재력이나 할 수 있는 기여자로 바라봐야지.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실무자 A)

탈북 청소년이 하기 싫어하는 걸 굳이 지원해주면서 하기 보다는 하겠다고 응하는

학생을 위주로 해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지원을 해주고 하는 지원 체계로 이원화 되었으면 탈북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지 않겠나요. (실무자 I)

저는 우수학생 지원에도 동의하고 그리고 개별적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지원의 방향이 탈북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정말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었으며 좋겠어요. (실무자 J)

(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원

㉠-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증가와 한시성

최근 탈북 청소년 기관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증가로 인한 교육 및 생활지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제3국 출생의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난 상황이지만 대상자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며, 대상층이 한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에 현장에 고민이 높아지고 있었다.

아이들의 정체성이 본인이 갖는 것보다도 그 학생을 둘러싼 주변에서 너희들은 중국 이런 것 때문에 본인도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순서가 먼저 기관이나 그 아이의 주변 사회가 그 학생들을 정말 우리 주민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취할 때 이 학생들의 의식도 따라서 변하지 않을까. (중략) 지원은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라도. 이게 계속 있는 집단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 있었던 탈북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니까 전체적으로 탈북민이 줄면 그런 경계선에 있는 신분의 아이들도 점점 없어질 것 같은데. (실무자 C)

한편으로는 이 학생들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정부의 조심스러움도 있겠지만, 학생들 자체도 우리에게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중략) 여기에 우리들이 정체성을 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불안함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무자 D)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치면 제3국. 중국 출생자가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80%가 이중국적이예요. (중략) 아직까지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닌거죠. 주무부처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탈북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형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실무자 E)

제3국 출생도 지금은 역전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제3국에 머무르기보다 북한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와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아니면 20년 사이에 없어진다고까지 생각하거든요. (실무자 J)

㉔-2. 주 보호자 중심 가족지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경우에는 주 보호자가 북한이탈주민일 때는 탈북 청소년에 준하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녀들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틀에서 가족지원이라는 형태의 지원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관련 연구에서는 탈북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출생지 기반 ‘개인’ 단위 지원에서 ‘가족’단위 지원으로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이기영 외, 2014: p.96)

모든 남북 분단과 탈북 고통의 집합체인데 그 엄마들이야말로. 근데 그분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국가에서 해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할 때 아이들도 본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실무자 C)

학생들이 미성년자여서 부모님 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체가 북한 이탈주민이 부모나 자식이나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호를 해주는 게 부모고 어머니이고 한데.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이면 (학생들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개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략) (탈북 청소년들도) 요새 남한 학교에 와서도 잘 적응돼요. 그런데 집에서는 북한화가 되는 현실이 되는 거죠. 부모의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부모가 적응이 잘 되면 애들도 적응이 잘 되는 거고. (실무자 J)

㉔-3. 청소년의 다양성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탈북 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남한 청소년과는 모두가 각각 자기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의식주 형태부터, 학교, 지역사회, 국가체제까지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다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름에 관해 남한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제작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하고 이제 저희가 전환기 교육과정을 개발을 했는데

딱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에 전환기 교육과정에 대한 안(案)을 만들어서 줬는데 파격적이죠. (중략)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대상을 데리고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 학생들의 기준에 준해서 따라야 한다는 거죠. (실무자 E)

정책적으로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중략) 중학교 같은 경우는 2, 3년 전부터 준비하고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에 대한. 변화란 제3국 출신 아이들로 어떤 변화되는 현상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실무자 G)

요즘 오는 아이들 중에는 물론 잘 교육받은 아이들을 제외한 애들은 교육을 거의 못 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실력이 훨씬 낮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굉장히 좀 더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지 되는. (중략) 반면에 우리나라 외교, 과학고 같은 제1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온 아이들 (중략) 그렇게 우수한 아이들도 사실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해졌는데 저희들이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고요. (실무자 H)

(다) 생활과정에서의 불안함과 위축, 정체성 혼란

㉔-1. 북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위축과 정체성의 혼란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의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주변 누군가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누구이며, 어느 국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등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북한 학생들이 제일 힘든 게 정체성의 문제예요. (중략) 우리는 부산 사투리라고 하면 왜 사투리 써하고 장난하는데 똑같이 북한 사투리 쓰면 왜 북한 사투리 써?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보다 위축되는거죠. (실무자 A)

(대학교에 가서 생활하는데) 거기 가서 탈북자임을 얘기할까말까 고민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모습이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애를 써서 보냈는데. (중략)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모습이었으며 좋겠는데. (실무자 C)

저희 학교에도 탈북학생 교육 지원체계가 오랜 시기부터 쪽 있었고 일반 학생도 탈북 학생들과 많이 같이 어울리고 생활하다보니 크게 차별은 없는데 탈북 학생

본인들 자체가 조금 의식을 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탈북 학생과 연관있는 선생님이 찾으시면 그거 자체로 약간 거북해하기도 하고. 왜 저 선생님은 재만 찾을까? 뭔가 예가 나랑 다른가? (실무자 I)

㉔-2. 남한 학생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거라는 불안

탈북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학습지원이 많이 있지만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한 청소년과 같이 방과후에 학원 등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는 부모로서 자녀가 뒤쳐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탈북 학생 같은 경우엔 사교육을 못 받거든요. 학원 교육이라든지. 사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학원교육을 하고 싶어도 어느 학원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실무자 I)

(라) 동기부여와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㉔-1. 일회성, 유행성, 동원성 지원에서 벗어난 체계적 지원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탈출했다는 이유 한가지만으로도 다양한 사람과 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행사는 오랜 동안 관련 실무자와의 논의를 거쳐 적절하게 지원되기 보다는 행사성,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행사에 동원되는 듯한 느낌을 탈북 청소년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한에서 생활이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사회참여.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개념이, 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권위에 되게 약한 친구들이거든요. 권위적인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권위 높으신 분이냐 정부. (중략)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치적으로 좀 이해해서 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자기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끌려 다니다가 그냥 이 아이들도 거기 혼란스럽게 그냥 정치적인 사회참여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보기 안 좋고 이 아이들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실무자 A)

예전에 독도 가는 게 해마다 있었어요. 여름이면 애들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 H)

㉔-2. 탈북 청소년 특성과 상황에 기반한 지원

탈북 청소년은 사회주의체제, 집단주의체제 속에서 성장을 하다 일순간 남한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체제로 진입한 상황이다. 오랜 시기적인 적응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남한에서의 생활에 모든 것이 미숙하고 부족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남한의 기준 및 생각 등에 기반하여 탈북 청소년에게 지원한다면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고 부적응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특성과 상황에 대한 판단이 우선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었다.

(탈북 청소년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겪어보지 못한 사회에서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생각도 안하고 돈을 쉽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학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생활하다보면 그래도 자기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실무자 B)

(고등학교 때까지의 지원) 80만원정도 나오다가 성년이 되면 갑자기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생계비도 풍족하고 학교에서 밥 다주고 오히려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중략) 대학교에 들어가면 생계비도 줄고 밥도 자기가 다 사먹어야 하고, 학비가 무료인거지 사실은 되게 많이 드는데. (실무자 C)

미성년자 학생에게는 80만원정도, 성인에게는 49만원정도인 것 같은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개인 집이 없고 그룹 홈이나 기숙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성인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급비를 받을 때 49만 원 정도 받고 거기에 이제 주어지는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세를 내고 뭐하고 나면은 사실은. (중략) 그게 좀 시스템이 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실무자 D)

대안학교, 전환기 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 중·고등학교에 편입됐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서 대학교에 바로 갔거나 한국에 있는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간 아이들. 아니면 자기 실력과 전혀 동떨어진 곳에 들어가서 마치 외국어 듣듯이 시간만 보내서 졸업장만 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는 중도탈락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무자 H)

㉔-3. 가족관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탈북 청소년은 북한에서 탈출을 할 때 가족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일부만 남한으로 온다거나 혼자만 남한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브로커 등을 통해 가족이

다시금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가족 간 유대가 약해지거나 다른 체제에서 생활한 기간 등으로 인해 서로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가장 힘든 엄마들이예요. 그 엄마들은 북한이탈주민이잖아요. 아이를 두고 한국에서 살면서 아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가면서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랑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부모랑 의사소통도 안 되지. (실무자 C)
엄마랑 오래 떨어져있다 보니까 엄마와도 정도 없어요. (중략) 적응 자체를 하지 못해서 부모님하고 갈등 때문에 (중략) (기숙학교) 여기 와서도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만스러운 상황이 지속돼요. (실무자 H)
아이들이 갖는 문화 습득력과 가정에 있을 때 부모가 갖는 문화 습득력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이들은 문화 습득력이 빠르니까 또래 문화에 대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어른들은 뒤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한 갈등도 가정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실무자 G)

㉠-4. 일반학생들과의 어울림 개선을 위한 지원

탈북 청소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북한 출생이라는 것이 드러내어지기 보다는 자신의 출생을 좀 더 안전한 상황 속에서 밝히고 남한에 있는 청소년과 동등한 선상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일반학생들과) 아이들이 접할 기회가 적으니까 일단은 접촉빈도를 좀 높여서. 안전한 방법으로 접촉을 해야지. (중략) 안전한 접촉빈도?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캠프 같은 것도 아이들과 안전한 상태에서 만나서 캠프 활동을 하고 여기도 지금 학교에서 일반 아이들 데려다가 초청해서 하는 것.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뭔가 자연스럽게 같이 뭔가 활동을 같이 하는 것. (실무자 F)

사람이 뭔가 자기를 대중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 능력을 대중 앞에서, 장점도 갖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중략)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것을 실제로 탈북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일반 학생들과 동참해서 진행을 할 때 탈북 학생 참여율이 상승되지 않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실무자 I)

㉔-5. 탈북 청소년이 수혜가 아닌 주체될 수 있는 지원

탈북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들이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따라야만 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자신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기존의 우수학생 지원이라고 하면은 잘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잘하는 애들이 돈을 좀 많이 주고.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기존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교육을 하기 위한 장학 프로그램들이 많이 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중략)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남북교환프로그램이나 독서프로그램,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컨퍼런스 등을 함께 해서 역량을 좀 강화하는 쪽에. (실무자 A)

자신의 어떤 재능을 사람들 앞에서 공연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상승되는. (실무자 D)

또 자기가 좀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뿌듯해하는. 자부심을 느끼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것이 주체적인 모습으로. 시혜적인 입장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갈 수 있는 애네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거죠. (실무자 H)

지원 부분에서 주체적인 지원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보다 자기가 캠페인에 참여해서 직접 봉사활동도 하고 계획도 잡아보고 센터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니 회원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실무자 J)

(마) 지원의 체계화

㉔-1.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초기 진단과 정보 공유

남한 입국 초기에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입국 초기 하나원에서 12주간 교육을 하기 보다는 사회에 나가거나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지원해주어야 할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하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학교나 하나센터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공유한다면 탈북 청소년들에게 중복 조사 등이 방지되고 조속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가 학력심의를 해보면 수학기관과 졸업 날짜가 맞지를 않아요. (중략) 이게 뭐냐면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중략) 입국 당시에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중략) 입국 초기의 다양한 학업 역량 이것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면 이거는 신뢰할 수 없어요.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중략) 초기 진단이 중요하고요. 초기 진단에 의해서 아이들이 지원시스템이 같이 다양하게 가꿔야 되지 (실무자 E)

초기에 저는 아이들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측정을 해서 정말 말씀하신 전환기 교육. 교육 체제에 들어왔으니까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애한테 맞는 교육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실무자 H) 초기역량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 형태로 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큰 어떤 시스템 속에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중략)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기에 들어온 아이가 그 시스템 안에서 역량이 점점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에 따라서 멘투멘 형태로 지원 체계로 나가는 방법. (실무자 H)

(탈북 청소년 중예) 학교에서 발굴하냐 안 발굴하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발굴 안 된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탈북이라는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인적 사항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애들이 만약 중퇴를 학교에서 중도포기를 한다면 애들에 대한 지원이 학교에서도 안 되고 체계도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실무자 J)

㉠-2. 협력적 체계 안에서의 대상자 중심의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관은 다양하게 있으며, 굳이 탈북관련 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기관들이 서로 협조 및 지원체계가 제각각이다보니 대상자를 두고 서로가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서로 간 역할을 분배하고,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대상자 중심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탈북 학생들 맞춤형이 아니라 그냥 무분별하게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어서 정작 꼭 필요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략) 탈북 아이들은 프로그램의 숫자, 양보다는 질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중략) 동기부여가 아주 약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혜적 지원이잖아요. 시혜적 지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탈북 아이들에게 그냥 갖다 들이대게 되잖아요. (실무자 F)

민간단체들이 저희 학교 주변에도 징검다리 공부방, 새터민 지원센터, 아동기관들이 학교랑 어울려서 서로 간에 자기 학생들을 취합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식대로 자기네 과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시간하고 겹치는 때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실무자 I) 학교에서는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중략) 협업 같은 서류상에서 다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담당자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중략) 12월에 학교랑 다 같이 조인이 되어서 학교 연간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기서도 대충 한다는 의지로밖에 생각이 안돼요. (실무자 J)

㉠-3. 남한 사회적응을 위한 초기 사회진입과정 단계의 강화

남한에 입국 후 일정기간을 교육을 받고난 후 사회나 학교로 진입하는데 학교의 경우에도 12주 교육 이후 바로 일반 정규학교로 진입하는 경우와 전환기 학교, 대안 학교 등에 진입하는 경우 등 어떤 것이 대상자들에게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좀 더 유익할 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밀착해서 지도하거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직업을 갖는다거나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견뎌나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스스로 견뎌내기보다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지원이 필요하였다.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케어해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몇 몇 기관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학생들이 대학 가서 너무 어렵다. 학교에서는 많은 것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주고 의지할 곳이 있었는데 대학가니까. (중략) 저희는 고등학교 아이들만 챙기니까 대학 이상의 학생들은 또 다른 기관에서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실무자 C)

하나원에 있을 때는 애들하고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벽이에요. 정말. 혼자 서있는 듯한 느낌? 그런거죠. (실무자 G)

㉠-4. 대안교육(학교)의 다양화와 지원 연계방안 구축

탈북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는 남한에서의 대안학교와는 다른 개념으로 일반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일반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기에

제공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대안교육(학교)가 다양성을 가지고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남한의 대안학교라면 일반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난,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가는 대안교육학교를 세우잖아요.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저희 학교 아이들은 좀 특이한 게 일반 학교 시스템에 들어가고 싶은 애들이예요. 일반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애들인데 남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인데 거기 적응을 못하는 거죠.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할 학교가 필요한 거죠. (실무자 A) (일반학교) 거기서 소수지만 관심은 엄청 많이 받으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데. (중략) (일반학교) 완전 찌그러져 있었죠. 한마디도 못했다고. 수업시간에 잠만 잤다고. 손들도 이럴 용기도 없는 거죠. 여기 와서는 애들이 다 스스로없이 수업시간에 질문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하니까 아 이래도 되는구나 싶어서 자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수업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실무자 B)

대안학교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이 아이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적응기간을 두는 겁니다. 서서히 아이가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중략)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기 전에 모든 것을 수용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럴 경우는 이 아이가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다른 길로 빠져들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무자 E)

교육 자체가 정책적으로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전환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곳이 지정이 돼서 그 중에 한 곳에서 교육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옮겨가서 공부하고 이러면. (실무자 H)

㉠-5. 학교 내·외, 대학 등의 탈북 청소년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부처는 크게 3개 부처로 통일부(남북하나재단), 교육부(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여성가족부(무지개청소년센터)가 맡고 있다. 교육부와 통일부의 지원은 특히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이 되고 있지만, 학교 밖 탈북 청소년이거나 대학생에 대한 접근은 미흡하거나 지원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탈북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이 기관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중복도 되기도 하고.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다 나와 있지만 이 기관들이 어느 한 쪽의 컨트롤 타워 없이 개별적인 사업을 구상해해서 진행하다보니까 계

속 중복 지원, 중복 조사, 중복 연구가 되는 거예요. (중략) 탈북 청소년 숫자는 적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탈북청소년지원센터(가칭)를 만들어 놓고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없거든요. 최근 느낌은 통일부, 교육부가 막 경쟁을 하는. (실무자 E)

근데 남한에는 기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할지 너무도 힘든 거예요. (중략) 지원해주는 거 효과적인 예산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통일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뭔가 좀 지원이 효과성이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무자 I)

(학교) 여기에서는 교육부에 다 의뢰해서 교육부로 일괄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우리도 통일부에서 협조를 해서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면 좋을 것 같은 게 학생 문제가 해결되고, (중략) 무지개지원센터는 다문화나 이주배경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직접 공문이 내려오거나 요청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실무자 J)

(2) 탈북대학생 FGI 결과

탈북 청소년 실무자 FGI에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남한과 북한의 차이, (2)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 (3) 남한 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세부 분류로는 총 9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V-14>).

표 V-14 탈북대학생 FGI 내용 분석

분류	세부 분류
(가) 남한과 북한의 차이	㉠-1.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2. 내 선택권의 중요성 ㉠-3. 생활의 다양성
(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	㉡-1. 탈북 청소년 지원내용 ㉡-2. 단기간, 일회성 지원 ㉡-3. 청소년기와 지원사업과의 시기적, 상황적 차이 ㉡-4. 학교 중심의 지원
(다) 남한 생활에서의 어려움	㉢-1.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2. 북한 사람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

(가) 남한과 북한의 차이

㉔-1.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탈북대학생들은 남과 북의 차이점 중에 하나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누가 사는지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만 할 뿐 소통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이웃들 간에 밥 숟가락 숫자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었는데 남한에서는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었다.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라고 말하거든요. 밀착되어 있는데 (남한) 여기는 아예 그런 게 없는 것이 다른 것 같고. (대학생 가)

서로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동네 전체가 다 알고 지내고 되게 친하거든요. (중략) 이웃 간에 교류도 없고 만나도 어색하고.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나)

다른 점이 북한에서는 뭔가 외부로부터 다 차단되어 있어서 안에서만 생활하다보니 그냥 안에 동네에서 그 주민들만 다 형성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 라)

㉔-2. 내 선택권의 중요성

남한에서는 북한에서의 생활과 달리 자신의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전체적이고 조직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선택과 관련해서 남한에서 투표를 한 것에 대해 재미있었고 신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은 다 개별적인 거예요. 뭘 하나도 다 내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대학생 가)
국회의원 투표 같은 걸 하면서 투표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어떤 후보자의 어떤 면을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후보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번에 투표하면서 쪽 찾아보고 재밌더라고요. (대학생 나)

저도 북한에서는 선거라는 걸 들어보지 못해서 한국에 와서 처음 한 게 2013년이예요. 해봤는데 그때는 막 찍어가지고.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이 사람이 누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막 찍긴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찍는다는 거에 대해서 참. 해보지 못한 거라서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라)

㉠-3. 생활의 다양성

북한에서의 생활보다 남한에서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자신의 선택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많이 하고 있었다. 반면,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를 알지 못하면 선택하는데 더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을 수도 있다.

북한에서보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넓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이왕이면 하고. (대학생 나)

(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

㉠-1. 탈북 청소년 지원 내용

탈북 청소년은 자신들이 받았던 경제적인 부분으로 돈과 관련된 사항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중 대학 진학에 있어서 장학금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일 큰 건 대학 등록금 지원 받는 거. (대학생 가)

금전적인 부분, 기초생활 수급비, 생계비가 그나마. (중략) 저는 작년에 노원에 집을 받으면서 자전거랑 밥상이랑 아 김치냉장고 해줬고. 그런 지원이 있더라고요. 집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거 지원해주고 아니면 일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거 문자 보내주고. 추석이나 설이나 그럴 때 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 있으면 와서 참여하고 상품 받아가세요. 하는데. (대학생 나)

(하나센터) 지역마다 어느 정도 지원은 해 주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하나원 졸업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냉동기 같은걸 해줬다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부천에서 해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중략) 모임이 있는데 남북한 교류모임? 직업탐색모임? 이런 모임에 참여하라고. 그 정도고 1년에 한 번씩 송년회를 해요. 하나센터에서. 송년회할 때 북한이탈주민들 모여서 일년 송년회를 해주고 그 정도지. (대학생 다)

㉠-2. 단기간, 일회성 지원

탈북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단기성 및 일회성 지원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며,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이었다.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단기간에 하고 끝나고. (중략) 제가 많이 이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정보 한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 나)
한 달만. 뭐. (대학생 라)

㉠-3. 청소년기와 지원사업과의 시기적, 상황적 차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지원들이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자신들이 학업을 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모든 것들이 유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았다.

대학생들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미성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적은 것 같아요. (대학생 가)

컴퓨터 자격증 따면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게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하나월 나와서 5년인가. 그 안에 해야 하는데 저는 그 때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검정고시보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생 바로 되다보니까 그게 기한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자격증을 못 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도중에 휴학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돈을 받기에는 제가 너무 그거에 시간을 낭비하기 아까워서 안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연장을 좀 해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대학생 나)
하나센터나 지원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거기 저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분류별로 디테일하게 짜여있지 않고. 그냥 공고로 한다 하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된다고 해도 제가 지금 학생 신분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다보니까 그냥 지나가고 놓칠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아서. (대학생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업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일반 성인보다는 기간이 부족하다. (대학생 라)

㉠-4. 학교 중심의 지원

탈북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이던지, 대안학교이던지 학교에 재학중이면 선생님들이 꼼꼼히 챙겨주는데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여명학교 다니면서 대부분 거기서 지원 받고 생활하다보니까 다른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학교를 안다니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 나)

(다) 남한 생활에서의 어려움

㉔-1.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북한에서 탈출할 때 가족과 함께 오지 못하고 혼자 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점이 청소년에게 힘들 것으로 다가왔으며, 오랜 시간 동안 못 보다보니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차 무더지는 것 같은 심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국에 와서 제일 안 좋은 점은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것. 제 가족이 살아 있는데 떨어져 지내는 게 너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하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저도 그냥 감정이 무더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보면 좀 영원이 헤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대학생 나)

㉔-2. 북한 사람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선은 차별적이며, 좋지 않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서 뭔가를 탈북 청소년이 이야기 했을 때 더 심한 비난을 받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된 모습을 더 가지고 있었다.

(한국) 여기 와서 항상 그렇게 오래 살아도 탈북자라는 그 꼬박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부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게 뭔가 모르게 항상 벽을 만들고 되게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것 같아요. (중략) 잘하는 것도 너 못하지 않아?라는 말을 먼저 누가 말하면 위축이 들잖아요. (대학생 가)

잘할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나섰다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중략) 이런 거 알아? 당연히 모를 거라는 전체 하에 물어보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중략) 내가 진짜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런 것보다 더 그냥 진짜 평범한 것 있잖아요.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것도 알아? 물어보니까.(대학생 나)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중국에 거치고 한국에 오면서 중국에서 10개월 동안 거의 방에만 있어서 그런지 확 줄어 들더라구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게 싫어지고 무슨 말을 할 때 계속 다른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내편이 적다라는 그게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대학생 라)

3. 탈북 청소년 역량설문조사

1) 탈북 청소년 역량설문조사 개요

탈북 청소년 설문조사 내용은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된 설문지로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역량 조사가 없어 기존 청소년역량조사에 활용되었던 설문지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탈북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탈북 청소년의 역량 내용을 함께 조사하였다. 기존 청소년역량 조사 활용 설문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연구 과제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IEA ICCS 2016(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2015년 연구과제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IEA ICCS 2016(장근영 외, 2015)”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이다.

설문문항은 기존 연구 설문 문항에서 축약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과 협의하여 문항의 요인분석, 구성타당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설문 문항은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역량 연구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문항이다.

2016년 7월~9월 초까지 설문조사를 하였고, 탈북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과 지원기관 등을 통해 사전 섭외한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탈북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현장 실무자 및 관리자들의 설문지에 관한 의견 중 설문 내용이 탈북 청소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탈북 청소년 4~5명당 설문조사원 1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고 설문지에 응답하기 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2개월 기간 동안 총 설문지 211개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결측치 응답이 많은 설문 2개와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초등학교 설문 2개를 제외하고 총 207개의 설문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V-15 탈북 청소년 대상 역량설문조사 개요 및 탈북 청소년 설문결과 의견조사

구 분	내 용
일 시	설문 일시: 2016년 7월 ~ 9월 초 / 의견조사 일시: 2016년 10월 초
대 상	설문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안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207명 설문결과 의견조사 대상 : 탈북 청소년 관련 교육, 지원기관, 생활시설 등에 종사하는 실무자 9명(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일부, 북한 관련 경력 (평균)약 10년 이상), 탈북 청소년으로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5명,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1명
설문방식	탈북 청소년 4~5명당 설문조사원 1명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기기입식 설문
설문내용	설문: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내용으로 구성 의견조사: 탈북 청소년 설문 결과에 따른 이유 및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

그리고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나온 결과에 대해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와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결과에 대한 의미나 이유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각 문항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석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표 V-15>).

<표 V-16>은 탈북 청소년의 배경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배경문항으로 태어난 년도, 성별, 탈북시기, 입국시기, (북한)교육년수, 남북한 생활 비교 체감 수준, 남한에서의 가족형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추후 전산 입력과정에서 설문 대상 학생의 학교를 학교급 단위로 추가 입력하였다.

표 V-16 탈북 청소년 배경문항

구 분	문항	비고
태어난 년도	배경문항 1	조사시기와 비교하여 나이로 변환
성별	배경문항 2	
탈북시기 / 입국시기	배경문항 3	년도와 개월수로 측정 후 개월수로 변환하여 제3국 체류기간과 한국 거주기간 파악
북한에서의 교육년수	배경문항 4	교육년수로 파악
남북한 생활 비교 체감수준	배경문항 5	3점 척도 활용
현재 남한에서의 가족형태	배경문항 6	
남한 지원 및 교육 만족도	배경문항 7	4점 척도 활용

<표 V-17>은 전문가의견 조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파악한 내용으로 기존 청소년역량 척도를 활용하였다. 5가지의 역량군에 해당하는 생애학습, 생활관리, 진로개발, 대인관계, 사회참여역량이며, 그에 따라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개인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시민성으로 총 16개의 하위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Cronbach's α 는 0.677 ~ 0.905 수준으로 신뢰도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 탈북 청소년 대상 설문 문항 I

구 분		문항	척도	Cronbach's α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문1	4점척도	0.677
	지적도구활용능력	문2	4점척도	0.805
	학습적응성	문3.	4점척도	0.687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문4	4점척도	0.770
	과제관리	문5	4점척도	0.837
	상황대처 ¹⁾	문6 ~ 문7	4점척도	0.848
	정서조절 ²⁾	문8	4점척도	0.829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문12	4점척도	0.868
	여가활용경험	문13	경험여부	
	여가활용	문13_1	4점척도	0.902
	개척정신	문14	4점척도	0.731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문15	4점척도	0.905
	리더십	문16	4점척도	0.892
	협동	문17	4점척도	0.875
사회참여역량	개인시민성 ³⁾	문20 ~ 문22	4점척도	0.813
	공동체시민성	문24 ~ 문28	4점척도	0.842
	세계시민성	문31 ~ 문35	4점척도	0.702

※ 역량에 관한 해석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함.

주 1) 상황대처 문항(문 6, 문 7) 1번~6번은 부정을 긍정으로 역변환

2) 정서조절 문항(문 8) 중 1번~6번은 부정을 긍정으로 역변환

3) 개인시민성 문항(문 20) 중 5번~6번은 부정을 긍정으로 역변환

<표 V-18>은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으로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 자기표현력,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또래애착, 장유성, 준법성, 지역사회유대감, 국가정체의식을 알아보았다. 표에서 언급된 역량 문항은 전문가의견 조사에서 언급된 표현과 가장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척도로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역량 문항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Cronbach's α 는 0.784 ~ 0.951 수준으로 신뢰도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탈북 청소년 대상 설문 문항 II

구 분	문항	척도	Cronbach's α
자아정체감 ¹⁾	문9a)	5점척도	0.784
자아탄력성 ²⁾	문10_1~6	5점척도	0.797
자아효능감 ³⁾	문10_7~9	5점척도	0.825
자기표현력 ⁴⁾	문11b)	4점척도	0.813
가족원의 문제해결능력 ⁵⁾	문18	5점척도	0.951
또래애착 ⁶⁾	문19	4점척도	0.804
장유성 ⁷⁾	문23	5점척도	0.894
준법성 ⁸⁾	문29	5점척도	0.900
지역사회유대감 ⁹⁾	문30	4점척도	0.918
국가정체의식 ¹⁰⁾	문36	5점척도	0.865

※ 역량에 관한 해석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함.

주 1) 한국교육개발원(2015c).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조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III: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보고서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c).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III: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보고서

5) 이미옥(2015). 초등학교 고학년용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연구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7) 심경섭 외(2012). 유교가치관 척도 개발연구

8) 한국교육개발원(2015c).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조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III: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보고서

10) 한국교육개발원(2015c).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조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a) 자아정체감 문항(문 9) 1번~5번은 부정을 긍정으로 역변환

b) 자기표현력 문항(문 11) 중 5번, 6번, 8번은 부정을 긍정으로 역변환

<표 V-19>는 설문에 참여한 탈북 청소년의 일반 배경으로 성별 구성은 ‘남자’ 39.2%, ‘여자’ 60.8%로 4 : 6 정도 비율을 보이고, 남한에서의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 4.8%, ‘만족’ 94.6%로 대다수가 남한 교육에 만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곳으로는 ‘중학교’ 28.0%, ‘고등학교’ 34.8%, ‘대학교’ 5.8%, ‘대안학교 및 기타’ 31.4%에 재학 중이다. 그리고 기숙학교 여부에서는 기숙학교는 78.3%, 비 기숙학교 21.7%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V-19 탈북 청소년의 일반 배경 I

구 분		N	%	구 분		N	%
성별	남자	82	39.2	학교급	중학교	58	28.0
	여자	127	60.8		고등학교	72	34.8
남한 가족형태	혼자 생활	20	9.7		대학교	12	5.8
	가족모두 남한거주	125	60.4		대안학교 및 기타 ¹⁾	65	31.4
	가족일부 북한거주	46	22.2	학교급 기숙여부	기숙학교	162	78.3
	기타 ²⁾	15	7.2		비기숙학교	45	21.7
	무응답	1	0.5	남북한 생활 비교 체감수준	나빠졌다	11	5.3
남한 지원 및 교육 만족도	만족하지 않음	10	4.8		그대로다	15	7.2
	만족	196	94.6		좋아졌다	177	85.5
	무응답	1	0.5		무응답	4	1.9

주 1) 직업학교, 한빛아카데미 등

2) 조부모, 형제, 고모 등과 거주 형태

남한에서의 가족 형태로는 ‘가족 모두가 생활한다’ 60.4%, ‘가족 일부가 북한에 거주한다’ 22.2%, ‘혼자 생활한다’ 9.7%, ‘기타’ 7.2%로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가족 모두가 남한에서 생활하는 가족 이외에 탈북 청소년 중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홀로 남한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남한에 홀로 있다는 불안함과 미안함 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V-19>).

탈북 청소년의 남북한 생활에 대한 체감수준은 ‘좋아졌다’ 85.5%, ‘그대로다’ 7.2%, ‘나빠졌다’ 5.3%로 탈북 청소년이 느끼고 있었다. 남북한 생활 체감수준에서 남한에서 생활하는 것이 북한에

서의 생활과 비슷하거나 나빠졌다고 하는 비율이 12.5%인 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남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조속히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V-19>).

<표 V-20>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약 19세이고, 북한 생활 당시에 받은 교육 기간은 평균 약 4년 정도 학교를 다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 청소년의 탈북 기간을 살펴보면, 북한을 벗어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남한으로 입국하는데 평균 약 2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탈북 청소년의 경우 남한에서 거주한 기간은 평균 약 56개월 정도이다.

표 V-20 탈북 청소년의 일반 배경 II

		N	평균	표준편차
나이	(만 나이)	207	18.95(19.00 ¹⁾)	3.48
북한 생활 당시 교육기간	(단위: 년)	193	4.24	3.67
제3국 체류 기간	(단위: 개월수)	194	21.83	39.05
한국 거주 기간	(단위: 개월수)	201	55.94	40.44

주 1) 중위값

2) 탈북 청소년 역량설문 분석 결과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량 조사결과는 각 역량군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했으며, 각 역량군에 해당하는 세부항목들에 관하여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평균비교는 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 또는 경향을 알아보았다. 2014년, 2015년 조사 대상은 확률표집인 층화집락추출법을 적용하여 2014년 6,637명, 2015년 10,516명의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79~88; 장근영 외, 2015: p.31).

본 연구에서 청소년 역량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이 생활 전반에 속한 모든 체계와 연관되며 향후 미래와도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미시적, 거시적 체계로서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시간적 측면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측면(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17)에서 역량으로 현재 청소년이 갖춘 능력에 초점이 맞춰졌다기 보다 잠재적인 능력 또는 자신의 갖추나가야 할 능력 등에 응답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현재 능력(학업성취 능력 등)과 역량을 동일시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결과 수치와 2014년 남한 청소년 조사결과 수치에 대해 단순 수치 비교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역량이라는 개념이 시대적,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북한 비교에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표 V -21>은 생애학습역량과 관련한 결과로서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93이며, 하위역량인 사고력 평균은 3.00(비판적 사고력 평균 3.06, 감성적 사고력 평균 2.94), 지적도구활용능력 평균은 2.76(언어능력 평균 2.86, 수학능력 평균 2.55, 과학능력 평균 2.47, 정보통신활용능력 평균 3.16), 학습적응성 평균은 2.83(변화수용력 평균 2.83, 지적호기심 평균 3.28, 학습주도성 평균 2.94)으로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 하위역량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지적도구활용능력 평균이 낮았고, 학습적응성의 평균이 높았다. 각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에서의 평균은 사고력 내에서는 감성적 사고력 보다는 비판적 사고력이 조금 높은 편이며, 지적도구활용능력 내에서는 과학능력과 수학능력이 낮고 정보통신활용능력이 가장 높았다. 학습적응성 내에서의 평균은 변화수용력이 가장 낮고, 지적호기심이 가장 높았다.

표 V -21 생애학습역량 항목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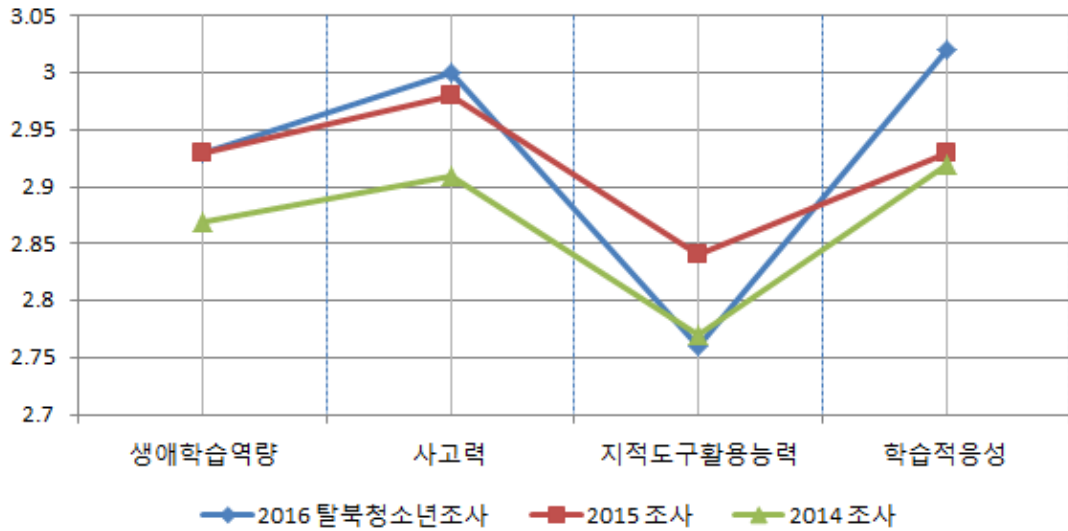
구 분	2016 탈북 청소년			2014 조사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생애학습역량	207	2.93	0.35	2.87
사고력	207	3.00	0.40	2.91
비판적 사고력	207	3.06	0.45	2.95
감성적 사고력	207	2.94	0.48	2.86
지적도구활용능력	207	2.76	0.45	2.77

구 분	2016 탈북 청소년			2014 조사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언어능력	207	2.86	0.57	2.71
수학능력	207	2.55	0.68	2.58
과학능력	207	2.47	0.71	2.60
정보통신활용능력	207	3.16	0.56	3.19
학습적응성	207	3.02	0.41	2.92
변화수용력	207	2.83	0.54	2.78
지적호기심	207	3.28	0.52	3.15
학습주도성	207	2.94	0.60	2.82

주) 2014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 설문 문항에서 본 연구조사에서 측정된 역량 문항에 맞춰 분석한 결과를 명시함.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 전체를 평균 비교해봤을 때 가장 낮은 1, 2순위는 과학능력, 수학능력이다. 과학과 수학능력은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을 의미(이종범 외, 2008; 최동선 외, 2008;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 p.23 재인용)하는 것으로 이는 탈북 청소년들이 과학과 수학 공부에 있어서 남한에서의 학습 성취에 매우 힘들어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남한사회에서 직업 및 학습 등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반면,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 의견에서는 북한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과학, 수학 능력이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1, 2순위는 지적호기심과 정보통신활용능력이었다. 지적호기심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의미(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24 재인용)하는 것으로 탈북 청소년이 북한 생활에서 남한 생활을 경험하면서 북한과 다른 다양한 환경적 요소 등으로 인해 무언가를 탐색하고 궁금해 하는 모습의 반영일 수 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23 재인용)한다. 핸드폰, 인터넷 확산 및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과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알 수 있는 방안으로서 탈북 청소년에게 있어 남한 사회를 알아가는 한 통로라는 점으로서도 정보통신활용능력을 빠르게 습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표 V-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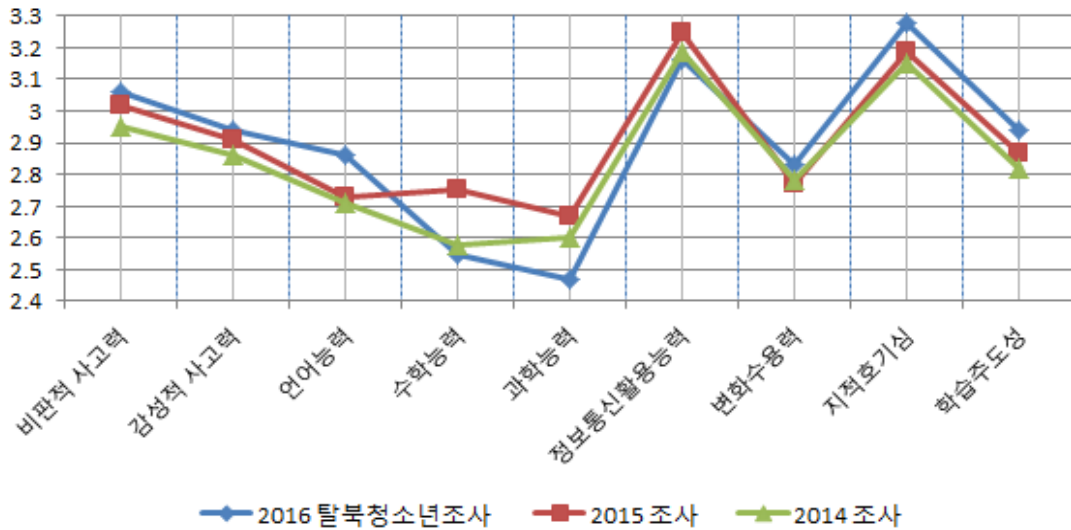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V-1】 생애학습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그림 V-1】은 생애학습역량과 하위역량에 관해 2016년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결과와 2014년과 2015년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교하여 경향을 알아본 결과이다. 하위역량 3가지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에서 유사한 V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탈북 청소년은 지적도구활용능력이 낮고, 학습적응성에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V-2】는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에서도 대체적으로 2016 탈북 청소년 조사와 2015년, 2014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되, 수학, 과학 영역이 낮은 것은 교육단절로 인한 기초학습 기회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2014년 경향 비교에서 주목해 볼 점으로는 언어능력에서 남한 청소년에 비해 탈북 청소년이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 면접 과정에서는 문장 이해력이 낮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지만 언어능력에는 문해력 이외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관찰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이 다른 점에서는 결과 해석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 중에서도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에서 지적호기심이 가장 높았는데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점은 북한과 남한 사회의 교육, 정보통신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차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을 알아가고자 하는 태도에서 나타난 요소일 수 있다.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와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V-2】 생애학습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표 V-22 생애학습역량 관련 설문결과에 따른 의견

구분	내용
언어능력	실무자 A: 애들이 워낙 생활총화를 많이 해서 남한 애들보다 발표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실무자 C: 우리랑 다른 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용어라든가 표현 방법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은 좀 개발을 시켜줘야 되고 보완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심지어는 앱 같은 것도 요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말 치면 우리 말 나오고 어떤 용어가 나오는지.
	실무자 D: 그 때 애들하고 지금 애들하고 언어 수준이 남한 아이들하고 많이 좀 차이는 나지만 옛날에 비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아이들이 꽤 들어와요. 북한 탈북 청소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남한 말이나 단어를 조금 더 알아들어요. 옛날 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분	내용
	탈북대학생 A: 금방 왔을 때는 단어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인터넷 사용할 줄도 잘 몰랐어요. 네이버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물어봐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귀찮아하세요.
	실무자 A: 고난의 행군 시기 그 근접해서 그 이후에 학교를 다녔던 애들은 확실히 공교육의 제도를 많이 받지 못하고 왔어요. 그 이후에 학교를 다녔던 애들은 못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학능력 과학능력	실무자 C: 제가 2003년에 할 때 애들은 사실 수학이나 과학 잘했거든요. 특히 북한이 그 쪽 분야가 강해요. 그래서 잘 해요. 지금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온 아이들은 잘 합니다. 탈북대학생 E: 제 생각에는 수학이나 과학이 다 체계적인 학문이잖아요. 국어는 단계가 없지만 수학은 단계가 있는데 탈북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학업을 못하잖아요. 단계를 놓쳐버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보통신 활용능력	실무자 E: 검사항목 사고력, 지적 도구 활용 능력, 학습적응성의 변화 곡선 상에서 정보통신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있다. 주로 게임과 홈쇼핑 등 생활편의로 활용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속하면서 지적 호기심도 높아졌다. 실무자 H: 스마트폰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청소년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것들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잘 수용한다고 봅니다.
지적 호기심	탈북대학생 D: 지적 호기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지하거든요.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아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둔감해져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를 못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학습 적응력	실무자 A: 지금 의욕이 높은 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의욕이 올라가 있는 1년 사이에 많은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해줘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1년 사이에 의욕은 높지만 보이지 않는 한계는 계속 오거든요. 교육적인 푸쉬(push)를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는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무자 D: 좌절이 딱 오는 시기가 2년 쯤 부터예요. 1~2년까지는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요. 그 시기가 넘어가면 아 애 어느 정도 이제 적응했어. 하다보니까. 확 떨어져요.
지적도구 활용능력	탈북대학생 B: 나이가 들어서 “왜” 라는 말보다도 일단은 마음을 못 붙여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갑자기 변하니까 문화가 달라 서로 공감할 못하는 거예요. 위축되어 혼자 있고 싶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마음을 못 잡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전체의견	실무자 F: 설문에 참가한 탈북 청소년들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탈북 청소년들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낮은 반면, 설문에 응답한 탈북 청소년들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무자 G: 최근 수년전부터 이민형 탈북이 절대 다수이기에 성취동기가 높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학습경험이 있는 탈북자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표 V-23>은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중 사고력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서 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 거주기간별 사고력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사고력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소학교 졸업’이 높았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4년 초과’한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23 사고력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06	0.44	1.478
	여자	127	2.97	0.37	
학교급	중학교	58	2.95	0.47	0.736
	고등학교	72	2.99	0.41	
	대학교	12	3.00	0.40	
	대안학교 및 기타	65	3.06	0.32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02	0.42	0.543
	중학교이상	89	2.99	0.37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02	0.40	0.908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04	0.40	
	2년 초과	42	3.00	0.40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2.97	0.35	0.798
	2년 초과 4년 이하	49	2.99	0.37	
	4년 초과	99	3.05	0.44	

<표 V-24>는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중 지적도구활용능력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교급에 따라 지적도구활용능력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 거주기간별 지적도구활용능력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지적도구활용능력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서는 ‘중학교 이상’일 때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4년 초과’한 경우에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24 지적도구활용능력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2.80	0.49	0.888
	여자	127	2.74	0.42	
학교급	중학교	58	2.79	0.42	2.211*
	고등학교	72	2.66	0.50	
	대학교	12	2.81	0.55	
	대안학교 및 기타	65	2.84	0.35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2.75	0.45	-0.357
	중학교이상	89	2.77	0.44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2.76	0.45	0.528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2.83	0.44	
	2년 초과	42	2.76	0.39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2.71	0.35	1.042
	2년 초과 4년 이하	49	2.75	0.48	
	4년 초과	99	2.81	0.46	

* $p < 0.1$, ** $p < 0.05$, *** $p < 0.01$

<표 V-25>는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중 학습적응성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교급에 따라 학습적응성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 거주기간별 학습적응성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학습적응성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이 높았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4년 초과’한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25 학습적응성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05	0.45	0.787
	여자	127	3.00	0.39	
학교급	중학교	58	2.93	0.47	2.297*
	고등학교	72	3.01	0.41	
	대학교	12	2.96	0.44	
	대안학교 및 기타	65	3.12	0.34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00	0.45	-0.772
	중학교이상	89	3.04	0.37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02	0.44	0.382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08	0.36	
	2년 초과	42	3.03	0.42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03	0.39	0.996
	2년 초과 4년 이하	49	2.96	0.46	
	4년 초과	99	3.06	0.40	

* $p < 0.1$, ** $p < 0.05$, *** $p < 0.01$

<표 V-23>에서 <표 V-25>까지 생애학습역량과 관련한 결과를 배경적 요소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자’,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이며, (북한)교육년수에서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평균이 높았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와 한국 거주기간은 ‘4년 초과’의 기간에서 평균이 높았는데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생애학습역량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26>은 생활관리역량과 관련한 항목에 관한 결과로서, 생활관리역량 평균은 3.07이며, 하위역량인 건강관리 평균은 3.14(위생관리 평균 3.38, 신체관리 평균 2.8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평균 3.23), 과제관리 평균은 3.03(목표 및 계획 수립 평균 3.09, 수행 및 평가 평균 2.98),

상황 대처 평균은 3.20(중독인식 평균 2.98, 중독행동 평균 3.13, 폭력행동 평균 3.40, 폭력회피 평균 3.30), 정서조절 평균은 2.91(분노행동 평균 2.98, 감정절제 평균 2.97, 조절실패 평균 2.64, 감정인식 평균 3.03)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 하위역량인 4가지를 평균 비교해보면, 정서조절이 낮았고, 상황대처는 높았다. 정서조절의 경우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행동과 감정상태 등에 집중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황대처는 탈북 청소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탈북 청소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남을 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설이 일상화된 것에 대해 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조정아 외, 2014: p.112).

상황대처의 경우 중독인식 성향이 높고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 성향은 낮게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 의견에서는 청소년들이 설문 결과와는 다르게 거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상생활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이 패거리 문화를 통해 일탈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는 점(박성희, 1995: pp.180~183)과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각 하위역량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세부역량을 보면, 건강관리 내에서는 위생관리가 가장 높고, 과제관리 내에서는 목표 및 계획 수립이 높았다. 상황대처 내에서는 폭력행동으로 폭력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 문항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조절에서는 '감정인식'으로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린다고 한 평균이 가장 높았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 전체를 평균 비교해봤을 때 가장 낮은 1, 2순위는 조절실패와 신체관리이다. 조절실패는 자신의 기분이나 행동 반응이 크다는 내용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점에 있어서 가장 낮았고, 신체관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하는 행동에서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른 감정이나 행동의 낙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한 요인이며, 자신의 건강과 몸을 위한 식사 및 생활습관 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1, 2순위는 폭력행동과 위생관리이다. 폭력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 문항들의 평균이 높았지만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 의견을 통해 파악한 탈북 청소년의 모습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탈북 청소년이 심적으로는 매우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또래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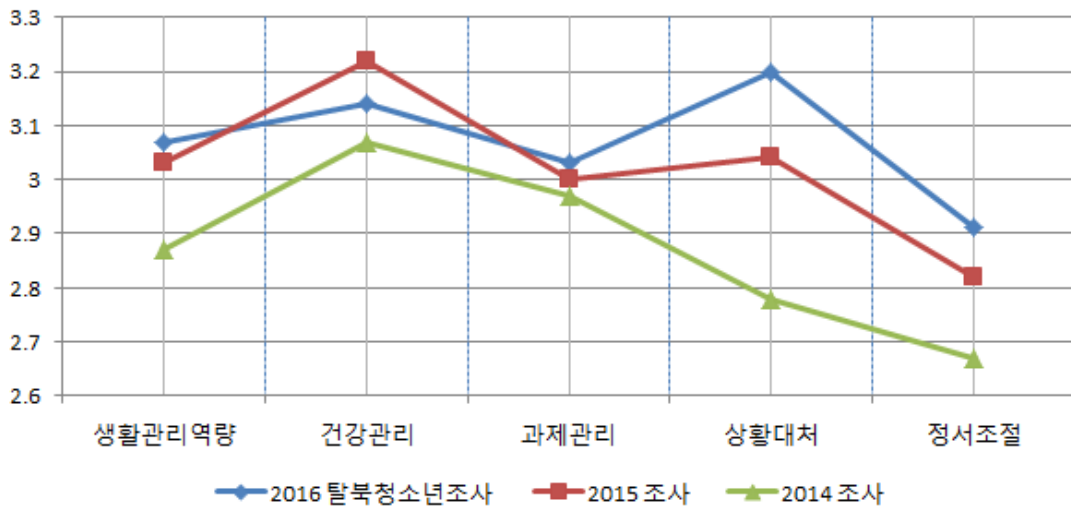
관계 속에서 패거리 문화나 일탈적 행동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위생관리는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과 제3국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거나 남한에서 생활하는 자신을 가꾸고자 하는 청소년기의 행동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표 V-26>).

표 V-26 생활관리역량 항목 평균

구 분	2016 탈북 청소년			2014 조사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생활관리역량	207	3.07	0.37	2.87
건강관리	207	3.14	0.45	3.07
위생관리	207	3.38	0.46	3.26
신체관리	207	2.81	0.77	2.82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207	3.23	0.47	3.15
과제관리	207	3.03	0.48	2.97
목표 및 계획 수립	207	3.09	0.48	3.03
수행 및 평가	207	2.98	0.58	2.90
상황대처 ¹⁾	207	3.20	0.50	2.78
중독인식	207	2.98	0.73	2.29
중독행동	207	3.13	0.72	2.75
폭력행동	207	3.40	0.55	3.22
폭력회피	207	3.30	0.59	2.88
정서조절	207	2.91	0.52	2.67
분노행동	207	2.98	0.69	2.74
감정절제	207	2.97	0.69	2.76
조절실패	207	2.64	0.80	2.32
감정인식	206	3.03	0.55	2.85

주 1) 상황대처 하위 항목인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는 평균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해석함.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인식이 높으며,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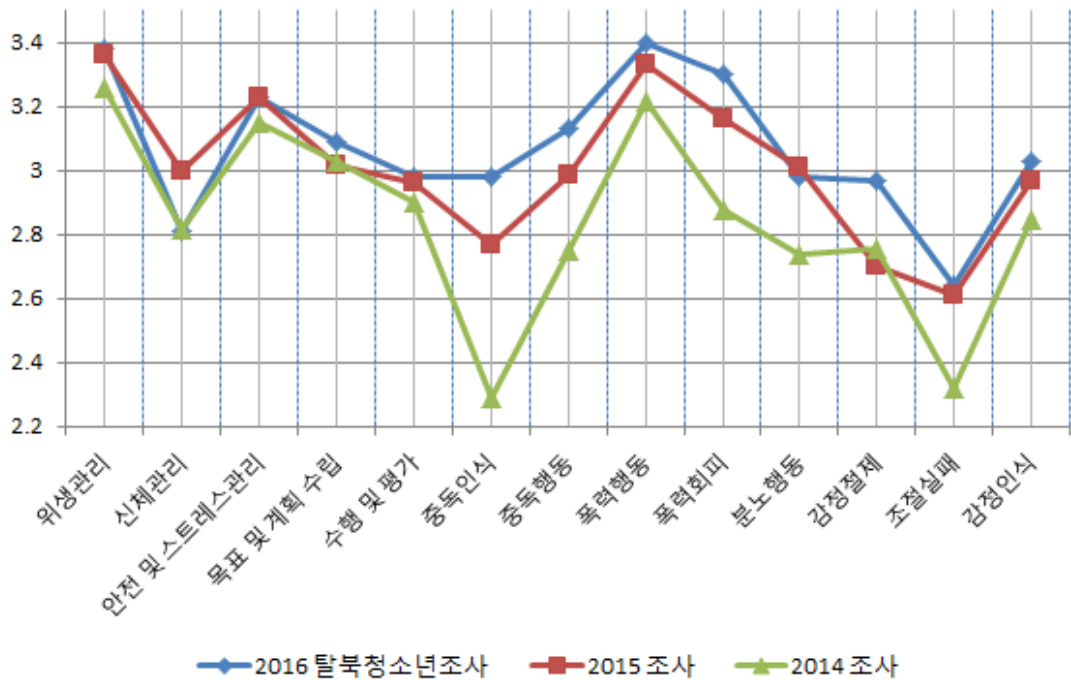
【그림 V-3】은 생활관리역량과 하위역량에 관해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결과와 2014년과 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비교하여 경향을 알아본 결과이다. 하위역량 4가지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에서 2015년과 2016년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조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 결과 중 상황대처의 경우는 2015년과 2014년보다 확연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V-3】 생활관리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그림 V-4】는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에서는 대체적으로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와 2015년, 2014년 남한 청소년 대상 조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남한 청소년에 비해 탈북 청소년이 신체관리에서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014년~2016년 경향 비교에서 주목해서 볼 점으로는 중독인식, 감정절제에서 남한 청소년에 비해 탈북 청소년이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중독인식과 감정절제는 평균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중독인식이 높고, 감정절제도 잘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 면접 과정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컴퓨터에 빠진다거나 폭력적 행동, 화를 못 참는 행동이 많이 보인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어 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와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V-4】 생활관리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표 V-27 생활관리역량 관련 설문결과에 따른 의견

구분	내용
상황대처	실무자 E: 생활고와 새로운 사회 적응에 대한 부담 때문에 탈북자가 중독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 내에서 가부장적인 질서 하에 가장에 의한 가정폭력이 흔하고 술로 인한 폐해도 높아 남한 정착 이후에도 가정폭력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실무자 G: 감정절제나 폭력성, 중독성 등이 높은 것은 소위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 고난의 행군 등의 시기에 있었는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유효하다고 보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아동기를 보낸 경우, 평양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한 경우 식량난과 경제난에 노출된 경우 그래서 가족 해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 같고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는 점차 이러한 경향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정서조절	탈북대학생 B: 솔직히 (탈북 청소년) 80~90%는 (상담이)다 필요하거든요. 부모님과 몇 년 씩 떨어져 살다가 돈 벌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7년, 많게는 10년씩 떨어져 살아요. 자식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탈북대학생 E: 심리적 안정은 기본이잖아요. 내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심리 상담 쪽으 로 지원해주시면 좋겠어요. 재수할 때 4~5개월 정도 상담을 제 돈 주고 받았었는데 마음에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북한에서 오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저를 좀 알아가고 공부를 할 때 딱 정할 수 있잖아요. 비용이 되게 비쌌거든요.

<표 V-28>은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중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건강관리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건강관리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표 V-28 건강관리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23	0.50	2.183**
	여자	127	3.08	0.41	
학교급	중학교	58	3.16	0.42	1.149
	고등학교	72	3.20	0.47	
	대학교	12	2.99	0.52	
	대안학교 및 기타	65	3.09	0.44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15	0.47	0.412
	중학교이상	89	3.13	0.42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14	0.46	0.104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16	0.42	
	2년 초과	42	3.17	0.50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16	0.36	0.288
	2년 초과 4년 이하	49	3.18	0.49	
	4년 초과	99	3.12	0.48	

* $p < 0.1$, ** $p < 0.05$, *** $p < 0.01$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건강관리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소학교 졸업’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2년 초과’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초과 4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표 V-28>).

<표 V-29>는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중 과제관리와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교급, (북한)교육년수별에 따라 과제관리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과제관리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표 V-29 **과제관리**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02	0.53	-0.250
	여자	127	3.04	0.45	
학교급	중학교	58	2.90	0.53	4.035***
	고등학교	72	2.99	0.45	
	대학교	12	3.11	0.50	
	대안학교 및 기타	65	3.18	0.43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2.98	0.49	-1.817*
	중학교이상	89	3.10	0.46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2.98	0.50	1.673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12	0.39	
	2년 초과	42	3.09	0.54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04	0.44	0.500
	2년 초과 4년 이하	49	3.09	0.48	
	4년 초과	99	3.01	0.51	

* $p < 0.1$, ** $p < 0.05$, *** $p < 0.01$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과제관리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서는 ‘중학교

이상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초과 4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표 V-29>).

<표 V-30>은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중 상황대처와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상황대처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상황대처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표 V-30 상황대처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12	0.50	-1.850*
	여자	127	3.25	0.49	
학교급	중학교	58	3.17	0.53	1.371
	고등학교	72	3.30	0.50	
	대학교	12	3.17	0.50	
	대안학교 및 기타	65	3.14	0.46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17	0.51	-1.265
	중학교이상	89	3.25	0.48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22	0.51	0.040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20	0.48	
	2년 초과	42	3.20	0.53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29	0.52	1.238
	2년 초과 4년 이하	49	3.14	0.47	
	4년 초과	99	3.19	0.50	

* $p < 0.1$, ** $p < 0.05$, *** $p < 0.01$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상황대처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는 높고,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표 V-30>).

<표 V-31>은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중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북한)교육년수에 따라 정서조절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학교급,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상황대처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정서조절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여자'와 '남자'가 같았고, 학교급에서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31 정서조절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2.91	0.56	-0.008
	여자	127	2.91	0.49	
학교급	중학교	58	2.78	0.50	1.706
	고등학교	72	2.93	0.59	
	대학교	12	3.05	0.41	
	대안학교 및 기타	65	2.96	0.45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2.84	0.53	-2.257**
	중학교이상	89	3.00	0.50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2.92	0.52	.199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2.86	0.47	
	2년 초과	42	2.90	0.57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2.93	0.45	0.069
	2년 초과 4년 이하	49	2.90	0.57	
	4년 초과	99	2.90	0.53	

* $p < 0.1$, ** $p < 0.05$, *** $p < 0.01$

<표 V-28>에서 <표 V-31>까지 생활관리역량과 관련한 결과를 배경적 요소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성별, 학교급에서는 어떤 교급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교육년수에

서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높은 편이었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와 ‘6개월 초과 2년 이하’와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이하’, ‘2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으로 제3국 체류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4년 이하의 경우에 평균이 높았다.

<표 V-32>는 진로개발역량과 관련한 항목에 관한 결과로서,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92이며, 하위역량인 진로설계 평균은 3.11(자기탐색 평균 3.14, 직업탐색 평균 3.03, 진로준비 평균 3.13, 직업가치관 평균 3.15), 여가활용 평균은 3.02(여가태도 평균 3.15, 여가유능감 평균 2.84, 여가만족 평균 3.06, 여가몰입 평균 3.03), 개척정신 평균은 2.62(차별화태도 평균 2.55, 도전정신 평균 2.68)로 나타났다.

표 V-32 진로개발역량 항목 평균

구 분	2016 탈북 청소년			2014 조사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진로개발역량	207	2.92	0.40	2.86
진로설계	207	3.11	0.49	2.97
자기탐색	207	3.14	0.57	3.12
직업탐색	207	3.03	0.68	2.85
진로준비	207	3.13	0.58	3.02
직업가치관	207	3.15	0.54	2.90
여가활용	207	3.02	0.51	3.04
여가태도	207	3.15	0.50	3.35
여가유능감	207	2.84	0.66	2.66
여가만족	207	3.06	0.63	3.16
여가몰입	205	3.03	0.60	3.00
개척정신	207	2.62	0.51	2.58
차별화태도	207	2.55	0.55	2.79
도전정신	207	2.68	0.66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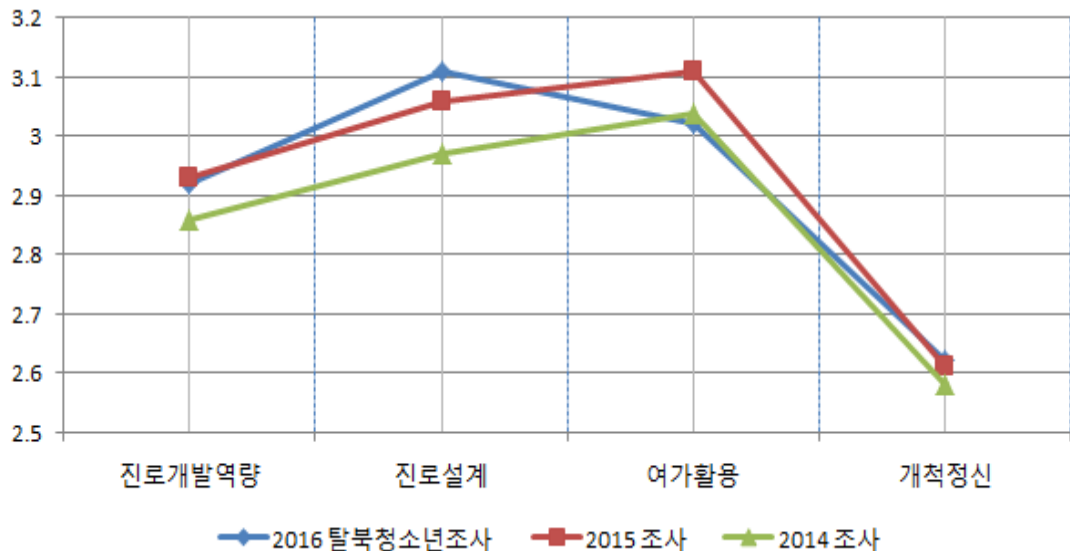
주) 2014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 설문문항에서 본 연구조사에서 측정된 역량 문항에 맞춰 분석한 결과를 명시함.

진로개발역량 하위역량인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을 비교해보면, 개척정신 평균이 낮았고, 진로설계에서 평균이 높았다. 각각의 하위역량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세부역량을 보면, 진로설계 내에서는 직업가치관이 가장 평균이 높고, 여가활용 내에서는 여가태도가 평균이 높았다. 개척정신 내에서는 도전정신 평균이 높았다(<표 V-32>).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 전체를 비교해봤을 때 가장 낮은 평균 1, 2순위는 차별화태도와 도전정신이다. 차별화태도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태도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았다. 북한과 탈북과정에서의 오랜 학습 공백 기간으로 인해 관련 정보가 부족함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북한에서 개별적 존재보다는 전체로서의 존재로서 강조된 삶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험이 없다는 점, 또한 탈북 청소년이 남한에서 청소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의 주위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다각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차별화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도전정신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평균이 낮았다. 탈북 청소년 설문 결과 의견조사에서 현재 탈북 청소년에 있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부터 도전으로 간주하며 진학과정에서부터 주변에 의해 좌절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점도 나타나고 있다(<표 V-32>).

가장 높은 평균 1, 2순위는 직업가치관과 여가태도이다. 직업가치관의 경우는 탈북 청소년이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직업에 대한 계획이나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는 것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가태도는 북한에서 여가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여가활동이 있다하더라도 노동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남한에서의 일과는 다른 부분으로서의 경험으로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탈북 청소년의 여가 만족, 몰입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현재 이질적인 남한 문화, 남한 친구와의 관계수립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상황적 고려가 필요하다(<표 V-32>).

【그림 V-5】는 진로개발역량과 하위역량에 관해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 결과와 2014년과 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를 비교하여 경향을 알아본 결과이다. 하위역량 3가지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에서 2014년, 2015년 남한 청소년은 여가활용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에서는 진로설계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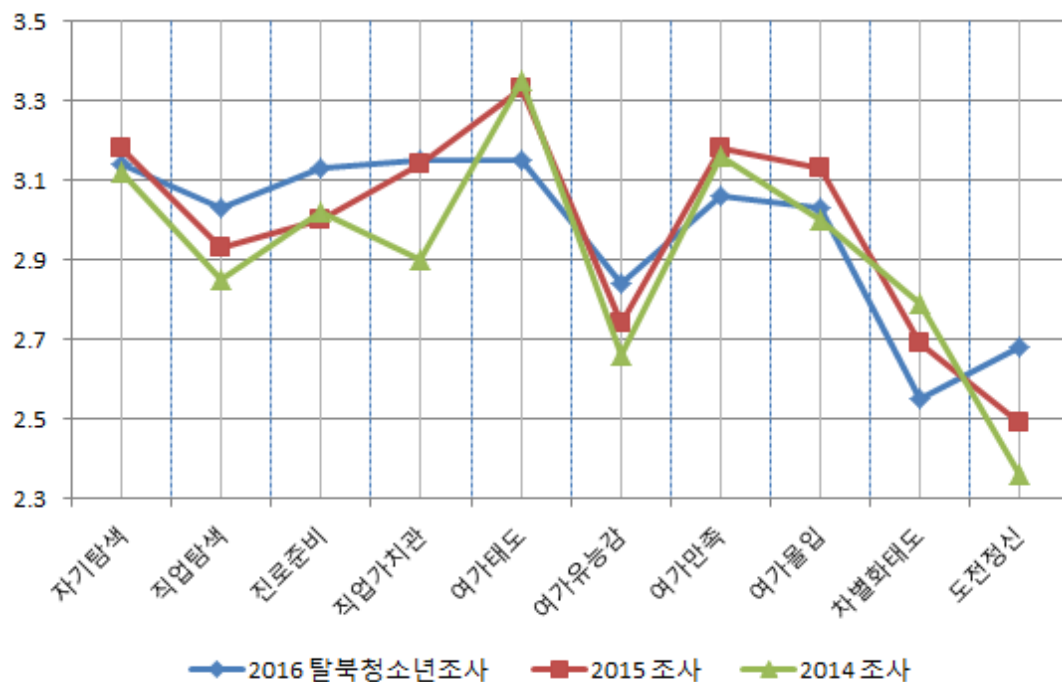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와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V-5】 진로개발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그림 V-6】은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에서는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와 2015년, 2014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비교해볼 때, 직업탐색과 진로준비, 여가유능감, 도전정신에서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에서는 직업가치관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조사되었으나, 남한 청소년에 비해서는 직업탐색과 진로준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직업을 갖고 생계를 스스로 꾸려가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단, 자기탐색, 직업가치관은 남한 청소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해 바로 적용가능한 것에 더 치중할 수 있을 있기에 이에 맞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가활용의 경우,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에서는 여가태도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남한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는 여가 유능감이 높았다. 여가 유능감이 주로 신체조건과 기술, 경쟁심과 관련된 내용적인 면이다. 북한청소년이 주로 몸을 하는 놀이로 운동경기 등과 관련된 활동이 많아(박성희, 1995: pp.139-140) 여가유능감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그림 V-6】).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V-6】 진로개발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개척정신에서는 차별화 태도와 도전정신은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과의 차이가 서로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차별화 태도에서는 탈북 청소년이 북한에서의 생활방식에 따라 개별화된 사고보다는 집단적 사고를 요구한다는 점, 즉 북한 청소년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자아이기보다 집단 속에서 획일화된 자아로 인식한다는 점(이온죽 외, 2010: p.206)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탈북대학생 의견에서는 북한, 탈북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도대체 뭘 말해야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안 하기도 하며, 남한 청소년이 자신의 표현한 내용에 대해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아 자신의 생각을 더욱 이야기하지 않는다고도 표현하였다. 도전정신은 탈북을 하게 된 마음가짐, 힘든 상황에서 이겨낸 경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그림 V-6】).

표 V-33 진로개발역량 관련 설문결과에 따른 의견

구분	내용
진로설계	실무자 G: 탈북 청소년의 경우 직업 세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직업의 다양성의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생각보다 자기 진로를 단순화, 명료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탈북대학생 A: 직접 가서 배우고 싶어요. 공부도 약간 좀 관심이 없다가 기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가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부모님의 일도 일용직이지 고급 오피스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가서 이 사람들은 바쁘게 하고 컴퓨터로 하고 그런 걸 보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탈북대학생 D: 진로 프로그램은 대안학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학교에서는 직접 탐색하는 게 없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대안학교는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직접 가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게 되어서.
	탈북대학생 F: 진로 탐색 진로 설계가 높은 이유는 북한은 직업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가진 직업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직업이 너무 많잖아요. 다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꿈이 되게 많았어요. 한 10개는 됐던 것 같아요.
여가활동	탈북대학생 A: (북한에서) 여가 할 시간이 있어요? 놀 시간 자체가 없었는데.
	탈북대학생 B: (북한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거든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쉬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중략) 여가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크게 말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아요.
	탈북대학생 D: 서울에 무료 박물관도 너무 많은 거예요. 몰라서 못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3~4명씩 같이 몰려다니면서 오늘은 축제를 한 대. 박물관에서 무료 전시회라고 하니까 가자하면 다 같이 가요. 박물관을 찾아가면서 길 헤맬 때도 있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즐거웠어요.
차별화 태도	탈북대학생 A: 맥락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창의성이 남한 친구들에 비해서 저희가 특화된 부분도 있잖아요. 향토적인 경험은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창의력이 있는 게 많은데, 또 한국의 문화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어렵죠.
	탈북대학생 D: 자존감이 없으니까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탈북대학생 E: 교양과목 팀플 하나 하고 있는데 주제 자체가 저한테 되게 낯선 거예요. ‘재벌’ 낯선데 의견을 내라고 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나요.
	탈북대학생 F: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면 한국 애가 말할 때랑 북한 친구가 할 때랑 반응이 달라요.
도전정신	탈북대학생 D: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준다거나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안되니까. 했다가 어려우면 중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나는 북한 사람이니까 못 배워서 못해. 단정 짓는 게 가끔 있더라고요.

구분	내용
	탈북대학생 B: 대안학교에는 고3 학생이 상담을 받아요. 대안학교 교육 수준을 낮으니까 좋은 학교 가면 중도 탈락할거야. 바로 전문대 가. 아니면 그냥 기술을 배워.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상처가 되잖아요. 주변 동생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서울에 있는 4년제 가서 금융 공부 하고 싶은데 쌤은 너는 미용 같은 거 잘할 것 같으니까 거길 가. 반 강제적으로 원서 내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표 V-34>는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중 진로설계와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교급에 따라 진로설계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진로설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표 V-34 진로설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18	0.55	1.404
	여자	127	3.07	0.45	
학교급	중학교	58	3.01	0.45	2.665**
	고등학교	72	3.07	0.55	
	대학교	12	3.12	0.48	
	대안학교 및 기타	65	3.25	0.44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08	0.52	-0.951
	중학교이상	89	3.15	0.46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08	0.51	0.745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17	0.45	
	2년 초과	42	3.16	0.50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14	0.44	0.093
	2년 초과 4년 이하	49	3.13	0.54	
	4년 초과	99	3.10	0.50	

* $p < 0.1$, ** $p < 0.05$, *** $p < 0.01$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진로설계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표 V-34>).

<표 V-35>는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중 여가활용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여가활용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여가활용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여가활용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소학교 졸업’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4년 초과’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35 여가활용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14	0.54	2.692***
	여자	127	2.95	0.47	
학교급	중학교	58	3.03	0.47	0.268
	고등학교	72	3.05	0.56	
	대학교	12	2.92	0.48	
	대안학교 및 기타	65	3.00	0.48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04	0.52	0.640
	중학교이상	89	3.00	0.48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2.99	0.50	0.731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08	0.45	
	2년 초과	42	3.06	0.52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2.93	0.46	2.074
	2년 초과 4년 이하	49	3.01	0.52	
	4년 초과	99	3.10	0.49	

* $p < 0.1$, ** $p < 0.05$, *** $p < 0.01$

<표 V-36>은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중 개척정신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개척정신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개척정신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개척정신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중학교'와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소학교 졸업'이 조금 높았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이하'와 '2년 초과 4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36 개척정신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2.73	0.56	2.470**
	여자	127	2.55	0.46	
학교급	중학교	58	2.66	0.62	0.866
	고등학교	72	2.57	0.47	
	대학교	12	2.46	0.37	
	대안학교 및 기타	65	2.66	0.46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2.63	0.55	0.310
	중학교이상	89	2.60	0.46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2.63	0.54	0.021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2.64	0.44	
	2년 초과	42	2.62	0.52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2.63	0.44	0.004
	2년 초과 4년 이하	49	2.63	0.51	
	4년 초과	99	2.62	0.54	

* $p < 0.1$, ** $p < 0.05$, *** $p < 0.01$

<표 V-34>에서 <표 V-36>까지 진로개발역량과 관련한 결과를 배경적 요소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성별은 남자, 학교급에서는 어떤 교급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교육년수에서는 '소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높은 편이었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와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이하', '2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으로 제3국 체류기간이 비교적 낮은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모든 거주기간에서 고른 평균을 보이고 있다.

<표 V-37>은 대인관계역량과 관련한 항목에 관한 결과로서,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02이며,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평균은 3.15(자기개방성 평균 3.15, 친화성 평균 3.04, 의사소통 평균 3.14, 공감 및 배려 평균 3.28), 리더십 평균은 2.90(의사결정 평균 2.99, 집단활동관리 평균 2.75, 추진력 평균 2.97), 협동 평균은 3.00(집단촉진 평균 3.09, 팔로워십 평균 3.09, 갈등문제해결 평균 3.01)로 나타났다.

표 V-37 대인관계역량 항목 평균

구 분	2016 탈북 청소년			2014 조사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대인관계역량	207	3.02	0.42	3.01
관계형성	207	3.15	0.47	3.06
자기개방성	207	3.15	0.63	3.13
친화성	207	3.04	0.62	2.87
의사소통	207	3.14	0.55	3.08
공감 및 배려	207	3.28	0.47	3.14
리더십	207	2.90	0.48	2.92
의사결정	207	2.99	0.49	3.03
집단활동관리	207	2.75	0.58	2.84
추진력	207	2.97	0.56	2.88
협동	207	3.00	0.49	3.06
집단촉진	207	3.09	0.55	2.99
팔로워십	207	2.90	0.58	3.15
갈등문제해결	207	3.01	0.56	3.04

주) 2014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 설문문항에서 본 연구조사에서 측정한 역량 문항에 맞춰 분석한 결과를 명시함.

대인관계역량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을 비교해보면, 리더십 평균이 낮았고, 관계형성에서 평균이 높았다. 각각의 하위역량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세부역량을 보면, 관계형성 내에서는 공감 및 배려가 가장 평균이 높고, 리더십 내에서는 의사결정 평균이 높았다. 협동 내에서는 집단축진 평균이 높았다(<표 V-37>).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 전체를 평균 비교해봤을 때 가장 낮은 1, 2순위는 집단활동관리와 팔로워십이었다. 집단활동관리는 집단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구성원들간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량(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b: p.82 재인용)과 팔로워십은 리더의 파트너이자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김희봉, 송영수,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b: p.82 재인용)에 관한 사항이다(<표 V-37>).

집단활동관리와 팔로워십은 집단에서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찾고 구성원들간에 서로 함께 하는 활동 등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북한 청소년은 서로간 대인관계는 상하관계와 전통적 권위주의를 어릴 적부터 경험했다는 점(이용을, 2015: p.113)에서 남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집단활동은 구성원 모두가 집단 전체에 헌신하고 복종, 희생을 강조하며 북한에서 개별적 존재보다는 전체를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적 욕구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온죽 외, 2010: pp.207~208) 등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표 V-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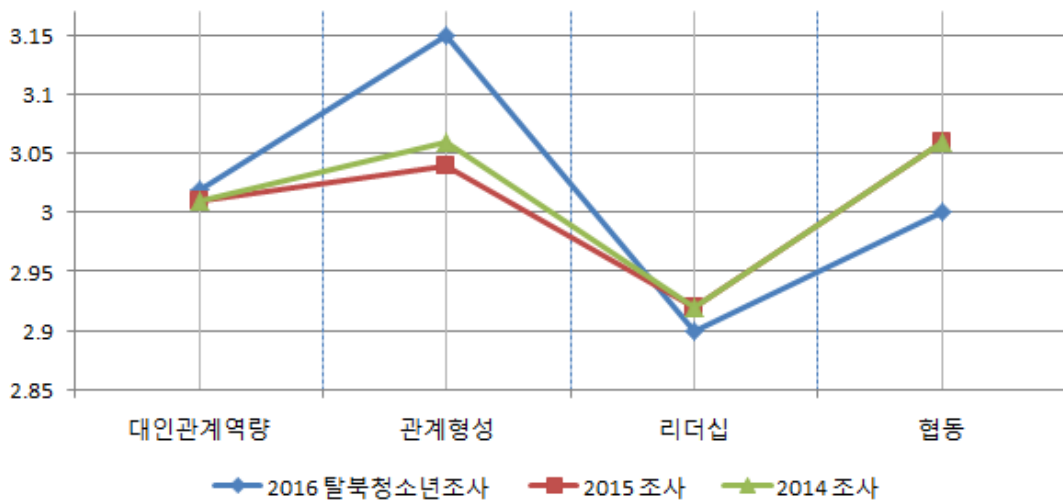
가장 높은 평균 1, 2순위는 공감 및 배려와 자기개방성이었다. 공감 및 배려는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Freshbach & Freshbach, 1982; 장정주,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b: p.81. 재인용)이며, 자기개방성은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성향(김기현 외,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b: p.81. 재인용)과 관련된 사항이다(<표 V-37>).

공감 및 배려와 관련해서는 북한 사회 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비해 경쟁이나 개인이 잘 되는 것보다는 공동체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60~1970년대 문화적 상황과 비슷한데 탈북 청소년은 30~4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경험(조정아 외, 2014: p.61)을 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일순간 변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 개인주의적인 삶에 익숙하기 보다는 인정(人情), 공동체적 삶 등이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익숙할 수 있다는 있다. 또한, 탈북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현재 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더 가지게 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표

V -37>).

자기개방성의 경우, 탈북 청소년 설문결과에서는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 의견조사에서는 탈북 청소년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많이 힘들어 하며,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에 대한 이중적인 자기 표현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설문문항에서 친한 친구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표현이 주변에 있는 북한 친구를 생각하며 응답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한다(<표 V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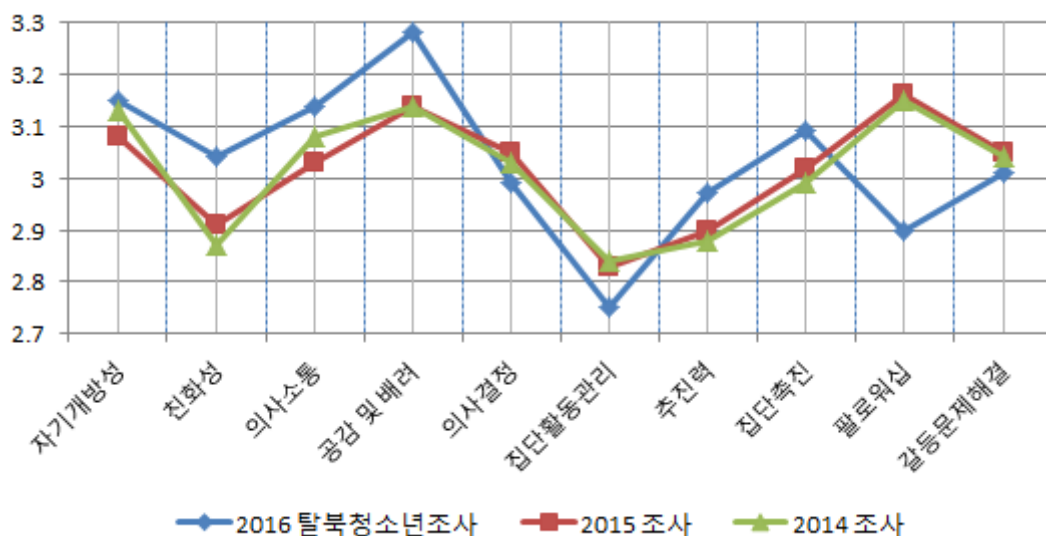
【그림 V -7】은 대인관계역량과 하위역량에 관해 2016년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결과와 2014년과 2015년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교하여 경향을 알아본 결과이다. 하위역량 3가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서 2014년, 2015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탈북 청소년은 관계형성에서 남한 청소년에 비해 높았지만 리더십이나 협동에서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서 비해 낮은 경향을 볼 수 있다.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V -7】 대인관계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그림 V-8】은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에서는 2016 탈북 청소년 조사와 2015년, 2014년 남한 청소년 대상 조사와 경향을 비교해볼 때,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추진력, 집단축진에서 남한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에서는 공감 및 배려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관계형성과 관련된 하위역량에서 남한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친화성, 의사소통도 또한 공감 및 배려와 더불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친화성과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청소년은 대부분 친구들과 즐기는 집단적 형태의 놀이 등이 많아 친구들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성이 높다는 것(이온죽 외, 2010: p.218)과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친화성이나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가 모두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 의견에서도 탈북 청소년이 친밀하거나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대상이 북한인지, 남한인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기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V-8】대인관계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또한 추진력과 집단축진 세부역량에서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추진력 관련 문항 중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진행한다’와 집단축진 관련 문항 중 ‘나는 집단 활동을 할 때, 친구의 좋은 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말해준다’ 문항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 점은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의 상황이나 감정 상태를 살피면서 자신의 행동을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일 수 있다(【그림 V-8】).

그리고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서는 낮은 경향을 보이는 항목은 집단활동관리와 팔로워십으로 조사되었는데 집단활동관리 관련 문항 중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간다’와 팔로워십 관련 문항 중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뽐낸다(발휘한다)’ 문항에서 유독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런 모습은 앞에서 언급한 북한 사회가 집단과 조직에 헌신, 복종, 희생 등을 요구받는다고나 개별적인 존재로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온숙 외, 2010: pp.207~208) 등이 탈북 청소년의 모습에 반영된 것일 수 있다(【그림 V-8】).

표 V-38 대인관계역량 관련 설문결과에 따른 의견

구분	내용
관계형성	실무자 A: 탈북 학생들은 남한의 50대 이상의 분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북한의 생활환경을 보면 남한의 60~70년대랑 비슷해요. 그 가치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관계형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살아온 환경이 남한의 60~70년대 문화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고 그 속에 인간관계를 맺어 왔단 말이죠.
	실무자 A: 사회주의 체제 전혀 다른 체제로 오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원 12주, 하나재단 하나센터 가서 4~5주 정도. 공식적으로 국가가 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학교도 사실은 아이들 사회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은 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실무자 B: 북한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했을 때 대안학교나 다른 탈북학생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북한 친구가 대부분이고 친구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탈북대학생 A: 대안학교에서 일반학교와 같이 체험을 해요. 형식적으로. 자기 짝공을 정해 줘요. 만약 나랑 애랑 친하게 지내려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한번 두 번 하고 끝내버리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지만 연락을 안 해요. 1년에 5~6번 정해놓고 하면 모르는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하고.
	탈북대학생 D: 저는 멘토랑 멘티가 만나서 같이 좀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분	내용
자기 개방성	실무자 A: 주체인 아이의 상대가 같은 탈북 학생이나 일반 학생이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이 결과는 같은 탈북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 C: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남한 친구가 아닐 수 있다. 애네들만 공부하는 데서 아이들이 설문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 되지 않을까. 남한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실무자 G: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이 소속 일반학교에서 본인의 출신 성분을 숨기고 생활합니다.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탈북대학생 B: 주변에 보면 학교 가서 왕따 돼서 상처받는 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선이 좀 큰 것 같아요. 본인이 성숙하면 괜찮은데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탈북대학생 C: 저희 같은 청소년들이 오면 북한에서 태어난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당당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 보면 공부보다 필요한 게 친구인데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는 순간에 내 옆에 있을 친구들이 있나?
의사소통	실무자 F: 탈북 청소년이 1대1의 관계에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잘 하지만, 집단에서 함께 일할 때에는 문제 해결이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 같다.
공감 및 배려	탈북대학생 B: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어쩌면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략) 공감 능력은 북한에서 집단생활을 많이 해서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야자 끝나고 각자 알아서 학원 가는데... (중략) 북에서는 대부분 수업 끝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놀거나 공동생활을 많이 해요.
리더십	탈북대학생 B: (남한에서는) 발표도 많이 시키고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하는 걸 많이 시키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연습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키면 뻔뻔하고 창피하고 그러다보니까 스스로 움츠리는 경향이 있어요.
협동	실무자 A: 탈북 과정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남의 물건을 훔쳐야 되고. 아마 그런 것들이 몸에 좀 베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표 V-39>는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중 관계형성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관계형성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관계형성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이 조금 높았다. 제3국 체류기간은 '2년 초과'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초과 4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39 관계형성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14	0.54	-0.280
	여자	127	3.16	0.42	
학교급	중학교	58	3.17	0.45	0.298
	고등학교	72	3.12	0.52	
	대학교	12	3.12	0.47	
	대안학교 및 기타	65	3.19	0.42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14	0.50	-0.533
	중학교이상	89	3.17	0.42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15	0.45	0.109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18	0.46	
	2년 초과	42	3.19	0.44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08	0.42	1.511
	2년 초과 4년 이하	49	3.22	0.46	
	4년 초과	99	3.18	0.46	

<표 V-40>은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중 리더십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교급에 따라 리더십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리더십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리더십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이 높았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4년 초과'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40 리더십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2.94	0.49	0.945
	여자	127	2.88	0.47	
학교급	중학교	58	2.86	0.51	2.745**
	고등학교	72	2.81	0.52	
	대학교	12	2.90	0.36	
	대안학교 및 기타	65	3.04	0.38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2.87	0.49	-0.992
	중학교이상	89	2.94	0.45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2.94	0.42	1.095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2.94	0.52	
	2년 초과	42	2.83	0.44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2.91	0.43	0.096
	2년 초과 4년 이하	49	2.89	0.48	
	4년 초과	99	2.93	0.47	

* $p < 0.1$, ** $p < 0.05$, *** $p < 0.01$

<표 V-41>은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중 협동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협동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협동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이 높았다. 제3국 체류기간은 '2년 초과'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초과 4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41 협동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04	0.56	1.009
	여자	127	2.97	0.43	
학교급	중학교	58	2.97	0.48	0.690
	고등학교	72	2.97	0.56	
	대학교	12	2.96	0.51	
	대안학교 및 기타	65	3.07	0.40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2.96	0.50	-1.424
	중학교이상	89	3.06	0.46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00	0.45	0.347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2.99	0.47	
	2년 초과	42	3.06	0.51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2.97	0.44	0.333
	2년 초과 4년 이하	49	3.05	0.49	
	4년 초과	99	3.02	0.48	

<표 V-39>에서 <표 V-41>까지 대인관계역량과 관련한 결과를 배경적 요소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성별은 ‘남자’, 학교급은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 (북한)교육년수에서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높은 편이었다. 제3국 체류기간은 ‘2년 초과’ 기간에서의 높았고, 한국 거주기간은 모든 거주기간에서 고르게 평균이 나타나고 있다.

<표 V-42>는 사회참여역량과 관련한 항목에 관한 결과로서, 사회참여역량 평균은 2.93이며, 하위역량인 개인시민성 평균은 2.89(권리책임의식 평균 3.46,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 2.68, 정치관심 평균 2.99,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 2.44), 공동체시민성 평균은 3.18(투표참여 평균 3.21,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 3.43, 저항의식 평균 2.57, 신뢰 평균 2.51, 교실개방성 평균 2.74), 세계시민성 평균은 2.82(성인지 평균 2.25,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 3.08, 국가 및 역사의식 평균 3.00, 국제관계 관심 평균 2.69,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 3.07)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 하위역량인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을 비교해보면, 세계시민성 평균이 낮았고, 공동체시민성 평균이 높았다. 각각의 하위역량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세부역량을 보면, 개인시민성 내에서는 권리책임의식이 가장 평균이 높고, 공동체시민성 내에서는 시민활동

의 중요성 평균이 높았다. 시계시민성 내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이 높았다.

표 V-42 사회참여역량 항목 평균

구 분	2016 탈북 청소년			2014 조사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사회참여역량	207	2.93	0.34	2.75
개인시민성	207	2.89	0.41	2.74
권리책임의식	207	3.46	0.47	3.39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07	2.68	0.87	2.37
정치관심	207	2.99	0.60	2.75
정치적 자아효능감	207	2.44	0.60	2.43
공동체시민성	207	3.18	0.56	2.82
투표참여	207	3.21	0.75	3.32
시민활동의 중요성	207	3.43	0.50	3.24
저항의식	207	2.57	0.73	2.76
신뢰	207	2.51	0.64	2.23
교실개방성	207	2.74	0.62	2.53
세계시민성	207	2.82	0.36	2.70
성인지	207	2.25	0.81	2.23
이민자에 대한 태도	207	3.08	0.59	2.95
국가 및 역사 의식	207	3.00	0.50	2.90
국제관계 관심	207	2.69	0.72	2.58
글로벌 의사소통	207	3.07	0.66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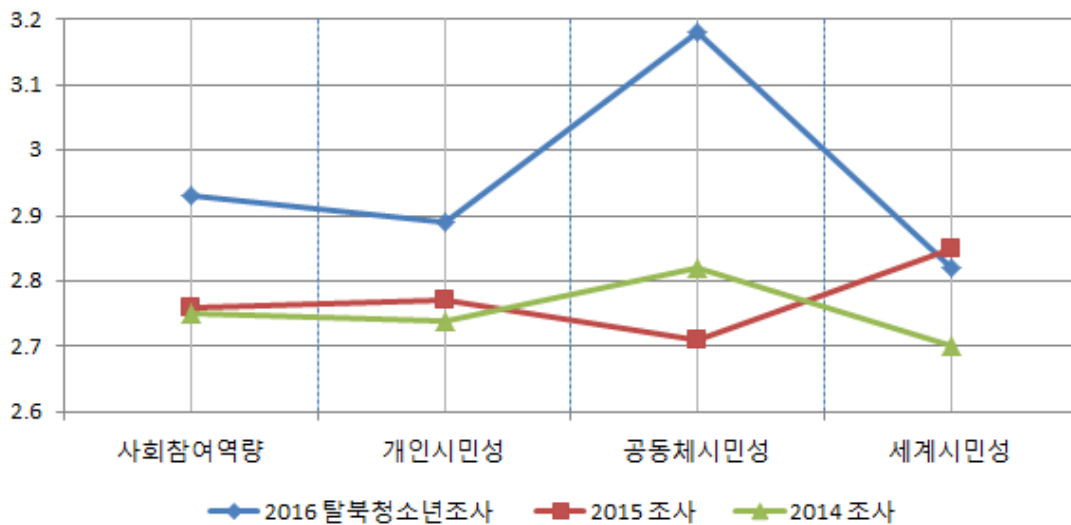
주) 2014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 설문문항에서 본 연구조사에서 측정한 역량 문항에 맞춰 분석한 결과를 명시함.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 전체를 평균 비교했을 때 낮은 순으로는 성인지와 정치적 자아효능감이 1, 2순위로 나타났다. 성인지에서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북한에서 성역할은 사회제도 등에서는 성에 관해 평등적인 가치관을 표명하지만 성별에 따라 바람직한 성격과 행동, 몸가짐 태도와 개인의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보인다는 점(정진경, 2002: p.173)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자아효능감은 정치에 대한 관심, 토론, 생각, 참여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탈북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제대로 표현해보지 않았던 경험이 설문결과에 나타났다(<표 V-42>).

세부역량 전체를 평균 비교했을 때 높은 순으로는 권리책임의식과 시민활동의 중요성이 1, 2순위이었다. 권리책임의식과 시민활동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및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활동 등에 동참하여 남한 사회에 좀 더 빠르게 익숙하고자 하는 모습일 수도 있으며, 남한에 입국하면서 민주주의 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된 학습 효과로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표 V-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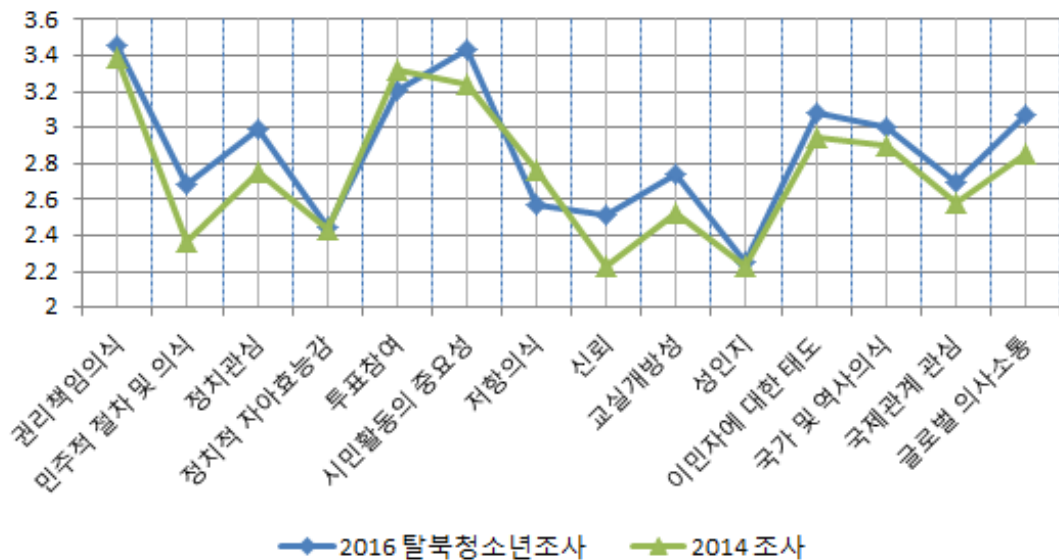
【그림 V-9】는 사회참여역량과 하위역량에 관해 2016년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결과와 2014년과 2015년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교하여 경향을 알아본 결과이다. 2014년, 2015년 남한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는 하위역량 3가지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에서 큰 폭에 차이는 없는 형태를 보인 반면, 2016년 탈북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는 공동체시민성에서 유독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와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V-9】 사회참여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그림 V-10】은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에서는 2016 탈북 청소년 조사와 2014년 남한 청소년 대상 조사와 경향을 비교해볼 때,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에서 가장 낮았던 1, 2순위의 정치적 자아효능감과 성인지와 관련해서 2014년 남한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1,2순위로 성인지와 정치적 자아효능감이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과 2014년을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사회참여역량 하위역량 중 세부역량 중 투표참여와 저항의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이유는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 의견에 따르면,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이며, 입국 시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2016년,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V-10】 사회참여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표 V-43 사회참여역량 관련 설문결과에 따른 의견

내용
<p>실무자 A: (사회참여역량이 높은 이유는) 탈북 청소년 교육 기관에 있는 아이들한테 조사 했냐 아니면 밖에 물었던 이유가 100% 대안학교든 공교육이든 교육 기관에 있는 학생들한테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애들이 세세한 부분의 적응력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실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현 상황이고.</p>
<p>실무자 A: 애들이 봉사 활동도 많이 해요. 학교에서는 많이 해요. 학교에서는 주말에 쉬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가자 그러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데 나가면 거의 손을 땁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속에서 조직의 도움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충성을 해요. 그런데 나가서는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거예요. (반대의견) 대안학교 체험활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1-2년 몸에 베어 있으면 당연히 사회 참여라든지 시민성이 올라가겠죠.</p>
<p>실무자 B: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할 때 일반 분이 통계청에서 사회조사 할 때 준법정신, 시민정신 문항이 있어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p>
<p>실무자 C: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현실로도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p>
<p>실무자 D: 교육은 그렇게 받은거죠. 생활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설문 조사를 하면 교육 받은 대로 체크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실질적 생활에서는 전혀. 중국을 거쳐 오면서 북한에서도 그렇고 전혀 그렇게 행동을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생활 습관에서는 나오는 형태가 아닌가.</p>
<p>실무자 F: 탈북 청소년들이 사회참여역량에 포함된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청소년들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이들이 한국 청소년들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지 않고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며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p>
<p>실무자 H: 설문조사 전체 중 제게는 가장 의외의 결과입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성역할 가치관에 관한 연구(충북대 정진경 교수 연구) 등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성인지 관점이 남한 주민의 평균에 비해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옵니다. 저 역시 경험적 근거가 그러하고요</p>

<표 V-44>는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중 개인시민성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교급에 따라 개인시민성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개인시민성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개인시민성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이 높았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초과 4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44 개인시민성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2.93	0.41	0.977
	여자	127	2.87	0.40	
학교급	중학교	58	2.79	0.37	6.930***
	고등학교	72	2.82	0.39	
	대학교	12	2.87	0.42	
	대안학교 및 기타	65	3.07	0.40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2.88	0.39	-0.565
	중학교이상	89	2.91	0.44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2.84	0.37	2.333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2.99	0.44	
	2년 초과	42	2.89	0.41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2.84	0.38	0.715
	2년 초과 4년 이하	49	2.93	0.43	
	4년 초과	99	2.90	0.41	

* $p < 0.1$, ** $p < 0.05$, *** $p < 0.01$

<표 V-45>는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중 공동체시민성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공동체시민성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공동체시민성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2년 초과’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4년 초과’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45 공동체시민성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25	0.58	1.454
	여자	127	3.13	0.54	
학교급	중학교	58	3.22	0.50	1.174
	고등학교	72	3.09	0.62	
	대학교	12	3.08	0.59	
	대안학교 및 기타	65	3.25	0.54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16	0.55	-0.439
	중학교이상	89	3.20	0.58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15	0.52	0.313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19	0.65	
	2년 초과	42	3.23	0.51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16	0.54	0.111
	2년 초과 4년 이하	49	3.19	0.60	
	4년 초과	99	3.20	0.55	

* $p < 0.1$, ** $p < 0.05$, *** $p < 0.01$

<표 V-46>은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중 세계시민성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 학교급에 따라 세계시민성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세계시민성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세계시민성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이 다소 높았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46 세계시민성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2.93	0.42	3.165***
	여자	127	2.75	0.31	
학교급	중학교	58	2.75	0.33	2.707**
	고등학교	72	2.81	0.38	
	대학교	12	2.72	0.21	
	대안학교 및 기타	65	2.92	0.38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2.80	0.35	-1.082
	중학교이상	89	2.85	0.38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2.84	0.38	0.331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2.80	0.36	
	2년 초과	42	2.80	0.35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2.86	0.39	0.834
	2년 초과 4년 이하	49	2.84	0.38	
	4년 초과	99	2.78	0.35	

* $p < 0.1$, ** $p < 0.05$, *** $p < 0.01$

<표 V-44>와 <표 V-46>까지 사회참여역량과 관련한 결과를 배경적 요소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성별은 '남자', 학교급은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 (북한)교육년수에서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높은 편이었다. 제3국 체류기간은 모든 체류기간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초과'이상인 거주기간에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 V-47>은 전문가의견 조사를 통해 제시된 기타 역량과 관련한 항목에 관한 결과로서, 자아정체감 평균 3.47, 자아탄력성 평균 3.18, 자아효능감 평균 3.18, 자기표현력 2.97, 가족원 문제해결능력 평균 3.94, 또래애착 평균 3.18, 장유성 평균 3.94, 준법성 평균 4.10, 지역사회유대감 평균 2.58, 국가정체의식 평균 3.73으로 나타났다.

기타 역량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1, 2순위는 준법성과 장유성(어른에 대한 공경)이다. 준법성은 북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규율이 매우 엄격하고 조직적이어서 반드시 규칙을 지키면서 생활해야만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생활총화 시간 등을 통해 공개적 비판(박성희, 1995: pp.57~63.)

을 받기도 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장유성, 즉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면에서는 탈북 청소년은 북한사회에서의 기준으로 남한 청소년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어른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선생님에 대한 공경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조정아 외, 2014: p.114), 북한 사회가 가부장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부모·자식 관계에서 ‘효’가 가장 우선시 한다는 점(이온죽 외, 201: p.215)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표 V-47 전문가의견 조사를 통해 제시된 기타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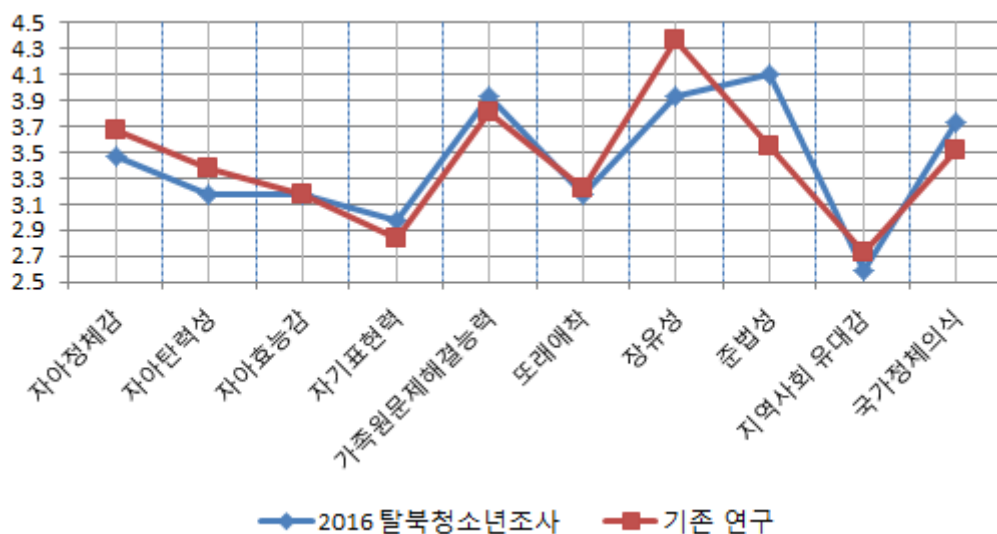
구 분	2016 탈북 청소년			기존 연구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자아정체감	207	3.47	0.76	3.67
자아탄력성	207	3.18	0.45	3.37
자아효능감	207	3.18	0.61	3.17
자기표현력	207	2.97	0.45	2.84
가족원 문제해결능력	207	3.94	0.81	3.81 ¹⁾
또래애착	207	3.18	0.56	3.22
장유성(어른에 대한 공경)	207	3.94	0.81	4.36
준법성	207	4.10	0.65	3.54
지역사회 유대감	207	2.58	0.76	2.72
국가정체의식	207	3.73	0.77	3.52

주 1) 어은주, 유명주(1997)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 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pp.269~286.

가장 낮은 평균 1, 2순위는 지역사회 유대감과 자기표현력으로, 지역사회 유대감은 남한 사회에 북한이탈주민, 탈북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지 못함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탈북 청소년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분포가 높다는 점(78.3%) 또한 지역사회유대감이 낮게 나온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표현력에서도 탈북 청소년의 생각과 행동을 마음껏 표현하는 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기에 낮은 경향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V-47>).

【그림 V-11】은 전문가의견 조사를 통해 제시된 기타 역량에서는 2016 탈북 청소년 조사와 기존 연구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과 경향을 비교해볼 때, 매우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에서 가장 낮았던 1, 2순위의 정치적 자아효능감과 성인지와 관련해서 기존 남한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1, 2순위로 성인지와 정치적 자아효능감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6년 조사와 기존 연구 조사를 비교해보면 탈북 청소년이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지역사회유대감에서 근소하지만 낮은 형태이며, 반면, 자기표현력, 가족원 문제해결능력, 준법성, 국가정체의식은 조금 높다.

준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 청소년들은 북한이 사회, 집단주의 체계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사회생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에서 벗어난다는 면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점(이은죽 외, 2010: p.229) 등이 탈북 청소년에게서 나타난 양상일 수 있을 것이다.



※ 2016년 조사결과와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V-11】 2016년과 기존 연구와의 경향 비교

구분	내용
자아정체감	실무자 G: 탈북 청소년 대부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정든 고향인 북조선을 멀리하고 부정해야 남한 사회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기회주의적 이중성이 강화됩니다. 북한을 인정하고 공존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실무자 H: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이 낮게 나온 점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시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환영받는 탈북 청소년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따라 언제든 의심받을 수 있는 탈북자이고, 부적응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을 온전히 밝히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로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고 봅니다.
	실무자 I: 북한과 중국에서 성장과정을 경험한 정서와 의식의 청소년 문화의 특성을 가진 탈북 청소년이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해 나가며 정착해 나가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다
자기표현력	실무자 A: 저희가 통일 교육 가보면 한 200명, 300명 되는 일반학교 애들 앉혀놓고 통일 교육을 하거든요? 떨림이 없어요. 애들이 자기 할 말 다 하거든요. 자기 의사 표현능력이라든지 남 앞에 나서려는 욕구. 꽤 있다고 봅니다.
	실무자 D: 일반 애들이랑 섞여 있을 때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아이들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기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일반 아이들하고 같은 커뮤니티 안에 있을 때의 표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표 V-49>는 자아정체감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교급, (북한)교육년수에 따라 자아정체감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자아정체감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자아정체감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았고 학교급에서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49 자아정체감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47	0.75	-0.016
	여자	127	3.47	0.78	
학교급	중학교	58	3.25	0.82	4.650***
	고등학교	72	3.39	0.74	
	대학교	12	3.80	0.58	
	대안학교 및 기타	65	3.69	0.70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36	0.74	-2.284**
	중학교이상	89	3.61	0.77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50	0.78	0.277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49	0.77	
	2년 초과	42	3.40	0.78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64	0.63	1.630
	2년 초과 4년 이하	49	3.39	0.89	
	4년 초과	99	3.44	0.77	

* $p < 0.1$, ** $p < 0.05$, *** $p < 0.01$

<표 V-50>은 자아탄력성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자아탄력성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세계시민성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50 자아탄력성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24	0.51	1.250
	여자	127	3.15	0.42	
학교급	중학교	58	3.12	0.42	1.197
	고등학교	72	3.18	0.50	
	대학교	12	3.10	0.35	
	대안학교 및 기타	65	3.26	0.45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17	0.46	-0.506
	중학교이상	89	3.20	0.45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16	0.46	0.786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25	0.45	
	2년 초과	42	3.15	0.46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20	0.50	0.030
	2년 초과 4년 이하	49	3.18	0.47	
	4년 초과	99	3.19	0.43	

* $p < 0.1$, ** $p < 0.05$, *** $p < 0.01$

<표 V-51>은 자아효능감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과 (북한)교육년수에 따라 자아효능감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급,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 별 자아효능감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자아효능감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4년 초과'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51 자아효능감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30	0.62	2.325**
	여자	127	3.10	0.59	
학교급	중학교	58	3.03	0.64	1.727
	고등학교	72	3.19	0.60	
	대학교	12	3.17	0.56	
	대안학교 및 기타	65	3.28	0.60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11	0.65	-1.779*
	중학교이상	89	3.26	0.55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16	0.61	0.884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26	0.56	
	2년 초과	42	3.10	0.69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17	0.55	0.081
	2년 초과 4년 이하	49	3.15	0.63	
	4년 초과	99	3.19	0.64	

* $p < 0.1$, ** $p < 0.05$, *** $p < 0.01$

<표 V-52>는 자기표현력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자기표현력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자기표현력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4년 초과’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52 자기표현력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2.98	0.50	0.303
	여자	127	2.96	0.41	
학교급	중학교	58	2.91	0.39	1.333
	고등학교	72	2.95	0.45	
	대학교	12	2.85	0.41	
	대안학교 및 기타	65	3.05	0.49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2.96	0.44	-0.405
	중학교이상	89	2.98	0.46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2.95	0.46	0.064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2.98	0.45	
	2년 초과	42	2.98	0.44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2.94	0.45	0.392
	2년 초과 4년 이하	49	2.95	0.48	
	4년 초과	99	3.00	0.43	

* $p < 0.1$, ** $p < 0.05$, *** $p < 0.01$

<표 V-53>은 가족원 문제해결능력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북한)교육년수에 따라 가족원 문제해결능력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학교급,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가족원 문제해결능력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가족원 문제해결능력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초과 4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53 가족원 문제해결능력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4.02	0.86	1.210
	여자	127	3.88	0.77	
학교급	중학교	58	3.91	0.74	0.191
	고등학교	72	3.97	0.85	
	대학교	12	3.79	0.72	
	대안학교 및 기타	65	3.96	0.85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85	0.89	-1.842*
	중학교이상	89	4.06	0.67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96	0.75	0.213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95	0.82	
	2년 초과	42	3.86	0.96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96	0.64	0.876
	2년 초과 4년 이하	49	4.06	0.72	
	4년 초과	99	3.88	0.92	

* $p < 0.1$, ** $p < 0.05$, *** $p < 0.01$

<표 V-54>는 또래애착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또래애착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또래애착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2년 초과’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4년 초과’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54 포래앳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25	0.58	1.454
	여자	127	3.13	0.54	
학교급	중학교	58	3.22	0.50	1.174
	고등학교	72	3.09	0.62	
	대학교	12	3.08	0.59	
	대안학교 및 기타	65	3.25	0.54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16	0.55	-0.439
	중학교이상	89	3.20	0.58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15	0.52	0.313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19	0.65	
	2년 초과	42	3.23	0.51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16	0.54	0.111
	2년 초과 4년 이하	49	3.19	0.60	
	4년 초과	99	3.20	0.55	

* $p < 0.1$, ** $p < 0.05$, *** $p < 0.01$

<표 V-55>는 장유성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북한)교육년수에 따라 장유성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학교급,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장유성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장유성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초과 4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55 장유성(어른에 대한 공경)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4.02	0.86	1.210
	여자	127	3.88	0.77	
학교급	중학교	58	3.91	0.74	0.191
	고등학교	72	3.97	0.85	
	대학교	12	3.79	0.72	
	대안학교 및 기타	65	3.96	0.85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85	0.89	-1.842*
	중학교이상	89	4.06	0.67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96	0.75	0.213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95	0.82	
	2년 초과	42	3.86	0.96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96	0.64	0.876
	2년 초과 4년 이하	49	4.06	0.72	
	4년 초과	99	3.88	0.92	

* $p < 0.1$, ** $p < 0.05$, *** $p < 0.01$

<표 V-56>은 준법성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북한)교육년수에 따라 준법성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학교급, 제3국 체류기간, 한국거주기간별 준법성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준법성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초과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초과 4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56 준법성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4.13	0.67	0.659
	여자	127	4.07	0.64	
학교급	중학교	58	4.05	0.65	1.682
	고등학교	72	4.05	0.66	
	대학교	12	3.88	0.74	
	대안학교 및 기타	65	4.23	0.62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4.03	0.68	-1.760*
	중학교이상	89	4.19	0.61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4.08	0.70	0.140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4.14	0.50	
	2년 초과	42	4.10	0.69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4.08	0.62	0.717
	2년 초과 4년 이하	49	4.19	0.65	
	4년 초과	99	4.06	0.66	

* $p < 0.1$, ** $p < 0.05$, *** $p < 0.01$

<표 V-57>은 지역사회 유대감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지역사회 유대감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별 지역사회 유대감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지역사회 유대감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소학교 졸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57 지역사회 유대감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2.68	0.84	1.644
	여자	127	2.51	0.69	
학교급	중학교	58	2.66	0.74	1.009
	고등학교	72	2.61	0.77	
	대학교	12	2.31	0.56	
	대안학교 및 기타	65	2.50	0.78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2.60	0.80	0.607
	중학교이상	89	2.54	0.69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2.64	0.78	1.048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2.46	0.68	
	2년 초과	42	2.58	0.82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2.83	0.71	4.029**
	2년 초과 4년 이하	49	2.45	0.77	
	4년 초과	99	2.52	0.75	

* $p < 0.1$, ** $p < 0.05$, *** $p < 0.01$

<표 V-58>은 국가정체 의식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배경적 요소(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국가정체 의식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 제3국 체류기간별 국가정체 의식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배경적 요소에 따라 국가정체 의식 평균을 비교하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교급에서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소학교 졸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의 경우가 다른 체류기간보다 높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이하’의 경우가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높았다.

표 V-58 국가정체 인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 t
성별	남자	80	3.83	0.87	1.405
	여자	127	3.66	0.69	
학교급	중학교	58	3.77	0.73	1.783
	고등학교	72	3.85	0.72	
	대학교	12	3.43	0.74	
	대안학교 및 기타	65	3.61	0.84	
(북한)교육년수 (평균 4년기준)	소학교졸업	118	3.76	0.80	0.689
	중학교이상	89	3.68	0.73	
제3국 체류기간	6개월 이하	95	3.80	0.77	0.991
	6개월 초과 2년 이하	57	3.62	0.82	
	2년 초과	42	3.74	0.72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53	3.99	0.63	4.700**
	2년 초과 4년 이하	49	3.71	0.67	
	4년 초과	99	3.59	0.86	

* $p < 0.1$, ** $p < 0.05$, *** $p < 0.01$

<표 V-49>에서 <표 V-58>까지 전문가의견 조사를 통해 제시된 기타 역량과 관련한 결과를 배경적 요소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성별은 ‘남자’, 학교급은 ‘대안학교 및 기타’에 재학 중인 경우, (북한)교육년수에서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높은 편이었다.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와 ‘6개월 초과 2년 이하’인 체류기간에서 높게 나타났고, 한국 거주기간은 ‘2년 이하’, ‘2년 초과 4년 이하’인 거주기간에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4. 요약 및 소결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지원체계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견조사와 탈북 청소년 실무자와 탈북대학생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1순위로 선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생활 초기 역량은 지적인 호기심, 위기대처관리, 도전정신, 의리, 규범을 준수하는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한 후 북한 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생활 방식, 교육, 정치, 사회제도 등을 접하면서 지적 호기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 생활에서 벗어나 제3국 또는 한국 생활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과 탈북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면서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적응하려는 자세로 위기대처관리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규범 또는 규칙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키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한생활 과정 중에 나타난 역량에는 변화수용력, 위기대처관리, 여가태도, 공감 및 배려, 권위에 대한 동경을 들 수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남한생활 과정에 나타난 역량으로 변화수용력을 꼽았다. 탈북 청소년이 북한에서 남한 사회로의 이동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변화일 수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 받아들이는 능력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위기대처관리에 관해서는 남한생활 초기에서부터 남한생활 과정까지 탈북 청소년 삶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감 및 배려에 관해 전문가들은 탈북 청소년에게서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과 처지와 상황이 비슷한 대상에 대해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표현을 다수가 하고 있었다. 여가태도의 경우에는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동경 또는 선망하며 순응하는 태도 또한,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었다.

탈북 청소년 실무자,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FGI 결과는 실무자의 의견을 대상유형의 변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원, 생활과정에서의 불안함, 위축, 정체성 혼란, 동기부여와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지원의 체계화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탈북대학생의 의견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남한 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탈북 청소년 설문 결과에 따라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과 기타 역량에 따라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생애학습역량 하위역량 중 지적도구활용능력, 사고력, 학습적응성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 중 가장 낮은 1, 2순위는 과학능력, 수학능력이며 가장 높은 1, 2순위는 지적호기심과 정보통신활용능력으로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들이 교육적 혜택을 못 받고 온 경우가 많아 과학, 수학 능력에 어려움이 있기에 학습지도에 학습교재 및 강의 방식에 있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갖는다면 높은 지적호기심을 점차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탈북 청소년의 높은 지적호기심을 정보통신활용능력, 즉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및 인터넷 사용자들간의 학습지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관리역량 하위역량 중 상황대처, 건강관리, 과제관리, 정서조절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 중 가장 낮은 1, 2순위는 조절실패와 신체관리이며 가장 높은 1, 2순위는 폭력행동과 위생관리로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이 정서조절영역에서 낮은 결과를 보이며, 특히 조절실패라는 요인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탈북 청소년 스스로는 자신의 감정 및 정서상에서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외부적 대상 또는 실체에게 표출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표적으로 삼는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탈북 청소년이 자기 자신에게 다양한 문제 및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인 표현방식으로 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 폭력행동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점에 관해서 이는 탈북 청소년들이 심정적으로 자신들이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거부감, 어른에 대한 공손함 등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에서는 청소년들간의 패거리 문화 등으로 대변되는 모습과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접근과 실제 행동적 접근에서의 차이를 줄이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중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 중 가장 낮은 1, 2순위는 차별화태도와 도전정신이며, 가장 높은 1, 2순위는 직업가치관과 여가태도이다. 탈북 청소년은 차별화태도와 관련하여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탈북 청소년의 학습적 공백, 북한에서의 집단생활, 남한의 편견과 차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탈북 청소년의 자신의 생각을 주변의 시선이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에게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 직업가치관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 조사에서는 다른

세부 역량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한 청소년과의 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자기탐색과 직업가치관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탈북 청소년이 직업을 갖는 태도 및 관점에서 자신의 적성과 직업이 갖는 의미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에 탈북 청소년 자신의 적성 및 태도 등이 동반된 진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인관계역량 하위역량 중 관계형성, 협동, 리더십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하위역량 내 세부역량 중 가장 낮은 1, 2순위는 집단활동관리와 팔로워십이며, 가장 높은 1, 2순위는 공감 및 배려와 자기개방성이다. 탈북 청소년은 집단활동관리, 팔로워십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북한에서 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향 등으로 인한 집단의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는 경향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집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남한 생활하는데 수동적인 행동보다는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적극적인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의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 공감 및 배려는 북한 사회와 남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격차에 기인한 요소로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의 60~70년대, 80년대의 생활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쟁, 결과가 중심이기보다 나눔과 과정이 좀더 주변 사람들과의 삶에서 우선시 되었던 점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

사회참여역량 하위역량인 공동체시민성, 개인시민성, 세계시민성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하위 역량 내 세부역량 중 가장 낮은 1, 2순위는 성인지와 정치적 자아효능감이며, 가장 높은 1, 2순위는 권리책임의식과 시민활동의 중요성이다. 탈북 청소년에 있어서 가장 낮았던 성인지와 정치적 자아효능감은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기인한 남녀의 차별적 모습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사회주의 집단체제 하에서의 정치의사 발언 등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임에 따라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정치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에게서 권리책임의식과 시민활동의 중요성에 관한 것인데, 이는 남한에서 북한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권리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과 북한에서의 유일한 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회에서 남한의 다양한 각개각층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남한 사회로 이동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기타 역량은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 자기표현력, 가족원 문제해결능력, 또래애착,

장유성, 준법성, 지역사회유대감, 국가정체의식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균 1, 2순위는 준법성과 장유성(어른에 대한 공경)이며, 가장 낮은 1, 2순위는 지역사회 유대감과 자기표현력이다.

기타 역량 중 가장 높은 준법성과 장유성은 앞서서도 논의되었지만 북한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회에서 집단 전체가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 규칙 등을 개개인이 어기는 행동은 매우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간주되며, 장유성은 유교적인 생활방식으로 효를 중요시 하는 전통이 남아있는 결과일 것이다. 반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 지역사회유대감과 자기표현력에서 특히 지역사회유대감은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북한 사람이라는 차별적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남한 국민들과의 접촉이 원활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고 탈북 청소년들이 기숙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을 가능성도 고려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낮은 자기표현력에 대해서는 대인관계역량 세부역량 중 자기개방성에서 높게 나온 결과와 서로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북 청소년의 역량에 관해 배경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 과제관리, 진로설계, 리더십, 개인시민성, 세계시민성, 자아정체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성별에 따라서는 건강관리, 상황대처, 여가활용, 개척정신, 세계시민성, 자아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북한)교육년수에 따라서는 과제관리, 정서조절,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가족원 문제해결능력, 장유성, 준법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한국 거주기간에서는 지역사회유대감과 국가정체의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경향을 보이는 대표적인 배경문항으로는 성별, 학교급, (북한)교육년수이다. 성별의 경우에는 여성이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관계형성, 자아정체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남자가 높은 역량을 보였다. 학교급의 경우에는 대체로 대안학교에 재학 중일 때 가장 높은 역량을 보였다.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북한 출신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선생님들의 보호 안에서 생활이나 학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역량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 청소년들이 다시 일반학교나 사회로 진출했을 때의 역량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아니기에 대안학교에서 일반학교 및 사회 진출 시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교육년수로는 소학교일 때 높은 역량은 사고력, 건강관리, 여가활용, 개척정신, 지역사회유대감, 국가정체의식이며, 나머지 역량은 중학교 이상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VI 장

탈북 청소년 지원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요약
2. 정책제언

제 VI 장 탈북 청소년 지원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요약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지원 방안들을 통해 탈북 청소년 자신의 갖고 있는 역량을 찾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탈북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제도와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외 사례로서 분단이 경험을 거친 독일과 난민, 이주민에 대한 접근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역량 개발을 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지원체계의 개선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의견 조사 및 FGI와 탈북 청소년 면접, FGI,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에 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 청소년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집단주의 체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경험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의 지도자 및 권위자에 대한 절대복종,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집단,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 전통적인 유교를 바탕으로 한 효를 강조한 가부장적 제도 등을 경험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부족한 점, 진로 선택의 불평등적 요소,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교육기회의 박탈 등으로 인해 남한 사회에 생활에 쉽지 않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의 욕구에 관해 2차 자료를 활용한 결과 학습에 대한 욕구와 진로에 대한 욕구가 다른 욕구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교육기회가 부족했다는 점과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것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북한에서와 같이 정해진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직업에 대한 선택과 진행이 필요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 점도 이러한 욕구가 나타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중앙정부에는 주로 통일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기반의 지원체계가 구축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탈북 청소년의 한국사회에서의 진학이나 직업 선택에 필요한 학습적 기초를 쌓기 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오랜 분단의 경험에서 통합의 과정에서 시도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동독청소년의 가치관, 교육, 진로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통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구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 민간과 공공의 전달체계 정비 등을 구축하면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 육성, 단체와 프로그램 지원, 비행예방, 통합과정에서의 청소년 융합, 청소년 교류, 문화, 정치 교육, 가족, 여성, 진로 등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대비하였다. 미국은 다양한 나라로부터 난민을 입국시켰었다. 이런 난민을 위한 서비스를 현금과 의료적 지원 접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접근, 사회/경제적 통합 접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특히, 무연고), 기관 운영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접근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난민 청소년들이 가진 강점과 욕구, 그리고 생태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사정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살펴보기 위한 면접 조사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어려움, 역량에 도움이 된 지원체계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았고,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역량 척도에 근거하여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하고 남한 청소년과 경향을 비교해보았다. 면접조사를 통해서는 탈북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탈북 청소년의 경험이 매우 다양하므로 자신의 장점을 남한 사회에서 적용하기 힘들다고 여기거나, 역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탈북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지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남북한 청소년의 결과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남한 청소년이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그 점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 조사결과 중에서는 지적호기심, 정보통신활용능력, 폭력행동, 위생관리, 직업가치관, 여가태도, 공감 및 배려, 자기개방성, 권리책임의식, 시민활동의 중요성이 각각의

역량군에서 1, 2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한 청소년과 비교해보면, 지적호기심, 폭력행동, 공감 및 배려, 자기개방성 정도가 탈북 청소년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탈북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가가 많았던 사회에 던지는 함의가 크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의 역량이 높다는 결과가 곧 탈북 청소년의 현재 성취한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이들의 잠재적 역량과 경험을 통해 체득된 다양한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탈북 청소년을 시혜의 대상을 보았던 것에서 벗어나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한 개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요청된다.

탈북 청소년 전문가의견 조사 및 실무자 FGI, 탈북 청소년 FGI를 통해서는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서는 입국 초기에는 지적 호기심, 위기대처관리, 도전정신, 의리, 규범 준수에 관한 역량이 주로 표현되었고, 남한생활 과정 중에 보여진 역량에는 변화수용력, 위기대처관리, 여가태도, 공감 및 배려, 권위에 대한 동경 등이 언급되었다. FGI를 통해서는 대상유형의 변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원, 생활과정에서의 불안함, 위축, 정체성 혼란, 동기부여와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지원의 체계화 필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 경험, 탈북 청소년에 대한 필요한 지원, 남한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전문가와 실무자의 전반적 의견은 탈북 청소년의 양상이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으로 그에 따른 지원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 동기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서 최근에는 점점 이주의 개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탈북 청소년 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 잔존하는 북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차별, 편견 등으로 인해 탈북 청소년 스스로 주체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2. 정책제언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II. 선행연구 고찰, III. 독일과 미국의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사례, IV. 탈북 청소년 개별 면접 조사, V. 탈북 청소년의 전문가의견조사, FGI와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과제는 1. 탈북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2.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3.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총 4가지이며, 세부 추진내용으로 1-1) 탈북 청소년 관련 전담조직 마련 및 역할분담, 1-2)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간의 순환교육, 1-3) 보호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 2-1) 개인단위 위주의 가족단위 지원으로 확대, 2-2) 초기적응과정 강화, 2-3) 탈북 청소년 진단도구 개발, 2-4) 이중구조 지원체계 마련, 3-1) 정서, 자기주장, 진로관련 지원 강화, 3-2) 또래 멘토링 지원 강화, 3-3) 가족 지원 강화, 4-1) 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강화와 긍정적 인식 개선, 4-2) 차별과 편견 철폐를 위한 대국민 홍보로 총 12가지이다(<표 VI-1>).

표 VI-1 정책 과제

정책과제	세부 추진내용
1. 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1-1) 탈북 청소년 관련 전담조직 마련 및 역할분담
	1-2)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간 순환교육
	1-3) 보호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
2.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1) 개별 지원과 가족 지원의 병행 지원체계
	2-2) 초기적응과정 강화
	2-3) 탈북 청소년 역량진단도구 개발
	2-4) 이중구조 지원체계 마련
3.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1) 정서, 자기주장, 진로관련 지원 강화
	3-2) 또래 멘토링 지원 강화
	3-3) 가족 지원 강화
4.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	4-1) 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강화와 긍정적 인식 개선
	4-2) 차별과 편견 철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책과제 1. 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1-1) 탈북 청소년 관련 전담 조직 및 역할 분담

(1) 제안 배경

탈북 청소년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와 산하단체는 통일부의 남북하나재단, 교육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여성가족부의 무지개청소년센터로 나뉘어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경우에는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남한 사회의 정착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탈북 청소년을 북한이탈주민의 일부 지원 대상으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 청소년들이 학령기 연령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교육기회 제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 지원 대상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탈북 청소년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지개청소년센터는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정착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의 주 지원대상층은 중도입국청소년으로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개의 정부 산하기관에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각기 해당된 역할 안에서 이뤄지다보니 각 기관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이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탈북 청소년 실무자 및 탈북대학생의 의견이었다. FGI 내용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전에 받았던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관해 도움청할 곳이 없이 혼자 이겨내야 하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시기를 지난 후기청소년 시기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2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1안은 현재의 조직체계에서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2안은 독일에서처럼 ‘청소년청’과 같은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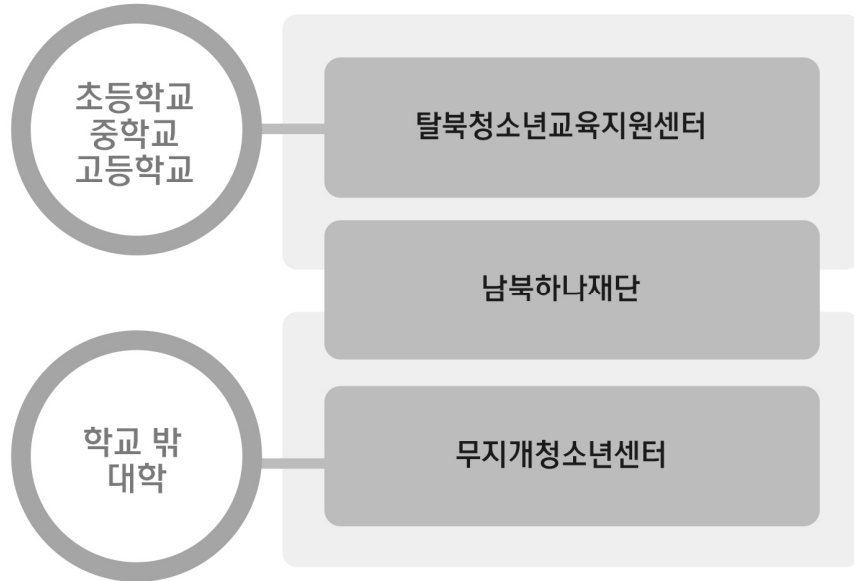
(2) 추진방안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과 사업들을 전달하기 위해 현재 기관들의 역할을 조정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진다.

탈북 청소년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러한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각 기관들이 서로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로간 협력체계가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하나재단과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 청소년 대다수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기에 학교를 매개로한 협력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지개청소년센터의 경우는 하나원과 프로그램 공유가 이뤄지고 있을 뿐 타 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 3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분담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면서 관련된 정보를 수합하고 관리·활용하도록 한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유지한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 밖 탈북 청소년과 대학에 진학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각 지역별로 현재 전국에 23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Rainbow School(무지개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인출일 2016년 10월 27일)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그림 V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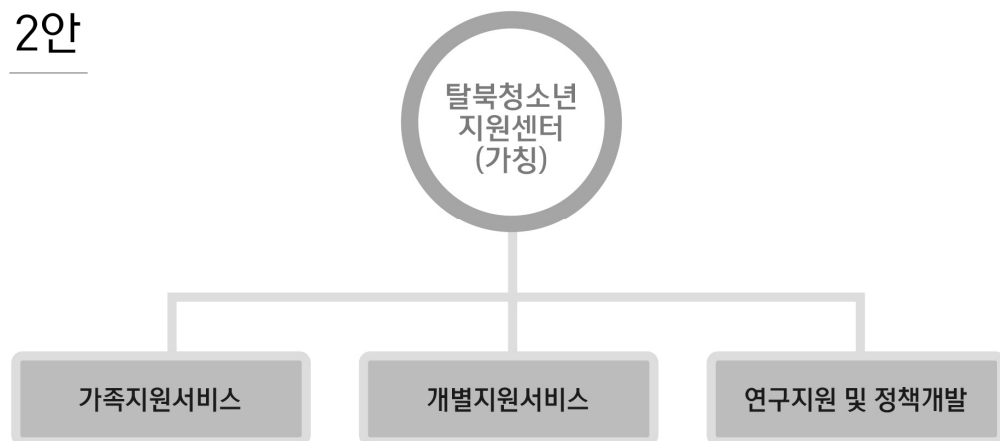
1안



【그림 VI-1】 탈북 청소년 관련 기관 역할분담

2안으로는 각 정부부처에 3개의 산하기관으로 나뉘져 있는 각각의 기관을 하나의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개별지원서비스, 연구지원 및 정책 개발 등의 체계적인 접근과 미래 통일에 대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VI-2】). 이는 탈북 청소년 실무자 FGI에서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 관계 속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중복으로 이뤄지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독일에서는 ‘청소년청’이라는 기관에서 동독 청소년지원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 것이다. 각 정부부처에 3개의 산하기관으로 나뉘져 있는 각각의 기관을 하나의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개별지원서비스, 연구지원 및 정책 개발 등의 체계적인 접근과 미래 통일에 대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VI-2】).

2안



【그림 VI-2】 탈북청소년지원센터(가칭) 설립·운영

1안과 2안과 같이 기존 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민간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탈북 청소년이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간 순환교육

(1) 제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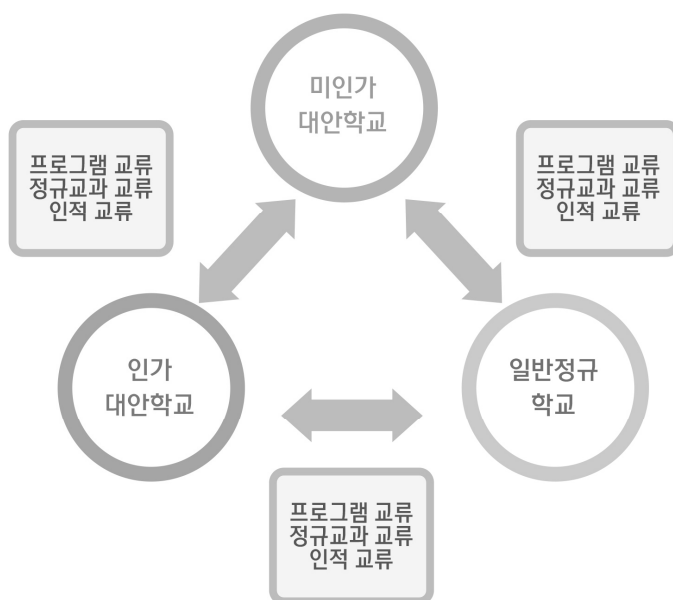
탈북 청소년이 대안학교에서 교육받을 때의 장점은 공감대를 가진 북한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탈북 청소년으로 한정된 접촉이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 시 적응상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정규학교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의 사회에 비교적 빨리 적응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래들 사이에서의 차별과 부적응으로 결석과 학교를 이탈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탈북 청소년 실무자 간에도 대안학교, 일반정규학교 어느 쪽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안학교 선택 동기가 남한 학생과 탈북 학생이 서로 다른데, 남한 학생은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안학교를 선택하지만, 탈북 청소년은 기존 교육 시스템에 진입하기

원하지만 생활과 적응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은 대안학교를 다니는 것을 정규학교 적응에 실패한 것으로 느낄 가능성이 크며, 일반정규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혼자 이겨내는 때가 많다. 물론 일반정규학교에서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존재하지만 전체 다수를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탈북 청소년에게 집중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간에 순환교육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추진방안

【그림 VI-3】은 (미)인가 대안학교와 일반정규학교간의 순환교육을 도식화한 것이다. 지금 현재 탈북 청소년에게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미인가 대안학교와 인가 대안학교, 일반정규학교 3곳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안학교에 입학하면 미인가 대안학교, 일반정규학교에서 교육 수업을 교차해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역적으로 인가 대안학교-미인가 대안학교-일반정규학교가 근처에 없다면 이동시간 등의 이유로 불가능할 수 있다.



【그림 VI-3】 탈북 청소년의 적응 향상을 위한 순환교육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간 교육 협력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탈북 청소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근 학교에 정규교과수업 또는 프로그램을 받으러 학교에 간다거나 일반정규학교를 다니는 탈북 청소년이 인가 대안학교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규교과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연계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간 교류 수업을 통해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일반정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및 탈북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탈북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차별과 불편한 시선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 청소년들도 일반정규학교에서 힘든 경우 일반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도시형 위탁형 대안학교를 통해 안정을 찾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거나 대안학교에서 졸업을 하지만 졸업장은 원적학교에서 받는 형태를 운영(대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인출일; 2016.10.27.)하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순회교육과 통합교육의 사례를 참고로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 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이 장애아동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급 또는 교사들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의 파견 지원이나 개별화된 교육지원 계획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형태나 사업 내용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순환교육과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면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순환교육은 일정기간 완전히 다른 교육기관에 의뢰하는 형태가 아닌 부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이며, 교사 교류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위한 순환교육 교사와 비슷한 형태로 해당 수업시수만을 다른 학교에서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1-3) 보호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

(1) 제안 배경

탈북 청소년은 현재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면 북한출생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출생 청소년이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보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 실무자에 따르면, 2012년에 남한에 입국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1명이었지만, 현재는 30명으로 늘어난 추세로 매우 급속히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비보호로 규정되어 있어 탈북 청소년이 받는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차원의 지원이 있으며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상황이다.

(2) 추진방안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국가법령정보센터, 인출일 2016.10.27.)의 “보호대상자”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차원의 지원이 있으며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상황이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과 <u>그의 자녀</u> 를 말한다. 3. 현행 4. 현행

또한, 현재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인출일 2016.10.27)조항에 근거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 청소년, 탈북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제1호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제2호에는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탈북 청소년은 동법 제18조제2호에 근거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이주” 개념 도입하여 지원 근거로

삼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도 명확한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신설〉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2조(정의) ----- 1. 현행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 3. 현행

정책과제 2.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1) 개별 지원과 가족 지원의 병행 지원체계

(1) 제안 배경

탈북 청소년은 통상적으로 현재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서 청소년을 말할 때 법률적 기준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19세 이하로 미성년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이라고 하는 점은 성인인 보호자의 절대적인 보호 하에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보호자의 영향력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탈북 청소년은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보호대상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특히, 제3국에서 출생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자가 남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에 가족과 부모의 지원을 통해 가족 안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과 청소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영 외(2014년)의 연구에서는 탈북배경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출생지 기반 ‘개인’ 단위 지원에서 ‘가족’ 단위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 추진방안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앞 정책과제 1-3에서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과 그의 자녀”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현장에서 지원하는 데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의 대상이 개인별 지원 형태에서 가족별 지원 형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탈북 청소년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수당 및 아동 수당의 개념을 도입하여, 미성년인 탈북 청소년을 가족이 되어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2) 초기적응과정 강화

(1) 제안 배경

탈북 청소년은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남한으로 입국하게 된 상황이다. 실무자의 언급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30~40년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는 타임머신을 타고 순간이동을 하여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탈북 청소년이 남한으로 입국하여 하나원에서 12주를 보내고 난 후 사회로 진입하여 살아갈 때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탈북 청소년이 남한이라는 낯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에 관해 많은 점을 고려하고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탈북 청소년 초기 적응을 위한 하나원의 프로그램 전반과 거주지 정착과 관련한 지원, 학교를 토대로 한 지원 정책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사례에서는 난민이나

이민 청소년의 미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강점과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2) 추진방안

탈북 청소년의 초기적응 강화를 위해 하나원 생활기간 동안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경험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은 다양한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그 경험은 일반 사람이 접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의 경험과 그것의 의미, 경험에 대한 수용 정도에 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것은 탈북 청소년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과도하게 하거나 중복해서 시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탈북 청소년의 지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때 실무자는 이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집한 자료는 하나원에서부터 지역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유되도록 하여 반복 조사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탈북 청소년에게는 낯선 시간과 공간 경계사이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이런 완충지대로의 다양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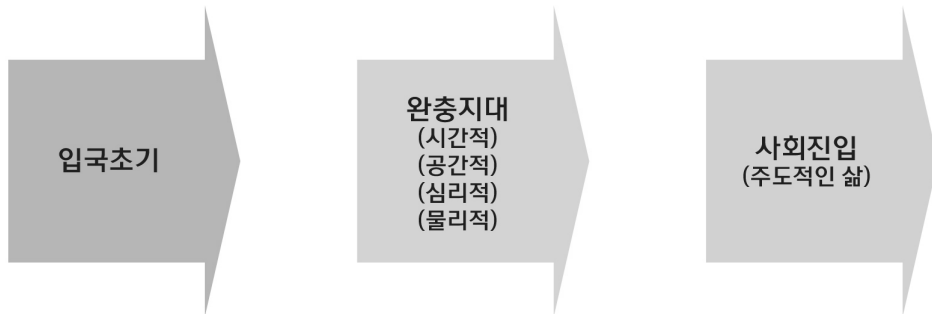
1순위: 거주지역 선택을 통한 독립생활 - 지역별 자조모임 마련 및 활성화

2순위: 하나원 입소기간 유지 -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주택 또는 게스트하우스, 셰어하우스 등에서 거주를 통한 사회적응 기본 기술 습득
(전환기 및 대안학교, 대안학교-일반정규학교 병행 등을 활용)

3순위: 하나원 입소기간 연장(현 12주 → 6개월 또는 1년)(건강과 가족문제, 정착지 준비 등의 문제가 있는 등 특수 사례 등을 고려)

- 하나원 입소 시 정서적 지원과 안정, 남한사회 이해 등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집중
- 하나원 퇴소 후 주거지 인근 사회복지기관, 학교, 상담센터 등과의 연계 체계 마련, 필요시 비용지원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 탈북 청소년의 초기적응과의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나 학교, 직장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정서적, 경제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VI-4】 초기적응 강화를 위한 완충지대 구축

2-3) 탈북 청소년 역량평가도구 개발

(1) 제안 배경

탈북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에 중점을 둔 연구였으며, 질적인 연구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탈북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탈북 청소년의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란 거의 전무하였다.

기존의 진단 도구는 북한 청소년, 탈북 청소년에 맞게 구성된 부분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북한 청소년이나 탈북 청소년에 맞춰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계속적으로 특별한 존재로서 다뤄질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이나 탈북 청소년들이 다양한 특성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진단 도구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2) 추진방안

탈북 청소년의 어떤 부분을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진단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남한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역량에 대한 조사와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도구 및 각국의 난민이나 이민자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탈북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문장 또는 용어 등을 고려하고 양적, 질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난민/이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표 III-5>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량진단과 관련된 도구 개발에 있어서 탈북 청소년에게만 한정된 도구를 개발하기 보다는 자신의 국적국을 떠나 이주한 배경을 가진 대상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개별적 맞춤 지원을 위한 도구 개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2-4) 이중구조 지원체계 마련

(1) 제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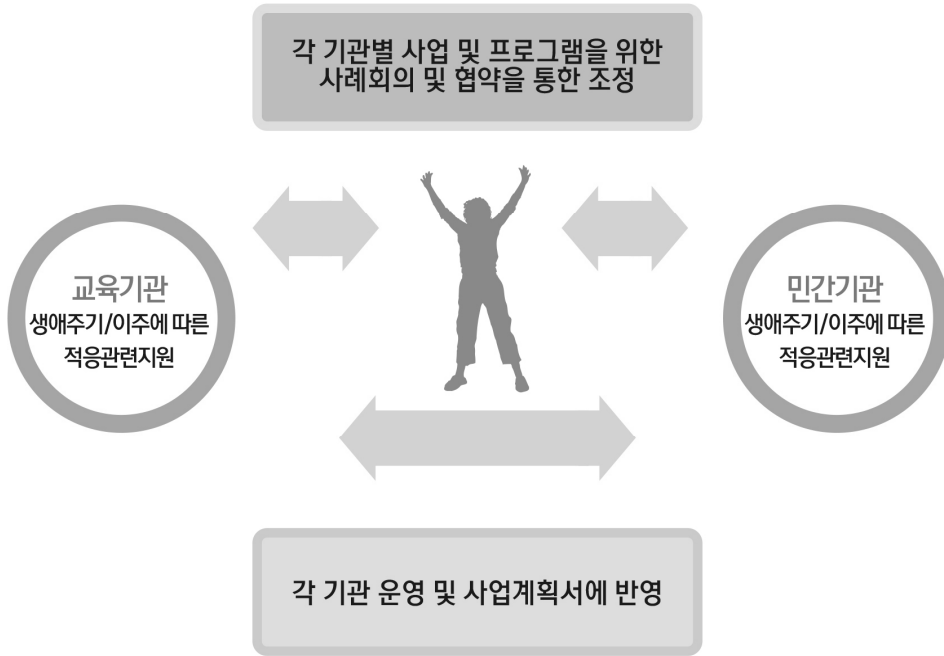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있어 탈북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학령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생각, 행동방식, 생활태도 등이 어떤 내용을 습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시기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탈북 청소년은 북에서 남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의 이주를 경험하고,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하는 데 이주 주기에 맞는 적응과 통합, 생애 주기에 맞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2) 추진방안

탈북 청소년의 입국년도에 따라 이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적응과 통합지원 서비스와 생애주기별에 다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에 따른 적응과 통합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로 정치교육, 경제교육, 여가교육, 진로교육, 부모-자녀 교육, 가족지원, 지역기반 생활정보, 언어교육 지원, (수준별)학습지원 등이 남한 사회에 적응과 통합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서 갖춰나가야 할 부분으로서 자아정체감, 논리적 사고, 창의성의 증진, 도덕성의 발달,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등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동시에 고려하여 교육 및 훈련과정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주에 따른 적응과 통합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은 학교(또는 대상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를 중심으로 교육기관과 민간 기관간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사전에 계획하고 각 기관의 운영 및 사업계획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그림 VI-5】 이중구조 지원체계

정책과제 3.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탈북 청소년들의 자신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접근보다는 각자의 상황과 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확한 사정을 통해 이에 맞는 개별적 맞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3-1) 정서, 자기주장, 진로관련 지원 강화

가. 정서관련 프로그램

(1) 제안 배경

탈북 청소년의 역량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나타난 결과 중 정서, 진로, 자기주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강화가 필요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탈북 후 제3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숨어지거나 자신을 밝힐 수 없는 등의 경험이 정서적 표현을 둔감하게 했을 수 있다. 또한 질적, 양적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분에서 탈북 청소년이 정서조절은 낮고 상황대처 능력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정서조절은 자기 자신에 관한 부분이며, 상황대처는 외부 대상와의 관계적인 면을 보이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외부 대상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함께 종합해보면 다른 사람 특히, 남한 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자기 표현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또래들과 함께 있을 시 부정적인 일탈행동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개인이라는 존재의 우수성이나 존엄성을 우선시하기보다 전체, 집단의 우수성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지도자의 명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일이 추진되어지는 방식으로 생활해왔으며, 유교적 전통주의 사상에 기반한 생활방식으로 위아래의 경계가 명확하다. 연구조사에서도 집단의 리더로서의 자질이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역할을 찾아가는 역량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도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혼자 생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기주장을 적절히 펼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직업이나 진로선택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고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계층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탈북 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하여 즉각적으로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진로, 직업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들과 비교해본 결과 탈북 청소년의 직업탐색과 진로준비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기탐색, 직업가치관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직업탐색과 진로준비는 탈북 청소년이 더욱 밀접하게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탐색이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직업을 갖더라도 오래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2) 추진방안

탈북 청소년은 탈북과 제3국 체류 등의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나타나기도 한다.

입국 초기 탈북 청소년에 대한 심리 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적절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탈북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구분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별 상황에 따른 수준별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서 관련 프로그램 시행 시 개별, 혹은 집단으로 수행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배경을 가진 전문가가 진행할지에 관해서도 탈북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조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사소통과 자기 표현을 하도록 돕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탈북 청소년의 진로관련 프로그램 강화에서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에서의 직업의 다양성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탐색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견학 활동 등을 다양화하게 구성하고 자신의 적성과 직업의 갖은 의미, 가치관 등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탈북 청소년의 의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막연한 직업 소개 등의 이론적 접근보다는 직접적인 직장 체험을 위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탈북 청소년의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한 것이 길지 않고 훈련되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지 직업을 “돈만 많이 벌면 돼”라는 등의 잘못된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3-2) 또래 멘토링 지원 강화

(1) 제안 배경

탈북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남북하나재단,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등에서 대학생 또는 일반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전문가 등을 통한 멘토링은 탈북 청소년이 다수 참여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도 각 대안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래 멘토링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2) 추진방안

대안학교에서는 인근 일반학교와 또래 멘토링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1~2번 만나 끝내는 방식보다 6개월 이상의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초기 멘토-멘티 지정에 있어서는 교사 및 실무자가 개입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멘티와 멘토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일대일 모임,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임 등 진행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기획하여 실행,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반학교에서의 탈북 청소년과 일반 학생들 간에는 멘토링 또는 빅 브라더(big brother)을 활용하여 선배-후배와 연결하여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가족 지원 강화

(1) 제안 배경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대상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특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현장 실무자들이 이야기처럼 2000년대 초반 이전에서는 굶주림과 체제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로 북한을 이탈했다면 최근에서는 부모가 먼저 남한으로 탈출하여 이후에 북한에 있는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가족이 재결합하여 생활한다는 면에서는 너무나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 떨어져 지냈던 시간적 공백은 어느 순간 메워지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부모-자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가족이 따로 생활하는 일까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 청소년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남한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큰 반면, 학습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해 지원해주는 경제적 여력은 부족한 편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부모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개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족 지원도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2) 추진방안

부모-자녀가 관계개선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센터 등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부모와 떨어져 있던 시기가 있고, 보호자는 남한 사회, 청소년은 북한 사회에서 각기 다른 생활방식으로 일정 시간동안 생활했었던 것을 서로가 각자 요구할 수 있고 각자 방해받기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역할극, 참여체험 활동, 여가활동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교육, 부모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정부의 정책 중 아동비과세, 아동수당, 아동추가수당을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시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동독 부모에게 증가하는 실업 문제와 경제적 부담에서 세제감세와 수당 제도를 통해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본 연구조사에서도 보호자들이 교육비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실무자들이 언급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단, 경제적 지원이 일률적 지원이기보다는 각 가정에 맞는 상황적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지원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를 통해 학습지 도우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짧은 시간 학습 도움을 받는 등의 활동은 지양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도록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제 4.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4-1) 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강화와 긍정적 인식 개선

(1) 제안 배경

탈북 청소년의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이다, 보이는 곳에서만 잘 한다 등의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지만 대체로 봉사활동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연구 조사에서는

사회참여역량 중 공동체시민성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동체시민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실행으로 옮겨진다고는 볼 수 없으나 높은 공동체시민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보면 동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사회봉사제도(1년 장기)와 자발적 환경활동제도(인증단체와 협력구축)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시도하였다.

(2) 추진방안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서 일회성, 단기성, 단체성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탈북 청소년이 관심을 가지는 시민단체 또는 기관과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남한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교류와 상호이해의 기회가 마련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학교 등에서는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적 관계(MOU 체결 등)를 맺고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로 탈북 청소년이 직접 찾아가고 일을 도우면서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탈북 청소년이 흥미를 갖고 해당 분야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남한 사회에서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차별과 편견 철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 제언 배경

탈북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남한 국민의 자신들을 바라보는 차별과 편견일 수 있다. 이런 차별과 편견에는 탈북 청소년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항상 도와줘야 하고, 시간 개념이 없다는 등의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런 시선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감정, 정서 표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기주장을 펼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2) 추진방안

탈북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하는데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접촉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탈북 청소년의 경우에는 관련된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의 강점 또는 역량에 대한 교육 및 소규모 강연 등을 활용하여 편견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창의재량 수업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구섭 (2014). 탈북 청소년 교육 중단연구(V)(연구보고 RR 2014-0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강이화 (2007). 독일 청소년을 위한 국제 이해교육. 지역사회 제 57집. pp. 104-106.
- 곽재석 (2012). 탈북 청소년 민간교육시설 운영진단 및 컨설팅 결과보고(연구보고 TR 2012-05-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관계부처 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부 (2015). 탈북학생 주요통계 자료.
- _____ (2014). 탈북학생 주요통계 자료.
- _____ (2013). 탈북학생 주요통계 자료.
- _____ (2012). 탈북학생 주요통계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2016 나라살림 예산개요. 세종: 기획재정부.
- 길은배 (2015). 공공부문 지원정책에 기초한 탈북 청소년의 사회통합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7(4), 217~237.
- 김경자, 곽상훈, 백남진, 송호현, 온정덕, 이승미, 한혜정, 허병훈, 홍은숙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세종: 교육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0-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린, 박세훈, 박경자 (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Vol.21(7). pp.55~87.
- 김명선 (2014). 탈북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과정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화 (2009).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 분석-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지식천 Vol.8. pp.31~56.

- 김윤나 (2008).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봉, 송영수 (2013). 국내 대기업 조직구성원의 팔로워십 역량도출 및 역량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인력개발연구*, 15(3), pp. 3~29.
- 남북하나재단 (2014). 2014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맹영임, 길은배 (2013). 탈북 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연구보고 13-R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무지개청소년센터 (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MYF15-10-인).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 박성원 (2015).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희 (1995). 북한 청소년의 생활. 공보처.
- 삼죽초등학교 (2015). 만남소통성장의 어울림 활동을 통한 탈북학생의 학교적응능력 향상: 경기도교육지정 탈북학생교육 정책연구학교 최종보고서. 경기:삼죽초등학교.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연구보고 13-R50).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Vol.16(2). pp.117~144.
-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연구보고 14-R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광성 (1994). 독일 통일과 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4-03].
- 신두철 (2014).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청소년 교류의 제도화와 정치기회구조. *유럽연구*. 제 32권 4호. pp. 27-53
- 신효숙 (2009). 북한 사회의 특성과 북한청소년의 일탈행동. *교정담론*, Vol.3(1), pp.27~61.
- 심경섭, 윤상연, 서신화, 장양, & 한성열. (2012). 유교가치관 척도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65-491.
- 안권순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 Vol.17(4), pp.25~45.
- 어은주, 유영주(1997)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 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pp.269~286.
- 여성가족부 (2015).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한국DMZ학회 (2016). 북한이탈청소년 욕구조사(연구보고 2016-03). 서울: 여성가족부.
-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Vol.45(3), pp.233~260.
- 이기영, 김민경, 조재희, 최지원 (2014). 탈북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정책 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모색(연구총서 2014-01). 서울: 남북하나재단.
- 이미옥 (2015). 초등학교 고학년용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연구. 가족과 문화, 27, pp. 137~158.
- 이선옥 (1994). 사례연구방법-기능, 유형,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대한간호》, 33(3): 33-41.
- 이소희, 이선혜 (2013).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정신건강. 소아청소년정신의학 Vol.24(3), pp.124~131.
- 이영란 (2004). 통일 이후 동독대학생의 가치관 변화. 경제와 사회 63, pp.172-196.
- 이영란 (2007).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시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통권 57호, pp. 123-159.
- 이영철 (2009). 보다 나은 사례연구: 논리와 예시. 《정부학연구》, 15(1):.189-214.
- 이온죽 외 (2010). 북한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통일.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이용을 (2015). 탈북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Vol.5(4), pp.107~131.
- 이종범, 정철영, 김진모, 김재점 (2008) 2008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체제 구축: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IEA ICCS 2016(연구보고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정주 (2012). 정서자각과 정서표현이 정서조절과 공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1), pp. 147~170.
-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pp.163~177.
- 조정아, 조영주, 조은희, 최은영, 홍민 (2013).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KINU 연구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 조정아, 홍민, 이향규, 이희영, 조영주 (2014). 탈북 청소년의 경계경험과 정체성 재구성(KINU 연구총서 14-06). 서울: 통일연구원.
-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성취기준 연구(기본연구 2010-13).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차성환·김덕환 (2007). 독일 국가복지에서 민간복지단체의 역할과 의미. 민간복지단체의 우선권 원리를 중심으로. 집문당.
- 채해웅 (2013).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독일교회 사례를 비교하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 김나라, 김성남 (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지적도구활용 영역(연구보고 09-R19-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순중 (2015). 한국·독일·러시아의 청소년전달체계의 관한 국제비교. 청소년학연구 제22권 5호. pp. 1-26.
- 체제통합연구회편 (2009). 북한체제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2012 북한 이해.
(2015). 2016 북한 이해.
- 통일부 (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김영윤·양현모 편
_____ (2012). 201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_____ (2013). 201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_____ (2014). 201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_____ (2015). 201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_____ (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 편람. 서울: 통일부 정착지원과.
_____ (2016). 2016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5a). 탈북 청소년 교육백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15b).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6차년도 사업결과 보고서 (기술보고 TR2015-3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15c).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조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연구보고 RR2015-3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Ⅲ: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보고서(연구보고 12-R1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13a).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29.
- _____ (2013b).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세미나자료집 13-S5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13c).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3-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연구보고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문기 (2015). 독일 아동보호체계 분석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법적·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제6호. pp. 97-123.
- 홍문기 (2016). 독일발전과정에서 살펴본 아동보호체계 형성과정과 함의. 역사적·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1호. pp. 113-138.
- 교육부. 2016. 2. 19 일자 보도자료
- 교육부. 2015. 9. 23 일자 보도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8. 27일자 보도자료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hana.or.kr/eGovHanaBbs/eGovHanaList.jsp>) 정보공개-사업실명제. 인출일: 2016년 5월 19일
- 대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daeancenter.or.kr/custom/custom.do?dcpNo=26_983) 인출일: 2016년 10월 27일
- 무지개청소년센터 홈페이지, (<http://www.rainbowyouth.or.kr>) 인출일: 2016년 10월 27일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hub4u.or.kr/hub/main.do>) 인출일: 2016년 1월 28일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인출일: 2016년 11월 28일
- 한국교직원공제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tcu_attic&logNo=220608110463) 인출일: 2016년 9월 30일
- www.kinder-Jugendhilfe.info, 인출일: 2016년 9월 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248&efYd=20141129#0000>) 인출일: 2016년 10월 27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400&efYd=20160302#0000>) 인출일: 2016년 10월 27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283&efYd=20150529#0000>) 인출일: 2016년 10월 27일
- BMFSFJ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 Senioren · Frauen und Jugend). (1994). Neunter Jugendbericht. Bonn.
- BMAS (Bundesministeriums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1993). Sozialbericht. Bonn.
- Bridging Refugee Youth & Children's Services. (2009). Strengths-based programming: The example of Somali refugee youth. Washington, DC: Bridging Refugee Youth & Children's Services.

-
- (2010). New directions in mentoring refugee youth. Washington, DC: Bridging Refugee Youth & Children's Services
- Bridging Refugee Youth Children' s Services. (2016). Refugee 101: How do refugees get to the United States? Retrieved August 29, 2016 from <http://www.brycs.org/aboutRefugees/refugee101.cfm>
-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2016a). Admissions reports–admissions comparison graph. Retrieved August, 29, 2016 from <http://www.wrapsnet.org/Reports/AdmissionsArrivals/tabid/211/language/en-US/Default.aspx>
-
- (2016b). Refugee Admission Report 2016. 9.30. Retrieved August, 29, 2016 from <http://www.wrapsnet.org/Reports/AdmissionsArrivals/tabid/211/language/en-US/Default.aspx>
- Creswell, J. W. 2006,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 Feshbach, N. D., & Feshbach, S. (1982). Empathy training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on: Potentialities and limitations.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4(3): 399~413.
- Fieseler, G., Herborth, R. (2010). *Recht der Familie und Jugendhilfe*. 7 Auflage. Koeln.
- Hong, M. (2016). *Kinderschutz in institutionellen Arrangements*. Springer: Wiesbaden.
- Jennings, L. B., Parra–Medina, D. M., Hilfinger–Messias, D. K., & McLoughlin, K. (2006). Toward a critical social theory of youth empowerment.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4(1–2), 31–55.
- Kress, D. (1997). *Zum Aufbau der Jugendhilfe und Jugendarbeit in den neuen Bundeslaendern*. Leske & Budrich: Oplanden
-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orton, M. H, & Montgomery, P. (2013). Youth empowerment programs for improving adolescent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A systematic review.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3(1), 22-33.
- OECD. (2005). *Learning a Living: First Result of the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2016a). What we do. Retrieved August 15, 2016 from <http://www.acf.hhs.gov/orr/about/what-we-do>
- _____ (2016b). Six guiding principles. Retrieved August 15, 2016 from <http://www.acf.hhs.gov/orr/about/what-we-do>
- Pearrow, M. M. (2008). A critical examination of an urban-youth empowerment strategy: The teen empowerment program.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6(4), 509-525.
- Pillow, W. (2003). "Confession, catharsis, or cure? Rethinking the uses of reflexivity as methodological power in qualitative research" .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6: 175-196.
- Pitschas, R. (ed.) (1992). *Verwaltungsintegration in den neuen Bundeslaendern*. Berlin
- Refugee Council USA. (2016). History of the U. S.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Retrieved August 29, 2016 from <http://www.rcusa.org/history>
- Schmidt, S., Morland, L., & Rose, J. (2009). Growing up in a new country: A positive youth development toolkit for working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Washington, DC: Bridging Refugee Youth & Children's Services.
- Stake, R. E. (2000). 《질적사례연구(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서울: 현문사.(원전은 1995년 출판)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4). UNDP youth strategy 2014-2017: Empowered youth, sustainable future. New York, NY: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 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 Budget (2016).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Operating Plan

- for FY 2016. Retrieved October 22, 2016 from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olab/fy_2016_acf_operating_plan.pdf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297.
- Whittemore, R., Chase, S. K. and Mandle, C. L. (2001).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1: 522–537.
- Wood, R., & Power, C. (1987). Aspects of the competence-performance distinction: educational, psychological and measurement issue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9(5), 409–424.

.....

부록

부 록

부록. 1

탈북청소년 면접조사

인터뷰 가이드

■ 질문 가이드

1. 북한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 일반적인 북한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 남한청소년과 비교하여 느껴지는 역량과 강점
2. 남한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 일반적인 남한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 북한청소년과 비교하여 느껴지는 역량과 강점
3.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 북한에서 나의 역량과 강점
 - 남한에서 나의 역량과 강점
 - 탈북과정이 나의 역량과 강점에 미친 영향
 - 남한사회에서 받은 지원들이 나의 역량과 강점에 미친 영향
4. 통일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 통일전환기에 필요한 청소년의 역량과 강점

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 연구과제명 :

■ 연구자명 : ○○○ (소속기관)

이 연구는 북한에서 살다온 탈북 청소년들의 역량에 대한 연구입니다. 북한사회와 다른 남한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북한 청소년의 역량과 남한 청소년의 역량이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만이 겪은 탈북의 과정이 탈북 청소년만의 또 다른 역량을 키워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탈북 청소년의 어려움과 문제에 집중해온 바, 본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의 강점과 역량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북한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유사점과 차이점, 탈북 청소년의 강점,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 등 통일과정에서 청소년의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만 9세~24세의 청소년으로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000 (연락처)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청소년의 강점과 역량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과 실천에 함의를 주고자 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아동기를 보낸 탈북 청소년 약 00명 내외가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여러분이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개별 심층면접은 연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여러분의 동의하에 기록을 위해 녹음됩니다. 면접은 1-2회 정도로 진행될 것이며, 연구자가 직접 찾아갈 것입니다. 면접 중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학문적 목적 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2시간 이내로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연구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는 한국사회에서 탈북청소년의 강점과 역량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통일과정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실천방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이 조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 000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여러분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소정금액의 상품권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름:

전화번호:

이 름:

전화번호:

부록. 3

조사동의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0000 (소속기관, 직위)

공동연구자 : 0000 (소속기관, 직위)

1. 나는 이 조사의 안내문을 모두 읽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이 조사의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나는 언제라도 이 조사의 참여를 그만 둘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사참여자 : _____ () : 2016 ____ ____

(공동)연구책임자 : _____ () : 2016 ____ ____

조사동의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000(소속기관, 직위)

공동연구자 : 000(소속기관, 직위)

1. 나는 이 조사의 안내문을 모두 읽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이 조사의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나는 언제라도 이 조사의 참여를 그만 둘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사참여자 : _____ () : 2016 ____ ____

*() .

학생의 보호자 : _____ () : 2016 ____ ____

(법정 대리인) : _____

(공동)연구책임자 : _____ () : 2016 ____ ____

* .

부록. 4

탈북청소년 개별면접 소질카드 활용 결과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방향

첫째줄: 탈북(북한)청소년이 잘하는 것

둘째줄: 북한청소년들에게 잘하라고 사회가 요청하는 것

셋째줄: 남한이나 북한이나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것

넷째줄: 남한청소년들에게 잘하라고 사회가 요청하는 것

다섯째줄: 남한청소년이 잘하는 것임

※ 사진 설명

1) 가, 나 인터뷰



부록

[illegible]

4) 자 인터뷰



5) 차 인터뷰



부록. 5

ID

"탈북청소년의 역량 및 지원체계 파악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1차)"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발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6년 정책과제인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탈북청소년의 역량 및 지원체계를 파악하고자 현장·학계·정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귀한 의견은 정책개발과 탈북청소년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조사는 1차 조사로 개방형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2차 조사는 폐쇄형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국가의 청소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관련 문의

▷ 연구책임자 : 좌동훈 부연구위원(044-415-2216)
quelpart@nypi.re.kr

탈북청소년의 역량 및 지원체계 조사의 취지

- 탈북청소년을 수동적이며 수혜자적 입장으로 바라보는 자세에서 벗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발견하여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역량 관련 측정도구가 없어 남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역량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기존 역량 측정도구를 보완하여 탈북청소년들의 역량을 측정하고자 함.
- 이를 기초로 기존의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탈북청소년의 역량에 기초한 지원현황과 지원체계를 재구성하고자 함.

작성안내

- 개조식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함, ---하였음
- 가능하면 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칸이 모자랄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당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정의

- 탈북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중에 만 9세에서 만 24세에 속하는 청소년
- 청소년 역량 : 현재와 미래(성인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 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시기에 경험하고 충족시켜야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
- 청소년 역량은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학생)의 역량개념 및 하위영역으로서, 정부는 이를 기초로 청소년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청소년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하위영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부처	구분	개념과 하위영역
여성 가족부	생애학습 역량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생활관리 역량	자신의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 역량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 역량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사회참여 역량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아정체성 확립, 자기통제(절제), 여가 선용, 건강관리, 기초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기본생활습관, 진로개발능력 등
교육부	지식정보 처리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정보수집, 분석,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해결 방안의 실행, 평가/매체 활용 능력 등
	창의적 사고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기능(인지 능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 창의적 사고성향(정의 특성: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등)
	심미적 감성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문화적 감수성, 다원적 가치 존중, 공감, 상상력 등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말하기, 듣기(경험), 쓰기, 읽기, 텍스트 이해, 타인 이해 및 존중, 배려 등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시민 의식, 준법정신, 환경의식, 윤리의식, 봉사정신, 규범 및 질서의식, 협동, 갈등 관리, 리더십 등

I. 다음은 탈북청소년의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에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청소년의 5가지 역량군과 그에 따른 하위영역이 하나씩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탈북청소년과의 경험을 토대로 5가지의 역량 각각에 대하여 탈북청소년의 긍정적인 역량,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개발된 역량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생애학습역량’에서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에 탈북청소년의 특성으로 추가될 만한 내용을 2가지 측면 - 긍정적인 역량,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개발된 역량 - 에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습적응성’의 내용으로 ‘변화수용력’, ‘지적 호기심’, ‘학습주도성’ 외에 ‘끈기’를 추가).

※ 추가하신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아래의 표에는 **생애학습역량**의 개념과 하위 영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탈북청소년의 긍정적인 역량,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개발된 역량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생애학습역량의 개념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생애학습역량의 하위 영역

- :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예시문항: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논리적인지 또는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본다)
-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예시문항: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표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다)
- : 변화수용력, 지적 호기심, 학습주도성
(예시문항: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질문 1-1.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편입된 이후 초기에 보이는 긍정적인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하신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개발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하신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아래의 표에는 **생활관리역량**의 개념과 하위 영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탈북청소년의 긍정적인 역량,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개발된 역량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리역량의 개념	
자신의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생활관리역량의 하위 영역	
●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예시문항: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	목표 및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 (예시문항: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예시문항: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	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예시문항: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침착하게 잘 이겨낸다)

질문 2-1.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편입된 이후 초기에 보이는 긍정적인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하신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개발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하신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아래의 표에는 **진로개발역량**의 개념과 하위 영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탈북청소년의 긍정적인 역량,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개발된 역량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개발역량의 개념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영역	
●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예시문항: 돈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
● 가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경험) (예시문항: 나의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예시문항: 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독특하다는 소릴 자주한다)

질문 3-1.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편입된 이후 초기에 보이는 긍정적인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하신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개발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하신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아래의 표에는 **대인관계역량**의 개념과 하위 영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탈북청소년의 긍정적인 역량,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개발된 역량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역량의 개념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
대인관계역량의 하위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예시문항: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 ● :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예시문항: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각 구성원들이 역할을 골고루 잘 나눈다) ● :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예시문항: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질문 4-1.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편입된 이후 초기에 보이는 긍정적인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하신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2.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개발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하신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아래의 표에는 **사회참여역량**의 개념과 하위 영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탈북청소년의 긍정적인 역량,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개발된 역량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참여역량의 개념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영역	
●	: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 관심 및 정치 효능감 (예시문항: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	: 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 개방성 (예시문항: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인식, 국제관계이해 (예시문항: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맡는 것이 좋다)

질문 5-1.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편입된 이후 초기에 보이는 긍정적인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하신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2.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개발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하신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II. 5가지 역량 외에 추가할 상위개념이나 하위영역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① 5가지 역량군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 외에 추가될만한 개념과 하위영역을 작성해주시거나

② 기존의 하위영역 -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 외에 추가될 하위영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1~5까지에 포함되진 않지만 추가 내용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외에 ‘열정’을 추가).

※ 추가하신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Ⅲ. 탈북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에서 우선 고려할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관해 작성해주시오.

(가 ,)

개별가정학교 지원 관련

만관 지원 체계 관련

중앙지방 지원 체계 관련

기 타

1. 의견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____ ① 동의합니다 ____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 ① 남자 ____ ② 여자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 세

4. 북한 관련(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청소년 등)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 년 ____ 개월

○ 2차 의견조사는 객관식이며, 보다 간단하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탈북청소년 FGI

인터뷰 가이드

1.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앞으로 갖춰야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 역량: 현재와 미래(성인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 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고 충족시켜야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
예: 문제에 대한 판단력이 빠른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 주변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 외국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 등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북한에서 생활할 때 ~~~
 -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
2. 남한과 북한 생활은 어떤가요?
 - 같은 점은 ~~~
 - 다른 점은 ~~~
3. 북한에서의 생활경험이 남한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 긍정적 영향은 ~~~
 - 부정적 영향은 ~~~
4. 현재 청소년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지는 지원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 만족하지 않는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
 - 만족한다면, 어떤 점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
5. 청소년의 갖고 있는 역량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탈북관련 현장 실무자 및 연구자 FGI

인터뷰 가이드

1. 탈북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
 - 대상자에 대한 관점에 따른 지원 방향은 적절한가?
2. 탈북청소년 유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 탈북청소년 유형 변화
(탈북청소년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 탈북배경청소년
 - 다문화 접근 방식
 - 난민 접근 방식 등
3. 현재 탈북청소년의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 법률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 교육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무지개청소년센터
 - 기타(정부부처 및 민간지원기관 등)

부록. 8

설문지

(33)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탈북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담당연구자: 좌동훈 부연구위원 (044) 415-2216
지소연 연구원 (044) 415-2217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아래 내용은 설문조사원 작성 표임

기관명			
학교명		학년	
면접날짜	2016년 ____월 ____일	설문조사원 이름	

조 사 동 의 서

:
 : (,)
 (, 구원)

1. .
2. .
3. ,
.
4. .

조사참여자 : _____ () : 2016 _____
 설문조사원 : _____ () : 2016 _____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조사결과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술적 연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문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부분이 되는 사항들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알맞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어떤 주장을 판단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④	③	②	①
(4) 같은 물건이라면, 나는 제품명과 상관없이 (지적)장애인이 만든 상품으로 사겠다	④	③	②	①
(5)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④	③	②	①
(6)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논리적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④	③	②	①

문2.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생각이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④	③	②	①
(2)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국어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④	③	②	①
(4)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풀이과정,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도표로 표현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수학을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④	③	②	①
(7) 나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예, 천등, 번개 등)에 대한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④	③	②	①
(8) 나는 자연현상(예 태풍 등)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9) 나는 과학을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④	③	②	①
(10) 나는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찾아 공부할 수 있다(인터넷 강의, 유튜브 등)	④	③	②	①
(11) 나는 컴퓨터를 통한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다(한글, 엑셀, 그림판 등)	④	③	②	①
(12)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SNS: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④	③	②	①

문3.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④	③	②	①
(2) 새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기능)를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도 그 성공이유를 찾아낸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실패했다면, 그 실패이유를 알아본다	④	③	②	①

문4.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식사 전,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속옷을 1~2일에 한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④	③	②	①
(5) 나는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내용이나 규정을 잘 지킨다	④	③	②	①
(7) 나는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8) 나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④	③	②	①

문5.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④	③	②	①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필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확인해본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본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적용한다	④	③	②	①

문6. 술, 담배, 금지된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중독성이 있다	④	③	②	①
(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짜증해소에 도움이 된다	④	③	②	①
(3)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된다	④	③	②	①
(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④	③	②	①
(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받을 때가 있다	④	③	②	①
(6)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한다	④	③	②	①

문7. 인터넷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④	③	②	①
(2) 나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재미나 짜증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욕 쓰기, 공공장소(화장실)에 다른 사람 욕쓰기 등)	④	③	②	①
(3) 나는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쓰는 것이라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한다	④	③	②	①
(5) 나는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는다	④	③	②	①
(6) 나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	④	③	②	①

문8.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④	③	②	①
(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④	③	②	①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가 없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침착하게 잘 이겨내기가 힘들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④	③	②	①
(6) 나는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④	③	②	①
(7)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상태도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④	③	②	①

문9. 다음의 각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때때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2)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⑤	④	③	②	①
(3) 나는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끌린다	⑤	④	③	②	①
(4)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5) 나에게서는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강한 의지가 없다	⑤	④	③	②	①

문10.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면서 자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어려움에 처해도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④	③	②	①
(2) 곤란한 상황에서도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3)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국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④	③	②	①
(4)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5)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도 나는 올바른 자세(태도)로 삶을 살 것이다	④	③	②	①
(6)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④	③	②	①
(7)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8)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④	③	②	①
(9)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④	③	②	①

문11. 다음의 각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안다	④	③	②	①
(2) 의견을 말할 때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한다	④	③	②	①
(3) 질문에 우물쭈물하지 않고 대답한다	④	③	②	①
(4) 대화 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④	③	②	①
(5) 딱 잘라서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	④	③	②	①
(6) 말하기 전에 주저하고 망설인다	④	③	②	①
(7) 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는 편이다	④	③	②	①
(8) 말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지 못한다	④	③	②	①
(9)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한다	④	③	②	①

문12.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④	③	②	①
(2)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 본다	④	③	②	①
(4) 나는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본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본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7) 나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8)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④	③	②	①
(9)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④	③	②	①

문13. 여러분들은 여가(취미)활동이 있습니까?

문항	여가(취미)활동 여부
여가(취미)활동	① 있음 ② 없음

* 여가(취미)활동: 공부 이외에 하는 활동으로 운동을 하기, 손풍금, 기타 등을 배우는 모든 활동

문13-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④	③	②	①
(2)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갖게 해준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④	③	②	①
(4)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체육 활동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5) 나는 내가 특별히 여가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능력이 있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친구들과끼리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이기는 편이다	④	③	②	①
(7) 내가 하고 있는 여가(취미)활동은 매우 재미있다	④	③	②	①
(8) 여가(취미)활동은 나에게 무엇인가 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④	③	②	①
(9)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같다는 것을 느낀다	④	③	②	①
(10)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집중하게 된다	④	③	②	①
(11)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가끔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때도 있다	④	③	②	①

문1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특이하다는 소릴 자주 한다	④	③	②	①
(2) 같은 사물, 현상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바라볼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4) 나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④	③	②	①
(5) 나는 계속해서 바뀌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	④	③	②	①
(6) 나는 바뀌지 않는 안정적인 환경은 지루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문15.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내 모습대로 행동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④	③	②	①
(5)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말하기도 한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④	③	②	①
(7)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④	③	②	①
(8)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④	③	②	①
(9) 나는 상대방과 생각이 다를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④	③	②	①
(10)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④	③	②	①
(1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④	③	②	①
(12)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한다	④	③	②	①

문16.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④	③	②	①
(2)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의견을 모을 때, 중요한 순서를 생각하여 결정을 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의견을 모을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④	③	②	①
(4)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간다	④	③	②	①
(5)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율한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집단 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알려주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④	③	②	①
(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8)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④	③	②	①
(9) 나는 집단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진행한다	④	③	②	①

문17.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집단 활동을 할 때, 친구의 좋은 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말해 준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집단 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 준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집단 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③	②	①
(4) 나는 집단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④	③	②	①
(5)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뽐낸다(발휘한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집단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나눈다	④	③	②	①
(7) 나는 집단에서 일어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④	③	②	①
(8) 나는 집단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④	③	②	①

문18. 다음의 각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가족은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2) 우리 가족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3) 우리 가족은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다	⑤	④	③	②	①
(4) 우리 가족은 생활하면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잘 해결해 낼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우리 가족은 위기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있음을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우리 가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계획을 바꿀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해 어떠한 위험도 감당할 용기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8)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문19.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또는 ✓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④	③	②	①

문20.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③	②	①
(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한다	④	③	②	①
(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한다	④	③	②	①
(5)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④	③	②	①
(6)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④	③	②	①

문21.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	매우 관심있음	관심있음	관심없음	전혀 관심없음
(1)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문제	④	③	②	①
(2)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문제	④	③	②	①
(3) 환경 관련 문제	④	③	②	①

문22.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2) 정치적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 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④	③	②	①
(4)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④	③	②	①

문23.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또는 ✓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어른에게는 예의를 갖추어 행동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2) 어른을 공경하고 나이에 맞게 대접해 드려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3)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서로 양보하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문24. 여러분은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	확실히 참여함	아마도 참여함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1) 투표참여	④	③	②	①
(2) 투표하기 전 선거에 나온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④	③	②	①

문25. 여러분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중요함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올바르지 못한 법에 맞서는 평화적 항의	④	③	②	①
(2) 지역사회에 유익한 활동	④	③	②	①
(3) 인권향상운동	④	③	②	①
(4) 환경보호운동	④	③	②	①

문26.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여러분은 참여하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	확실히 참여함	아마도 참여함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1)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이나 휘장 달기	④	③	②	①
(2) 비폭력 집회 참여	④	③	②	①
(3) 반대의견에 동참하는 서명운동	④	③	②	①
(4) 상품 안쓰기 운동하기	④	③	②	①
(5) 벽에 항의 글쓰기/ 그림그리기	④	③	②	①

문27. 여러분은 다음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문항	매우 신뢰함	신뢰함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정부	④	③	②	①
(2) 정당	④	③	②	①
(3) 국회	④	③	②	①
(4)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④	③	②	①

문28.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문항	종종 일어남	때때로 일어남	일부 일어남	전혀 일어나지 않음
(1)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④	③	②	①
(3)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현한다	④	③	②	①
(4)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문제를 토론하도록 권한다	④	③	②	①
(5)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문제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④	③	②	①

문29. 다음의 각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정해진 공동의 규칙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지켜야한다	⑤	④	③	②	①
(2)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규칙을 지킨다	⑤	④	③	②	①
(3)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급한 일이 있더라도 차례를 지킨다	⑤	④	③	②	①
(4) 남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질서를 지킨다	⑤	④	③	②	①

문30. 다음의 각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동네와 이웃사람들에게 친밀감과 정을 느낀다	④	③	②	①
(2) 동네 사람들은 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생각해준다	④	③	②	①
(3) 동네 이웃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4) 우리 동네에는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④	③	②	①

문3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2) 여성의 우선적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다	④	③	②	①

문32. 여러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가능한 많이	어느 정도	아주 약간만	절대로 안된다
(1)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④	③	②	①
(2)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	④	③	②	①
(3) 가난한 나라(빈곤국가)의 사람들	④	③	②	①

문33.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④	③	②	①
(2)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상한 사람(예: 테러리스트 등)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인터넷 글쓰기를 확인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보도 및 출판에 통제(검열)할 권력을 가져야한다	④	③	②	①
(4)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④	③	②	①

문34.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	매우 관심많음	관심 많음	관심 없음	전혀 관심없음
(1)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	④	③	②	①
(2)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	④	③	②	①

문35.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예절과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운다	④	③	②	①

문36. 다음의 각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 또는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다른 나라 사람이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2) 현재의 대한민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3)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만 같다면 세계는 더 좋아질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4)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이다	⑤	④	③	②	①
(5) 한국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잘할 때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⑤	④	③	②	①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배경문항 1. 태어난 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배경문항 2. 성별은? _____① 남 _____② 여

배경문항 3. 북한에서 나온 시기와 남한에 입국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탈북 시기: _____년 _____월	(남한)입국 시기: _____년 _____월
----------------------	--------------------------

배경문항 4.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학교를 총 몇 년 다니셨나요? _____ 년

배경문항 5. 남북한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이 북한에서의 생활보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빠졌다	그대로다	좋아졌다
①	②	③

배경문항 6. 현재 남한에서의 가족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_____① 남한에 나 혼자만 생활한다
 _____② 남한에서 부모님,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다(같이 살지 않더라도 남한 거주 포함)
 _____③ 부모님과 형제자매 중 일부는 북한에 살고 있다
 _____④ 기타()

배경문항 7. 남한에 받는 지원이나 교육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지원, 교육이란 학교 수업, 문화체험, 멘토링, 장학금, 주거지원 등을 포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support systematization method

This research approaches from a viewpoint to regard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as not those to be given benefits and passive but active and independent. Hence I'd like to investigate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competency and all sorts of support scheme and come up with effective support system. According to purpose of this research, I looked into five things as follows;

First, grasping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characteristic and needs. Second, current state analysis of government policy. Third, consideration of foreign case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Fourth, interview and survey analysis for understanding their competency. Fifth, producing improvement ways of support policy

For these,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research and administration date were analyzed. And also method of study was utilized such as secondary date analysis, depths interview and survey, specialist opinion investigation, Focus Group Interview(FGI), expert's advice, policy research working-level committee in order to comprehend their desire.

Main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Germany generally arranged law, system, budget, institution, program concerning youth policy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America has various system for understanding strength and competency of displaced adolescents and supporting this. Through interview and survey I found that they've made efforts to develop their competency for themselves. Also, similar tendency was observ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adolescents' competency. However, they have difficulty in

expressing or improving their own competency because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ve awareness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experts and hands-on workers require 3 things. First, strengthening accurate assessment in the beginning of their entrance to South Korea,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and family support. Seco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Finally, improving awareness for north korean refugees. I mentioned that it is necessary to motivate for them to live their lives and prepare their diverse competency development plan for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result I suggested competency development foundation construction, system reform for empowerment, competency improvement program development, awareness improvement plan preparation for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support systematization

Keyword :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Competency, Support system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윤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빗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08-0(93330)